

국립국어원 2007-1-25 경남

발간 등록 번호
11-1370252-000073-14

2007년 경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연구 책임자 : 김정대

연구 보조원 : 박근배, 박성미

조사 지역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국립국어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07년도 경남 지역어 조사 및 전사’에 관하여 위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7년 12월 20일

연구책임자 : 김정대

연구보조원 : 박근배 / 박성미

2007년
경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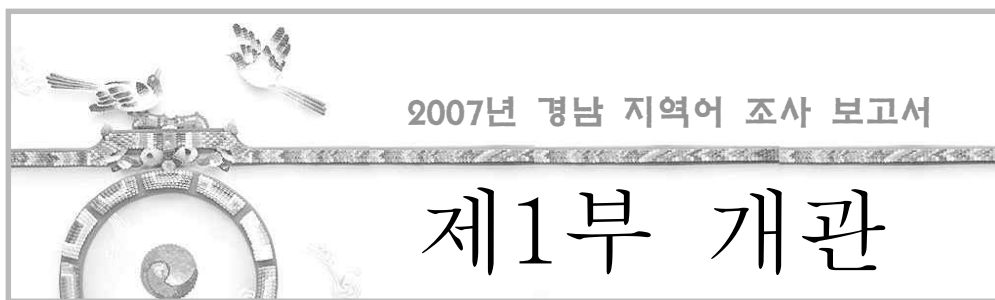
목 차

제1부 개관	7
1. 조사 과정	9
2. 전사 원칙과 기호	17
3. 산청 지역어의 성격	18
4. 조사 일지	20

제2부 전사 자료	33
제 1 편 구술발화	35
제 2 편 어휘	185
제 3 편 음운	236
제 4 편 문법	266

제3부 제출 자료(별첨)

- 1) 보고서 100부
- 2) 보존용 48,000hz, 전사 파일용 16,000hz 파일 및 전사 trs 파일
- 3) 조사된 질문지
- 4)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 5) 제보자 조사표
- 6) 지역어 자료 활용 동의서



1. 조사 지점
2. 전사 원칙과 기호
3. 산청 지역어의 성격
4. 조사 일지

1. 조사 과정

1.1. 조사 지점 개관

2007년도 경남 지역어 조사 지점인 산청군 산청읍 부리(山淸郡 山淸邑 釜里)는 내부(內釜) 마을과 외부(外釜) 마을로 나누어져 있다. 원래 내부 마을은 ‘안가매골[앙까매골(HHL L)1]’로, 외부 마을은 ‘밖에가매골[바께가매골(LLHLL)]’로 불렸던 곳이다. 1970년대의 새 마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각각 ‘안부리[암뿌리(HHL)]’, ‘밖에부리[바께뿌리(LLHL)]’로 불리게 되었는데, 이것을 한자화한 것이 ‘내부’와 ‘외부’이다. 이 마을이 ‘가매(釜)’라는 이름과 관련을 맺게 된 것은, 산 속에 파묻혀 있는 마을의 형국이 가마솥과 닮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두 부리 마을 중 내부 마을이 이번 조사 지점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주제보자 이**(李**) 할머니가 18세 되던 해인 1944년에 결혼하여 시집왔을 때만 해도 내부 마을은 40여 가구가 살았던 작지 않은 마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농(離農) 현상의 영향으로 15여 가구만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 되고 말았다.²⁾

내부 마을은 원래 광주노씨(光州盧氏) 집성촌으로 출발했다. 주제보자가 결혼할 당시 가구수였던 40여 가구 중 노씨 집안이 30가구 이상이었고, 합천 이씨 4가구, 수산 김씨 3가구였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 마을이 언제부터 형성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제보자들은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마을은 삼면으로 높지 않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마을 입구에서 보면, 오른쪽(동쪽) 산이 ‘도장골[HLL]’이고, 마주보는(북쪽) 산이 ‘새엣골[LHL]’이며, 왼쪽(서쪽) 산이 ‘매봉재[매봉재. LHL]’이다. 마을의 남쪽은 띄어 있는데, 대치(산청읍, 진주 등지)로 갈 때는 이쪽 길을 이용한다.

이 마을의 특용 산업으로는 ‘누에치기’를 빼놓을 수 없다. 이** 할머니는 시집와서 5년 쯤 지난 뒤부터 얼마(4~5년) 전까지 누에를 쳤다 하니, 40년 이상을 이 일에 종사한 셈이다. 누에를 키우기 위한 별도의 집까지 지을 정도였으니, 그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³⁾ 제보자 내외는 그 덕분에 6남매 모두를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교육을 시킬 수 있었음을 일러 주셨다.

잠업의 발달은 1960년대 말에 산청읍에 제사(製絲) 공장을 짓게 만들었다. 그러나 최근 싼값으로 중국 누에가 수입되는 바람에 누에치기는 이 지역에서 사양 산업이 되었고, 제사 공장도 10여 년 전에 문을 닫았다고 한다. 지금 내부 마을에는 아직도 두 가구에서 누에를 치고 있다. 마을 곳곳에 남아있는 수많은 뿔나무들은 당시의 역사를 오늘에 전해주는 듯했다. 이** 할머니의 구술발화에서 누에치기에 관한, 구체적이고 긴 얘기가 이어진 것은 당

-
- 1) H는 성조가 고조임을, L은 그것이 저조임을 나타낸다. 이는 성조를 ‘고-저’ 이단으로 표시하게 한 지역어 조사 위원회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산청 지역어의 성조는 3단 체계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 글의 ‘2. 산청 지역어의 성격’을 참조하기 바란다.
 - 2) 외부 마을은 내부 마을보다 규모가 크다. 모두 네 ‘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세말:동네(LLLH), 아래까말:(LLHH), 중말:(LH), 사라물리(LLHL)’가 그것이다. 외부 마을은 지금도 40여 가구가 된다고 한다.
 - 3) 이 별채는 3년 전에 황토집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제보자 내외의 본채는 4~5년 전에 중창한 것이라고 한다.

연한 일이라 하겠다.

누에치기를 빼고 나면 나머지 생업 활동은 여느 시골 마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마을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농지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그리고 그나마 천수답이 많다는 점 등이 특색이라면 특색일 수가 있다. 내부 마을 어귀에 저수지가 들어선 것은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불과하다. 새마을 사업의 덕분이었다. 여느 시골 마을과 마찬가지로 내부 마을도 새마을 사업으로 하여 진입 도로가 넓어졌고, 지붕과 담장 등이 개량되는 등 적지 않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지금은 마을의 웬만한 곳까지 승용차가 다닐 수 있지만, 30여 년 전까지는 그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한다.

이 마을 사람들의 ‘당산’에 대한 믿음은 특별하다. 당산 할머니는 마을 초입에 있는 기목나무(느티나무)를 중심으로, 당산 할아버지는 마을 뒷산 참나무를 중심으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얼마 전까지는 음력 선달 그믐날 저녁에 고사를 지냈는데, 지금은 음력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행사를 진행한다. 마을 사람들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제주(祭主)가 되는데, 상(喪)이나 출산 등 부정한 일이 있는 집은 당연히 순위가 밀리게 된다. 제주는 세 벌의 옷을 마련하는데, 각각 장보러 갈 때⁴⁾, 당산 할아버지께 고사를 지낼 때, 당산 할머니께 고사를 지낼 때 갈아 있는 옷이란다. 이곳 마을 사람들은, 당산 할머니의 ‘기’가 대단히 세기 때문에 외침자로부터 마을을 굳건히 지켜냈다고 지금도 믿고 있다. 손님(마마)이 들어오지 못한 것도, 지리산 자락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빨치산과 관련된 피해가 없었던 것도⁵⁾ 모두 당산 할머니의 덕분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부리 마을은 산청읍 관할이기 때문에 모든 생활권은 산청읍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읍내까지는 걸어서 20~30분이면 충분하다.

1.2. 조사 기간

- 산청군 차황면 상중리 : 2007. 2. 9. ~ 4. 20.
- 산청군 산청읍 부리 (안부리 마을) : 2007. 5. 4. ~ 12. 13.

1.3. 제보자 ①

1.3.1. 주제보자

- 이름 : 이
- 나이 : 81세(1927년생)
- 출생지 : 경남 산청군 신안면
- 거주지 : 경남 산청군 산청읍
- 선대 거주지 : 경남 산청군 신안면

4) 집집마다 5천원~6천원의 돈을 내어 장을 보게 한다고 한다.

5) 1950년 한가위 때 쫓겨가던 인민군 한 소대가 이 마을로 들어왔다. 그러나 그들은 하룻밤을 이곳에서 묵고는 다음날 썰물빠지듯 사라졌다고 한다. 당시 우리나라 곳곳에는 빨치산이니 보도연맹이니 하여 좌익과 관련된 적지 않은 사건·사고가 있었지만, 이 마을은 인민군들이 한차례 들렀다 물러난 것 외에는 그 어떤 희생도 없었다는 것이다.

- 직업 : 농업, 양잠업
- 경력 : 현 거주지에서 농업과 양잠업에 종사
- 학력 : 간이학교 2년
- 제보자 소개 과정 : 경남 산청읍 산청읍사무소 부읍장님의 소개(‘조사 일지’ 4월 20일자 및 5월 4일자 참조)
- 제보자의 특기 사항: 성격이 활달하고 웃음이 많은 편. 한 번 열기가 오르면 말이 매우 빨라짐. 표준어에 대한 지식이 많은 편임.
- 제보자의 음성적 특징 : 연세에 비해 꽤 또렷한 편임.

1.3.2. 보조 제보자

- 이름 : 노 → 주제보자의 남편
- 나이 : 86세(1922년생)
- 출생지 : 경남 산청군 산청읍
- 거주지 : 경남 산청군 산청읍
- 선대 거주지 : 경남 산청군 산청읍
- 직업 : 농업, 양잠업
- 경력 : 현 거주지에서 농업과 양잠업에 종사
- 학력 : 무학
- 병역 : 미필
- 보조 제보자의 특기 사항 : 20대 초반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일본에서 몇 년간 거주했음.
- 보조 제보자의 음성적 특징 : 몸이 불편하여 발음이 분명하지 않은 편임.
- 참고 : 남자들이 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주제보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음.

1.4. 조사자

- 이름 : 김정대(경남대학교 교수)/박근배(경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 조사 일시 : 2007년 5월 4일 ~ 12월 13일
- 조사 장소 : 주제보자의 집
- 조사 내용
 - ① 구술 발화 파일 1, 2, 6, 8, 11, 15, 26, 31, 34, 35, 41, 43, 47
 - ② 어휘 파일 3, 4, 5, 7, 9, 10, 12, 13, 14, 22, 23, 24, 25, 27, 28, 29, 30, 32, 33, 42, 44, 45
 - ③ 음운 파일 16, 17, 37, 38, 39, 40
 - ④ 문법 파일 18, 19, 20, 21, 36, 46

파일	녹음 시간	조사 항목	제보자	조사자	조사일
SGN_SC_01	00:03:41	자유발화 녹음기와 마이크 시험	노**	김정대 박근배	5월 4일
SGN_SC_02	00:05:29	자유발화 녹음기와 마이크 시험	이**	김정대 박근배	5월 4일
SGN_SC_03	00:12:21	어휘 20101 벼 ~ 20105 모판	이** 노**	김정대 박근배	5월 4일
SGN_SC_04	00:46:16	어휘 20106 쟁기 ~ 20123 애벌매다	이** 노**	김정대 박근배	5월 4일
SGN_SC_05	01:04:24	어휘 20124 논둑 ~ 20211 벧짚	이** 노**	김정대 박근배	5월 4일
SGN_SC_06	00:43:27	구술발화 1.1. 조사 마을의 환경과 배경	이** 노**	김정대 박근배	5월 4일
SGN_SC_07	00:52:32	어휘 20212 새 썰기 ~ 20316 껍질	이** 노**	김정대 박근배	5월 18일
SGN_SC_08	00:51:06	구술발화 1.5. 식생활	이** 노**	김정대 박근배	5월 18일
SGN_SC_09	01:09:45	어휘 21401 곡식 ~ 20533 더덕	이** 노**	김정대 박근배	5월 18일
SGN_SC_10	00:51:55	어휘 20601 쌀밥 ~ 20713버섯	이** 노**	김정대 박근배	6월 1일
SGN_SC_11	00:54:12	구술발화 1.4. 의생활 자유발화	이** 노**	김정대 박근배	6월 1일
SGN_SC_12	01:09:47	어휘 20714 콩나물 ~ 20842 개다리소반	이** 노**	김정대 박근배	6월 1일
SGN_SC_13	00:56:25	어휘 20901 안방 ~ 20941 호룽	이** 노**	김정대 박근배	6월 2일
SGN_SC_14	01:01:27	어휘 21001 지붕 ~ 21120 모서리	이** 노**	김정대 박근배	6월 2일
SGN_SC_15	00:46:43	자유발화 고사리 채취에 대하여	이** 노**	김정대 박근배	6월 2일
SGN_SC_16	01:29:14	음운 31001 테 ~ 31052 과자	이** 노**	김정대 박근배	6월 29일
SGN_SC_17	00:41:33	음운 31053 일 ~ 31088 적다(少)	이** 노**	김정대 박근배	6월 29일
SGN_SC_18	00:58:44	문법 40301 -아라 ~ 40357 -을라	이** 노**	김정대 박근배	6월 30일
SGN_SC_19	00:31:21	문법 40201 -이/가 ~ 40229 -커녕	이** 노**	김정대 박근배	6월 30일

파일	녹음 시간	조사 항목	제보자	조사자	조사일
SGN_SC_20	01:51:58	문법 40230 -은/는 ~ 40908 -나/는가 보다	이** 노**	김정대 박근배	7월 7일
SGN_SC_21	00:55:42	문법 41001 실컷 ~ 41116 아닌 땀 굴뚝에 연기나라	이** 노**	김정대 박근배	7월 7일
SGN_SC_22	01:45:54	어휘 21201 마을 ~ 21265 여남은	이** 노**	김정대 박근배	7월 20일
SGN_SC_23	01:33:20	어휘 21301 치마 ~ 21443 다듬이질	이** 노**	김정대 박근배	7월 20일
SGN_SC_24	01:50:15	어휘 21501 설날 ~ 21641 솟돌	이** 노**	김정대 박근배	7월 21일
SGN_SC_25	00:54:54	어휘 21642 맷돌 ~ 21742 도롱이	이** 노**	김정대 박근배	7월 21일
SGN_SC_26	00:44:28	자유발화 마을 어른들을 모시고 마을에 대하여	이** 노**	김정대 박근배	7월 21일
SGN_SC_27	01:52:59	어휘 21801 이마 ~ 22018 명울	이** 노**	김정대 박근배	8월 29일
SGN_SC_28	00:50:22	어휘 22019 가랑이 ~ 22136 잠꼬대	이** 노**	김정대 박근배	8월 29일
SGN_SC_29	01:43:04	어휘 22201 입덧 ~ 22307 형	이** 노**	김정대 박근배	10월 5일
SGN_SC_30	00:57:50	어휘 22308 아우 ~ 22333 새색시	이** 노**	김정대 박근배	10월 5일
SGN_SC_31	00:36:10	자유발화 추석을 쇠고 난 후 추석 보낸 이야기	이** 노**	김정대 박근배	10월 5일
SGN_SC_32	01:38:16	어휘 22234 시아버지 ~ 22379 사투리	이** 노**	김정대 박근배	10월 12일
SGN_SC_33	01:02:03	어휘 22401 물고기 ~ 22521 반딧불	이** 노**	김정대 박근배	10월 12일
SGN_SC_34	00:13:50	구술발화 1.3. 생업활동	이** 노**	김정대 박근배	10월 12일
SGN_SC_35	00:34:27	구술발화 1.3. 생업활동	이** 노**	김정대 박근배	10월 12일
SGN_SC_36	01:05:09	문법 40101 나 ~ 40128 저리	이** 노**	김정대 박근배	10월 13일
SGN_SC_37	01:02:06	음운 32001 막-(防) ~ 32046 가-(去)	이** 노**	김정대 박근배	10월 13일

파일	녹음 시간	조사 항목	제보자	조사자	조사일
SGN_SC_38	00:09:54	음운 32047 먹-(食) ~ 32058 쉽-(易)	이** 노**	김정대 박근배	10월 13일
SGN_SC_39	01:42:14	음운 32060 김-(縫) ~ 32210 쓰다듬-(撫)	이** 노**	김정대 박근배	10월 19일
SGN_SC_40	02:14:30	음운 32211 사납-(猛) ~ 32362 밖-(外)	이** 노**	김정대 박근배	10월 19일
SGN_SC_41	00:51:50	자유발화 김장을 하는 날 김장에 대하여	이** 노**	김정대 박근배	12월 7일
SGN_SC_42	01:28:51	어휘 25522 거미 ~ 22736 올가미	이** 노**	김정대 박근배	12월 7일
SGN_SC_43	00:50:31	구술발화 1.3.3. 가을걷이와 겨우살이	이** 노**	김정대 박근배	12월 7일
SGN_SC_44	01:58:45	어휘 22801 진달래 ~ 23121 진흙	이** 노**	김정대 박근배	12월 13일
SGN_SC_45	01:28:07	어휘 23122 물 ~ 23441 서풍	이** 노**	김정대 박근배	12월 13일
SGN_SC_46	00:03:25	문법 40102 제가	이** 노**	김정대 박근배	12월 13일
SGN_SC_47	00:30:23	자유발화 서류 작성에 필요한 질문들	이** 노**	김정대 박근배	12월 13일
합계	47:41:39				

1.5. 전사

1.5.1. 1차 전사(2007년 7월 ~ 12월)

- 구술 발화 : 김정대, 박근배, 박성미
- 어휘 : 박근배, 박성미
- 음운 : 박성미
- 문법 : 박성미

1.5.2. 1차 점검(2007년 8월 ~ 12월)

- 구술 발화 : 김정대, 박근배
- 어휘 : 박근배
- 음운 : 박근배
- 문법 : 박근배

1.5.3. 2차 점검(2007년 10월 ~ 12월)

- 구술 발화 : 김정대, 박근배

- 어휘 : 김정대, 박근배
- 음운 : 김정대, 박근배
- 문법 : 김정대, 박근배

1.5.4. 3차 점검(2007년 11월 ~ 12월)

- 구술 발화 : 김정대
- 어휘 : 김정대
- 음운 : 김정대
- 문법 : 김정대

1.6. 제보자 ②

1.6.1. 주제보자 ②

- 이름 : 민**(閔**)
- 나이 : 76세(1932년생)
- 출생지 : 경남 산청군 차황면 상중리
- 거주지 : 경남 산청군 차황면 상중리
- 선대 거주지 : 경남 산청군 차황면 상중리
- 직업 : 농업
- 경력 : 현 거주지에서 농업에 종사
- 학력 : 초등학교 졸업
- 병력 :
- 제보자 소개 과정 : 조사 위원인 제자인 박** 양의 외가 동네
- 제보자의 특기 사항 : 어떨 때는 과격한 성격을 드러낼 때가 있음.
- 제보자의 음성적 특징 : 대체로 양호함.
- 참고 : 두 차례 조사를 한 뒤, 제보자를 바꾸게 됨.

1.6.2. 보조 제보자 ②

- 이름 : 박**(朴**) → 주제보자의 부인
- 나이 : 75세(1933년생)
- 출생지 : 경남 산청군 오부면 중방곡
- 거주지 : 경남 산청군 차황면 상중리
- 선대 거주지 : 경남 산청군 오부면 중방곡
- 직업 : 농업
- 경력 : 현 거주지에서 농업에 종사
- 학력 : 무학
- 보조 제보자의 특기 사항 : 제대로 조사를 하기도 전에 조사를 중단하게 되어 잘 알 수가 없음.
- 보조 제보자의 음성적 특징 : 꽤 좋은 편임.

1.6.3. 조사 개관

- 조사자 : 김정대(경남대학교 교수)/박근배(경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 조사 일시 : 2007년 2월 9일 ~ 4월 20일
- 조사 장소 : 주제보자의 집
- 조사 내용

파일	녹음 시간	조사 항목	제보자	조사자	조사일
SGN_SC_48	00:08:35	자유발화 녹음기와 마이크 실험	민** 박**	김정대 박근배	2월 9일
SGN_SC_49	00:36:21	구술발화 친족어에 대하여	민** 박**	김정대 박근배	2월 9일
SGN_SC_50	00:40:09	구술발화 친족어에 대하여	민** 박**	김정대 박근배	2월 9일
SGN_SC_51	00:28:40	구술발화 친족어에 대하여	민** 박**	김정대 박근배	2월 9일
SGN_SC_52	00:39:17	구술발화 친족어에 대하여	민** 박**	김정대 박근배	2월 9일
SGN_SC_53	01:03:01	구술발화 마을 들여다보기	민**	김정대 박근배	4월 20일
SGN_SC_54	00:41:11	어휘 20101 벼 ~ 20121 김	민**	김정대 박근배	4월 20일
SGN_SC_55	01:00:20	어휘 및 구술발화 20122 김매다 ~ 20134 거름	민**	김정대 박근배	4월 20일
합계	05:17:34				

2. 전사 원칙과 기호

첫째, 전사는 한글 약식 음성 전사 방식을 취한다.

둘째, 이 지역어에서는 ‘으/어’의 구별이 없어, 이 음운에 대한 발음이 음성적으로 현저하게 ‘으’에 가까우면 ‘으’로, 현저하게 ‘어’에 가까우면 ‘어’로 적되, ‘으’도 ‘어’도 아닌 어중간의 발음은 해당 어휘의 표준어 어형을 고려하여 그것에 따라 적는다.

셋째, ‘외/위’는 변한 발음대로 적는다. 그것이 ‘으/어’와 관련되는 발음으로 변했다면, 이 경우는 ‘으/어’ 전사 원칙에 따라 적는다.

넷째, 자음 뒤에 오는 j계 이중모음은 물론, w계 이중모음도 단모음으로 발음되는 것이 이 지역어의 큰 특색인바, 이렇게 제약을 받는 이중모음에 대한 발음 역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다섯째, 성조 표시는 지역어 조사 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고(H)-저(L)’ 2단으로 표시하는데, 고조일 경우에만 작은따옴표 “”로써 이를 표시한다. 그러나 구술 발화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여섯째, 이 지역어에는, 중양어 등 다른 방언에 비해 비의미적인 것이 많긴 하지만, 장음도 존재한다. 장음은 ‘:’로써 표시하고, 부사 등에 얹히는 표현적 장음에는 ‘::’ 표시를 한다.

일곱째, 비음은 ‘~’로써 표시한다.

여덟째, 구술 발화에서 청취가 불가능한 부분 또는 표준어로의 대역이 불가능한 경우는 ‘*’으로써 나타낸다. 구술 발화 이외의 곳에 쓰인 ‘*’ 표시는 해당 어형이 이 지역어에 없다는 뜻이다.

아홉째, 청취나 표준어 대역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은 ‘?’로써 나타내었다.

열째, 그 밖에 쓰인 기호는 다음과 같다.

- (+ 버)(+ 머) : 제보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발음이나 어형이 서로 차이가 날 경우.
- (+ 신)(+ 구) : 신형과 구형.
- (+ 비) : 비칭.
- (+ 다)(+ 소) : 많이 쓰이는 경우와 적게 쓰이는 경우.
- (+ 조?) : 제보자의 발화를 조사자가 의심스러워하는 경우.
- (+ 제?) : 제보자가 스스로의 발화를 의심스러워하는 경우.
- @ : 구술 발화에서의 조사자 표시.
- # : 구술 발화에서의 주제보자 표시.
- ## : 구술 발화에서의 보조 제보자 표시.
- 그 밖의 (+) : 필요한 설명 첨가.

3. 산청 지역어의 성격

본 조사자는 이번 산청군 산청읍 부리 내부마을의 방언을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하고 다른 자료를 더 보태어, 「산청 지역어의 성격: 창원 지역어와의 대조를 통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논문은 애초 한국문학언어학회의 2007년 하계 전국 학술발표대회⁶⁾에서 기획 논문의 하나로 준비된 것이다. 발표 당시 경상대학교 황병순 교수께서 유익한 토론을 해주셨다. 그때 발표한 내용에다 일부를 수정하고 보완한, 같은 제목의 논문은 『어문론총』 제 47호⁷⁾에 실리게 된다.

다음은 이 논문에 실린 산청 지역어 성격을 요약한 것이다.

먼저, 음운면에서 본 산청 지역어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산청 지역어는 현대 한국어 표준어의 19자음에, 후음 ‘ㅇ(?)’을 더한 20자음 체계이다. 이 지역어 단모음은 /이(i), 에(e), 애(ɛ), 으~어(ʌ), 우(u), 오(o), 아(a)/ 7모음 체계이고, 이중모음은 5개의 ‘j’계 이중모음(예[je], 여[jɛ], 유[ju], 요[jo], 야[ja])과 1개의 ‘w’계 이중모음(와[wa])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역어 성조 체계는 /고조(H), 중조(M), 저조(L)라는 3개의 성조소로 구성된 3단 체계인데, 이 사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에서 확인된다. 첫째, 단음절로 된 최소 대립쌍의 발화에서 높낮이의 차이가 인지된다. 둘째, 첫째의 대립쌍(최소 변별쌍)들은 곡용이나 활용을 할 때 성조형이 서로 다르다. 셋째, 동음어나 그와 비슷한 어절들의 대조를 통하여 3단 구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산청 지역어 성조 실현 양상은 상당 부분, 창원 지역어 등 전형적인 중부 경남 방언의 그것과 일치하지만, 일부 단음절 체언(눈:<雪>, 매:<驚>, 줄:<연장> 등)과 어미 ‘-지’가 통합하는 일부 용언의 성조 실현 양상은 서로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단음절 체언의 경우, 중부 방언에서는 ‘저조’로 실현되지만, 산청 지역어에는 ‘고조’로 실현되고, ‘-지’ 통합체의 경우, 전자에서는 ‘막찌₁(막지)’ 등으로 실현되는 데 반해, 후자에서는 ‘막₁찌(막지)’ 등으로 실현되는 것이다.⁸⁾ 그러나 이 보고서는 성조를 고-저 2단으로만 표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의 표기법과 보고서에서의 표기법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참고로 덧붙여 둔다.

공시 음운 과정과 음운 규칙으로는 활음화와 어미 초 ‘어’의 완전 순행동화, 그리고 음절 말 자음군 단순화를 살펴보았다. 전자에서는 창원 지역어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산청 지역어 역시 완전 순행동화의 폭이 넓음을 알 수 있었다. <보기> 깨애₁도₁, 깨앸따₁(破); 기³이³도, 기³일³따(匍匐); 내³리도, 내³릴따(降); 주우₁도₁, 주운₁따₁(拾) 등. 후자의 경우, 받침 ‘러’이 그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었는데, 산청 지역어는 ‘ㄱ’으로 단순화되는 것이 규칙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기> 목꼬₁, 목찌₁, 물가₁도₁(물-. 淸) 등.

6) 2007. 7. 6.~7. 7., 경남 산청군 남명문화관.

7) 2007. 12. 30. 간행 예정임.

8) 윗 첨자 ³은 성조가 고조임을, 아래 첨자 ₁은 저조임을,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것은 중조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으로, 문법면에서의 성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칭대명사 ‘나, 너’의 곡용에서 주목되는 것은 목적격 조사 ‘을’을 취할 때 각각 ‘날₁로, 널₁로’처럼 실현된다는 점이다. 처격(여격) 조사 ‘에게’는 이 지역어에서 ‘한³테’로 나타나지만, ‘날₁로(나에게), 널₁로(너에게)’로도 실현되는 점 역시 눈여겨볼 대목이라 하겠다.

이 지역어의 격조사 형태가 표준어의 그것과 다른 점은 목적격 조사, ‘에게’ 처격(여격) 조사, 공동격 조사, 비교격 조사에서 뚜렷이 확인된다. 모음이나 유음 뒤에서는 목적격 조사 ‘로’가 쓰이고, ‘에게’는 ‘한³테’로 실현되고, 공동격 조사는 ‘하³고’가 보편적이며, 차등 비교격 조사로는 ‘카³마’가, 동등 비교격 조사로는 ‘매³이로’가 쓰이기 때문이다.

종결어미는 명령법, 청유법, 의문법(1), 의문법(2), 서술법, 계사 ‘이다’의 의문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모든 문체법에서 이 지역어는 해라체, 하계체, 하이소체는 잘 발달해 있는 반면, 하소체는 지위가 불안정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문법의 경우, 의문사 유무에 따라 어미가 ‘오’계와 ‘아’계로 나누어지고, 서술어가 용언이나 체언이나에 따라 그것이 ‘ㄴ’계와 ‘ㄱ’계로 대별되는(그리하여 ‘-나, -노; -가, -고’의 대립이 성립하는) 경남 방언 특유의 의문법 종결어미 체계를 이 지역어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어휘면에서의 특징 중 통시적 음운 규칙과 관련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표준어에 비해 어두 경음화가 실현되는 어휘가 많다. <보기> ‘까지³(茄子), 깨구³리(개구리), 뚜꾸³비(두꺼비), 땀-(땀-), 뚜꿍³(두꿍-)’ 등등. 둘째, ‘으>오’ 변화를 거친 어휘가 많다. <보기> ‘폴³(팔), 몬³치-(만지-), 뭍-(말-), 뽕-(밭-), 뽕₁-(뽕-)’ 등등. 셋째, 재구조화 양상의 보기는 다음과 같다. <보기> ‘흑, 닥, 칙³’ 등.

순수 어휘적인 어휘 차이에 대해서는 차이나는 상징적인 몇 예를 대상으로 하여 표로 제시했는데, 여기에서는 표준어 ‘사팔뜨기’와 관련하여 이 지역어에서는 매우 다양한 관련 어휘가 있다는 것만 강조하고 나머지는 생략하기로 한다. <보기> 근내³산(눈동자 둘 다가 엉뚱한 데로 보는 눈), 사(:)파³리(한 쪽 눈동자는 정상이고 다른 한 쪽 눈동자가 엉뚱한 데로 보는 눈), 고³리눈(두 눈동자가 안쪽으로 쏠린 눈).

4. 조사 일지

2007년도 경남 지역어 조사 사업은 참으로 더디게 진행되었다. 2007년 2월 9일부터 첫 조사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조사는 같은해 12월 13일에야 끝이 났으니 말이다. 달수만 따지면, 11개월이 걸린 셈이다. 그러나 이것은 집중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가장 좋은 때를 골라서 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조사자와 제보자의 사정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조사자에게는 지역어 조사 사업 말고도 처리해야 할 크고 작은 일들이 끊이지 않고 놓여 있었던 것이다. 거기에다가 제보자를 도중에 바꾸어야 했던 일도, 조사자의 집에서 조사 지점인 산청군까지는 자동차로 2시간 30분 이상이 걸리는 먼 거리였다는 점도 올해 사업을 힘들게 만든 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지역어 조사 사업은, 어느 해보다 부지런을 떨어 보았지만, 그 어떤 해보다도 힘든 작업이었다고 스스로 평가해 본다. 조사에는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박근배 군이 늘 함께 하였고, 전사에는 박 군 외에, 역시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인 박** 양이 수고를 해 주었다.

조사 일지를 남김으로써 앞으로의 조사에 참고로 삼고자 한다.

2월 9일(금), 맑음

일치감치 제보자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3년 동안은 7월 중·하순에 제보자를 선정하는 바람에, 조사가 힘들었다는 경험 때문이었다. 제보자 선정에 대해서는, 위에서 소개한 박** 양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지금은 그 가족이 마산으로 이사를 와 있지만, 박 양은 산청이 고향일 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곳에 외가가 있기 때문이었다. 박 양의 외가는 경남 산청군 차황면 상중리에 있는데, 그곳은 산청군 안에서도 오지에 속하는 곳이었다. 전통적인 방언이 더 많이 살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곳이었다. 조사자(김정대), 박근배 군, 박** 양, 이렇게 세 사람으로 된 우리 일행은 박 양의 작은외할아버지를 제보자로 생각하면서, 오전 10시 무렵에 조사자의 승용차로 경남대학교를 출발했다. 그곳에는 박 양의 외가와 작은외가가 나란히 있는데, 친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작은외할아버지를 염두에 둔 것이다.

산청으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마산에서 아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도 2호선을 타고 진주까지 갔다가 진주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산청에 도착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 후자의 방법을 택했는데, 그것은 경남대에서 고속도로 진입처인 서마산 입체 교차로까지 에돌아가는 시간이 만만찮은 반면, 국도 2호선은 경남대 바로 앞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마산시 진전면에서 진주까지는 최근에 국도 2호선이 새로이 건설된 구간으로, 교통량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속 80Km의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시간적인 면에서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진주에서 산청까지도 국도를 이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산청’이라는 글자가 찍힌 교통영수증은 지역어 조사를 다녔다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진주에서 산청까지는 거의 고속도로를 이용했던 것이다.

낮 12시 무렵에 산청읍에 도착하여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목적지인 차황면 상중리로 향

했다. 박 양의 외할머니로부터 점심은 집에서 먹도록 하겠다는 연락이 왔으나, 지역어 조사 사업을 하면서 ‘민폐’를 끼칠 수는 없기 때문에 정중히 사양했던 터였다. 차황면 중심가에 있는 농협 하나로 마트에 들러 음료 선물 세트 두 개를 샀다. 각각 만 원 정도의 가격이었다. 일만 원 안팎의 선물은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온다는 소식에 박 양의 외할머니, 외삼촌, 외숙모, 작은외할머니께서 미리 기다리고 계셨다. 인사를 나누고 방문의 목적을 설명한 뒤 작은외할아버지의 소재를 여쭙었다. 작은외할아버지는 지금 마을의 무슨 모임이 있어 출타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조사자의 승용차를 타고 외숙모의 안내를 받아 그곳까지 가서 박 양의 작은외할아버지를 뵈 수 있었다. 80세 전후의, 키가 훗칠한 분이셨다. 최근 청력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접한 것은 그곳에서였다. 방언 제보자로서의 결정적인 흠을 갖고 있는 셈이었다.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외할머니나 작은외할머니도 산청군 출신이라면 좋은 제보자가 될 수 있었지만, 자매인 두분의 고향은 부산이라서 그럴 수도 없었다.

박 양 외숙모의 도움을 받아 마을의 다른 제보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외숙모는 민** 할아버지(1932년생)를 소개해 주셨다. 다시 농협 하나로 마트로 가서 여러 종류의 다과와 음료를 사서는 마을로 돌아왔다. 승용차로 5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였다. 외숙모는 민 할아버지 댁까지 우리를 안내해 주었는데, 그곳에는 부인되는 박** 할머니(1933년생)도 함께 계셨다. 박 할머니의 친절은 차황면과 접경한 오부면이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보자일 수 있다는 생각부터 들었다.

큰절을 한 뒤에 방문 목적을 말씀 드리고, 몇 가지 얘기를 나누었다. 제보자로서 적합한지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였다. 할아버지가 어릴 때 서당에서 공부를 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 다소 마음에 걸리긴 했으나, 실제의 발화에서는 그런 것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제보자로서 적합하다는 생각을 굳히고 앞으로 도와 주실 수 있는지를 여쭙었다. 흔쾌히 그러겠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당시 조사자는 산청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친족어도 조사할 일이 있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국립국어원 질문지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않고, 조사자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질문지를 가지고 친족어 조사에 들어갔다. 일단 좋은 제보자일 것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아직도 모르는 어떤 ‘함정’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과외의 친족어 조사는 이것을 가리는 좋은 방법의 하나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우려되는 대목이 나왔던 것은, 약 1시간이 지난 뒤였다.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한 번 발화한 것을 두 번 세 번 발화하시게 했더니 다소 짜증스러워하시는 것이 ‘우려’의 내용이었다. 어떨 때는 약간 격한 표정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것은 결국 다음 번 조사를 끝으로 우리가 제보자를 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첫 날 조사는 그런 대로 괜찮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집 뒤 대나무밭 아래에 일부러 만들어 놓았다는 주차장, 집 앞 논에서 파릇파릇 돌아나던 보리는 그 뒤에도 줄곧 조사자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5만원의 사례비를 드리고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다는 인사를 남기로 집을 나섰다. 벌써 저녁 5시 30분이 넘고 있었다.

4월 20일(금), 맑음

첫 조사를 하고 나서 약 40일이 지나고서야 두 번째 조사를 나갈 수 있었다. 민 할아버지께 미리 전화를 했더니 괜찮다고 하셨다. 금요일은 강의가 없는 날이라, 박근배 군과 둘이

서 출발할 수 있었다. 일찍 출발했던 관계로 상중리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 정도였다. 오랜만에 들렀기에 인사를 드리려 먼저 박** 양의 외가부터 찾았다. 그러나 외할머니도 외숙모도 외삼촌도 만날 수 없었다. 할머니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관광을 떠나셨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불일이 있어서 집을 비우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박 양의 어린 외사촌 동생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사 가지고 온 음료수(두유)를 어린 동생에게 건네고 민 할아버지 댁으로 향했다.

우리가 온다는 말에, 할아버지는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그 사이 논밭의 보리는 벌써 이삭이 패었지만, 할아버지 댁 앞의 보리는 이미 베어지고 난 뒤였다. 아마도 사료용 보리였던 모양이다. 이날 오전의 조사는 매우 만족스러운 것이었고, 오후의 조사는 참으로 참담하게 끝난 것이었다. 박** 할머니도 관광차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우리는 할아버지만을 대상으로 하여 방언 조사 작업에 들어갔다.

구술 발화의 처음은 ‘마을 들여다보기’이다. 마을의 유래와 성씨 등등을 녹음하고 난 뒤 유기농 농사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차황면의 쌀은 청정미로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그것이 바로 오리를 논에다 풀어놓음으로써 가능했다는 이야기를 실감나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오전의 구술 발화는 63분 동안 진행되었다. 어휘 조사는 ‘농사’의 ‘벼~거름’까지 이루어졌다.

벌써 오후 1시 30분이었다. 오후 조사를 약속하고 우리는 차황면 중심가로 가서 점심을 들었다. 농협 하나로 마트가 있는 부근이었다. 그런데 이날 점심시간이 민 할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끝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줄은 아무도 몰랐다. 할아버지는 혼자서 점심을 하시면서 약주를 한잔 하셨는데, 이것이 오후 조사를 엉뚱한 곳으로 몰고가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식사 후 조사자는 몇 장의 마을 풍경을 사진기에 담고는 조사 지점으로 향했다.

오후 조사는 2시 40분부터 시작되었다. 어휘 조사를 계속하려는데, 갑자기 제보자 할아버지가 이런 조사를 왜 하느냐고 따지기 시작했다. 지난 번 첫 인사 때 조사 목적을 분명히 밝혔고, 할아버지가 그것을 받아들였던 터라, 우리는 순간 당혹스러웠다. 할아버지는 ‘변화’를 강조하셨다. 모든 것이 변하는데, 사투리도 시대가 흘러가면 사라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조사해서 뒤통에 쓰려느냐, 이런 말씀이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다. 조사자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사라지니까 더 사라지기 전에 잘 보존해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러나 할아버지의 논리는 단호하기까지 했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인데, 뭐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는 것이었고, 마침내는 이 일은 내세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종교 문제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당시 할아버지는 어느 종교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따님과 종교 문제로 크게 마찰을 빚고 있던 터였다. 따님에 대한 불만이 우리의 방언 조사로 불뚝이 튀었던 것이다. 화가 단단히 나 있는 할아버지의 설교조의 말쑥은 약 1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녹음되고 있었다. 조사자는 감히 말하고 싶다. 경상도 사람들의 말은 빠르고 무뚝뚝하며 억세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꼭 무슨 싸움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정말 경상도 사람들이 싸움하기 직전의 언쟁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민 할아버지의 이 녹음 내용을 들어보라고. 정말로 대단한 빠르기의 억센 경상도 사투리가 그대로 녹음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전사될 수 없을 것이다.

제보자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이상의 조사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하는데, 언제 또 이런 ‘불상사’가 안 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더 이상 저희를 도와 주시지 않으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하고, 소정의 사례비를 드

린 뒤 작별 인사를 나누었는데, 뭔가가 가슴속에 남아 있는 기분이었다. 오후 3시 50분 무렵의 일이었다. 박 양의 외가에는 이 사실을 알려 드려야겠다 싶어 다시 외가를 찾았다. 외출 중이었던 외숙모가 돌아와 계셨다. 민 할아버지의 건강 문제로 더 이상 조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가 미안한 일이었다. 특히, 박** 양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박 양도 미안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다른 제보자를 구하기 위해 산청읍 사무소를 찾은 것은 그로부터 30분이 지난 뒤였다. 방문 목적을 들은 어느 여직원은 친절하게 우리를 부읍장님(박** 님)께로 안내해 주었다. 조사자와 거의 같은 연배로 보이는(실은 두 살이 위였다) 부읍장님과 첫인사를 나누고, 이런 요건에 해당하는 할아버지-할머니 부부면 제일 좋겠으니 부디 도와 달라고 간곡히 말씀을 드렸다. 부읍장님은 캐히 승낙을 하셨다. 결과를 알기 위해 며칠 뒤 조사자가 전화를 드린다고 하고는 읍사무소를 나섰다.

읍사무소에서 고속도로 진입로까지는 10분 남짓한 거리다. 톨게이트를 막 통과하는데 부읍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적당한 제보자가 계신데 이왕이면 오늘 만나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었다. 그 사이 부읍장님은 벌써 몇 군데로 전화를 하셨던 모양이었다. 참으로 고마웠다. 그러나 차를 다시 돌리기가 어려워 다음번에 찾아뵙겠다고 하고는 마산으로 차를 몰았다.

5월 4일(금), 맑음

오늘은 먼저 산청읍 사무소의 부읍장님부터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새 제보자 선정 문제 때문이었다. 부읍장님은 후보자로 두 군데를 찍어 두었다고 하셨다. 한 군데는, 우리가 무사히 올해 방언 조사를 마칠 수 있었던 산청읍 부리였고, 다른 한 군데는 부읍장님 고향 마을이었다. 전자는 제보자 부부자 80세를 넘은 곳이었고, 후자는 제보자 부부가 70대 후반인 곳이었다. 부읍장님은 먼저 부리부터 가보는 게 어떠냐고 하셨다. 좋다고 했다. 마음 한구석에는, 두 분 다 팔순을 넘으셔서 건강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남아 있기도 했다.

읍사무소에서 부리 마을까지는 승용차로 5분 남짓한 가까운 거리였다. 마을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차를 세우고 걸어서 제보자 후보의 집으로 걸어가는 도중에, 부읍장님은 벌써 여러 사람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다. 이전부터 서로 면이 많은 사이들이었던 것이다. 부읍장님의 소개로 우리도 마을 이장님, 새마을 지도자 분과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오늘 이렇게 작은 시골 마을이 붐비고 있는 것은 내일 행사 준비 때문이었다. 이 마을은 이 마을에 남아 있는, 상대적으로 젊은 장정들이 주축이 되어 일 년에 한 번씩 마을의 어른들과 고향을 떠나 있는 분들을 초청해 경로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날짜가 바로 내일이었던 것이다.

만약, 부읍장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이곳을 들렀더라면, 이 마을의 많은 사람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제보자를 선정할 때 군청, 읍면 사무소 공무원이나 마을 이장 등의 소개를 받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는 충고가 결코 거짓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 시계는 오전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87세의 노** 할아버지, 83세의 이** 할머니. 이 두 분이 우리의 첫 번째 예비 제보자였다. 두 분 다 생각보다 젊어 보여 다행이었다. 인사를 올리고 목적을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테스트를 했다. 할아버지는 말씀도 좀 어눌하시고 기억력도 조금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60대로 착각할 정도로 활기에 넘쳐 있었다. 웃음이 많은 분이어서 다행이었다. 할머니를 주제보자로 하고 할아버지를 보조 제보자로 하기로 마음먹었고, 노부부는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 할머니는 같은 산청군 신안면이 친정이었던 것이다. 할머니는 누에치기 이야기부터 들려 주셨다. 앞(마을 소개)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이 마을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누에치기가 특용 사업이었다. 우리는 두 채 되는 집 가운데서 아래채에서 인사를 나누었는데, 이 집은 원래 누에치기를 위해 지은 집이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을 3년 전에 황토집으로 새로 단장을 하게 되었다 한다.

새 제보자를 선정하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오후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하고 읍내로 내려왔다. 부읍장님이 고마웠다. 모시고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 식사 후 약간의 시간을 활용하여 경호강 가에서 바람을 쐜었다. 지금 산청에는 ‘제7회 산청한방약초축제’로 많은 관광객이 몰려와 있었다. 경호강변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 있었고, 곳곳에 축하 애드벌룬들이 떠 있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된 조사는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이었다. 어휘 중 ‘농경’ 부분은 ‘벼~뽕집’까지 진행되었는데, 모두 165분이 녹음되었다. 차황에서 이미 조사했던 것을 다시 조사하려니 기분이 좀 묘했다. ‘이삭’을 ‘모개미/모감지’로, ‘뽕’을 ‘베룻’이라 하는 등 다소 특이한 어휘들이 조사되었다. 구술 발화 역시 ‘마을 들여다보기’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시집’과 관련되는 이야기만 나오면 할머니는 꽤 활발한 성격이 침울하게 바뀌고, 또 할아버지에 대해 무언가 공격적인 말투가 이어지곤 했던 것이다. 젊은 날, 할아버지가 무슨 바람을 피워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 나중에 짐작하게 된 사실이지만, 할머니는 워낙 가난한 집안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왔다는 사실이 내내 가슴속 응어리처럼 남아 있었던 모양이었다. 이 부분으로 하여, 조사자는 마음놓고 집안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꺼내기가 힘들어졌다는 점을 여기에서 밝혀 두고자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말하면, 할머니는 좋은 제보자였다. 두 분의 도움으로 끝까지 이곳 방언을 조사할 수 있었던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어 두었다. 대나무 갈퀴, 돌 절구통, 도리깨, 엉그리,⁹⁾ 다듬잇돌과 그 방망이, 낫·호미·괭이 등 여러 농기구와 같은 전통적인 것뿐만 아니라, 제보자 부부의 사진, 그리고 제보자의 집에서 바라보이는 마을 풍경 일부 등도 사진기에 담아 두었다. 제보자 노부부의 집에는 ‘출랑이’라는 이름의 영리한 개가 한 마리 있다. 실제의 나이가 13살쯤 된다 하니, 사람으로 치면 이미 노년층에 접어든 것이다. 덩치는 자그마하지만, 처음 보는 우리를 경계하여 짖는 품이 예사롭지 않았다.

5월 18일(금), 맑음

새 제보자를 선정한 뒤 두 번째로 만나는 날이다. 보름 전에 첫인사를 나눈 뒤의 만남이라, 아직 서로의 사이에는 약간의 거리감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조사자는 이 점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도 1만원 안팎에 해당하는 다과와 음료수를 준비했다. ‘출랑이’는 여전히 우리를 쫓으면서 경계했다. 이 녀석을 꼬드기는 방법은 맛있는 과자를 주는

9) 생선이나 떡 등을 찢 때, 솥 바닥에 있는 물에 이것들이 닿지 않도록 둥글게 만든 물건. 주로 대로 만드는데, 이 위에 생선이나 떡 등을 놓는다.

일일 것이다.

방언 조사는 여전히 아래채 황토방에서 진행되었다. 어휘 부분은 ‘농경’의 남은 부분까지 다 조사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제보 사이에 약간의 음운 차이가 감지되는 것이 재미있었다. 조사자는 2004년도 고성 지역어 예비 조사에서부터 부부 사이에서 실현되는 약간의 차이를 모두 조사하곤 했는데, 특히 2006년도 창녕 지역어 조사에서는 그 차이가 자못 현저했음을 실감하고 있던 터였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도 한쪽의 발화를 듣고는 꼭 다른 쪽의 발화도 함께 여쭙어 나갔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사자는 두 분의 발음 성향을 알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일본에서 일하는 등 객지 경험이 많은 때문이었는지, 표준어 사용이 생각보다 많았다. 표준어 사용이라고 하면 할머니 역시 만만찮은 실력을 갖고 계셨다. 의도적으로 표준어 쪽의 발화를 들려 주시려 하기도 했다. 그럴 경우, 조사자는 이 동네에서 쓰는 말로는 어떻게 말하는지를 두 번, 세 번 여쭙어 보곤 했다. 예를 들면, ‘조’를 이 지역에서는 ‘서숙’이라 하고, ‘수수’를 ‘쭈시’라고 하지만, 할머니는 처음에는 이를 각각 ‘조, 수수’라고 답하곤 했던 것이다. 어쩌면 ‘조, 수수’가 이 시대 이 지역의 새로운 어휘로 자리잡았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조사라는 것은 가능하면, 고형(古形)을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던가. 이래저래 조사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 느끼게 되는 점도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구술 발화는 ‘채소 재배, 산나물·들나물 채취 방법’ 등 자연 현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한정했다. 집안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지난 번(5월 4일) 조사 때처럼 할머니의 태도가 경직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두 번의 쉬는 시간을 포함하여 이날 소요된 총 시간은 모두 3시간 30분이었다.

6월 1일(금), 맑음

2주가 지난 뒤, 세 번째로(처음부터 치면 다섯 번째로) 산청을 찾았다. 이번은 1박 2일을 염두에 두고 왔다. 1박 2일의 경우, 첫 날은 오후에, 둘째 날은 오전에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날씨가 이미 더워지고 있었기 때문인지, 제보자 내외는 이제 위채 마루에서 우리를 맞아 주셨다.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가 처음 시도한 것은 벽에 걸려 있는 패종시계의 추를 멈추게 하는 일이다. 시계추의 똑딱거리는 소리는 의외로 또렷이 녹음되기 때문이다. 지난 번 과자로 환심을 산 것이 주효해서일까, ‘출랑이’는 우리를 반겨 맞아 주었다. 짓기는 했으나, 그것은 이미 경계를 위한 짓음이 아니라 반가움의 표시라는 것을 조사자는 잘 안다.

이제 제보자 부부는 우리의 작업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계셨다. 어휘 부분은 주제에 따라 주제보자를 바꾸어 가면서 조사를 실시했다. ‘농사’ 관련 어휘 일 때는 할아버지를 주제보자로, ‘음식’ 관련 어휘일 때는 할머니를 주제보자로 활용한 것 등이 그러한 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할머니의 몫이 커졌는데, 그것은 할아버지의 건강 문제와 발음 문제 때문이었다. 그러나 보조 제보자의 어형을 확인하는 일은 잊지 않았다. 구술 발화의 주제보자는 할머니로 주로 했는데, 그것은 할머니의 발음이 더 똑똑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구술 발화에서도 농사 등 남자들의 몫이 큰 것에 대해서는 할아버지를 주제보자로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휘는 ‘음식’과 관련된 모든 항목의 조사를 이날 끝마칠 수 있었다. 구술 발화는 할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자유 발화 형식을 취했는데, 그것은 이 마을이 누에치기와 깊은 인연이

있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누에치기 그리고 베짜기, 이 두 가지가 오늘의 구술 발화 주제인 셈이다.

저녁에 읍내 어느 모텔에 여장을 풀었다.

6월 2일(토), 맑음

오전 조사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설령탕으로 아침을 때우고 서둘러 부리 마을로 향했다. 약속 시간을 오전 9시로 잡아 두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아침 일을 끝내고 오신 모양이었다. 옷차림이 들에서 막 돌아오신 차림이었기 때문이다. 새벽부터 무슨 일을 하고 오셨느냐고 여쭙었더니, 고사리를 꺾어 오셨단다. 나중에 구술 발화의 좋은 소재감이 될 것이라 믿고, 어휘 조사부터 들어갔다.

어휘의 조사 항목은 어느덧 제3장 ‘가옥’에 들어서 있었다. 이날은 ‘가옥’의 절반에 해당하는 100여 개 어휘를 조사했다. 구술 발화는 예정된 고사리 채취라는 자유 발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갔다. 질문지에는 이런 항목이 소략하게 나와 있지만, 조사자는 좋은 내용이면 질문지 형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놀랍게도 채취한 고사리는 뒷산에서 꺾어 온 것이 아니라, 논에서 키우는 것이란다. 고사리도 논에서 재배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두 사람을 제보자 내외가 굳이 만류하셨다. 점심식사를 하고 가라는 것이었다. 뿌리치다 못해 점심 신세를 지게 되었다. 반찬으로 올라온 것은 상추쌈, 물김치 등 모두 이곳에서 생산되는 채소류를 이용한 것이었다. 문득, 2004년도 예비 조사 때 고성군 하일면 송내리에서 당시 제보자 할머니께서 매번 차려 주시던 점심 상.(할머니는 그냥 정성으로 차려 주신 것이었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어서 조사자는 그것을 나중에 모두 계산하는 형식을 취하긴 했다.) 그리고 2005년도 창원시 동읍 용강리에서 본격적인 첫 조사를 하던 때 제보자 할머니가 차려 주시곤 했던 점심 상 생각이 났다.

맛있게 점심을 먹고 다음 날을 예약하고 자리를 뜨니 시각은 이미 오후 2시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6월 29일(금), 맑음

6월에는 초에 이틀, 말에 이틀 이렇게 네 번을 조사하게 되었다. 이번에도 1박 2일을 생각하고 학교에서 출발했다. 출발 시각, 도착 시각, 점심식사 시간 및 장소, 간단히 사서 가져가는 다과와 음료의 종류는 이제 거의 고정되어 있다. 제보자 부부와의 이제는 상당히 가까워진 느낌이어서 크게 긴장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것은 제보자 부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제보자 부부의 생각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이날 조사는 어느 때 조사와는 다소 성질이 다른 것도 있었다. 그것은 조사자가 7월 6일에 어느 학회에서 발표하게 되어 있는 ‘산청 지역어의 성격’에 필요한 자료도 확보해야 하는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다. 학회에서 발표할 자료는 이미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었지만,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의 조사를 통하여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국립국어원의 질문지에 따른 질문은 ‘제3편 음운’ 중 ‘3.1. 음운 체계’에 해당하는 88개 항목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는 조사자가 평소에 준비해 둔 다른 질문지으로써 이루어졌다.

조사 항목에서뿐만 아니라, 마을의 분위기와 관련해서도 오늘은 특이한 날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마을에 상이 났기 때문이다. 발인은 내일 있을 것이라는데, 아무래도 제보자 부부의 마음은 어느 때와는 달리, 다소 가라앉아 있어 보였다.

6월 1일에 묵었던 그 모텔을 다시 찾았다.

6월 30일(토), 갸

새벽에 깨어 읍내 어느 공원으로 가서 경상도 성조에 대한 논문을 읽었다. 이것은 7월 6일의 발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고, 산청 지역어 성조를 어떻게 기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하는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기도 했다.

아침 식사 후 지금과는 달리 수박을 한 덩이 사서 부리 마을로 향했다. 오늘은 이 마을에 출상이 있는 날이라, 차를 마을 한가운데로 몰지 않고 뒤편 가파란 길로 운전한 뒤, 어느 밭가에 세워두었다. 출상 시간과 조사 시간이 겹치는 바람에, 약간의 애를 먹었다. 무엇보다도 조사자를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돌아가신 분의 영구가 제보자의 집과 마주보이는 곳에 안장된다는 점이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이 마을은 꽤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농지가 적고 골짜기 많은 편이다. 그리고 마을 중간을 관통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왼쪽(서쪽)과 위쪽(북쪽)에 마을이 있고, 오른쪽(동쪽)에 다소 경사가 급한 곳에 전답들이 펼쳐져 있다. 이 뒷산이 마을의 동쪽 산인 '도장골'이다. 영구는 이 도장골로 향하고 있었는데, 서쪽에 자리 잡은 제보자의 집에서 보면 장례 행렬의 일거수일투족이 바로 뵈히 쳐다보였던 것이다. 노순생 할아버지는 연신 상여 행렬 쪽으로 눈길을 보내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오늘 조사 역시 7월 6일의 발표와 관련되는 자료를 더 확보하는 쪽으로 이루어졌다. 오늘은 질문지로 치면 기초 문법 사항, 즉 격조사와 종결어미의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었고, 그 말고는 조사자가 만든 다른 질문지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도중에 상여의 앞소리꾼에 의한 구성된 앞소리와 상여꾼들의 화답 내용이 배경 음악(?)처럼 녹음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6월 30일은 조사자에게 매우 인상 깊은 날로 기억될 것이다.

7월 7일(토), 맑음

어제 7월 6일은 한국문학언어학회(경북대 중심)가 주최하는 '2007년 하계 전국 학술발표대회'가 산청군 남명문화관에서 열렸던 날이다. 이번 학술회의의 주제는 '지리산과 어문학'이었기 때문에, 국어학·고전문학·현대문학에서 각각 한 편씩의 주제 발표 및 지정 토론이 있었고, 주제 발표에 이어서는 각 분야별로 분과별 발표가 있었다. 조사자는 이 학술회의에서 '산청 지역어의 성격'이라는 주제 발표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남명 조식 선생의 열이 서린, 유서 깊은 덕천서원이 숙소였다. 오랜만에 만난 분들과 늦도록 술잔을 기울이고 다음날인 오늘 아침부터 다시 방언 조사를 실시하려니, 다소 노곤한 상태였다.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갈 수는 없는 일, 아침 일찍 짐을 꾸려 산청읍으로 향했다.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음운과 문법 사항 일부를 이미 조사했던 터라, 문법 사항부터 마무리하기로 하고, 질문지의 보조사, 연결어미, 부사, 속담 부분의 조사를 모두 마쳤다. 조사 도중에 이웃집에서 경운기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이번에는 경운기 엔진 소리가 배경 음악처럼 녹음되어 버렸다.

불탄 강아지도 따르면 예쁘다는 속담이 있다. 출랑이는 불탄 개가 아닌 데도 우리를 많이 따랐다. 이 날은 그 영리한 ‘출랑이’가 우리가 저만치서 차를 세우자, 계단을 내려와 골목길까지 마중을 나와 우리를 반겨 준 날이기도 했다.

7월 20일(금), 비

오늘도 이틀 동안 조사를하기로 작정하고 학교를 출발했다. 장마 기간이라 날씨는 잔뜩 찌푸려 있었고, 간간히 비도 뿌렸다. 질문지의 어휘 2권에 남은 항목을 모두 조사하였다. ‘2.3.4 마을과 가게’(190쪽)부터 ‘의복’의 마지막 항목인 ‘21443 다듬이질’(239쪽)까지이니 적지 않은 어휘를 조사한 셈이다.

수량사 관련 어휘를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오후 1시 30분 무렵에 제보자 댁에 도착했는데, 뜻밖에도 제보자의 막내 아드님을 만날 수 있었다. 막내 아드님은 산청군청에 재직하는 공무원인데,(이 사실은 부읍장님을 통해 이미 알고 있던 것이었다.) 어젯밤 숙직을 했단다. 집이 진주라서 아침에 어머니댁에 와서 눈을 좀 붙이고 다시 출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 번 두 번을 잤던 모텔과는 다른 모텔을 골랐다. 지난 번 모텔은 산청 읍내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진 것이라는 소개에 따라 이용하였지만, 생각보다 깨끗하지가 않았다. 모텔을 바꾸게 된 것은 부읍장님의 도움 말씀을 따른 결과였다.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그 분은 꼭 이 모텔에 손님을 모신다고 했다. 조금 오래 된 것이긴 해도, 읍내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조건하며, 식사를 바로 할 수 있는 식당이 같은 건물에 있다는 사실 등으로 하여, 숙소를 바꾸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식당에서 부읍장님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7월 21일(토), 비온 뒤 흐림

오늘은 다소 특이한 경험을 두 번이나 한 날로 기록되어야 하겠다. 정상적인 조사는 역시 어휘에 집중되었다. 질문지 3권을 차지하고 있는 네 주제 가운데 첫 번째의 것인 ‘민속’(242쪽~283쪽) 관련 어휘를 조사했다.

첫 번째 특이한 경험은 오전 10시 30분 무렵에 하게 되었다. 어휘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웬 장정 한 사람이 찾아왔다. 우리의 제보자 할머니를 보고 ‘형수’라고 불렀다. 할머니의 시댁 집안 시동생이었다. 조사가 중단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장정의 이야기는, 우리 제보자 할머니 부부를 제보자로 삼고 싶다는 또 다른 방언 조사자가 있다는 것이었다. 현재 서울 어느 대학의 대학원을 다니는 여학생인데, 고향이 산청이고 그 아버지는 이곳의 어느 학교 교장으로 정년을 하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어떤 경로로 이 장정한테로 연락이 닿았는지는 몰라도, 그 대학원 여학생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춘 분이 제보자로 적격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형수’가 생각났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제보자 부부는 방언 제보자로서 좋은 자격을 갖추었음이 다시 한 번 증명된 셈이다. 조사자가 말했다. 지금은 우리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그 대학원 학생더러 조사자에게 전화를 하여, 서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만약, 이 부부를 제보자로 선택한다면)는 말을 그 장정에게 전하면서, 내 휴대폰 전화를 알려주었다. 그 대학원 학생이 서울대학교 최** 선생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뒤에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 대학원생은 우리의 제보자를 ‘공동’ 제보자로 활용하지는 않았다.

두 번째 특이한 경험은 이 일이 있고 난 뒤, 30분쯤 지난 뒤에 일어났다. 마을에서 ‘중할 아버지’에 속하는 두 분이 할머니 댁을 찾아왔다. 역시 할머니 시댁 집안사람들이었다. 그 가운데 한 분은 꽤 학식이 있어 보였고, 엮어나가는 이야기가 매우 자연스러웠다. 44분에 해당하는 그 분의 이야기를 ‘자유 발화’로 녹음해 두었다.

8월 29일(수), 갯

한 달 이상 방언 조사를 할 수 없었다. 아니 하지 않았다. 예년으로 보면, 여름방학 기간인 7월~8월에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과는 대조적인 일이다. 그러나 그때는 출발 시점이 늦어 그리했을 뿐, 올해처럼 느긋하게 조사해도 될 처지라면, 가능하면 여름방학은 피하는 것이 좋았다. 너무 더운 날씨가 문제였던 것이다. 시골 제보자의 집에는 이 무더운 여름날에 대부분 선풍기를 트는데, 그 선풍기 소리는 예민한 녹음기에 그대로 반영되어 녹음의 품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선풍기를 틀지 않으면, 더운 날씨 때문에 조사자도 힘들지만 연로하신 제보자는 정말 고역이 아닐 수 없다. 제보자의 건강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여름철을 피하고자 하는 다른 이유는, ‘매미 소리’ 때문이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어대는 매미 소리는 이미 악명높은 녹음의 적이었던 것이다.

질문지 3권의 ‘인체’ 부분(286쪽~331쪽) 어휘를 모두 조사하였다. 한 달 이상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려니, 처음에는 감각적인 점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듯이 보였다. 이를 뒤인 8월 31일부터 9월 1일은 지역어 조사 위원회 회의가 부산 경성대에서 열리게 되어 있다. 오늘까지 조사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기로 했다. 그래서 미리 자료 활용 ‘동의서’와 제보자 사례비 ‘영수증’을 받아 놓았다. 정당한 일을 정당하게 처리하지만, 제보자들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게 한 뒤 도장을 받는 일은, 할 때마다 뭔가 내가 켄간다는 기분을 자아내게 한다. 조심한다고 했으나, 오늘도 녹음의 배경 음악은 없을 수 없다. 이번에는 여름철의 상징인 매미 소리가 어김없이 배경 음악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은 마을의 다른 길을 이용했다. 지난 번 상이 났을 때, 마을의 뒤쪽으로 차를 세웠던 바로 그 길이었다. 그러나 더운 날씨 때문이었을까, 좁은 모퉁이를 돌 때, 승용차 뒷부분이 모퉁이 담의 뽕죽한 부분에 긁히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뒷날, 이 흠을 없애는 데는 자그마치 20만원의 수리비가 들었다.

10월 5일(금), 맑음

다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 산청을 찾았다. 9월 개학과 더불어 바쁜 일들이 많아 시간 내기가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이미 많은 조사를 해 두었으니까 하는 느긋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가위를 지난 지도 10여 일, 시골길은 정말 이지 차가 다니기에는 참으로 낭만적이기까지 했다. 조사자의 마음을 끄는 것으로는 단연 역새가 으뜸이다. 고속도로 산청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얼마 가지 않는 세거리 길에는 누렇게 익어 가는 벼와 함께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역새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언젠가 여기에서 사진을 찍으리라, 오늘도 사진기를 준비해 왔다. 그러나 그곳 풍경은 찍지 못했고, 이 가을이 갈 때까지 끝내 생각만으로 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어휘의 ‘육아’ 전부와 ‘친족’의 ‘새색시’까지(334쪽~365쪽)를 조사한 뒤, ‘자유 발화’ 형식

의 구술 발화로 37분 동안 ‘추석 쇄기’를 녹음하였다.

가져간 사진기로는 숯돌, 맷돌, 논매는 기계, 장독대, 시렁 등 전통 생활과 관련되는 것, 배추, 가을 상추, 호박, 수확한 밤과 마늘 등 먹거리, 마을 풍경 일부, 제보자 부부의 자연스러운 표정 등을 담았다. 논매는 기계와 시렁은 이웃집에 있었는데, 그 이웃집은 제보자 할아버지의 동생 집이었다고 했으나, 지금은 이사를 가고 그냥 빈집으로 남아 있어 자유롭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돌아가려 하자, 할머니가 수확한 생밤을 한 봉지 넣어 주셨다.

10월 12일(금), 맑음

일주일 만에 다시 산청을 찾았고, 1박 2일을 생각했다. 톨게이트 근처의 역새는 이제 ‘호드리지계’ 피어 있었다. 아뿔싸, 일주일 전에 사진을 찍어 둘 것을.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인데, 역새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 막 피어난 청순한 모습을 놓치다니. 더 늦기 전에 차를 세우고, 역새를 사진기에 담아? 그러나 생각만 간절할 뿐, 차는 자연스레 읍내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친족 어휘 남은 부분 조사를 하려 했는데, 녹음기에 이상이 있다고 보조원 박 군이 말했다. 원래 우리의 녹음기는 ‘48,000 Hz Mono’로 세팅이 되어 11시간 가량 녹음을 할 수 있는데, 웬 일인지 그것이 ‘44,000 Hz Stereo’(6시간 정도 녹음)로 세팅이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어디에서 잘못 손을 댄 것인지의 기억은 박 군도 없다고 했다. 녹음기를 정상으로 돌려놓은 뒤, 어휘 예정된 어휘 조사를 했고 논농사, 농기구 사용에 대한 구술 발화(50분)를 녹음했다.

방언 조사를 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박 군으로 하여금 찍게 했고, 마을 풍경 일부 등도 사진기에 담았다. 지난 번 묵은, 풍경이 보이는 모텔에 짐을 풀었다. 밤에 모텔의 TV는 ‘가을 야구’를 중계 방송해 주고 있었다.

10월 13일(토), 맑음

모텔 주변에는 크지 않은 꽃밭이 있었다. 작은 송이의 노란 국화가 앙증맞게 피어 사진기에 담았다.

오늘은 음운 분야의 ‘음운 과정’과 문법 분야의 ‘대명사’ 등 지난 번 조사에서 빠진 이 분야에 대한 조사를 했다. 음운 과정에 대한 조사는 기계적인 것이라서 그랬을 것이다, 제보자 할머니는 매우 낭패한 기색을 보였던 것은. 그것은 평소 웃음이 많던 할머니가 웃음 대신, 경직된 얼굴에 시험 보는 학생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데서 잘 알 수 있는 사실이었다. 정말이지 음운 과정에 대한 조사는 품이 많이 들뿐더러 조사자와 제보자 양쪽을 모두 긴장시키는 일이다.

마을의 가을 풍경을 사진기에 담기에는 더없이 좋은 날씨였다. 사진 찍기는 두 차례로 나누어졌다. 한 번은 조사를 하기 전에, 마을에 들어서면서부터 마을의 일부를 찍은 것이고, 다른 한 번은 조사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다른 곳에서 마을 풍경을 담은 것이다. 이곳 주민들에 의해 수호신으로 모셔지는, 마을 입구의 당산나무(느티나무)도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다. 느티나무는 바야흐로 단풍으로 몸치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누에치기로 명성을 떨쳤던 마을인 만큼, 뽕나무 촬영은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을 햇살을 양껏 받고 있는 뽕잎이 그렇게 윤이 나며 싱싱할 수가 없었다. 마을 회관도 찍고, 주황색으로 물

들어가는 대붕감도 어김없이 사진기에 잡혀 있었다.

10월 19일(금), 맑음

11월 9일에는 국립국어원에서 중간 보고회가 있는 날이다. 지금까지 조사하고 전사한 내용들을 보고하면서, 평가위원들로부터 중간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조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 다소 긴장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은 충분하고, 올해 사업도 큰 차질 없이 끝날 것이다.

3주째 연속으로 산청을 찾았는데, 오늘의 기온은 몰라보게 떨어져 있었다. 지리산 자락에 있는 마을이라서 그럴까. 마주보이는 웅석봉 꼭대기에는 벌써 첫눈이 내려 있었다. 마을에는 벼 기계타작이 한창이었다. 위채에서 조사를 하면서 마루의 덧문을 닫고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바깥으로부터 소음이 들려오지 않아 좋았으나, 갑갑한 느낌이 들었다.

음운 과정의 남은 부분을 조사하는 것으로 하루 일정을 마쳤다.

12월 7일(금), 갬

12월에까지 조사를 해야 하다니! 남보다 먼저 부지런을 떤 게 엇그제 같은데, 아직 조사 조차 끝내지 못하다니. 어휘에서 남은 부분이 좀 있고, 구술 발화 녹음이 다소 부족하여 오늘과 또 하루를 더 조사해야만 모든 조사가 끝나게 되었다. 마음이 바빠졌다. 돌이켜보면, 그 사이도 정말 바빴다. 중간 보고회는 무사히 마쳤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중국 연변대학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는 것 등이 바쁜 일정을 만들게 했다.

어제 학교에서 할머니께 전화를 했더니, 오늘 오후부터는 김장을 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새벽 6시에 집을 나서 9시가 조금 넘어 안부리 마을에 도착했다. 구술 발화의 내용은 현장감 있는 ‘김장 담그기’와 ‘방아 찧기’로 선정했다. 질문지에는 전자의 내용이 소략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실감나게 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새로운 질문지가 필요했다. 조사자는 그것을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이제는 마루가 아니라 방으로 옮겨서 조사를 했다. 계절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다.

매번 느끼는 일이지만, 제보자 할머니의 발음은 매우 빠른 편이다. 한 번 ‘열기’가 오르면 그냥 그침이 없으시다. 그 과정에는 많은 음운의 약화와 축약과 탈락이 함께 하고 있다. 연세에 비해 대단한 정열이시기는 하지만, 전사하는 입장에서는 죽을 맛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렇잖아도 경상도 말씨는 빠르다는데!

제보자 할아버지·할머니 부부, 조사자, 보조자 네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 삼각대를 이용한 자동 셔터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도장골 쪽에서 다시 마을 전경 사진을 찍었다. 높은 데서 마을 전체를 잡으니, 이전에 40여 가구가 있었으나 지금은 15여 가구밖에 없다는 말이 실감이 났다. 마을은 참으로 조촐하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12월 13일(금), 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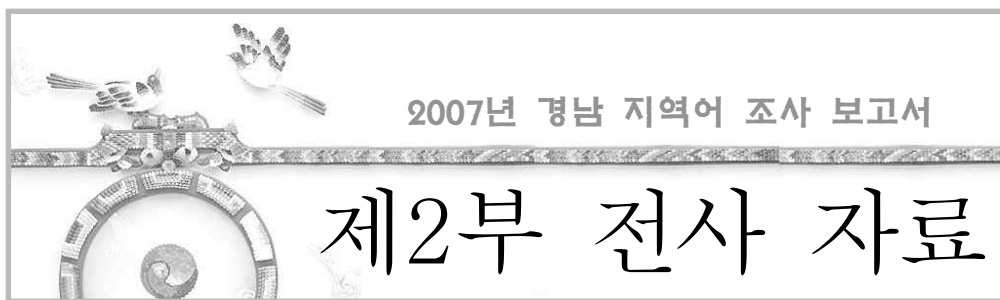
지난 2월 9부터 첫 조사를 시작했으니, 오늘 마지막 조사는 달수로 치면 11번째 달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누가 들으면 참으로 열심히 조사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올해도 ‘어김없

이' 막판까지 물리게 되다니! 조사도 이렇게 늦게까지 된 적이 그동안 한 번도 없지 않았던가. 여러 가지로 자책하면서 부리 마을을 찾았다.

조사 장소가 위채에서 '다시' 아래채, 그 황토방으로 바뀌어 있었다. 남은 어휘는 질문지 4권의 '식물'과 '자연'(440쪽~513쪽)이다. 결코 만만찮은 양이다. 그리고 그 동안 전사하면서 불확실한 부분, 빠뜨린 부분 등까지 확인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바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참을성 많은 두 노부부는 우리의 절박한 사정을 잘 이해해 주셨다. 공식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말에, 두 분은 매우 섭섭해 하셨다. 그러나 뒤에 필요하면 다시 더 조사할 일이 있으니, 너무 섭섭해 말라는 말씀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출렁이와는 마당에서 작별을 고했다.



제1편 구술 발화

제2편 어휘

제3편 음운

제4편 문법

제1편 구술 발화

1.3. 생업 활동

1.3.3. 가을걷이와 겨우살이

10318 @ 저: 옌나레예.{저 옛날예요.}

10318 @ 그: 탈곡하던 방뻘.{그 탈곡하던 방법.}

10318 @ 근 곡식 떨어내는 방뻘하고 요즘: 탈고하느 방뻘 가운데서.{그 곡식 떨어내는 방법하고 요즘 탈곡하는 방법 가운데에서.}

10318 @ 어: 곡시기나 탈곡 하는 기구가 어떻게: 언자 달라진지를 제가 여쭙:보능김니다이.{음, 곡식이나 탈곡하는 기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제가 여쭙어 보는 것입니다.}

10318 @ 옌나레는: 어:, 나라글 베고 타작해가지고 갈무리할 때까지.{옛날에는 음, 벼를 베고 타작해 가지고 갈무리할 때까지.}

10318 @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이 좀 설명을 해주이소.{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10318 @ 그: 나락 베:가:꼬.{그 벼 베어서.}

10318 @ 그다메 언자 타작 할 때 그때 머 여러가지 기구 안 이서쨌습니까이?{그 다음에 인제 타작 할 때 그 때 뭐 여러 가지 기구가 있잖았습니까?}

10318 @ 그렇거하고 다: 비:가지고 어떻게 타작 어:, 갈무리를 보가늘 어떻게 켜는지.{그런 것하고 다 베어 가지고 어떻게 타작 음, 갈무리를 보관을 어떻게 했는지.}

10318 @ 이거 말씀 쯔 해주이소.{이것 말씀 쯔 해 주십시오.}

10318 # 온제부텅 하는데:?(언제부터 하는데?)

10318 @ 옌날: 느 나락 빌 때부터 해가지고.{옛날 벼 벨 때부터 해 가지고.}

10318 # 옌나레여?{옛날예요?}

10318 @ 그런 지금까지 기계가꼬 말고.{그런 지금까지 기계 가지고 말고.}

10318 @ 낙까: 빌 때 고골 말하능김니다, 예.{낫 가지고 벨 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0318 # 나라글 벨라코모예.{벼를 베려고 하면요.}

10318 # 아저게 일칙 인:나서.{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0318 # 새끼들 밥 해: 미이서 보내노코.{자식들 밥 해 먹여서 (학교에) 보내 놓고.}

10318 # 그러:자 낙 가라가지 감니다.{그래 인제 낫 갈아 가지고 감니다.}

10318 # 그래 가선:자 참, 그때마 해도 실랑 각시 아~이가.{그래 가서 인제 참, 그때만 해도 실랑 각시잖아.}

10318 # 그때야 머: 새아르 머 물:꾸또 영:꼬.{그때야 뭐 생활은 뭐 먹을 것도 없고.}

10318 # 그냥 안자 쯔쯔 시인따가 또 나락 베고.{그냥 앉아 쯔쯔하다가 또 벼 베고.}

10318 # 그라~이 뭉끼가:꼬 언자 이걸 언자 찜:부 여게느 여: 꼴짜게논 뭉끼 시웁니다, 나

라글.{그렇게 묶어서 인제 이것을 인제 전부 여기는 여기 골짜기에는 묶어 세웁니다, 벼를.}

10318 # 다늘 뭉끼각:꼬.{단을 묶어서.}

10318 # 딱:: 흘끼 조끼 요막스하~이.{딱 흘끼 좋게 이만씩 하께.}

10318 # 그래가:꼬 언자.{그래서 인제.}

10318 # 그 뭉끼간:자 한: 일쭙일 한 일쭙일 냉기 데모 나래기 마릅니더.{그 묶어서 인제 한 일쭙일 한 일쭙일 넘게 되면 벼가 마릅니다.}

10318 # 그람:자 이고 지고.{그러면 인제 이고 지고.}

10318 # 이고 지고 해가주고언자 여 여: 지베 마다~아 갈따가 모은다:임니꺼?{이고 지고 해서 여기 여기 집에 마당에 갖다가 모으잖습니까?}

10318 # 그 양쭙구루 삭:: 이 축따무에 해서 저 삭:: 모아노코.{그 양쪽으로 삭 이 축담 위에 해서 저 삭 모아놓고.}

10318 # 그래 앤자 발로 흘론 흘께가 디디른 흘께가 큰지베 이션씨.{그래 인제 발로 흘는 벼흘이가 디디는 벼흘이가 큰집에 있었어.}

10318 # 그웁 언자 흘께러가따가 언자 흘틀 제:는.{그 인제 벼흘이를 가지고 인제 흘을 적에는.}

10318 # 인자 참 큰지베서도 다 와서 가치 하고.{인제 참 큰집에서도 다 와서 같이 하고.}

10318 # 우루던네 가치 하고.{우리도 같이 하고.}

10318 # 정심 해서 묵꼬 언자:{점심 해서 먹고 인제.}

10318 # 아~이자 정때꺼정 흘터가즈지고.{아 인제 저녁 때까지 흘어서.}

10318 # 그 언자 디루 때에는 오찌 디르능기 아이고.{그 인제 드릴 때에는 어찌 드리는 게 아니고.}

10318 # 조고마:나 풍석 자리가 이션서예.{조그마한 풍석 자리가 있었어요.}

10318 # 멍석자리 조고만:항기 찔쪼:항기 이션씨.{멍석자리 조그마한 게 '찔쪼한 게' 있었어.}

10318 # 근데 조:서 선생님 인데서 아매 요만 하끼다.{그런데 저기에서 선생님 있는 데서 아마 요만 할 거다.}

10318 # 그느 자리로 사오거등예.{그런 자리를 사오거든요.}

10318 # 그래 순:저네이 그:로갈따.{그래 가지고 순전하게 그것을 갖다.}

10318 # 예, 고래 하능기라.{예, 그렇게 하는 거야.}

10318 # 고리 디라가지고 언자.{그렇게 드려서 인제.}

10318 # 그 언자: 조카들하고 언자 참 마 동서끼리 이리 행지간들: 다 모아각꼬 할라쿠메는 다: 와서 거드러야 대.{그 인제 조카들하고 인제 참 뭉 동서끼리 이렇게 형제간들 다 모아 가지고 하려고 하려는 다 와서 거들어야 돼.}

10318 # 또 큰집 할짜:도 또 가서 거디리조:야, 가치 해야 데고 일:하는데.{또 큰집 할 적에도 또 가서 거들어 줘야, 같이 해야 되고 이러는데.}

10318 # 그래가 언자 그넌 후:틀라쿠메는 방까지 하능기라.{그래서 인제 그넌 흘으려고 하려는 밤까지 하는 거야.}

10318 # 그 소느로 그따야 흘떠가꼬 모아가저고 디루고: 당꼬 이랄라커메느 밤 늑께꺼지 하미더.{그 손으로 거기다 흘어서 모아서 드리고 담고 이러려고 하려는 밤 늦게까지 합니다.}

10318 # 그르가꼬 머 창:고가 인나 머 인노 그때마 해도.{그래서 뭉 창고가 있니 뭉가 있

니 그때만 해도.}

10318 # 바~아다 고마 알고지: 가마~이: 다마각:꼬:.{방에다 그냥 알כות게 가마니에 담아
서.}

10318 # 고마 여:도 가따 재고 저:도 가따 재고 그르노몬:.{그냥 여기에도 갖다 재고 저기
에도 재고 그렇게 해 놓으면.}

10318 # 저네 저:무 흑띠기 이리 데능겐 날 치가 드르와서 구녕을 또꼬 나락 파묵고 지 그
름 자블라꼬 (웃음) 날리가 나고.{전에 전부 흙벽이(?) 이렇게 돼 놓으니까 쥐가 들어 와서
구멍을 뚫고 벼를 먹고 지 그 놈 잡으려고 난리가 나고.}

10318 # (웃음) 비채루 몽대~일 들고 막 자리 들켜시키고.{(웃음)빗자루 몽둥이를 들고 막
자리 들추고.}

10318 # 그 녀 자올라까 날:리로 치고 막 바~아 막 미게미 제한당 이일나고.{그 놈 잡으려
고 난리를 쳐서 막 방에 막 먼지가 ??? 일어나고.}

10318 # 아:들도 마 이리 후디끼가고 저리: 후디끼가고.(웃음){아이들도 뭐 이리 쫓겨가고
저리 쫓겨가고.(웃음)}

10318 # 조고마:난 바~이 그때 두: 개 이시능게네, 이거느 엄서꼬.{조그마한 방이 그 때
두 개 있어 놓으니까, 이것은 없었고.}

10318 # 그라고 참 침::부 다 데들빠~아다 찌서 다 묻따 아임 찌이서 묻따:임니꺼?{그리고
참 전부 다 디딜방아에다 찢어다 먹었다 아님, 찢어서 먹었잖습니까.}

10318 # 이어네느 내 시집 올 때는 천:부 집찌비 다: 이저네 사람드른 다 방해에 다 인
때:.{이전에 내 시집 올 때는 전부 집집이 다 이전에 사람들은 다 방아가 다 있데.}

10318 # 어 그때마해도 우루 큰지베언제 방애가이서서.{어 그때만 해도 우리 큰집에 인제
방아가 있어서.}

10318 # 디들바~아 가서 인제 찌이가저고 이리 묵꼬 구리 사란서예.{디딜방아에 가서 인
제 찢어서 이렇게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10318 @ 그러든 쪼끔 저네 그거는:제 나락 아임니꺼이:??{그러면 조금 전에 그것은 인제
벼잖습니까?}

예.{예.}

10318 @ 나락 말고 언자 여름 데모 보리하고 밀도 거다: 안 드릴꺼 아임니꺼?{벼 말고 인
제 여름 되면 보리하고 밀도 거뒀 들이잖습니까?}

10318 @ 나라글 그래 헛뜨시 그 보리하고 밀도 우째 거다:가지고 비:가:꼬 갈무리 보가늘
우째 하는지?{벼를 그렇게 했듯이 그 보리하고 밀도 어찌 거뒀 가지고 베어 가지고 갈무리
보관을 어찌 하는지?}

10318 @ 그근또 함면 말습 해주이소.{그것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그띠예?{그것도요?}

10318 # 보리 베각:꼬 그때느 점::부 다 지베 지고 와서 타자글 또도릴따:임니꺼?{보리 베
어 가지고 그때는 전부 다 집에 지고 와서 타작을 두드렸잖습니까?}

10318 # 글 뚜드러가저고 하리 점:두룩 언자, 그때마 해도 참자 실량은 저 나르고.{그것을
두드려서 하루 저물도록 인제 그때만 해도 참 인제 실량은 저 나르고.}

10318 # 저 날라 한:마당 পে 노꼬 이 그놈 뚜덜러노꼬 언:자.{저 날라 한마당 퍼 놓고 그
놈 두드려 놓고 인제.}

10318 # 내 보릴때 그 녀 거더서 한 주우 갈따 노을따네 또 지이다 저다가 또 깔고 까로

일:각:꼬.{내가 보릿대 그 놈 걸어서 한 쪽에 갖다 놓을 동안에 또 저다가 또 깔고 깔고 이래서.}

10318 # 그래 하지: 여: 또 순: 이래 말라야 텐다 아임니까?{그래 해서 여기 또 순전히 이래 말려야 되잖습니까?}

10318 # 장마가 지며 막 채아노코 일파:이가, 한쭈게다가.{장마가 지면 막 재어 놓고 있잖겠니, 한쪽에다가.}

10318 # 그때때애도 머 가빠:가 이슨나 머 이슨노, 머 가마이때~이 얹구지 더퍼노코.{그때만 해도 갑빠가 있었니 뭐 있었니, 뭐 가마니때기 알קות게 덮어 놓고.}

10318 # 이리 말라가저고 언자 또 재애 노코.{이렇게 말려서 인제 또 재어 놓고.}

10318 # 그라 언자 또 한: 달 지내나:몬 쪼개이 디무레기 이씨마 막 조미 생기:, 보리도. {그래 인제 또 한 달 지내 놓으면 조금 **** 있으면 막 쯤이 생겨, 보리도.}

10318 # 그람: 또 너리 말라야 데:.{그러면 또 널어 말려야 돼.}

10318 # 마당에다 그때는 더써글 일 맨드러가지고.{마당에다 그때는 명석을 이래 만들어가지고.}

10318 # 그래 때:떠써 해서 느러가꼬 말라가:꼬 순주내: 그건또.{그래 몇 명석 해서 늘어서 순전히 그것도.}

10318 # 큰지베 이고 가지, 지그믐 다라~이나 익꼬 비니루 봉:지 쿵기 이닝기나 이꺼냐:. {큰집에 이고 가지, 지금은 '다라이'나 있고 비닐봉지 큰 게 이런거라도 있지.}

10318 # 저언테는 점부 함지, 나무함지.{저런 데는 전부 함지, 나무함지.}

10318 # 그른데다 이고 대이고.{그런 데다 이고 다니고.}

10318 # 언자 머 반 가마~이숙 이리 질라쿠멘:자.{인제 뭐 반 가마니씩 이렇게 지려고 하면 인제.}

10318 # 참 지게 지우 가서 언자 큰지베 디들빠~아 찌이서 묵꼬.{참 지게에 지고 가서 인제 큰집의 디딜방아에 찼어서 먹고.}

10318 # 디들빠~아 바~아 찌이러 가아꼬 우리 큰머스마 그으느 지금도 안주 그래, 디꼭지에 요래 쏘옥 드러가 안 나온다.{디딜방아에 방아 찼으러 가서 우리 큰녀석 그거는 지금도 아직 그래, 뒤통수에 요리 쏙 들어가서 안 나온다.}

10318 # 우리 큰지베 청이 또 노파꺼덩.{우리 큰집에 청이 또 높았거든.}

10318 # 우리 큰지베느 시집 옹기 이전 사칸 지빈데.{우리 큰집에는 시집오니까 이전 사칸 집인데.}

10318 # 이 마르고 오찌 댄냐거뜨머 요리 쪼가리로 해가지고.{이 마루가 어찌 댄냐 할 것 같으면 요리 쪼가리를 해서.}

10318 # 그때마 해도 부재라농게네로.{그때만 해도 부자라서.}

10318 # 쪼가리 쫘을 여 탁 탁 마쳐서 이리 여:나때여.{쪼가리 ?을 딱 딱 맞추어서 이리 넣어 놓았데요.}

10318 # 꼬내 참:: 이 추기 노파.{그런데 참 이 축이 높아.}

10318 # 방아 찌로 가아지고 아:로와따가 처~어다 니피노코 방아로 쪼게네로.{방아 찼으러 가서 아이를 갖다가 청에다 눅혀 놓고 방아를 찼으니까.}

10318 # 아:가 나부대가저고 굴다가 고마 축파메 고마.{아이가 나부대어서 굴다가 그냥 축담에 그만.}

10318 # 우리 이꺼정 올로오느 추게 그마 턱 널:찌빠서.{우리 이까지 올라오는 축에 그만}

턱 떨어져 버렸어.}

10318 # 그래 일바시아 가:꼬 마 새파라~이 장가지데, 고래때는 머 구마 주들 물리고 고마 달개고 이래 상:께네로 아: 꺼지데 봉께.{그래 일으켜서 뭐 새파랗게 까무러치데, 그럴 때는 뭐 그냥 젖을 물리고 그냥 달래고 이렇게 하니까는 아이 그치데 보니까.}

10318 # 나안주르 봉께: 한 메칠인따 봉께: 아:가 여리 자꾸 나사:, 그래 와 이 여리 나노. {나중에 보니까 한 며칠 있다 보니까 아이가 열이 자꾸 나 쌓아, 그래 왜 이렇게 열이 나지.}

10318 # 저네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자스글 키울로캐메는 저들 물리도 저들 빨리도.{전에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자식을 키우려고 하며는 젖을 물려도 젖을 빨려도.}

10318 # 손도 주물라 주고 발도 주물라 주고.{손도 주물러 주고 발도 주물러 주고.}

10318 # 아: 몸띠~이도 항:상 머리도 이: 씨다마 주고.{아이 몸뚱이도 항상 머리도 이 쓰다듬어 주고.}

10318 # 이래 해서 자스글 키워이 텐다:.{이렇게 해서 자식을 키워야 된다.}

10318 # 그러 참: 한 매칠 그리, 널찌고 나서.{그래 참 한 며칠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10318 # 아:가 여리 나글래다 오이 다친나:시빠서 머리로 문칭께네로.{아이가 열이 나기에 어디 다쳤나 싶어서 머리를 만지니까.}

10318 # 아이 온바~이 쑥: 드가빠:서{아이, 움팡하게 쑥 들어가 버렸어.}

10318 # 씨구영도 그으 안주 포가 인는디여.{지금(?)도 거기 아직 표가 있는데요.}

10318 # 우리 크나: 디꼭찌가.{우리 큰아이 뒤통수가.}

10318 # 그리:가:꼬 자스글도 키우고.{그래 가지고 자식들도 키우고.}

10318 # 그 머 오시나 머:시 인나.{그 뭐 옷이나 뒷이 있나.}

10318 # 마 아루뚜리도 마 보통 익꼬 머이, 참 베끼노꼬 이리 키우고.{뭐 아랫도리도 뭐 보통 입고 뭐, 참 벗겨놓고 이렇게 키우고.}

10318 # 바~아 찌러 가서 참 아아 대가르꺼정 (웃음) 널짜가저고.{방아 찼으러 가서 참 아이 머리까지 (웃음) 떨어뜨려서.}

10318 # 그리 키아도 그래도 머 모두모두 잘 크테여.{그렇게 키워도 그래도 뭐 모두 모두 잘 크테요.}

10318 # 머 호케 그리 머 놀고 반틀 호클 지: 목꼬 울고불고 이라모 마.{뭐 흙에서 그렇게 뭐 놀고 반을 흙을 쥐어 먹고 울고불고 이러면 뭐.}

10318 # 그래도 잘 커:, 그때는 아아들도 다.{그래도 잘 커, 그때는 아이들도 다.}

10318 # 근디 요새는 아:드로 너무 각끼 키워.{그런데 요새는 아이들을 너무 갖게(귀하게) 키워.}

10318 # 아:들 요새 키아능거보모 참 내가 답파배.{아이들 요새 키우는 것 보면 참 내가 답답해.}

10318 # 우리 야우지 여: 우리 조카가 지반 손녀드리 인는데.{우리 여 위에 여기 우리 조카가 집안 손녀들이 있는데.}

10318 # 아:로, 요새 아:드론 말로 와 그리 안 드르꼬.{아이들, 요새 아이들은 말을 왜 그리 안 들을까.}

10318 # 마당 비짜리 헤끔헤끔하는 하나 따: 간따 노코.{마당 빗자루 헤끔헤끔하는 것 하나 딱 갖다 놓고.}

10318 # 그 가썸가썸해도 아프거등네, 마당 비짜이 나캉 그거.{그 '가신가신'해도 아프거든

요, 마당 빗자루 ?? 그것.}

10318 # 고통: 가따 노코.{그런 것 갖다 놓고.}

10318 # 그라고 아:들 질로 디리라 질로 디리라쿠마.{그리하고 아이들 길을 들여라 길로 들여라고 하면.}

10318 # 우리 질부느 난주~우 메니리한테 언망 듣:다꼬.{우리 질부는 나중에 며느리한테 원망 듣는다고.}

10318 # 때리며 안데, 때리며 안데.{때리면 안 돼, 때리면 안 돼.}

10318 # 이:뿐 자스근 매로 키우능기다.{예쁜 자식은 매로 키우는 거다.}

10318 # 거블 내고르 해라.{집을 내게 해라.}

10318 # 내가 장: 이리 간시블 하능기라.{내가 늘 이렇게 간섭을 하는 거야.}

10318 # 그래도 요새 사암드른 그리도 아내.{그래도 요새 사람들은 그렇게도 안 해.}

10318 # 메느리한테 난주~우 서름 바드끼라꼬.{며느리한테 나중에 서러움 받을까 봐.}

10318 # 손자들 때리서 키엄따.{손주들 때려서 키웠다.}

10318 # 이 소리 안 드를라꼬 구란다콍서: 근냥 키우능기라:.{이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런다고 하면서, 그냥 키우는 거야.}

10318 # 저네 우리들 키울때쫌 자스 키울 때 데머 그 머 요새 강새~이도 구래 오데 키웁 니꺼?{전에 우리들 키울 때쫌(?) 자식 키울 때 되면 그 뭐 요즘 강아지도 그렇게 어디 키웁 니까?}

10318 # 오토 해 이피 사꼬 막.{오토 해 입혀 쌓고 막.}

10318 # 밥 안 머머 게기도 사주사꼬 일:사모.{밥 안 먹으면 고기도 사 줘 쌓고 이러면.}

10318 # 그리 키아도 그래도 모도 머 잘 크데예.{그렇게 키워도 그래도 모두 뭐 잘 크데 요.}

10318 # 그래 참 커서 언자 저거 다: 성공해서 나가고.{그래 참 커서 인제 자기들 다 성공해서 나가고.}

10318 # 우리 자:도 참 그리 그새애도 내 수까라 몽대~이도 하나 몬 사조준:따.{우리 저 애도 참 그렇게 거스해도 내가 숟가락도 하나 못 사 줬다.}

10318 # 다: 저거 나아서 저거 버리가저고 참 자:.{다 자기들 나가서 자기들 벌어서 참 다.}

10318 # 잘 삼니더, 다.{잘 삼니다, 다.}

10318 # 그러고로 참 세상도 저거 다 크고나서 나가자 인자 세상도 조아지고.{그러구려 참 세상도 자기들 다 크고나서 나가자 인제 세상도 좋아지고.}

10318 # 저거도 인자 참 고상을 해놓께네, 아그짜거치 살고.{자기들도 인제 참 고생을 해 놓으니까, 악착같이 살고.}

10318 # 우리 서울러는 두채 아:는 참: 부짬니더.{우리 서울에 있는 둘째 아이는 참 부자입니다.}

10318 # 아, 그 우웨 핵꼬 대닐 짜: 나리나 가물하마 이런데는 무리 엄서써 모로 송굽니 꺼?{아, 그 어찌 학교 다닐 적에 날이 가물고 하면 이런 데는 물이 없어서 모를 심(을 수가 있)습니까?}

10318 # 조: 그능거 서수:.{조 그런 것 서숙(조).}

10318 # 그릉거 노네 송거 가져오.{그런 것 논에 심어서.}

10318 # 아:들 내가 아:들 키울 쟈느 며달때느 뽀뜨르 네개스 짜애 텨니더.{아이들 내가

아이들 키울 때에는 어떨 때에는 도시락을 네 개씩 싸야 됩니다.}

10318 # 고데~액쫐, 주~액쫐, 군미내꼬 둘: 이리 갈라쿠메는.{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둘 이렇게 가려고 하려는.}

10318 # 머 된장 그으 마 알구지 조그매 해:가:꼬.{뭐 된장 그 뭐 알곳게 조금만 해서.}

10318 # 그래 여: 뻔뻔 여페 머 쫐깨이 나:주모.{그래 여기 도시락 옆에 뭐 조금 놓아 주면.}

10318 # 그래가 묵꼬.{그래 가지고 먹고.}

10318 # 우리 두채 아:는 서숙뻘 이걸: 안 물라꼬 뻔뻔로 마 도통 안 싸가고 도통 굶능기라.{우리 둘째 아이는 조밥 이것을 안 먹으려고 도시락을 뭐 도통 안 가져 가고 도통 굶는 거야.}

10318 # 우리 세채 너른 또 비유가 좀 이써, 비우가 인:데.{우리 셋째놈은 또 비위가 좀 있어, 비위가 있는데.}

10318 # 이느른 판:자 바블 뻔뻔 이리 서숙바블 싸아가모 여페 아:드리.{이놈은 밥 인제 밥을 도시락 이리 조밥을 싸서 가면 옆에 아이들이.}

10318 # 이 미테느 침:부 다 수군치거덩.{이 밑에는 전부 다 ???거든.}

10318 # 그룩 모도 바블 싸가오며, 아, 바까묵짜.{그래서 모두 밥을 싸 가지고 오면, 아, 바꿔 먹자.}

10318 # 이라 바까 묵끼도 마이 하고.{이렇게 바꿔 먹기도 많이 하고.}

10318 # 우루 두채 아아는 마~이 굴무썸.{우리 둘째 아이는 많이 굶었어.}

10318 # 마 뻔더도 마 도통 안 갈라쿠고, 지베 와도 밥또 잘 안 물러쿠고.{뭐 도시락도 뭐 도통 안 가지고 가려고 하고, 집에 와도 밥도 잘 안 먹으려고 하고.}

10318 # 그때때애도 머 이:느 머 무얼 머 주진부리 할끼: 인나:??{그때만 해도 뭐 이런 뭐 먹을 뭐 주진부리할 것이 있니?}

10318 # 딱: 삼시 딱 때 고거.{딱 삼시 딱 끼니 그것.}

10318 # 그을거(?) 우리 아:드리 다 키가 또 현추래이 앙 커.{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 키가 또 훔칠하게 크지 않아.}

10318 # 그리 키안심니다.{그렇게 키웠습니다.}

10318 @ 그래 아까 언자 그으.{그래 아까 인제 그.}

10318 @ 바~아 그 디딜빠~아 그 쫐능거 하다가 언자 떠러지서 그: 고 이 말씀하신는데 예.{방아 그 디딜방아 그 쫐는 것 하다가 인제 떨어져서 그 했던 그것 말씀하셨는데요.}

10318 @ 그래가꼬 언자 나락 아 나라기 아~이고.{그래 가지고 인제 벼 아 벼가 아니고.}

10318 # 보리.{보리.}

@보리하고 밀거통거 쯔~이가:꼬.{보리하고 밀 같은 것 쫐어서.}

10318 @ 우썰, 언자 보가는 우썰 해습니까?{어썸, 인제 보관은 어썸 했습니까?}

10318 # 그르 타작 해논:자 말라노코 언자 이렇 언자 재애노코 이시모.{그래 타작해 놓은 인제 말려 놓고 인제 이리 인제 재어 놓고 있으면.}

10318 # 인자 보로쌀 이넘 다 무: 가머 언자.{인제 보리쌀 이놈 다 먹어 가면 인제.}

10318 # 또 가서 쯔이가꼬 오고 쯔이가 와서 또 쌀마 묵꼬.{또 가서 쫐어 가지고 오고 쫐어 와서 또 삶아 먹고.}

10318 # 그리구루 그리구루 {그리구러 그리구러.}

10318 # 그이 상:기 고마 대베네 이리 고마.{그게 산 것이 그냥 대번에 이렇게 그냥.}

* 그때:는.{* 그때는.}

10318 ## 말도 모내요.{말도 못 해요.}

10318 # 대:벤: 이리 구마 느거빠써.{대변에 이렇게 그냥 늙어 버렸어.}

10318 ## 와 그런냐:면 보리타작 하알지 밀타작 해가지오.{왜 그렇냐고 하면 보리타작 해서 밀타작 해서.}

10318 ## 개누미 또 몰류기도 또 언자 안 모른네 보리가:.{그 놈 또 말리기도 또 잘 안 마르네, 보리가.}

10318 ## 안 모른데:.{안 마르는데.}

10318 ## 그때 또 또.{그때 또 또.}

10318 ## 사물 가따가 읍 께 오 베 오 오딤능거.{삼을 갖다가 옷 께 옷 베 오 옷 입는 것.}

10318 @ 말슴하이소.{말씀하십시오.}

(주제보자 바꿈)

10318 ## 사물 가란는데.{삼을 가랐는데.}

10318 ## 사무지 그념하고 머슨 **나서 사무지 그념 하고 고치약 빠주인데다가.{*****.}

10318 ## 차무리 그르 해야꼬 저너그로 여자드른.{*** ** 해서 저녁으로 여자들은.}

10318 ## 밤 이숙하도록 사무 무지 해가저고.{밤 이숙하도록 ** ** 해서.}

10318 ## 밍지: 손터부로 췌가저고.{명주 손톱으로 췌서.}

10318 ## 너울고 그란데.{널고 그러는데.}

10318 ## 그러차, 바~아꺼리가 엄따 마리지.{그럴 차에, 방아 췌을 거리가 없다는 말이지.}

10318 ## 바~아르 바~아가 이시야텐다, 이래가: 물바~아라 이션느 자:: 미테 가머 한 십리나 가몬.{방아를 방아가 있어야 된다, 이래서 물방아라고 있었는데 저 밑에 한 십리나 가면.}

10318 ## 물바~아 이신:데 바메 가야 물바~아 가: 췌야텐다, 지고 가서.{물방아가 있었는데 밤에 가야 물방아로 췌어야 된다, 지고 가서.}

10318 ## 밤 새더룩 언자 머달짜:느 물바~아 갈 차리가 안 데가꼬 밀리가: 인따가 여러 날마네 또 췌가꼬 오기도 하는데.{밤새도록 인제 웬만할 때는 물방아 갈 차례가 안 되서 밀려서 있다가 여러 날 만에 또 췌어서 오기도 하는데.}

10318 ## 바비라이요, 밥 밥또 머 나무도.{밥이라니요, 밥 밥도 뭐 나무도.}

10318 ## 야글 한치 만치 그래가:고.{약을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그래서(?).}

10318 ## 아:들 밥 해줄라네:.{아이들 밥 해 주려고 하지.}

10318 ## 핵교에 부타글 싸가넴:.{학교에 *** **}.}

10318 ## 하이그 마 말도 몬 함니더, 기가 차서.{아이고 마 말도 못합니다, 기가 차서.}

10318 ## 그래가지고 그 질 또 나옴기:, 아.{그래서 그때 나온 게, 아.}

10318 ## 차아 시방 그 치기 데몬 보소트네 인는 태기지요, 그때 요랑 하면.{** 시방 * ** 되면 보스틴(?)에 있는 췌이지요, 그때 '요랑' 하면.}

10318 ## 그런 행동을 내 지넌심니다, 내가.{그런 행동을 내 지냈습니다, 내가.}

10318 @ 그람 언자 지금까지 언자 나락하고 보리하고 밀 이렇거 말슴해주신는데예.{그러면 인제 지금까지 인제 벼하고 보리하고 밀 이런 것 말씀해 주셨는데요.}

10318 @ 또 그걸 말고도 언자 콩도 승겸습니꺼?{또 그것 말고도 인제 콩도 심었습니까?}

10318 ## 콩 송궁찌여.{콩 심었지요.}

10318 @ 그다메: 파튼예?{그 다음에 팔은요?}

10318 ## 파또 송구고.{팔도 심고.}

@ 콩도 송구고.{콩도 심도.}

#2 다 송건(찌), 송구느 항거는.{다 심었(지), 심을 만한 것은.}

10318 @ 그라몬.{그러면}

#2 마~이 하고 작게 하고 그이지.{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거지.}

10318 @ 그 도 서숙또 송국꼬예?{그 또 조도 심었고요?}

10318 ## 아, 서수근 또 다마니에 송녀~이 지머 송구고.{아 조는 또 다만(?) 흥년이 들면 심고.}

10318 ## 여: 비가 오모: 안 또 안 송굴때도 익꼬 그랜찌.{여 비가 오면 안 또 안 심을 때도 있고 그랬지.}

10318 @ 그라모 콩하고 폰하고:.{그러면 콩하고 팔하고.}

10318 @ 그글 가타간:자 우째 또 수하글 우째 해가지고.{그걸 갖다가 인제 어찌 수확을 어찌 해서.}

10318 ## 콩을 저 보리 베내고 콩을 가라가지고.{콩을 저 보리 베어 내고 콩을 갈아서.}

10318 ## 토 콩 타자: 해가지고 언자 몰라가지고 그림걸 가져고 미죽 미주 끼리가진:자 장 다마 묵꼬:.{콩 타작 해서 인제 말려서 그놈을 가지고 메주 메주 끓여서 장 담가 먹고.}

10318 ## 그래하고 보리는 *** 나안따가.{그렇게 하고 보리는 *** 놓았다가.}

10318 ## 보리바~아르 저녁을 주씨린다이.{보리방아를 저녁으로 주로(?) 찼습니다.}

10318 ## 또 미चे 바~아를 몬 찌어면.{또 미चे 방아를 못 찼으면.}

10318 ## 저녁그로 푸마시라고 봄 밤 밤 새두루 찌으몬.{저녁으로 품앗이라고 봄 밤 밤 새도록 찼으면.}

10318 ## 쪼그매: 찌꼬.{쪼그 찼고.}

10318 ## 또 그으또 아치에 또 바블.{또 그것도 아침에 또 밥을.}

10318 ## 머 사오나 오몬 사우도 몰싸우고:머 몰싸우 밥 잘 준다꼬.{뭐 사위나 오면 사위도 만사위가 오면 만사위 밥 잘 준다고.}

10318 ## 모루 모름 무른 봄 보리 찌어 가지고.{무른 무른 무른 보리 찼어서.}

10318 ## 또: 쪼끔 까드그르항거느 또: 채~이로 부치가지고.{또 조금 물기가 가신 것은 또 키로 까부러서.}

10318 ## 또 바블 새로 합니다.{또 밥을 새로 합니다.}

10318 ## 몰싸우는 이 금 몰싸우 아인 사라몬: 막 그냥 바블 하주는데 몰싸우라고 이지제느 어찌 중하든지.{만사위는 이 그 만사위 아닌 사람은 막 그냥 밥을 해 주는데 만사위라고 이전에는 어찌 중하든지.}

10318 ## 그래가: 몰싸우 밥해준다꼬 밥 잘해주능기 인자 그여 그래하고 묵꼬:.{그래서 만사위 밥해 준다고 밥 잘 해주는 게 인제 그 그렇게 해서 먹고.}

10318 ## 그건또 밀도: 기계:가 푸사가저고 뽕술라커모 또 그으또 담봉까네 찼찌.{그것도 밀도 기계에다 빵아서 빵으려 하면 또 그것도 **간에 찼어.}

10318 ## 밀리가 일파가 찌아보고.{**가 있다가 끼워보고.}

10318 ## 저다: 날랐심니더, 저다: 날라서, 이고 지고.{저다 날랐습니다, 저다 날랐어, 이고 지고.}

10318 ## 나락또 나락또 이고 지후 그래핵:꼬 해액고.{벼도 벼도 이고 지고 그렇게 했고 했고.}

10318 ## 아:드른 바블 잘 안물라커제 ***. {아이들은 밥을 잘 안 먹으려고 하지 ***.}

10318 ## 핵:꼬에 갈 때 데면 이 머 울고 불고 그래 사체.{학교에 갈 때 되면 이 뭐 울고 불고 그래 쌓지.}

10318 ## 돈 달라꼬 수굼뇨 달라꼬 또 가와 울고 그래 사체.{웃음}{돈 달라고 수업료 달라고 또 가오라고(?) 울고 그래 쌓지.{웃음}}

10318 ## 길거하고일 그래아고 인제가지 사라낭:기 요 모냐~이랴요.{***** 그래 하고 인제까지 살아 나온 게 이 모양이에요.}

10318 ## 그러썸니다.{그렇습니다.}

10319 @ 저 엔나레 그러머 방아는 어떻게 이션습니까?{저 옛날에 그러면 방아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10319 @ 지음 말씀 드려보니까: 디딜빠~아는 이석꼬.{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디딜방아는 있었고.}

#디딜빠~아.{디딜방아.}

10319 @ 그다메 또 물바~아도 말씀하시네예.{그 다음에 물방아도 말씀하시네요.}

예, 물바~아느.{예, 물방아는.}

물바~아느 찌:러 갈라쿠메 여:서.{물방아는 찢으러 가려고 하면 여기서.}

10318 # 여가 한::참 가야 데.{여기에 한참 가야 돼.}

10318 ## 그라고 또.{그리고 또.}

@ 그래머예.{그러면요.}

10318 # 가서 찌묵끼 에러**.{가서 찢어 먹기 어려(웠다).}

그라고 여: 저 몬사는 사람 인션썸요, 몬.{그리고 여기 저 못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못.}

10318 ## 영: 몬사라서.{영 못살아서.}

10318 ## 어부 보리바~아 찌:줄라꼬 불:바~아 찌가저고:.{제법 보리방아 찢어 주려고, 보리방아 찢어서.}

10318 ## 개뜨까리 그으 꺾띠기는 임제가 묵꼬.{개떡 그 꺾띠기는 임자가 먹고.}

10318 ## 개:떡 꺾띠기 거걸 또 보드락끼 열기미로 처가지고 그거 가:.{개떡 꺾띠기 그걸 또 보드랍게 어레미로 쳐서 그것을 가지고.}

10318 ## 그그 어더 무올라꼬 너머 불:바~아꺼진 다 찌이주고 그느 지슬 해심:다.{그것 얻어 먹으려고 남의 보리방아까지 다 찢어주고 그런 짓을 했습니다.}

10318 ## 그래 그으 찌이주고 언자 개뜨까리 어더가다 어더다가 멍모글 할라하고.{그래 그것 찢어 주고 인제 개떡 얻어 명목으로 하려고.}

10318 ## 글: 그르키이 사람썸요, 이때까지(?).{그리 그렇게 살았어요, 이때까지(?).}

10318 # 그땐 비루가엄서농께 더 에르버께 상기라.{그때는 비료가 없어 놓으니까 더 어렵게 산 거야.}

(주제보자 다시 바꿈)

10319 @ 저기 그 그람 할머~이 그래 언자 방아 그지예.{저기 그 그러면 할머니 그래 인제 방아 그지요.}

10319 @ 어, 그 디딜빠~아 고고 얘기 썸 해주이소.{어, 그 디딜방아 그것 얘기 썸 해 주

십시오.}

10319 @ 생강나는대로 머 디딜빠~아는.{생각나는 대로 뭐 디딜방아는.}

서앵님 디딜바~아 아지여?{선생님 디딜방아 알지요?}

10319 @ 암:니다, 알기는 아는데 잘 모르니더.{압니다, 알기는 아는데 잘 모릅니다.}

10319 @ 엔나레 요 발각:꼬 디더각꼬 손잡꼬 쫘 * 하느 그: 아임니꺼, 예.{옛날에 요 발가지고 딴어 가지고 손잡고 ?? 하는 그것 아닙니까, 예.}

10319 # 크으 내아 머 찌거가지고 머 밥 해문느거 다 헐는데 머 머.{그 내가 뭐 쪼어 가지고 밥 해 먹는 것 다 했는데 뭐 뭐.}

10319 @ 말고 디딜빠~아 그으 바~아 소개 쫘 해주이쇼.{말고 디딜방아 그 방아 소개 좀 해 주십시오.}

10319 @ 우찌 생긴는지 이렇거러.{어찌 생겼는지 이런 것을.}

10319 # 저 먼저 차게 엄서습니꺼?{저 먼저 책에 없었습니까?}

10319 @ 차게 인능거 나뒸고 그 말씀 좀 해주이쇼.{책에 있는 것 놓아 두고 그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0319 # 내나 고래 생긴찌 머.{내나 그렇게 생겼지 뭐.}

디들빠~아 찢라쿠몬.{디딜방아 찢으려고 하먼.}

10319 ## 물하고 가까 가야 텨니다.{물하고 가져가여 됩니다.}

10319 ## 물도 물도 가가가고 모르바~아로 이고 가각:꼬.{물도 물도 가져가고 마른방아를 이고 가서.}

10319 ## 그따다: 물 좀 뵙꼬.{거기다 물 좀 붓고.}

10319 ## 그래각 바아다에 니루구텨요.{그래 가지고 방아에다 내리거든요.}

10319 ## 작:꾸 찌: 재끼면:자 당기 생기모.{자꾸 쪼어 제끼면 인제 등겨가 생기면.}

10319 ## 또 하문 더 까불라.{또 한 번 더 까불려.}

10319 ## 끼 까드리: 하모.{끼 물기가 사라질 정도가 되면.}

10319 ## 까불:가꼬 재불 쌀마야 그 바비 데지.{까불어서 두벌을 삶아야 그 밥이 되지.}

10319 ## 그냥 해:꼬는 바비 안 데 나오*.{그냥 해서는 밥이 안 돼 나오지.}

처으먼지 껌뽀리 찌이서.{처음에 인제 껌뽀리를 쪼어서.}

10319 # 까불러각꼬 그은:자 또 다시 또 말랴:.{까불러 가지고 그건 인제 또 다시 또 말려.}

10319 # 껌뽀리 인자 건꺾띠~이 그으느 인자 짐승 주고.{껌뽀리 인제 껌꺾테기 그것은 인제 짐승 주고.}

10319 # 또 보리쌀로 여 반튼 까징걸 떠 덕서게 느러 말랴가꼬 언자 또 때끼로 갑니다.{또 보리쌀을 여 반은 까진 것을 또 멍석에 늘어 말려 가지고 인제 또 닭이러 갑니다.}

10319 # 때끼러 가머 그때 또 물로 부우수도 때끼여 데.{닭이러 가면 그때 또 물을 부어서도 닭여야 돼.}

10319 # 그람 이자 때끼각꼬 인자.{그럼 인제 닭여서 인제.}

10319 # 말랴 다마 나따아간:자 쌀마가꼬 바블 해서 묵꼬.{말려서 담아 놓았다가 인제 삶아서 밥을 해서 먹고.}

10319 # 참: *** 새~이컴 우습찌, 참.{참 *** 생각하면 우습지, 참.}

10319 @ 그러머 디딜바~아 그 이기 바리 두개 아~임니까이?{그러면 디딜방아 그 이게 발이 두 개잖습니까?}

10319 # 바리 여: 저 몸띠~이가 요리 지다마~이 하나 이시메는.{발이 여기 저 몸둥이가 요리 기다랗게 하나 있으며는.}

10319 # 이자 사네언자 예정드리 나무하러 가모 우쩌다 조은 소리 이시모.{인제 산에 인제 외정들이 나무하러 가면 어쩌다 좋은 술이 있으면.}

10319 # 그을 끄너다 지베 갈따 논능기라.{그것을 끓어다 집에 갖다 놓는 거야.}

10319 # 고 고거 맹글라꼬.{공이 그것 만들려고.}

10319 # 그랜:자 그능겐:자 혹시 이시민자:.{그래 인제 그런 거 인제 혹시 있으면 인제.}

10319 # 그으 맹그러나:안따가 인자 바~아꼬가 이기 또 달커등.{그 만들어 놓았다가 인제 방앗공이가 이제 또 닳거든.}

10319 # 여개 인자 바리 이리 익꼬.{여기 인제 발이 이렇게 있고.}

10319 # 예겐:자 또 또 나무 뿌리~이 이능결: 바가각꼬 그따: 구녕을 떨어가지고.{여긴 인제 또 또 나무뿌리 이런 것을 박아서 거기다 구멍을 뚫어서.}

10319 # 이:리 과가저고 언자 나무 일 거:치닝기라.{이렇게 과서 인제 나무 이것을 걸치는 거야.}

10319 # 걸치고 요 중가네 언자 또 안 놀고로 또 쟈가 또 드러가능기 이썬.{걸치고 요 중간에 인제 또 안 놀게끔 또 쇠가 또 들어가는 것이 있어.}

10319 # 또 이마:낭기.{또 이만한 것이.}

10319 # 구녕을 떨어가지고 이리 여가저고 그래야 이거 이 안 놀고 여어 인자 고 이결 맨 드러 바아가지고 인자.{구멍을 뚫어서 이리 넣어서 그리해야 이거 이 안 놀고 인제 공이 이것을 만들어 박아서 인제.}

10319 # 미테 인자 돌호바기 이썬노옹께.{밑에 인제 돌확이 있어 놓으니까.}

10319 # 그래 앤자 물로 부우스 언자 나락바~아도 찌이 묵꼬 보리바~아도 찌이묵꼬 그래 해앤데.{그래 인제 물을 부어서 인제 벼 방아도 찧어 먹고 보리방아도 찧어 먹고 그렇게 했는데.}

10319 # 이 바~아 찧라쿠머 참 올:매나 덕꼬 기창코.{이 방아 찧으려고 하면 참 얼마나 덩고 귀찮고.}

10319 # 그러치마는 해서 몽느기라스 해야대꼐 아이가?{그렇지마는 해서 먹는 것이라서 해야 될 것이잖아?}

10319 # 그리 해서 묵꼬, 이저네 사람 그그 참 시바~아 새앵캐머 참.{그렇게 해서 먹고, 이전에 사람 그것 참 시방 생각하면 참.}

이지네 여자드른 참 분상합니다, 불상해.{이전에 여자들은 참 불쌍합니다, 불쌍해.}

10319 # 해도 세우리 참 이리 가:빠리고.{(그렇게) 해도 세월이 참 이렇게 가 버리고.}

10319 # 그래각꼬 창: 우리 아:드른 그래도 언자 또 세 미이고 대:지 미고 할라꾸마 또 소 풀 좀 벨랴:니.{그래서 참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인제 또 소 먹이고 돼지 먹이고 하려고 뭐 또 쇠풀 좀 벨려니.}

10319 ## 대애지 미이야제 소풀 베야제.{돼지 먹여야지, 쇠풀 베어야지.}

10319 # 그 돈 할라꼬, 새끼 내이가 돈 할라꼬.{그 돈 하{만들}려고, 새끼 내어서 돈 하{만들}려고.}

10319 @ 그르문 언자, 요:게 디딜빠~아고 그지예?{그러면 인제, 요게 디딜방아고 그죠?}

10319 @ 아까: 물바~아는 한 십니 간다 했습니까?{아까 물방아는 한 십리 간다고 했습니까?}

10319 ## 하~아, 심니***.{아무럼, 심리***.}

@ 그 언자 물바~아 말슴 좀 해주이소.{그 인제 물방아 말슴 좀 해 주십시오.}

10319 # 물바~아는 내나 이 저 물: 각꼬 도로가능 그: 아임니꺼:?.{물방아는 내나 이 저 물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거잖습니까?}

10319 # 끄런데 그그는 호바기 이:만 하거등예.{그런데 그것은 확이 이만 하거든요.}

10319 # 보리 향가매 갈따 봉:까네 한목 다 찢니기라 물로 부:감섬.{조리 한 가마니 갖다 부어니까 한목에 다 찢는 거야, 물을 부어 가면서.}

10319 # *이 저:게 인자 물방아 디에서 인저 도라간:자 물 체:늘 각꼬 인자 이 올라가고 내로가고 함께.{*이 저것 인제 물방아 뒤에서 인제 돌아서 인제 물 ?을 갖고 인제 이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니까.}

10319 # 그으는 호바기 이:만 합니더, 돌호바기.{그것은 확이 이만 합니다, 돌확이.}

10319 # 이:만 하면:자 그에 보리 한 가마~이 다 분능기라.{이만 하면 인제 거기에 보리 한 가마니 다 붓는 거야.}

10319 # 그라아 물로 부:감섬 이럼언자 녕가각꼬 오지.{그렇게 물을 부어 가면서 이러면 인제 넘겨서 오지.}

10319 # 인자 아시 찢능기 인자 녕구능기라.{인제 애벌 찢는 게 인제 넘기는 거야.}

10319 # 아시 꺾띠기.{처음 꺾떼기.}

10319 # 고오 녕가가 와아꼬 언자 또 까불라썬 말라가꼬 또 때기러 가야 데.{그것 넘겨서 인제 또 까불러서 말려 가지고 또 ㄷ닭이러 가야 돼.}

10319 # 때끼능그는 그마 보통 고마 지베서 고마 여: 테들빠~아가 이싱게 때끼 무:서.{닭이는 것은 그냥 보통 그냥 집에서 그냥 여기 디딜방아가 있으니까 닭여 먹었어.}

10319 # 그래 언자 그 인자 도 때끼며 또 때낄 자아는 인자 좀 매 찌:지고 보도란 덩기가 나오능기라.{그래 인제 그 인제 또 닭이면 또 닭일 적에는 인제 좀 매 찢어지고 보드라운 겨가 나오는 거야.}

10319 # 보드란 덩기 그그는:자 열기미: 처가저고 언 그을 또 개떡글 찌 몽능기라.{보드라운 겨 그것은 인제 어레미에 처서는 그것으로 또 개떡을 찌서 먹는 거야.}

10319 # 보드란 덩기 그으는.{보드라운 겨 그것은.}

10319 # 개떡글:또 또 때래 앵기고 우짜끼고 때르 예기애 데지:.{개떡 그것도 또 끼니를 때우고, 어쩔거니 끼니를 때워야 되지.}

10319 # 그라고 송년도 송년도: 여:는 고리 술지요.{그리고 흥년도 흥년도 여기는 꼴이 술지요.}

10319 # 전다븐 엄썰.{전답은 없지.}

10319 # 사라븐 그때 여개 근 사시보: 사람썰.{사람은 그때 여기에 근 사십호가 살았어.}

10319 # 이 자근 동네예.{이 작은 동네예.}

10319 # 막 너므 전빵도 그때는 우루들 클 썰는.{막 남의 결방도 그때는 우리들 클 적에는.}

10319 # 머 따리나 아드리나 열릴곱쌀 열여덜쌀 이래 무:모 고마 게론 시거서 너무 즐빠~이라도 내논능기라.{뭐 딸이나 아들이나 열일곱 살 열여덟 살 이리 먹으면 그냥 결혼 시켜서 남의 결방에라도 내어 놓는 거야.}

10319 # 우리는 너무 즐빵은 안 사람찌마, 우리도 마 그 시그로 상기라:.{우리는 남의 결방은 안 살았지만, 우리도 뭐 그 식으로 산 거야.}

10319 # 그래가 너무 전빵사리도 하고 이리노:니.{그래 가지고 남의 결방살이도 하고 이래 놓으니.}

10319 # 근: 사시보 여계 사람써, 여 쪼개느 여계 움팡한데 이게.{근 사십호가 여기 살았어, 여기 조그만 여기 '움팡한' 데 여기에.}

10319 # 그래 마 사람도 마 바글바글바글하고 고마.{그래 뭐 사람도 뭐 바글바글바글하고 그냥.}

10319 # 참.{참.}

참 사는 사닝기 기가 매키지.{참 사는 사는 게 기가 막히지.}

10319 # 그라고 거: 거이 밀거통 그렇겅또 타자해가지오 이로 만자~아서.{그리고 그것 그 밀 같은 그런 것도 타작해서 이것을 장만해서(?).}

10319 # 그으느:자 드들빠~아 몬 쪼 몽:게.{그것은 인제 디딜방아에 못 쪼어 먹으니까.}

10319 # 인자 이료 말라가지곤:자 으베 간:자 이 밀까 밀빠~아 찢는 기계: 가가저오 뽀사 가저고 언자 그리 와서 해서 묵꼬.{인제 ?? 말려서 인제 읍에 가서 인제 밀가 밀방아 찢는 기계에 가서 빵아서 인제 그렇게 와서 해서 먹고.}

10319 # 밀빠~아.{웃음}{밀방아.}

10319 # 그레가주: 그속하며 언자: 콩 쪼매서 해농거 머이 콩도.{그래 가지고 거속하면 인제 콩 조금씩 해 놓은 것 뭐 콩도.}

10319 # 이린데느 참 전답또 시방은 마~이 파디비서 전답또 이찌마는.{이런 데는 참 전답도 시방은 많이 파 뒤집어서 전답도 많이 있지마는.}

10319 # 저넌: 전다비 기해농께 너른:자 저: 까끄미시모.{전에는 전답이 귀해 놓으니까 남의 인제 저기 산 있으면.}

10319 # 너무 까끄미여도 내 요마치마 해묵짜쿠모 해무라 이리 데능기라여.{남의 산이라든 내 이만큼만 해 먹자고 하면 해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319 # 그레: 우루도 그때때애도 참 너무 까끄메다가 두 군데로 참 바틀 채아가저고.{그레 우리도 그때만 해도 참 남의 산에다가 두 군데를 참 밭으로 치워서(활용하여).}

10319 # 맨드라아조 그리 언자 콩 가라가:꼬 언자.{만들어서 그렇게 인제 콩 갈아서 인제.}

10319 # 콩도 시방 돈도 그레 안 애끼다.{콩도 시방 돈도 그렇게 안 아낄 거다.}

10319 # 다:문 요만치미라도 냥가 날:따가.{다만 요만큼이라도 남겨 놓았다가.}

10319 # 보로쌀 이념: 찌이모.{보리쌀 이눔 쪼으면.}

10319 # 밀 이럼 나모.{밀 이눔 나면.}

10319 # 그그다가 어자 쌀마가저고 매: 가라야 데고.{거기에다가 인제 삶아서 매 갈아야 되고.}

10319 # 콩 거 요마:침 여코.{콩 그 요만큼 넣고.}

10319 # 죽뚜 끼리 묵꼬.{죽도 끓여 먹고.}

10319 # 그 언자 거십 열꺼이시면:자 보온 데모 주캐.{그 인제 건더기 넣을 것 있으면 봄이 되면 죽 해.}

10319 # 쑥뜨더가:꼬 거십 역꼬.{쑥 뜯어서 건더기 넣고.}

10319 # 그리 묵꼬 사능기라.{그렇게 먹고 사는 거야.}

10319 # 그인:자 콩주기고.{그게 인제 콩죽이고.}

10319 # 아이요.{아이고.}

@ 요개: 그 연자바~아는 업설습니까, 돌방아?{여기에 그 연자방아는 없었습니까, 돌방

아?}

10319 @ 그 돌리가이고 소가 끄는거는?{그 돌려서 소가 끄는 것은?}

10319 ## 아 고고는 엄서꺼예.{아, 그것은 없었고요.}

@ 엄서꼬.{없었고.}

10319 @ 그라든 그거는예?{그러면 그것은요?}

10319 @ 요 아페 도구통에서 머 마~이 찌인찌예?{요 앞에 절구통에서 뭐 많이 찼었지요?}

10319 # 여: 우리 친저~어 인능걸:, 내가 클 짜 인능걸:.{여기 우리 친정에 있는 것을, 내가 클 적에 있는 것을.}

10319 # 우리 친처:서 인자 북뚱이라쿤데 목청조은데 그: 살면서 진주로 이새르 각꺼당:.{우리 친정에서 인제 북뚱이라고 하는 데 목 좋은 데 거기 살면서 진주로 이사를 갔거든.}

10319 # 그음:슴 언자 여: 디에 맨뜰하고 이걸하고.{그러면서 인제 여기 뒤에 (있는) 맨뜰하고 이것하고.}

10319 # 그때 니: 구루마다 실꾸 안능고, 구루마다 식꼬 옹기라.{그때 뉘 짐수레에다 싣고 왔는지, 짐수레에다 싣고 온 거야.}

10319 # 여: 그때 지리 엄서각:꼬, 사람 대~이는 질빠끼 엄서각:꼬.{여기에 그때 길이 없어서, 사람 다니는 길밖에 없어서.}

10319 # 저: 미테 아래몰:꺼정 아로 모레 가따노코 지고 와써여.{저 밑에 아랫마을까지 아랫마을에 갖다 놓고 지고 왔어요.}

10319 @ 그래 그: 요: 도구통에 머 찌이 뭉는, 우찌 찌이 뭉는지, 그: 보메는.{그래 거기 여기 절구통에 뭐 찼어 먹는(지), 어찌 찼어 먹는지, 거기 보며는.}

10319 @ 요력 요리 찼능걸 익꼬.{이렇게 이리 찼는 것도 있고.}

예.{예.}

@ 올라메고 치능거또 익꼬 양 그랜습니까?{둘러메고 치는 것도 있었고 그랬잖습니까?}

10319 # 치능거느 그각꼬 몬 해.{치는 것은 그것 가지고 못 해.}

10319 # 치능거느 떡 거통기나 해서 무올라커미는.{치는 것은 떡 같은 것이나 해서 먹으려고 하며는.}

10319 # 이 머언 요는 도리 이시몬:자 도레나 찌서 묵꼬, 너머 지베 이런 도리 이시모.{이 뭐 이런 돌이 있으면 인제 돌에나 찼어서 먹고, 남의 집에 이런 돌이 있으면.}

10319 # 쑥:떡거통거또 해서 무올라커모 거: 처야 때민:자 그 지베 가서, 찌가:가서 언자.{쑥떡 같은 것도 해서 먹으려고하면 거기 처야(?) 때문에 인제 그 집에 가서 찌서 가 인제.}

10319 # 그 지베 가 처 가:와서 언자 해서 묵꼬.{그 집에 가 처 가지고 와서 인제 해서 먹고.}

10319 # 우리능 마 도구토~오 이스농께 마 도구토~오 고마 주로 고마 찌이서 묵꼬.{우리는 그냥 절구통이 있으니까 뭐 절구통에 그냥 주로 그냥 찼어서 먹고.}

10319 # 머 떡** 그때 또 마~이 해무:끼나 인나, 여: 마 쪼맨스 쪼맨스 해몽능 거.{뭐 떡 해야 그때 또 많이 해 먹을 것이나 있니, 여기 뭐 조금씩 조금씩 해 먹는 것.}

10319 # 그래~이 언자 디들빠~아 언자.{그래 인제 디딜방아 인제.}

10319 # 보리바~아로 저: 가서 언자 찼어 오며 여:서 지베 아서 말랴각:꼬.{보리방아를 거기 가서 인제 찼어 오면 여기에서 집에 와서 말려서.}

10319 # 그때넌:자 도구토~오도 여: 도구통도 물 쪼꾸민서 지이:각:꼬 때끼가: 목꼬.{그때는 인제 절구통에도 여기 절구통도 물 조금씩 제거서 닦여서 먹고.}

10319 # 또 그리 모날때넌:자 방아시렌:자 네: 데들빠~아 이스농게 큰지베.{또 그렇게 못할 때는 인제 방아실에 인제 거기에 디딜방아 있어 놓으니까 큰집에.}

10319 # 디들빠: 가서 언자 찌이 가:고 와서 언자.{디딜방아에 가서 인제 찼어 가지고 와서 인제.}

10319 # 말라:날:따 해서 목기또 하고.{말려 놓았다가 해서 먹기도 하고.}

10319 # 그라 만: 보리도 디찌노몬: 저:에 머단 사라몬 대베늘 하며 막 보리깡태이가 똥꾸너~을 꺾꾸 찢러감:서 나온다 이래 산 삼:도 익꼬.{그래 마 보리도 ?? 놓으면 저기 뿔한(웬만한) 사람은 대변을 하면 막 '보리깡탱이'가(?) 똥구멍을 꺾꾸 찢러 가면서 나온다 이래 쌓는 사람도 있고.}

10319 # (웃음) 보리 디들빠: 찌이모 그 보리깡태~이가 다 안 빠지거등에.{(웃음) 보리 디딜방아에 찼으면 그 '보리깡탱이'가 다 안 빠지거든요.}

10319 # 보리쌀 기: 호메 이러 깡태이 기: 자 잘 안 빠져.{보리쌀 그게 흠에 (박혀 있는) '깡탱이' 그게 자 잘 안 빠져.}

10319 # 이저네 노인들 그르 싸썩.{이전에 노인들 그래 쌓았어.}

10319 @ 그라몬예.{그러면요.}

그라아 차차:: 차차 세우리 애정 해방 데고.{그래서 차차 차차 세월이 왜정(에서) 해방되고.}

10319 # 그라: 또 쪼개 사다가.{그렇게 또 조금 살다가.}

10319 # 또 인민군 세사~이 나고.{또 인민군 세상이 나고.}

10319 # 또 인민군 세상 가고 낭께네로 언자 미국 사람드리 나오가조 이리 살기 조키로 안 해나십니까?{또 인민군 세상 가고 나니까 인제 미국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살기 좋게 해 놓았잖습니까?}

10319 # 그러차 농가는 기계 나오제.{그러자 논 가는 기계 나오지.}

10319 # 타작 하는 기계 나오제.{타작 하는 기계 나오지.}

10319 # 차 흔하게 썰엔제.{차 흔하게 많지.}

10319 # 기용기: 나월제.{경운기 나왔지.}

10319 # 여자 절몬 사람들 이라능거 저네 우르들 대모 반:또 아입니다.{요즘 젊은 사람들 일하는 것 전에 우리들 비하면 반도 아닙니다.}

10319 # 처머 머 기계저그로 베제, 겨영기 다 시러 나르제.{전부 뭐 기계적으로 베지, 경운기 다 실어 나르지.}

10319 # 저네 우르잔 선:저이 소늘 홀꼬.{전에 우리들은 순전히 손으로 홀고.}

10319 # 처먼지 나락 쪼개 베:와서 초가시레 나락 쪼개 빼:와서 쌀 그그 해서 무올라꼬 꼬채리: 혼십니다.{처음 벼 조금 베어 와서 초가을에 벼 조금 베어 와서 쌀 그것 해서 먹으려고 꼬챙이로 홀습니다.}

10319 # 나락판 풀판 요마:치 베:오모, 폰나락.{벧단 풋단 요만큼 베어 오면, 풋벼.}

10319 # 그 노리이:항 그능거.{그 노릇한 그런 것.}

10319 # 홀터가 언나 썩: 말라야:꼬언자.{훑어서 인제 썩 말려서 인제.}

10319 # 참 여: 도구통도 찌이 목꼬.{참 여기 절구통에도 찼어 먹고.}

10319 # 마느모 인자 데들빠~아 가서 찌:서 목꼬.{ 많으면 인제 디딜방아에 가서 찼어 먹

고.}

10319 ## 아이구 시방 아:드른 부무가 너머 그리키아 열리 키아각꼬 나 머 할깁가 시뿌 대:.{아이고 시방 아이들은 부모가 너무 그렇게 키워 열러서 키워서 나 뭐 할 건지 싶다.}

10319 ## 하자 한:대로 하고.{하자고 하는 대로 하고.}

10319 ## 말도 듣또 아나고:.{말도 듣지도 않고.}

아이 요새 아:드른 심도 못 써.{아이 요새 아이들은 힘도 못 써.}

10319 # 멀 무웅걸: 들고 나바야 머 무 머머 시미 인찌.{뭐 무거운 것을 들고 놓아 봐야 뭐 무 뭐뭐 힘이 있지.}

10319 # 저네 우리들 클 켜느 총각들 열 다선쌀 너머가고 열 연쌀 열일곱새 이리 데모, 나라 항 가마~이 타작해서 나락 항 가마~이 딱 그때 말로 이 대 여연선따:임니까.{전에 우리들 클 적에는 총각들 열다섯 살 넘어가고 열여섯 살 열일곱 살 이렇게 되면, 벼 한 가마니 타작해서 벼 한 가마니 딱 그때 말로 이렇게 대어 넣었잖습니까.}

10319 # 그리 데:너마 이거 저라.{그렇게 되어 놓으면 이것 저라.}

10319 # 고 찌거 인나머 이자 장골 데닝기라.{웃음}{그것 지고 일어나면 이제 장골 되는 거야.웃음}

10319 # 고라고 고:서 또 나 쪼깨 마는 사라른 또 나락 섬.{그리하고 거기에서 또 나이 조금 많은 사람은 또 벳섬.}

10319 # 지플 역꺼가저오 또 섬 맹거농:거 또 시무말 드러가능거.{짚을 엮어서 또 섬 만들어 놓은 것 또 스무 말 들어 가는 것.}

10319 # 그눔 저 또 장골드른 또 지고.{그눔(을) 저 또 장골들은 또 지고.}

10319 # 아, 장고르다 사코.{아, 장골이다 쌓고.}

10319 ## 아이, 예 시앵니른 그 아 아 모를끼그마.{아이, 예 선생님은 그 아 아 모를 것 이진만.}

10319 ## 섬 맨드러가주 나락심 지구 땡기능겨:.{섬 만들어서 벳섬 지고 다니는 것.}

10319 ## 안 바:서긴데.{안 봤을 건데.}

10319 # 농사 지이시머 머 받:찌.{농사 지었으면 뭐 봤지.}

10319 ## 안 받서, 안 받:써.{안 봤어, 안 봤어.}

10319 ## 내가 스물: 아:, 일 열여어 살 무:스 나락서를 켜:우 지구 인날따 마:다.{내가 스물 아, 열여섯 살 먹어서 벳섬을 겨우 지고 일어났다 말이다.}

10319 ## 그언데 대도 열바리거등, 대도.{그런데 대두 열 말이거든, 대두.}

10319 ## 소도느 수무마리고.{소두는 스무 말이고.}

10319 ## 그글: 하 하 하 한서를 전따마:다, 그때느.{그것을 하 하 하 한 섬을 졌다 말이다, 그때는.}

10319 # 소도: 마리래쿠능겨는 저네 새앵님 와 말 요리 쪼깨능겨 이찌예, 손재비 익꼬 자 쪽:항거.{소두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선생님 왜 말 이렇게 조그마한 것 있지요, 손잡이 있고 '짹쪽한' 것.}

10319 # 물또~오 거통거.{물동이 같은 것.}

10319 # 소도 마른: 단 떼 들고, 데로 가 데:보모, 고 마른.{소두는 다섯 되 들고, 되를 가지고 되어 보면, 그 말은.}

10319 # 단 떼 부우모 고기 언자 소도말 고기: 한 마리고.{다섯 되 부으면 그게 인제 소두

말 그게 한 말이고.}

10319 # 대도라쿠능거는 언자 열 때가 드러가야 그기 대도라.{대두라고 하는 것은 인제 열 되가 들어가야 그게 대두야.}

10319 # 그 마른 이래 쫓 크그등네.{그 말은 이리 좀 크거든요.}

10319 # 둥구러마~이 그으느 진짜 물똥우마 하지.{둥그스름하게 그것은 진짜 물독만 하지.}

10319 # 고고노 인자 대도마리라 쿠능기고.{그것은 인제 대두말이라고 하는 것이고.}

10319 # 열 때 드러가능거느.{열 되 들어가는 것은.}

10319 @ 대도, 대도는 멍니, 큰 *.{대두 대두는 뭍니, 큰 *.}

대도, 큰 말.{대두, 큰 말.}

10319 ## 큰 마리아.{큰 말이야.}

데로 가: 데 여모 열 때 드러가는 그으느.{되를 가지고 되어 넣으면 열 되 들어가는 그것은.}

10319 # 손재비 이리 드능거 안심니꺼, 생님 서앵님 아시마심 하긴데?{손잡이 이렇게 드는 것 있잖습니까, 선생님 선생님 아습하습할 건데.}

10319 # 하모, 아시마시하끼라, 고구느 언자 대도.{아무렴, 아습아습할 거야, 그건 인제 대두.}

10319 # 대도 열 마리아 한 서미고.{대두 열 말이 한 섬이고.}

10319 # 인자 달 때 드러가릉 그은:자 소도 마린데.{인제 다섯 되 들어가는 그것은 인제 소두말인데.}

10319 # 고고느 언자 시:무마리 드러가야 한 서미라.{그건 인제 스무 말이 들어가야 한 섬이야.}

10319 # 마리아 한 서미라.{말이 한 섬이야.}

10319 # 소도 대도 이기: 다.{소두 대두 이게 다.}

10319 # 대도 마른 열 때 드러가고 데로 데몬:.{대두말은 열 되 들어가고 되로 되면.}

10319 # 소도 마른 달 때 드러가능기라.{소도말은 다섯 되 들어가는 거야.}

10319 ## 고온:자 한 섬 찌으면 쌀:.{그것 인제 한 섬 찢으면 쌀.}

10319 ## 요자 ** 신:디 나오거등, 신:데.{?? ?? 쉼 데 나오거등, 쉼 데.}

10319 # 그근또 잘 해야 신디 나오제 신디 잘 안 나와요.{그것도 잘 해야 쉼 되 나오지 쉼 데 잘 안 나와요.}

10319 @ 예.{예.}

파 파십 요새 요새 짜라나 팔십 팔십이끼루 나가네.{팔 팔십 요새 요새 쌀 하나(?) 팔십 팔십이 킬로그램 나가네.}

10321 @ 저 그라믄예 예:, 그:{저 그러면요 예, 그.}

10321 @ 나락 보리 밀 요: 쟁꼬나면:자 그 껍데기 안 노옴니까이?{벼 보리 밀 이것 쟁꼬나면 인제 그 껍데기 나오잖습니까?}

10321 @ 그 껍데기도 언자 보리:에서 노오능거 하고 미래서 노오능거 하고 나라게 노오능거 다 안 다름니꺼예?{그 껍데기도 인제 보리에서 나오는 것 하고 밀에서 나오는 것 하고 벼에서 나오는 것이 다 다르잖습니까?}

다 다르지예.{다 다르지요.}

10321 @ 그래서 껍데기:를 가지고 먼저 나락부터 해가저고.{그래서 껍데기를 가지고 먼저

벼부터 해서.}

10321 @ 그 이름들 안 이릅니까?{그 이름들 있잖습니까?}

왕기.{왕겨.}

10321 @ 이 그래서 고고 한 먼 먼저 나락부터 ****.{그래서 그것 한 번, 먼저 벼부터 ****.}

10321 @ 나라근 한 무 찌그머 보드랍꼬 켜고 이렇겅또 업따:임니까:느 함면 하면 꼬치지 예?{벼는 한 번 찢으면 보드랍고 켜고 이런 것도 없잖습니까, 그것은 한 번 하면 끝이지요?}

10321 @ 어떤습니까?{어떻습니까?}

10321 # 아~이지예.{아니지요.}

@ 나락또 두분 노옵니까?{벼도 두 번 나옵니까?}

10321 # 예.{예.}

@ 그 말씀 좀 해주이쇼.{그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0321 # 나라글 아시로 찌이몬 왕기 요 껌띠~이마 두 쪼가리 나가저고 사르르 벅겨저 나오능기고.{벼를 애벌을 찢으면 왕겨 이 껌떼기만 두 조각 나서 사르르 벗겨져 나오는 것이고.}

10321 # 인자 두불로 찌이메는 언자: 보드랑 덩기, 미미끼.{인제 두벌을 찢으면 인제 보드라운 겨, '미미끼'.}

10321 # 쌀까루거통거 보드랑 덩기 고고 나옵니더.{쌀가루 같은 것, 보드라운 겨 그것 나옵니다.}

10321 @ 미미끼는 무울 수 이릅니까?{'미미끼'는 먹을 수 있습니까?}

10321 # 미미끼, 그 저네는 보까도 머, 미미끼 그으도 담니더이:.{'미미끼', 그 전에는 볶아도 먹, '미미끼' 그것도 담니다.}

10321 # 달다착합니더.{달착지근합니다.}

@ 나라게서 노온다 마리지예?{벼에서 나온다는 말이지요?}

#음.{응.}

10321 # 나락 거껌띠기 베끼고.{벼 곁껌떼기 벗기고.}

10321 # 두불르 찌이미는 미미끼가 또 나오거등, 보드랑 겨.{두 벌로 찢으머는 '미미끼'가 또 나오거등, 보드라운 것.}

@ 그 왕기하고 미미끼: 인따 그지예?{그 왕겨하고 '미미끼'가 있다 그쵸?}

예.{예.}

10321 # 고온또 참 두 가지 나와, 두 가지 나오고.{그것도 참 두 가지 나와, 두 가지 나오고.}

10321 # 보리도 찌이메는 껌띠기는 처문지 나온 껌띠기는 몬 무구도 두불채 나옉 꺼띠기는 때길 때끼능 껌띠~이 나오능거는 개떡글 쪼 무거.{보리도 찢으머는 껌떼기는 처음에 나온 껌떼기는 못 먹어도 두 번째 나온 껌떼기는 닭일 닭이는 껌떼기 나오는 것은 개떡을 쪼 먹어.}

10321 @ 때길 때 노오능거.{닭일 때 나오는 것.}

10321 # 그 언자 개떡당기라, 고고느.{그 인제 '개떡당기'야, 그것은.}

10321 # 때길썩 나옉 그:느 개떡당기.{닭일 적에 나온 그것은 '개떡당기'.}

10321 @ 그르르 아시에서 노오능거는 머슨 덩김니까?{그러면 애벌에서 나오는 것은 무슨

겨입니까?)

10321 # 그으느 인자 저 천빠~아 찌웅그 그근 인자 아시바~아 그그는 세 무거.{그것은 인제 저 첫 방아 찼은 것 그것은 인제 첫방아 그것은 소가 먹어.}

10321 # 소도 묵꼬 대:지도 묵꼬.{소도 먹고 돼지도 먹고.}

10321 @ 그 그으는 이리미 그냥 머 그는 그 덩김니꺼, 그러머.{그 그것은 이름이 그냥 뭐 그것은 그 겨입니까, 그러면.}

그냥 고마.{그냥 그만.}

10321 # 그냥 덩기고.{그냥 겨고.}

10321 @ 때깰 때 노오능거는 개떡덩기고?{닭일 때 나오는 것은 '개떡덩기'고?}

10321 # 때끼덩기 그:는 언자: 사라미 주로 다 묵찌.{닭인겨 그것은 인제 사람이 주로 다 먹지.}

10321 # 배 고평거 그기라도 찌머야 데꺼다:이가?{배 고평 것 그거라도 찌 먹어야 되잖겠 아?}

10321 # 그러자 사까리 요거 우찌 나와가저고 사카리가 퍼징기라.{그러자 사카린 요게 어찌 나와 가지고 사카린이 퍼진 거야.}

10321 # 사까리물 쪼개 해서 그래헤 노오몬 참 맛또 익꼬.{사카린 물 조금 해서 그렇게 해놓으면 참 맛도 있고.}

10321 # 그르구루 세상에 또 조웅게네 또 모른 기계 쫘능기 나와각:꼬, 으베.{그러구러 세상에 또 좋으니까 또 마른 기계 찼는 것이 나와서, 읍에.}

10321 # 모른기계: 쪼매이 찌이각:아꼬.{마른 기계에 조금 찼어서.}

10321 # 보리바~아 모른 기계: 찌:면.{보리방아 마른 기계에 찼으면.}

10321 # 그으는 머 전 밀까리건찌.{그것은 뭐 전부 밀가루 같지.}

10321 # 그그는 인자 참.{그것은 인제 참.}

10321 # 그근또 개떡장도 다마묵꼬.{그것도 '개떡장'도 담가 먹고.}

10321 # 이리 맹그리 가저고 찌가저고 개떡또 찌서 묵꼬.{이렇게 만들어서 찌서 개떡도 찌서 먹고.}

10321 # 참 개떡도 마이 무운따.{참 개떡도 많이 먹었다.}

10321 @ 그라믄 미른 미른 또 쫘 꺾떼기가 쫘 다를꺼 아임니꺼?{그러면 밀은 밀은 또 쫘 꺾떼기가 쫘 다르잖겠습니까?}

10321 # 미른: 저어게 이기 인자 밀까르 인자 기에르 찌러 가머.{밀은 저기 이케 인제 밀가루 인제 기계로 찼으러 가면.}

10321 # 미른 이 디딜빠아 몬 찌커등예.{밀은 이 디딜방아에 못 찼거든요.}

10321 # 그으는 인자 보리바아 찼는, 언자 언자 저어게 정기러 가: 찼는데.{그것은 인제 보리방아 찼는, 인제 저기 전기를 가지고 찼는데.}

10321 # 크으 가야 인자 밀로 빠수능기라.{거기에 가야 인제 밀을 빵는 거야.}

10321 # 그건 인자 가리는 가리대로 이자 처먼지 나온, 이 통이 이리 이시메는.{그건 인제 가루는 가루대로 인제 처음 나온, 이 통이 이렇게 있으며는.}

10321 # 밀까리가 빠사:저 나오메는.{밀가루가 빵아져 나오며는.}

10321 # 처문지 나온 가리는 맨 미테 깔린다:임니꺼?{처음 나온 가루는 맨 밑에 깔리잖습니까?}

10321 # 요오는 쫘 뵙꼬.{이것은 쫘 붉고.}

10321 # 고오느 이 미래서 껌띠이가 언자 좀 나오능기라.{그것은 이 밑에서 껌테기가 인제 좀 나오는 거야.}

10321 # 인자 두분채 요리 내려오는:자 우에 인는 요 과리는 언자 쪽:까리라서 포오:하치. {인제 두 번째 요리 내려오는 인제 위에 있는 이 가루는 속가루라서 보양지.}

10321 # 고농각:꼬 언자 풀도 하고, 온따 오사 인자 풀도 하고.{그놈 가지고 인제 풀도 하고, 옷 다 옷에 인제 풀도 하고.}

10321 # 그래 언자 고래 언자 그이 밑도 사악 뿌사지머 인자 밑지울이라고 이서.{그래 인제 그렇게 인제 그 밑도 짹 빵아지면 인제 밑지울이라고 있어.}

10321 # 밑꺼띠가 납딱납딱 해가:꼬.{밑껌질이 납작납작 해 가지고.}

10321 # 고오느 또 고올때로 난주~우 또 디에 빠지닝기라.{그것은 또 그것대로 나중에 또 뒤에 빠지는 거야.}

10321 # 밑지울이라꼬.{밑지울이라고.}

10321 # 고고각:꼬 인자 누룩 디디가저고 띠아각:꼬 술하고 하능거 아임니꺼?{그것 가지고 인제 누룩 디더서 띄워서 술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10321 # 밑지울 그:각:꼬.{밑지울 그거 가지고.}

10321 @ 그라머 처으메 언자 미테서 아네 뿌꼬 하능거 아니습니꺼, **. {그러면 처음에 인제 밑에서 안에 볶고 하는 것 있잖습니꺼, ??.}

10321 # 그렇게 언자 고마 그:도 농사 마~이 *** 마~이 지각꼬 마~이 하는 사람은 저:게 가운데까리.{그러니까 인제 그냥 그것도 농사 많이 *** 많이 지어서 많이 하는 사람은 저기 가운데 가루.}

10321 # 맨 디에 맨 디에 나옴겐또 우에 언친다 아임니꺼?{맨 뒤에 맨 뒤에 나온 것도 위에 얹히잖습니꺼?}

10321 # 고올또 조 쯤 뿌꺼등.{그것도 조 쯤 볶거든.}

10321 # 그으 예: 뽕냐거트모.{그것 왜 볶으냐고 하면.}

10321 # 매:빠승게네로 이기 껌띠~이가 뽕사지 내리옴게네 쯤 뽕꼬.{매 뽕으니까 이게 껌테기가 부서져 내려오니까 쯤 볶고.}

10321 # 매뽕테 맨:미테 쩌느겐또 껌띠~이가 처문지 뽕사저 나옴게 볶꼬.{口맨 밑에 찢는 것도 껌테기가 처음에 부서져 나오니까 볶고.}

10321 # 인자 부재, 인는 사람드른 우에 여르 거더빠리고.{인제 부자, 있는 가람들은 위에 이것을 걷어 버리고.}

10321 # 쏘:까리마 다마: 해:목꼬.{속가루만 담아서 해 먹고.}

10321 # 또 우리드른 머 쯤개~이 그 빠수능거 마 마구 고마.{또 우리들은 뭐 조금 그 뽕는 것 뭐 마구 그냥.}

10321 # 이러가: 거마 다마아서 목꼬.{이래 가지고 그냥 담아 와서 먹고.}

10321 # 그으도 쪽:가리 빼고 격까리 빼고 프람니더.{그것도 속가루 빼고 겉가루 빼고 그럽니다.}

10321 # 그람:자 맨 디에 나옴거타고 썬어꼬 빼빠리고 맨: 미테 나옴고따 고래 서꺼가:꼬 고올뜨른 떠 인는 사람드도 고리 당꼬.{그럼 인제 맨 뒤에 나온 것 하고 ??? 빼 버리고 맨 밑에 나온 것 하고 그렇게 섞어 가지고 그것들은, 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담고.}

10321 # 우루드른 그마 한모게 일 당꼬.{우리들은 그냥 한목에 이렇게 담고.}

10321 # 머 쯤개내 노옴게래.{뭐 조그마해 놓으니까.}

10321 # 이:걸 적: 가르끼나 머 인노?(웃음){이것 저것 가를 것이나 뭐 있니?(웃음)}

10321 # 고래 고: 언자 지울 그: 가져고 인자 여: 반주굴 반모:리 해가저오 떠우거등.{그래 거기 인제 기울 그것 가지고 인제 여기 반죽을 ##### 해서 띄우거든.}

10321 # 여 저: 바구르 건:테나.{여, 저기 바구니 그런 테나.}

10321 # 그애, 그기: 인즈 그기: 누루기라.{그래, 그게 인제 그게 누룩이야.}

10321 # 그: 가져고 지금도 점부 다 그 가가 누루 한다:임니꺼?{그것 가져고 지금도 전부 다 그것 가져고 누룩 하잖습니까?}

10321 # 밀찌울.{밀기울.}

10321 @ 예:, 잘 아라 드르습니더.{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10322 @ 언자 곡숙 그 타작하고 나면예.{인제 곡식 그 타작하고 나면요.}

10322 @ 그 언자 아까 머: 가마~이, 섬 이렇거 안 이십니까?{그 인제 아까 뭐 가마니, 섬 이런 것 있잖습니까?}

10322 @ 어딩가 담는 그르기 이서야 텔꺼 아~임니꺼?{어딘가 담는 그릇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10322 @ 그르기 꼭 이런 그르기 아~이라 머 가마~이 가통 이렇거:.{그릇이 꼭 이런 그릇이 아니라 뭐 가마니 같은 이런 것.}

10322 # 그때는 이 푸대가 엄서농게 가마~이 아이모 서미라.{그때는 이 푸대가 없어 놓으니까 가마니 아니면 섬이라.}

10322 @ 그래 고고 함먼 말스매 주(이소).{그래 그것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10322 @ 가마~이 머 섬 그담 나중이 디지도 이슬, 두 두지도 이슬끼고 이렇거.{가마니 뭐 섬 그 다음에 나중에 뒤주도 있을 (것이고), 뒤 뒤주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

10322 # 가시레느 언자: 서물: 해야만 나라글:.{가을에는 인제 섬을 해야만 벼를.}

10322 # 나래기 또 보리카머 쯔 마~이 나거덩네.{벼가 또 보리보다 쯔 많이 나거든요.}

10322 # 마~이 다물락코 가시레느 인자 이 저어게 그 그 서물 맨드능기라.{많이 담으려고 가을에는 인제 이 저기 그 그 섬을 만드는 거야.}

10322 # 서물: {섬을.}

10322 @ 우째 만듸 [X니꺼X]?{어떻게 만듭니까?}

이 저 용모름 트, 이 지봉에 용모름 트득끼: {이 저 용마름 틀, 이 지봉에 용마름 틀듯이.}

10322 # 지프 추리각:꼬.{짚을 추려서.}

10322 # 크:구로 이리 맨드닝기라.{크게 이렇게 만드는 거야.}

10322 # 처먼제 인자 지피 이시머는 요기: 벤:데고.{처음에 인제 짚이 있으며는 이게 벤 데고.}

10322 # 요기: 벤:데고.{이게 벤 데고.}

10322 # 요: 대가리거등.{이게 대가리거든.}

10322 # 이자 요거다고 요거다가 요리 마차가지 요리:제 영능기라, 가운데.{인제 요것하고 요것하고 요리 맞춰서 이렇게 인제 엮는 거야, 가운데.}

10322 # 고래 여커가저고 언자: {그렇게 엮어서 인제.}

10322 # 저 요오서 역꼬 요오서 연꼬 나이자 끄트무린:자 차악 착 이린:자 오마가암섬:자 끄틀 채앤.{저 여기서 엮고 여기서 여기서 엮넣고 나서 인제 끄트머리는 인제 착 착 이렇게 인제 오프려 가면서 인제 끝을 채.}

10322 # 동그라마~이 인제 예리 멩그리 채우지.{동그스름하게 인제 이렇게 만들어 채우지.}

10322 @ 곡서미(한서미) 두가마~임니까?{한 섬이 두 가마니입니까?}

10322 # 한 서미 보통, 하모, 두 가마이지.{한 섬이 보통, 아무럼, 두 가마니이지.}

10322 # 인자: 가마~이 요건또 인자 저네 애정 때부터~이 가마~이를 내놓기 그때 마~이 안 이서습니까?:{인제 가마니 이것도 인제 전에 왜정 때부터 이 가마니를 나온 것이 그때 많이 있잖았습니까?}

10322 # 이 마 해봉테고 나서는 마 엄설찌, 다 뜨다빠리고.{이 뭐 해방되고 나서는 뭐 없었지, 다 뜯어 버리고.}

10322 # 구울런데 주로 가마~이 사서 하고.{그런데 주로 가마니 사서 하고.}

10322 @ 두지는 우째 만드러옵니까?{뒤주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0322 # 두지는 인자: 부채드른 나무로 사다가 마당에 한 쭉게 목두주로 크:기 요리 딱 이 멩그리 녹코.{뒤주는 인제 부자들은 나무를 사다가 마당에 한 쪽으로 나무뒤주를 크게 이렇게 딱 이 만들어 놓고.}

10322 # 인자 우리거튼 사암드른 이 지블 지일 때예.{인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집을 지을 때예.}

10322 # 언자: 우리 청 노을 쟈예 언자: 그으느 침:부 인자 우리 영감 소느로 항께네.{인제 우리 청 놓을 때에 인제 그것은 전부 인제 우리 영감 손으로 하니까.}

10322 # 기계: 가서 인자 빼가 올 때: 요: 청 노코 나무지로 그때 언냐 요: 주디르 두 저어 게 두지르 요래 멩그란서:, 요예.{기계에 가서 인제 빼어서 올 때 여기 청을 놓고 나머지로 그때 인제 여기 뒤주를 두 저게 뒤주를 이렇게 만들었어, 여기에.}

10322 # 마루 여페다가.{마루 옆에다가.}

10322 # 그락: 그 언자 퍼여코.{그렇게 그 인제 퍼 넣고.}

10322 # 그래 내에서 목꼬 그래 하지.{그래 내에서 먹고 그렇게 하지.}

10323 @ 인자 가을거지가 끝나고 나면예:, 지피나 나무, 그때 나무는 언자 대나무나 싸리 나무를 말하는데.{인제 가을건이가 끝나고 나면요, 짚이나 나무, 그때 나무는 인제 대나무나 싸리나무를 말하는데.}

10323 @ 이렇걸 가지고 생알용품 그:또 만드러 받습니까?{이런 것을 가지고 생활용품 그것도 만들어 봤습니까?}

10323 @ 예를 드려서 머:.{예를 들어서 뭐.}

여:느 그리 안해.{여기는 그렇게 안 해.}

10323 @ 아~이몬, 덕석가통거느 만드러슬꺼 아임니까?{아니면, 명석 같은 것은 만들었습니까?}

덕석근 나모리(?) 엔나레 마~이 맨드랜찌, 여게.{명석은 *** 옛날에 많이 만들었지, 여기.}

10323 # 그때 덕석 아이머 널: 떼가 엄는디여?{그때 명석 아니면 널 떼가 없는데요?}

10323 @ 덕석 그으느 그라몬.{명석 그것은 그러면.}

10323 @ 덕석도 익꼬 그담: 집신도 엔나레 그 해슬끼:고.{명석도 있고 그 다음 짚신도 옛날에 그 했을 것이고.}

10323 @ 그 다메 머.{그 다음에 뭐.}

응?{응?}

@ 집신.{짚신.}

10323 # 아:.{응.}

@ 음, 집신.{음, 집신.}

10323 # 집씨는 그때 여: 또 땡그는 사래미 저네 여 영감 하네 이선씨.{짚신은 그때 여기에 또 만드는 사람이 전에 영 영감이 하나 있었어.}

10323 @ 그라고 또 그때 엔나렌 초가지붕 아~이님꺼~이?{그리고 또 그때 옛날에는 초가지붕이잖습니까?}

10323 # 초가지붕에.{초가지붕에.}

@ 그라고 영을 여커야 데꺼 아~임니까?{그러면 이영을 엮어야 되잖겠습니까?}

10323 # 하모.{아무렴.}

*****.{*****.}

10323 @ 그 요:섬 나 날개라캄, 날개라캄니까?{그 여기에서는 나 날개라고 하, 날개라고 합니까?}

나래.{나래.}

@ 나래?{나래?}

10323 @ 그람 요령 어찌든 집까지고 만드능거 안 이십니까?{그럼 이런 어찌든 짚 가지고 만드는 것 있잖습니까?}

10323 @ 지폴 가지고는 머어를 만드런는지 쯔 말슴 쯔 해주이소.{짚을 가지고는 뭐를 만들었는지 쯔 말슴 쯔 해 주십시오.}

10323 # 근: 지폴 가지고: 지폴 가지고 침:부 섬도 땡글고 나래짱도 여까꼬 집도 이이고. {그 짚을 가지고 짚을 가지고 전부 섬도 만들고 이영도 엮었고 집도 이고.}

10323 # 새끼도 꺾고.{새끼도 꺾고.}

10323 # 가마~이틀 인는 사라므 집 그옥 보드락끼 해가지오 가마~이도 꺾고 이:살:찌.{가마니틀 있는 사람은 짚 그것 보드랍게 해서 가마니도 꺾고 이래 쌓았지.}

10323 # 우리느 머 가마~이틀 엄스 나양게 그렇거 안 짜받찌.{우리는 뭐 가마니틀이 없으니까 그런 것 짜 보지 않았지.}

10323 # 우리 클 짜아느 그리 해도.{우리 클 적에는 그렇게 해도.}

10323 # 여: 와서느 마 그룽기 엄서농께네 그르기로 고마 세우리 가고 항게 고마 음서지고 뽀사지고.{여기 와서는 뭐 그런 것이 없어 놓으니까 그러구러 세월이 가고 하니까 그냥 없어지고 부서지고.}

10323 # 머: 음서지데:.{뭐 없어지데.}

10323 @ 덕서근 하라버지 직쩍 만드러 보신습니까?{명석은 할아버지 직접 만들어 보셨습니까?}

10323 ## 덕서은 항게 만드러 바:서, 내 쟁사~아 항게 만든:데,{명석 한 개 만들어 봤어, 내 평생에 한 개 만들었는데.}

10323 # 황게 맨드가 우찌 알킨데.{한 개 만들어서 어찌 할 건데.}

10323 ## 머: 항게 매들 들따~아 아마 아*** 엄선는데.{뭐 한 개 *** ***** 없었는데.}

10323 @ 그 만든 방뿌븐 지금 기억 나십니까?{그 만든 방법은 지금 기억나십니까?}

10323 ## 채끼 까가지고.{새끼 꼬아서.}

10323 # 새끼로 가느래:하~이 꺾니다.{새끼를 가느다랗게 꺾니다.}

새끼로 가느래:하~이 까가저고.{새끼를 가느다랗게 꼬아서.}

10323 ## 나나:..{나눠.}

10323 ## 여자들 삼베 시 저어 대나 안멜라쿠먼 나루디끼, 나나가지고.{여자들 삼베 저 ** 안 매려고 하면 나누듯이, 나눠서.}

10323 ## 찜:부 그으는 새끼가 다 드가능기라.{전부 그것은 새끼가 다 들어가는 거야.}

10323 ## 나나가지고 또 또 지다:나~이 커다:쿠구로 또 새끼르 까가:꼬.{나눠서 또 또 기 다랗게 크다랗게 또 새끼를 꼬아서.}

10323 ## 차앙 창 가마:, 더서: 할 마아치.{칭칭 감아, 명석 할 만큼.}

10323 ## 요 요 요: 거통 덕석 항개 하알거트며.{요 요 요것 같은 명석 한 개 할 것 같은 면.}

10323 # ****.{****.}

여어서.{여기에서.}

10323 # 덕서글 할라커더여.{명석을 만드려고 하면요.}

10323 # 요이 요리 드르가능거는 발로 봄마 가저고.{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발로 밟아서.}

10323 # 덕스기 요마날라쿠모 내 멜빠저능쿠능거이 그이 구주~이 안 이심니꺼?{명석이 이만 하려고 하면 내 몇 ***** 구멍이 있잖습니까?}

10323 # 구래섬 몽따몽따몽따 찜:부 요리 이 인자 딱 이 그스해가저오 줄로 해서 언자 몽또몽 처:메 해능기라.{그래서 몽땅몽땅몽땅하게 전부 요리 이 인제 딱 이렇게 해 가지고 줄로 만들어서 인제 몽땅몽땅하게 처음에 해 놓는 거야.}

10323 # 요리조리 언자.{요리조리 인제.}

10323 # 그래 여어서 인자 이그 할 때애.{그래 여기서 인제 이것 할 때애.}

10323 # 여어 언자 처면지 요거 테두리는 좀 특찌가 하능기라.{여기 인제 처음에 요거 테두리는 좀 특지게 하는 거야.}

10323 # 특찌이 고온:자 집 구구 인자 새끼 꼬 언자 가마감서 인자.{특지게 그것 인제 짚 그것 인제 새끼 그 인제 감아 가면서 인제.}

10323 # 그래야 손재비가 인찌.{그렇게 해야 손잡이가 있지.}

10323 # 가:새는 뚜꾸방게.{가는 두꺼운 것이.}

10323 # 그래 여:서 야 싹: 나노코 이자 여선:자 차악착 여꺼 언자 지폴 가저고.{그래 여기서 야 싹 놓아 두고 인제 여기서 인제 착착 엮어 짚을 가지고.}

10323 # 인자 여어 새끼 까낭거 점:다: 안 내나심니꺼, 줄로 요리 요거매~이 이 안 내:난나?{인제 여기 새끼 파 놓은 것 전부 다 내놓았잖습니까, 줄을 이리 이것처럼 이 내어 놓았잖니?}

10323 # 요: 언자 요거 들끼고 요리 여코 요거 들끼 이러고, 그리 착착 여꺼 나가능기라, 덕서글.{여기 인제 이것 들추고 이리 넣고 이것 들추어 이렇게 하고, 그렇게 착착 엮어 나가는 거야, 명석을.}

10323 # 그래아주 저짜 *****.{그래 가지고 저쪽 *****.}

찜::부 새끼라, 점:부 새끼라.{전부 새끼야, 전부 새끼야.}

10323 ## 손 안 대간테가 음서.{손 안 대 간 데가 없어.}

10323 @ 그으 하나 만들라카먼 메치리나 메치리나 걸립니꺼?{그것 하나 만들려고 하면 며

칠이나 며칠이나 걸립니까?)

10323 # 사랑바~아 가서 여러:나레 해앤다요.{사랑방에 가서 여러 날을 해야 돼요.}

10323 ## 그글 언자 그때는 나즈르도 모나고 바무루도 좀 하고.{그것을 인제 그때는 낮으로도 못 하고, 밤으로도 좀 하고.}

10323 ## 아처게 일찍 쯔~이 쯔 하고 그르찌.{아침에 일찍 조금 조금 하고 그렇지.}

10323 ## 일 사마 하지는 모내.{일 삼아서 하지는 못 해.}

10323 ## 하 시가~이 업서서.{할 시간이 없어서.}

10323 # 시나부러 하능기다, 시나버러.{시나브로 하는거야, 시나브로.}

10323 @ 시나부르 한다 그지예?{시나브로 한다 그죠?}

10323 # 시나부루, 시나부루 자꾸 여커 가져고 인자.{시나브로, 시나브로 자꾸 엮어서 인제.}

10323 # 그리 맨드능기라.{그렇게 만드는 거야.}

10323 @ 집신 함: 만드러 보인습니까?{짚신 한 번 만들어 보셨습니까?}

10323 ## 집시느 맨드러가 시너 마~이 시너 바안찌.{짚신을 만들어서 신어 많이 신어 봤지.}

10323 @ 직쩍 하라버지 만드러서 **. {직접 할아버지 만들어서 **.}

시너서.{신었어.}

10323 @ 만드러각꼬.{만들어 가지고.}

맨드러각:꼬.{만들어서.}

자기가 맨드러가: 시넨소?{자기가 만들어서 신었소?}

10323 ## 내가 만드러 시너찌.{내가 만들어서 신었지.}

10323 @ 그 함먼마.{그 한 번만.}

집시 마 함: 사가져고 음:시 데다 아나구로.{짚신 마 한 사서 *** 되지도 않게.}

10323 ## 꼬 그라고 나서 쯔꼬매이 일파: 우리느 꼬무시~이 나오꺼겨거든.{그 그라고 나서 조금 있다 우리는 꼬무신이 나왔거든.}

10323 ## 쯔깨:, 집시느 쯔깨: 시너바씨예.{조금, 짚신 조금 신어 봤어요.}

10323 ## 그라아 나서 꼬무시~이 참 우리 처문지 나올 찌: 꼬무시늘 사 시너꾸마.{그리고 나서 꼬무신이 참 우리 처음에 나올 때 꼬무신을 사서 신었건만.}

10323 @ 나래는 가치 여꺼바 여켄찌예?{이엥은 같이 엮어 보, 엮었지요?}

10323 ## 그 나래는 내가 마이 여꺼가:꼬 점:부 ** 이이:꼬장 내가 썩 다 헐찌.{그 이엥은 내가 많이 엮어서 전부 ** 이것까지 내가 썩 다 했지.}

10323 @ 그암 나래 그 여엥거 함: 쯔 말씀해주이소.{그러면 이엥 그 엮는 것 한 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10323 ## 나래 그 즈 시 그 해가저 지폴 수북하: 모아가가져고.{이엥 그 저 그 해 가지고 짚을 수북하게 모아서.}

10323 ## 자꾸 여꺼 나가지, 씨래기 역띠 요새 씨래기: {자꾸 엮어 나가지, 시래기 엮는 듯이 요새 시래기.}

10323 @ 처으메.{처음에.}

영능거 바안시머: {엮는 것 봤으면.}

10323 @ 처으메 집 까지고 요: 인제 요: 따: 매각:꼬도 하고.{처음에 짚 가지고 여기 인제 여기 딱 매어 가지고도 하고.}

10323 @ 고개 하나 언자 지플 또 요룬 착착 해나꺼 여 여꼬 요랴꼬 이 반대로 요래 돌리
야 텔꺼 아~임니꺼~이?{거기에 하나 인제 짚을 또 이렇게 착착 해 놓고 여기 놓고 이렇게
해서 이 반대로 이렇게 돌려야 되잖습니까?}

10323 @ 그람: 또 역꼬 또: 씨래~이 역뜨시 여겨가고.{그러면 또 엮고 또 시래기 엮듯이
엮어 가고.}

10323 @ 짐 모지래모 요: 집또 이사:갈끼고.{짚 모자라면 여기 짚도 이어갈 것이고.}

10323 ## 하모, 영능거느 짐 모지라므 여까:가저고 자꾸 여:서.{아무렴, 엮는 것은 짚 모지
라면 엮어서 자꾸 넣어서.}

10323 ## 저, 나락따~으 여: 막 수북:하~이 푸러노코.{저, 벧단을 여기 막 수북하게 풀어
놓고.}

10323 ## 여: 한 저묵 주부가: 이따 노코 또 여까가 요리요리 하고.{여기 한 주먹 집어서
여기다 놓고 또 엮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10323 ## 또 한 주먹 지버가: 요리요리.{또 한 주먹 집어서 이렇게 이렇게.}

10323 ## 그래가:고.{그래서.}

발로 자꾸 디디 나가지.{발로 자꾸 던어 나가지.}

10323 ## 영간:하 어부 완:상 시프모.{어지간히 제법 온 성싶으면.}

10323 # 하모, 선생님 누에 아롱아롱하긴데.{아무렴, 선생님 눈에 아른아른할 건데.}

이마나~이 마는 상 시푸면.{이만하게 많겠다 싶으면.}

10323 @ 그래가저오 요: 요 미테 뜨뜻하고.{그래서 여기 이 밑에 따뜻하고.}

10323 ## 찬찬 가마각:꼬.{칭칭 감아서.}

10323 ## 보:꾼 무꾸가:고 뜯.{볼꾼 묶어서 ?.}

10323 ## 떠 볼꾼 무꺼가: 때리 바그마 나르짜~이 똥꾸녀~이 간잔저름 하거등.{떠 볼꾼
묶어서 때려 박으면 이엉이 똥구멍이 간조름하거든.}

10323 ## 한 우우루 지베 할라커머 한 그때 열 열여식깡가 열릴곱깡가.{한 우리 집에 하려
고 하면 한 그때 열여섯 개인가 열일곱 개인가.}

10323 ## 그리해야 여: 살짝 지불 이인따 마리라.{그렇게 해야 여기 살짝 집을 이었다 말
이야.}

10323 ## 새드리 노코 올라가고.{사다리 놓고 올라가고.}

10323 ## 지아서 지리샬: 떠개기도 가트거머 내 지리새늘 떠오다야 가부 널쩌:서 이 빠진
사람도 익꼬.{***** 떠오다가 떨어져서 이 빠진 사람도 있고.}

10323 ## 꼬트무리 아서 점:부 난나즈 다 떠매: 텐다 마리라.{꼬트머리 와서 전부 낚날을
다 ?대어야 된다 말이다.}

10323 @ 그으 크으느 우째습니까, 그라머.{그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10323 @ 용모르믄.{용마름은.}

10323 @ 그으는 쯔 여끼가 어려울킨데에.{그것은 쯔 엮기가 어려울 건데요.}

10323 ## 그으 숙:꼬, 그으느.{그건 쉽고, 그것은.}

@ 용모름 티는 트능거.{용마름 트는 트는 것.}

10323 # 그 내라도 하겐떠라, 그.{그 내라도 하겠더라, 그것.}

10323 ## 용오름 그으느 식꼬.{용마름 그것은 쉽고.}

10323 # 그으느 용보름 텔 지리로 새끼르 딱 까:논능기라.{그것은 용마름 될 길이대로 새
끼를 딱 꼬아 놓는 거야.}

그으느 머 안자서.{그것은 뭐 앉아서.}

10323 # 용모름 지리로, 요거 인자.{용마름 길이로, 요거 인제.}

10323 # 멘빨 텐다 쿠능걸:, 골: 새기로 언자 저리 딱 폐 노쿠: 언자:.{몇 발 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새끼를 인제 저리 딱 폐 놓고 인제.}

10323 # 저:서 인자 차악차: 언자 여꺼 나오능기라.{저기서 인제 착착 인제 엮어 나오는 거야.}

10323 # 새끼 요거는 언자 쏘그로 여어 감섬.{새끼 이것은 인제 속으로 넣어 가면서.}

10323 # 새끼르 쏘그로 여코.{새끼를 속으로 넣고.}

10323 # 요: 새끼다: 인자 요모루를 요리 여어 가져고.{여기 새끼에다 인제 용마름을 이리 넣어서.}

10323 # 여: 하문 착 강꼬 다빼 여름 열: 딱 냉기노고 요로 씨 온 씨우고.{여기 한 번 착 감고 ** * * * 딱 남겨 놓고 요렇게 썬우고.}

10323 # 또 한 저먹 여어 가지고 또 여: 쏘게 새끼:다가.{또 한 주먹 넣어서 또 여기 속에 새끼에다가.}

10323 # 요: 착 가마각:꼬 굳 또 요쭈울 ** 탕기고.{여기 착 감아서 그것을 또 요쭈울 ** 탕기고.}

10323 # 함무는 언자 또 요래 가마가저오 언주 또 요쭈:로 냉기고.{한 번은 인제 또 이렇게 감아서 인제 또 이쪽으로 넘기고.}

10323 # 하모.{아무렴.}

10323 # 구래 이게 짜악 바르지거등.{그래 이게 짹 바르게 되거든.}

10323 # 그렇게 가운데 새끼다 대고 자꾸 감능기라.{그러니까 가운데 새끼에다 대고 자꾸 감는 거야.}

10323 # 그래 착착 그리 넣기감:서 그리 하데.{그래 착착 그렇게 넘겨 가면서 그렇게 하 데.}

10323 # 근: 내라도 하겄떠라, 그은.{그건 나라도 하겠더라 그건.}

10323 # 낸 달구어까리도 계란 논능걸또 그리 저:무 맹그라여, 고구매~이로.{내나 닭둥우리도 계란 놓는 것도 그렇게 전부 만들어요, 그것처럼.}

10323 # 고라꺼 지폴 싹 몽그러가저고 오:나:가~이 이런 딱 맹가라고 여꺼가꼬 딱 감따 단 다:이가, 계란도.{그렇게 짚을 싹 잘라서 오나가나(?) 이렇게 딱 만들고 엮어서 딱 갖다 달 잼아, 계란도.}

10323 # 기란 논능거또.{계란 놓는 것도.}

10323 # 달갈.{달걀.}

@ 아까 말씀하신 그거지예?{아까 말씀하신 그것이지요?}

10323 달구어까리 그근또 그리 맨드라.{닭둥우리 그것도 그렇게 만들어.}

10323 # 고래야 닥또 따시지.{그렇게 해야 닭도 따듯하지.}

10323 @ 그르큰네예.{그렇겠네요.}

10323 # 닥꺽 계우레 디:기 추부모 알 안 논는다이.{닭도 겨울에 매우 추우면 알 안 낳는 다.}

10323 # 추우마 알로 안 논심니더.{추우면 알을 안 낳습니다.}

10323 # 상: 사양다쿠테.{삭 삭는다고 하데.}

10323 # 닥끼 추봉께네.{닭이 추우니까.}

10323 # 그른 짐:승이 따신테르 양가거등예.{그런 짐승이 따뜻한 데로 안 가거든요.}

10323 # 여쭙 구렇게 침:부 이 그스글 해애:고 함께네로 게울 저 어름새 알로 논다:임니꺼?{요즘 그러니까 전부 거슴을 해서 하니까는 겨울 저 어름 사이에 알을 낳잖습니까?}

10323 # 점문저거루 이리 인자 한: 사라므.{전문적으로 이렇게 인제 하는 사람은.}

10323 # 저네 우루드르 당 미우머 머 오테 머 자는데가 인나?{전에 우리들은 닭 먹이면 뭐 어디 뭐 자는 데가 있니?}

10323 # 남 머 통: 요리 맹가라 노고 지: 그으 날라 드르가모 고마~이고.{남 뭐 통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거기에 날아 들어가면 그만이고.}

10324 @ 인자 세아네 뜰 그으 쓸 땀감 안 이십니까?{인제 겨울에 땀 그 쓸 땀감 있잖습니까?}

10324 @ 그:느 어떤 종류가 익꼬 우째 장망해습니꺼?{그것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장만했습니까?}

땀감:~{땀감?}

10324 @ 땀감, 땀능 거, 나무.{땀감, 땀는 것,나무.}

나무?{나무?}

10324 # 그때는: 가실해나코 나머 나무하이가 이리고.{그때는 가을해 놓고 나면 나무하기가 일이고.}

10324 # 처어: 먼 데 너무 사네 가서 한 지미라도 해서 돈 사물라꼬.{저 먼 데 남의 산에 가서 한 짐이라도 해서 돈 벌려고.}

10324 # 도둑 술:도 마~이 비고.{웃음}{도둑 술도 많이 베고.{웃음}}

10324 @ 도래술도 비입습니꺼?{도래술도 베었습니까?}

도둑술.{도둑 술.}

10324 @ 도둑술:~{도둑 술.}

하모.{웃음}{아무렴.{웃음}}

10324 # 그때 야아 사네 여어 아:무구떠 엄서썬여, 나무도 엄서, 다 베묵꼬.{그때 여기 산에 여기 아무 것도 없었어요, 나무도 없어, 다 베어 먹고.}

10324 # 마 새보그르도 가서 베고 고마.{마 새벽으로도 가서 베고 그냥.}

10324 # 나무가 엄스게, 바쁜 해무야 데꼐 아이가?{나무가 없으니까, 밥은 해 먹어야 되잖겠나?}

10324 # 그렇게 이 아페 이 압디로 술 향:개도 엄션심니더.{그러니까 이 앞에 이 앞뒤로 술 하나도 없었습니다.}

10324 @ 그라고 풀도 마~이 비:슬꺼 아임니까?{그리고 풀도 많이 베었잖겠습니까?}

10324 # 푸른 베에야 언자 또 보리로 가라 묵찌.{풀은 베어야 인제 또 보리를 갈아 먹지.}

10324 # 세 미테도 여코.{소 밑에도 넣고.}

10324 # 처내가저고 이넘 썬리서 또 보태각:꼬.{처 내어서 이놈 썰어서 또 보태서.}

10324 # 썬쿠고 삭쿠고.{썬히고 삭히고.}

** *** 사니 말:괘찌, 사니 말:개.{** *** 산이 맑았지(나무가 없었지), 산이 맑아.}

10324 ## 아무겔또 엄서*.{아무것도 없어*.}

그때마 애도 우리 저물짜마 해도 저어 앞사네 세 미이능거, 아:드리.{그때만 해도 우리 젊을 적에만 해도 저기 앞산에 소 먹이는 것, 아이들이.}

10324 # 저어짜 세 미이다가 세가 이 날빠리며 세 운다 마(리라), 아:드리 운다 마리라.{저

쪽에 소 먹이다가 소가 이 도망가(?) 버리면 소가 운다 말(이야), 아이들이 운다 말(이야).
 10324 # 너그 세 여어 일따: 여 동네에서 차라보고.{너희 소 여기 있다, 여기 동네에서 쳐다보고.}
 10324 # 너그 세 저리 간다 오디로 간다.{너희 소 저리 간다, 어디로 간다.}
 10324 # 오너 꼴짜로 간다 그 쌀 다 걸쳐주고 헐스예.{오느 꼴짜기로 간다, 그것을 싹 다 가르쳐 주고 했어요.}
 10324 # 소로 어떠 사네 한 사~이 저 소기 하네 이서?{소를 어디 산에 한 산이 속이 하나가 있어?}
 10324 # 다: 비:무빠리고 머.{다 베어 먹어 버리고 뭐.}
 10325 @ 인자: 겨우레:.{인제 겨울에.}
 10325 @ 그 머 밤 말고도 그대로 우짜다 보메는.{그 뭐 밥 말고도 그래도 어찌다 보며는.}
 10325 @ 그 머 야채나 가일가통거 머 묵꼬 안 그래습니까?{그 뭐 야채나 과일 같은 것 먹었잖습니까?}
 10325 @ 그때 가일캐도 지금참: 사가 이렇거느 물론 아이지마는, 무시도 무:슬끼고.{그때 과일이라고 해도 지금처럼 사과 이런 것은 물론 아니지마는, 무도 먹었을 것이고.}
 10325 @ 또 머, 고우매거통거 무:슬끼고, 앙그래슬꺼*?{또 뭐 고구마 같은 것 먹었을 것이고, 그렇잖았을까요?}
 10325 # 고우매도 중녀네 낙꼬.{고구마도 근래에 났고.}
 10325 # 고우매도 중유네 낙꼬.{고구마도 근래에 났고.}
 10325 # 축:캐 게으레 몽는다캐야 무시 그 함 뿌래 내몽능거.{기껏 겨울에 먹는다고 해야 무 그 한 뿌리 내어 먹는 것.}
 10325 # 그이지여, 땅거 아무걸떠 엄서.{그것이지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
 10325 @ 그 머 게우레 무시는 우째 해가: 묵습니?{그 뭐 겨울에 무는 어찌 해서 먹습니까?}
 10325 @ 그는 쌀마 몽능거느 아이끼고, 그냥:.{그것은 삶아 먹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냥.}
 10325 # 그냥 베 몽다:이가요.{그냥 베어 먹잖습니까.}
 ## *** 썰길로 베: 무어.{*** 생것을 베어 먹어.}
 10325 @ 우째 우째 묵습니꺼?{어떻게 어떻게 먹습니까?}
 # 무시 구디이 무더 난:따가.{무 구덩이에 묻어 놓았다가.}
 10325 # 게으레 심심하머 인자.{겨울에 심심하면 인제.}
 10325 # 무시 하나 나와서 그 깍까 묵꼬.{무 하나 내어 와서 그 깍아 먹고.}
 10325 # 구웁뚜 묵찌마라.{그것도 먹지 말아라.}
 10325 # 국 끼리 묵꾸로 반찬 해 무꺼로 묵찌마라.{국 끓여 먹게, 반찬 해 먹게 먹지 말아라.}
 10325 ## 그으도 무시도 몬 무우서.{그것도 무도 못 먹어서.}
 # 무시도 음:따:.{무도 없다.}
 10325 ## 무꼬지븐대로 몬:무우서.{먹고 싶은 대로 못 먹었어.}
 # 그근또 몬 머:서.{그것도 못 먹었어.}
 10325 ## 저뉴그로 가면 머 아는 지베 가몬.{저녁으로 가면 뭐 아는 집에 가면.}
 10325 ## 쪼개 놀다가 야 야:가:새 저 무시나 한 뿌리 내고:이라 까까 무보자, 아낙 그 그

기:지.{조금 놀다가 아 여기 가에 저 무나 한 뿌리 내어 가지고 오너라, 깎아 먹어 보자 ??
그 그거지.}

10325 ## 아무것도 업서서.{웃음}{아무 것도 없었어.{웃음}}

10325 @ 고구매 인자 중녀네 나오슬 때는 고우매는.{고구마 인제 근래에 나왔을 때는 고구마는.}

고우마 중년 나온찌여.{고구마 근래에 나왔지요.}

10325 @ 중녀네 나오슬 때는 고우매는.{근래에 나왔을 때는 고구마는.}

10325 # 푸지지.{푸짐하지.}

10325 @ 그앵 꼬: 우째습니까?{그래 그것 어찌 했습니까?}

10325 # 그으느 마 마 받때이다 마 쎬:르 송우노오며 맨 가매~이 갠다 마 쥔다 아~임니
꺼?{그것은 뭐 뭐 발뻐기에다 막 심어 놓으면 몇 가마니 갠다 뭐 재잖습니까?}

10325 # 세안 내에 고마 그으 고마 쌀마먹꼬.{겨울 내도록 그냥 그것 그냥 삶아 먹고.}

10325 # 바버에도 언저 묵꼬.{밥 위에도 얹어 먹고.}

10325 # 그은 주로 쌀마가저고:마.{그건 주로 삶아서 뭐.}

10325 ## 고우매 머단: 사라메 고구매 싱냥이라예.{고구마(는) 웬만한 사람의 고구마(가)
식량이에요.}

10325 # 반튼 고우매 무우.{반은 고구마 먹어.}

10325 @ 그람에 안 쌀마 무머 쌀마낭거 업스며 쎬건또 막 내가꼬.{그러면요 삶아 먹지 않
으면 삶아 놓은 것이 없으면 생 것도 막 내어서.}

10325 # 쎬거 까까 묵꼬, 게우레 몼: 도 달다 그기요.{생 깎아 먹고 겨울에 먹으면 또 달
아 그게요.}

@ 까까 *** 까까 무 ***.{깎아 *** 깎아 먹 ***}

10325 # 요쎬 도 종뉴도 히하난 종뉴가 나아 사터라마는.{요새는 또 종류도 희한한 종류가
나와 쎬더라마는.}

그리키나 **승 업서.{그렇게나 ** 수가 없어.}

10325 ## 그리키나 마싹쎬, 그너미:.{그렇게나 맛있어, 그눔이.}

10325 @ 지금도 묵꾸집따 그지예?{웃음}{지금도 먹고 싶다 그쵸?{웃음}}

10325 # 아:래 질부 지베 강께 고오매 주께 쌀마날떠라, 마싹떠라.{그저께 질부 집에 가니
까 고구마 조금 삶아 놓았더라, 맛있더라.}

10325 # 우리느 고마 이리 고마 시미르 영꼬 이리 늑꼬 나서는 고마.{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냥 힘이 없고 이렇게 늑고 나서는 그냥.}

10325 # 자숙드리 아:무겅또 하지마라캐.{자식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

10325 # 그러치마는 이저네 하전 시느로 다문 콩이라도 쪼께 송구보고.{그렇지마는 이전에
하던 신으로 다만 콩이라도 조금 심어 보고.}

10325 # 폴또 쪼께 송거보고.{팥도 조금 심어 보고.}

10325 # 갠:또 하고 드로모 마 데: 죽꾸꼬.{웃음}{그것도 하고 들어오면 뭐 힘들어 죽겠고.
{웃음}}

10326 @ 요 동네 정기가 운제 드환습니꺼?{요기 동네 전기가 언제 들어 왔습니까?}

10326 ## 정기 드롱:거 모르근네여.{전기 들어온 것 모르겠네요.}

10326 @ 할머~이 시입 오시슬때 그뻔 정기가 드로 와 이션습니까?{할머니 시집 오셨을
때 그때는 전기가 들어 와 있었습니까?}

아이가!{천만에!}

10326 # 홍태 오래 오십 한 사리제.{홍태(아드님 이름) 올해 오십 한 살이지.}

10326 # 홍태가 오래 오십 하나마.{홍태가 올해 오십 하나면.}

10326 # 곧 고 고 미터끼.{고는 그 그 밑에 것이.}

여: 동네치고는 정기 일찍 드라꺼마.{여기 동네치고는 전기 일찍 들어왔건마는.}

10326 ## 동네: 금바~아서.{동네 근방에서.}

10326 ## 이저네는 여: 에이~이 이 시바~아는 이자~이고, 그 저네는 구장이라꼬.{이전에는 여기 이 시방은 이장이고, 그 전에 구장이라고.}

10326 ## 구장지베 정기 하나시 이서 부라게.{구장 집에 전기 하나씩 있어, 부락에.}

10326 ## 부락 하애:먼 저나 완따::.{부락 ??? 전화 왔다.}

10326 ## 저어 오데눔 하나 오면 니 지베 하나부자 구장지위우 구장지베 니 하나 저나 하아 이시각꼬.{*****.}

10326 ## 저나가 황깨라도 오거등:.{전화가 밤중에도(?) 오거든.}

10325 ## 아이 아우거시 저나 온따고 가:아를 지르고 그 지 그 진 마~이 헐찌요.{아이 아무썬 전화 왔다고 고향을 지르고 그 짓을 많이 했지요.}

10326 @ 꼬 인 즉 궁게 정기도 언자 중녀네 드러용기지예?{그 즉 그러니까 전기도 인제 근래에 들어온 것이지요?}

예.{예.}

10326 @ 그다믄, 그라믄.{그러면.}

정기가 오디이서?{전기가 어디 있어?}

10326 @ 정기, 할머니 그라믄 정기 드러오기 저네예.{전기, 할머니 그러면 전기 들어오기 전예요.}

10326 @ 그때는 바메 불로 어떻게 캐얏습니까?{그때는 밤에 불을 어떤 것을 켜셨습니까?}

10326 # 서규 그거 사다가.{석유 그것 사다가.}

10326 # 그 그그 그때는 그 이 저어게 불로 썰찌에느.{그 그것 그때는 그 저기 불을 켜 적에는.}

10326 # 다 해방데고 나서는 또 저어게 그 서규로 배그불 안 줍니까?{다 해방되고 나서는 또 저기 그 석유를 배급을 주잖습니까?}

10326 # 요논 통에, 한 통서 그나믄:자.{요런 통에 한 통씩 그러면 인제.}

10326 # 처어먼:자 그때 정중빠~이 유리베~이 킁거 그 아~이습니까?{처음 인제 그때 정중병, 유리병 큰 것 그 있잖습니까?}

10326 # 그으 가서 인자 올때증도로 이리 인자 갈라가 씨고.{거기에 가서 인제 얼마 정도를 이렇게 인제 갈라서 쓰고.}

10326 @ 그러므 그 저네는 다른 부른 안 씨십니까?{그러면 그 전에는 다른 불은 안 켜셨습니까?}

10326 # 안 썰찌, 썰즈 썰끼 이야지여.{안 켜지, 켜 것이 있어야지요.}

***** 종지뽈.{***** 종짓불.}

10325 # 종지불, 애지름 애지름 그각:꼬 썰찌예.{종짓불, 왜기름 왜기름 그것 가지고 켜지요.}

*****.{*****.}

10325 ## 오차 탈 ** 오차, 차고거튼데 고온데.{*****.}

10326 ## 쪼고매: 부:가저고 씹지 해여각:꼬.{조금 부어서 심지 해 넣어서.}

10326 ## 등정거리라고 나무르 세야가 맨드러 가지고.{등잔걸이라고 나무를 세워서 만들어서.}

10326 ## **따 언:지가고 방쿠 박.{*****.}

10326 # 그그 그 불 쓸 쪼게느 니집 내집 업시 아:드른 마~이 뚜드러 마전따.{그것 그 불 쪼적에는 네 집 내 집 없이 아이들은 많이 두드려 맞았다.}

.{*.}

10326 # 왜 뚜디리 만잔나거트몬.{왜 두드려 맞았느냐면.}

10326 # 저녁으로 미영을 자시라쿠미는.{저녁으로 목화를 찾으려고 하며는.}

10326 # 미영 농사 지이 가저고.{목화 농사 지어서.}

10326 # 시방 미영 타가: 오다 이시 마~이 비빈다 이거.{시방 목화 잣아 오다 ?? 많이 비빈다 이것.}

10326 # 미영을 자시라커며느 아아드리 자여~이 노다가 여 불로 텃치 끈다 마리라.{웃음}

{목화를 찾으려고 하며는 아이들이 자연히 놀다가 여기 불을 덥쳐 끈다 말이야.{웃음}}

10326 # 니: 내집 업시 아:들 마~이 마잔썰.{내집 내집 없이 아이들 많이 맞았어.}

10326 # 다 참 방은 쏴고 아:드른 나부대며{다 참 방은 쏴고 아이들은 나부대면.}

10326 # 이 텃치지서 그마 발로 채이제.{이 덥쳐져서 그만 발에 차이.}

10326 # 고마 종지가 널찌가:.{웃음}{그만 종지가 떨어져.{웃음}}

10326 # 그때는 참 사람 사는 마시 나고.{그때는 참 사람 사는 맛이 나고.}

10326 # 이집 저집 업시 마 아:들또 우러 사코상게.{이집 저집 없이 뭐 아이들이 울어 쌓고 쌓으니.}

10326 # 그때마 해도 여게 함: 근: 사시보 사란는데.{그때만 해도 여기에 한 근 사십호 살았는데.}

10326 # 이 쪼븐 골짜게.{이 좁은 골짜기에.}

10326 @ 그 그냥 나무끝티길라꼬 바러 집 아네서 머 불 부치: 이렇거느 업선찌예?(그 그냥 나무 그루터기를 가지고 바로 집 안에서 불 붙이고 이런 것은 없었지요?)

박짝박짝헐찌.{박작박작했지.}

10326 # 간술?{관술?}

@ 예.{예.}

10326 # 그렇거느 안 헐썰예.{그런 것은 안 했어요.}

10326 # 간술 지름 내가저고.{관술 기름 내어서.}

10326 # 그 알구지 툇바리 새끼 거튼데다가 그따 내각:꼬.{그 알곳은 툇배기 새끼 같은 데다가 거기다 내어서.}

10326 # 지름 쑹젠:자 쓰이도 아나고 머이 영기가 나사: 데다 데다 아넌떠마는.{기름 쓰니까 인제 켜지지도 않고 뭐 연기가 나 쌓아서 되지도 않았더마는.}

10325 ## 간술 **날 때 애정때라.{관술 **날 때는 왜정 때야.}

애정때 간술 뵈.{왜정 때 관술 불.}

10326 ## 애님들 비행기 지르미 모지래각꼬 그리 간술 만날 꾸앤서.{왜놈들 비행기 기름이 모자라서 그렇게 관술을 만날 구했어.}

10326 @ 직쩍 그 하라버~이도 그 하면 그리 일 해보셴습떠꺼?(직쩍 할아버지도 그 한 번

그렇게 일 해 보셨습니까?}

10326 @ 간술 지름 내능거.{관술 기름 내는 것.}

10326 ## 간술 지름 내는 그 하부진 아내도.{관술 기름 내는 것 그 해보진 않아도.}

10326 ## 하능거느 바쓰나 하지는 안 헐써여.{하는 것은 봤지만 하지는 않았어요.}

10326 @ 내 클 때 우리 지브로 가는 도중에 마으 동네 이르미 송탄꺼리가 이슴, 송탕꺼리라고.{내 클 때 우리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을, 동네 이름이 송탄꺼리가 있습, 송탄꺼리라고.}

10326 @ 그: 머헐나커머 엔나레 그 동네: 굴 파가지고.{거기에 뭐 했느냐고 하면 옛날에 그 동네에 굴 파서.}

10326 @ ?? 목꼬 해액꼬 일본 그때 그 지름 짜능데, 송.{***** 일본 그때 그 기름 짜는 데, 송.}

10326 @ 송탄, 그러~이까 그으 가지고 지름 짜고.{송탄,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기름 짜고.}

10326 @ 나무 그때 그으아지고 어데 기차 또 머 움지기는데 그 또 머 또 어디 열료로 쓴 모양이지예, 그게?{나무 그때 그것 가지고 어디 기차 또 뭐 움직이는 데 그 또 뭐 또 뭐 어디 열료로 쓴 모양이지요, 그게?}

10326 ## 설타~을 가:.{석탄을 가지고.}

석탄: 맹궁닥꼬.{석탄 만든다고.}

10326 @ 석탄도 아~이고 ??.{석탄도 아니고 ??}

갈탄 목탄.{갈탄, 목탄.}

10326 @ 목탄.{목탄.}

목탄.{목탄.}

@ 그렇게 송탄끄라캐가:꼬.{그러니까 송탄거리라고 해서.}

10326 @ 우리동네 글 가는데 우리동네는 아~이고.{우리 동네 그 가는데, 우리 동네는 아니고.}

10326 @ 그 엔나레 지름 짜고 그 일파 이런 얘기 드린.{그 옛날에 기름 짜고 그 있다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10326 # 새:카마~이 툅툅하~이 그 불도 안 쓰이디여.{새카맣게 툅툅하니 그 불도 안 켜지 데요.}

10326 ## 우리가 일본 이실짜:만 해도.{우리가 일본 있을 적에만 해도}

10326 ## 그때 지르미 하도 모지래각:꼬.{그때 기름이 하도 모자라서.}

10326 ## 반반한테는 차가 바로 가는데.{반반한 데는 차가 바로 가는데.}

10326 ## 데:기 빼뜨러하면 미또 타고간 사래미 차로 미리 주고 오 올라가 올라가는 사아미 만 이 이 일본서도 그랜써예.{아주 비탈지면 밑에(?) 타고 가던 사람이 차를 밀어 주고 오 올라가 올라가는 사람이 많 많 이 이 일본에서도 그랬어요.}

1.4. 의생활

1.4.2. 누에치기와 비단짜기

10414 @ 아까 그: 누에 치능거 안인썸썸니까?{아까 그 누에 치는 거 있었잖습니까?}

10414 @ 누에 키아능거.{누에 키우는 것.}

10414 # 예.{예.}

10414 @ 고: 함분.{그것 한번.}

10414 @ 누에도 크기에 따라서 이름인 따로 이서썸니까?{누에도 크기에 따라서 이름이 따로 있었습니까?}

10414 # 아.{아}

10414 # 잠자능기: 인자 따로 인썸, 이르미.{잠자는 것이 인제 따로 있지, 이름이.}

10414 # 잠자능기: {잠자는 것이.}

10414 @ 거*{거*.}

10414 ## 녀짱까미.{녀 짱까지(?).}

10414 @ 고거 함: 말쓰매 주이쇼.{그것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10414 # 내 말하든 손생님: 적꼬?(웃음){내가 말하면 선생님은 적고?(웃음)}

10414 @ 으~으, 그냥 말쓰를 하이쇼, 녹으미 텅께, ** 요:서 필요항거 내 저글께예.{아니, 그냥 말씀을 하십시오, 녹음이 되니까, ** 여기서 필요한 것은 내가 적을게요.}

10414 # 어?{어}

10414 @ 네.{네.}

10414 # 저네 애정때에 우리 친정 아버지가.{전에 왜정 때 우리 친정 아버지가.}

10414 # 요 사 산천 여: 구네로 다니멘서.{요 사 산청 군예를 다니면서.}

10414 # 누에 이 그스글 갈따가 누에 종자로 갈따가.{누에 이 그스글 가져다가 누에 종자를 가져다가.}

10414 @ 예.{예.}

10414 # 멘멘녀 아버지가 언자 다: 그 언자 나나중기라.{몇몇에게(?) 아버지가 인제 다 그 인제 나누어 준 거야.}

10414 # 그래서 인자 참 내 쪼개널썸부텅.{그래서 인제 참 내 작았을 때부터.}

10414 # 우리 어머니가 항상 누에로 키워.{우리 어머니가 항상 누에를 키워.}

10414 # 그래 언자 열려선살 무우서 시집와각:꼬 언자.{그래 인제 열여섯 살 먹어 시집와서 인제.}

10414 # 삼년마네 사면마넌가 여어 지블 지:가저고 와각꼬도 내가.{삼년 만에 사년 만엔가 여기 집을 지어서 와서도 내가.}

10414 # 그때는 항카니 요카마 쪼개 켜쓰끼다.{그때는 한 칸이 이것보다 조금 컸을 것이다.}

10414 # 요정도 요리 땀엔능가.{이 정도 이렇게 되었는가.}

10414 # 요고 반틀 또개가저고 요기: 반칸:서.{이것 반을 쪼개서 여기에 반칸씩.}

10414 @ 예.{예.}

10414 # 요래헨데.{이렇게 했는데.}

10414 # 지그른 한 상자가 요래 나오거등예.{지금은 한 상자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10414 # 한상자 요기: 인자 네카니 딱 대능기라.{한 상자 이것이 인제 네 칸이 딱 되는 거야.}

10414 # 누에가.{누에가.}

10414 # 한 상 언자 한 상자라쿠능기:{한 상 인제 한 상자라고 하는 것이.}

10414 # 상자가 요밑 딱 요정도 요리 나오지.{상자가 이처럼 딱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오지.}

10414 @ 예.{예.}

10414 # 그래 저네 우리가 언자 요기인자 네카~인테.{그래 전에 우리가 인제 이것이 인제 네 칸인테.}

10414 # 네 상자제?{네 상자지?}

10414 # 아, 한상자로 키안네, 우리가.{아, 한상자를 키웠네, 우리가.}

10414 # 한상자 두상자 세상자 키안네.{한 상자, 두 상자, 세 상자 키웠네.}

10414 # 세상자르 키우면.{세 상자를 키우면.}

10414 # 인자 뽕을 찰::기 쓰리각꼬.{인제 뽕을 잘게 썰어서.}

10414 # 지금아이머 한 숙자를 자거나.{지금 아니면 한 석 잠을 자거나.}

10414 # 글라른 녀:잠이 한잠인테.{그러려면 녀 잠이 한 잠인테.}

10414 # 숙잠을 자거나 지방 여: 한 두:찌베 키우는데.{석 잠을 자거나 지방 여기 한 두어 집에 키우는데.}

10414 # 에 인자 약할라꼬 이리인자 저무다.{에 인제 약하려고 이렇게 인제 전부 다.}

10414 # 사:가는 사람도 익꼬.{사가는 사람도 있고.}

언자 매상하는 수도 익꼬 이라는테.{인제 매상하는 수도 있고 이러는데.}

10414 # 그라이 언자 니이를 이리 키우몬.{그래 인제 누에를 이렇게 키우면.}

10414 # 처문지 갠꼬오몬 타:: 깨:미라.{처음에 가져오면 다 개미야.}

10414 # 아린 쪼깁::커덩.{알이 조그만 하거든.}

10414 # 고:서 인자 방 따맡:하~이 요리 해주메는.{거기서 인제 방 따뜻하게 이렇게 해 주며는.}

10414 # 깨:미가 새:카미~이 언자 티고 나오능기라.{개미가 새카맣게 인제 띄어 나오는 거야.}

10414 # 티고 나와가지고.{띄어 나와서.}

10414 # 에나 그글인자.{에나 그것을 인제.}

10414 # 누에로 그숙 그 뽕을 자자:나~이 인자 칼로각꼬 써리역꼬 일:쭈고나며.{누에를 그숙 그 뽕을 자잘하게 인제 칼로 썰어 이렇게 주고 나면.}

10414 # 사일 딱 묵꼬나모 따 애기자물 자예.{사일 딱 먹고 나면 딱 애기잠을 자요.}

10414 # 사일료.{사일요.}

10414 # 사이를 따 묵꼬나른 애기자물 자거덩.{사일을 딱 먹고 나면 애기잠을 자거든.}

10414 # 근테 온: 아즈켄 누우자메는.{그런데 오늘 아침에 누워자며는.}

10414 # 내일 아즈게 딱 깨능기라, 돌씨에.{내일 아침에 딱 깨는 거야, 돌에.}

10414 # 고래각:꼬 언자 또.{그래 가지고 인제 또.}

10414 # 사밀: 딱 무우메는 애기자른 사일로 묵꼬자고.{삼일을 딱 먹으며는 애기잠은 사일을 먹고자고.}

10414 # 두자른 사밀묵꼬 딱 잡니다.{두잠은 삼일 먹고 딱 잡니다.}

10414 # 사밀로, 딱 사흘 무우모.{삼일을, 딱 사흘 먹으면.}

10414 # 고라믄:자 또 오을 저녁:~언자 바블.{그러면 인제 또 오늘 저녁에 인제 밥을.}

10414 # 잔다꼬 바블 땡쓰메는 내일 저녁:~언자 깨능기라.{잔다고 밥을 땡쓰며는 내일 저녁에 인제 깨는 거야.}

10414 # 깨각:꼬 언자 또 바블 또 주기시자 하능기라.{깨어나면 인제 또 밥을 주기 시작하는 거야.}

10414 # 고래각:꼬 또 석:짜미 또 인쓰요.{그래 가지고 또 석잠이 또 있어요.}

10414 # 구라따: 한 사흘 묵꼬나면 또 석:짜물 자능기라.{그리했다가 딱 한 사흘 먹고 나면 또 석잠을 자는 거야.}

10414 # 요래 석:짜물 자메는.{이렇게 석잠을 자며는.}

10414 # 석:잠 잘때:도 그렇게 인자.{석잠 잘 때도 그러니깐 인제.}

10414 # 요 언자 애긴 저저저 두자미나 숙:자미나.{여 인제 애기 저저저 두잠이나 석잠이나.}

10414 # 바븐, 잠도 똑간치 자능기라, 인자 애긴 애기자마고 요리 스 요리는.{밥은, 잠도 똑같이 자는 거야, 인제 애기, 애기잠하고 이렇게 석 이렇게는.}

10414 # 그:는:자 사흘로 언자 또 숙:잠 자고나서 요래.{그것은 인제 사흘로 인제 또 석잠 자고 나서 이렇게.}

10414 # 사흘로 나흘로 딱 또 몽는기라.{사흘을 나흘을 딱 또 먹는 거야.}

10414 # 글:땡 누에도 이마아썸 하거덩네.{그럴 땡 누에도 이만큼씩 하거든요.}

10414 # 누에가.{누에가.}

10414 # 그렇건:자 석:잠자고나며 언자 녁:자미라쿠능기 한:자미이라.{그러니까 인제 석잠 자고 나면 인제 녁잠이라 하는 것이 한잠이야.}

10414 # 한잠 조거는 언자 오~온 아즈게 잔다꼬 바블 우리가 딱 안조시메는.{한잠 저것은 인제 오늘 아침에 잔다고 밥을 우리가 딱 안 주었으며는.}

10414 # 내엘 아저게, 내엘.{내일 아침에, 내일.}

10414 # 그은 딱 하리 하린, 이틀로 자지요?{그것은 하루 하루, 이틀을 자지요?}

10414 # 하모.{아무럼.}

10414 # 온: 아즈게인자 잔다꼬 바블 딱 때씨메는, 내엘 아즈게 모레 아즈게 인자 딱 바블 재피능기라.{오늘 아침에 잔다고 밥을 딱 떤었으면, 내일 아침에 모레 아침에 인제 딱 밥을 잡히는(먹는) 거야.}

10414 # 고 깨모 언자 딱 자고 인:나모.{그것 깨면 인제 딱 자고 일어나면.}

10414 # 허불로 싸:아 번꼬 나오거덩.{허물을 싸 벗고 나오거든.}

10414 @ 녁잠 자고 나면네?{녀크잠 자고 나면요?}

10414 # 예, 어~이? 애기잠도 허불로 벽꼬 나오고.{예, 어? 애기잠도 허물을 벗고 나오고.}

10414 # 두:잠도 허불로 번꼬나와 자고나며 허부르 딱 벽꼬나옵니다.{두잠도 허물을 벗고 나와 자고 나면 허물을 딱 벗고 나옵니다.}

10414 # 고리대모 언자 고게서 언자 또.{그렇게 되면 인제 거기에서 인제 또.}

10414 # 열세로 딱 무그모.{엿새를 딱 먹으면.}

10414 # 한잠 자고나서, 한자미 녁:자미거더, 녁잠 이거 자고나서.{한잠자고 나서, 한잠이 녁잠이거든, 녁잠 이것 자고 나서.}

10414 # 단썰 무그몬 하나썰 여: 모게 여: 노롱노롱하이.{닷새 먹으면 하나씩 여기 목에 여기 노릇노릇하게.}

10414 # 올라가는 여: 밍지가 생깁니더, 아네.{올라가는 여기에 명주가 생깁니다, 안에.}

10414 # 딱 채러보모.{딱 쳐다보면.}

10414 # 요: 또 모게 또 모디가 인썰, 누에가.{여기에 또 목에 또 마디가 있어, 누에가.}

10414 # 요: 세모디 네:모디 모디가 인썰.{여기에 세 마디, 네 마디 마디가 있어.}

10414 # 이 제엘 처문지 요:서 바다올라오거덩.{이 제일 처음에 여기에서 받아 올라오거든.}

10414 # 언자 함밥주고 나모 또 보모 또 쪼금 올라아고, 하맘주고 나몬 또 쪼금 올라가고 이리데는데.{인제 한밥 주고 나면 또 보면 또 조금 올라가고, 한밥 주고 나면 또 조금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10414 # 그래 요:인자 주디꺼지 딱차면:자 요기인자 올라갈라꼬 밥또 안뭉기라예.{그래 인제 주둥이까지 딱 차면 인제 인제 올라가려고 밥도 안 먹는거예요.}

10414 # 딱 모가지 흘릉기라.{딱 목을 흔드는 거야.}

10414 # 그 흔드는 그:는:자 멀 참냐 그트모.{그 흔드는 그것은 인제 무엇을 참느냐 할 것 같으면.}

10414 # 요건:자 집질라꼬.{이것 인제 집 지으려고.}

10414 # 집 질라꼬, 여: 이 썸 열개 이거 칠라꼬 언자.{집 지으려고, 여기에 이 저 열개 이것 치려고 인제.}

10414 # 그래서 이리 막 흔드는기라, 그래 그능거 주:가저고.{그래서 이렇게 막 흔드는 거야. 그래 그런 것 주워서.}

10414 # 하루 점두:룩 언자 고릉거는 고릉거대로 언자 주어서 올리놉코.{하루 저물도록 인제 그런 것은 그런 것대로 인제 주워서 올려 놓고.}

10414 # 내일 쭈물 언자 마지막 썸 따까 올리능기라.{내일쭈으로 인제 마지막으로 썸 닭아 올리는 거야.}

10414 # 썸 다 올리모,{썸 다 올리면.}

10414 # 우즈당 이방:, 아랫뺨 두우개 저게 큰방.{어쩌다 이 방, 아랫방 두어 개, 저게 큰방.}

10414 # 몸채에 두:게, 전::시네 누에야, 전:시네 고마.{몸채에 두 개, 전신에 누에야,전신에 그냥.}

10414 # 요능걸: 시카늘 딱 키올라쿠며느.{이런 걸 세 칸을 딱 키우려고 하면.}

10414 # 전:시네 누에라, 마.{전신에 누에야, 마.}

10414 # 이망:사 이력커등네.{이만큼씩 하거든요.}

10414 # ** 두:우레 해가저 막 떠몬 언자.{** *** 해서 막 뜨면 인제.}

10414 # 열썰마네느 고마 삭:: 따카 올리:, 고라가:꼬 언자 또.{옛새 만에는 그만 썸 닭아 올려, 그래서 인제 또.}

10414 # 하릴뺨 이틀뺨 딱 자고나모 또 안진은 고구로갈따가. {하루 밤 이틀 밤 딱 자고 나면 또 안 짓는 그걸 가져다가.}

10414 # 먼너 언자 먼저 이 얻 썸:게 이 지 집질라꼬 이러매 알구진 영개가튼 그렇게 인꺼 든네:{먼저 인제 먼저 이 얻 저기 이 지 집 지으려고 이런 알곳은 열개 같은 그런 것이 있거든요.}

10414 # 보지란 노므 고마 어서 열개르 치빠리모.{부지런한 놈은 그만 어서 열개를 쳐 버리면.}

10414 # 깨으란 노므 그: 열개 칠때가 엄능기라.{계으른 놈은 거기 열개 칠 때가 없는 거야.}

10414 # 고걸 또 하리뵤 자고나모.{그걸 또 하룻밤 자고 나면.}

10414 # 또 다시 주:내는 기라.{또 다시 주워내는 거야.}

10414 # 주:내:가저고 또 판대로 올리야 데:.{주워내어 또 판 데로 올려야 돼.}

10414 # 또 지블 맨드러 가저고.{또 집을 만들어서.}

10414 # 그래 언자 거:서 그래각:꼬 지이가저고 언자.{그래 인제 거기서 그래 가지고 지어서 인제.}

10414 # 한 닷새 열새 이리데몬 딱 매상하로 가능기라예.{한 닷새 열새 이레 되면 딱 매상하러 가는 것이에요.}

10414 # 이리 딱 데모.{이레 딱 되면.}

10414 # 그라머 짝:: 다 꼬너보고.{그러면 짝 다 끊어 보고.}

10414 # 뽀디:가 덴:니 안덴:니, 텡짜만내도 나오고, 하:이코 참.{번테기기 되었니 안되었니, 퇴짜맞는 것도 나오고, 아이고 참.}

10414 # 그 고상: 말 몬함니더.{그 고생 말 못합니다.}

10414 # 누에 그거.{누에 그것.}

10414 # 요새는 인자 누에르 아놀리고.{요즘은 인제 누에를 안 올리고.}

10414 # 사밀 딱 무그모 언자 매상하로 가예.{삼일 딱 먹으면 매상하러 가요.}

10414# 그언자 여게 인자 메긴 안차서.{그 인제 여기 인제 목이(?) 안 차서.}

10414 # 요: 노오랑거 요거 안차서 밍지 요거 안생길때예.{이 노란 것 이것 안 차서 명주이것 안 생길 때에.}

10414 # 딱 가:가서 언자 매상하능기라.{딱 가져가서 인제 매상하는 거야.}

10414 # 그는 내 누에까린 참 안해 팜니꺼:?(그것은 내 누에가루 참 해써 팔잖습니까(?)?)

10414 # 요새는 너에 누에 키우기 일겅짜내.{요새는 누에 누에 키우기 일 같지도 안해.}

10414 @ 그람: 뽀짜를 잡니꺼? 그러믄.{그러면 몇 잠을 잡니까? 그러면.}

10414 # 고인자 녀자미 녀잠채가 하 그걸: 하 이름이 한자미라.{그것 인제 녀잠이 녀잠째가 그걸 이름이 한잠이야.}

10414 @ 녀잠까지가 한잠.{녀잠까지가 한 잠.}

10414 # 예.{예.}

10414 @ 금: 애기잠, 두잠.{그러면 애기잠 두잠}

10414 # 두:잠.{두잠.}

10414 @ 석잠.{석잠.}

10414 # 석:잠.{석잠.}

10414 # 석잠 무고나모 꼬박 사일로 묵꺼덩.{석잠 먹고 나면 꼬박 사일을 먹거든.}

10414 # 저어게 애기잠:.{저기 애기잠.}

10414 # 한잠, 두잠, 숙잠꺼지는 사미를 무우믄 자는데.{한잠, 두잠, 석잠까지는 삼일을 먹으면 자는데.}

10414 # 녀:잠 한잠 요걸 잘라쿠메느 꼬::박 사일로 무거.{녀잠 한잠 이것을 자려고 하며는 꼬박 사일을 먹어.}

10414 # 누에바블 늦게주고 뽀~을 뽀~이 몬파와서 늦게 주모.{누에 밥을 늦게 주고 뽀를 많이 못 따서 늦게 주면.}

10414 # 토하루또 또 처지나가능기라, 지 몽는대로 커올라가거덩.{또 하루 또 또 처져 나가는 거야, 제 먹는 대로 커 올라 가거든.}

10414 @ 아.{아.}

10414 # 그기:예:.{그것이요.}

10414 @ 그러면 어떤썩니까? 처음 깨미마 쪼끄마:난 거:서부터.{그러면, 어떻습니까? 처음 깨미만큼 조그만 그것에서부터}

10414 # 예:.{예.}

10414 @ 완전히 집지일때까지 모두 매칠 걸립니까? 그라모{완전히 집 지을 때까지 모두 며칠일 걸립니까? 그러면.}

10414 ## 딱 꼬치 따도록꺼정 한달 걸리어, 한달:.{딱 꼬치 딸 때까지 한 달 걸려요, 한 달.}

10414 # 그렇께:.{그러니까.}

10414 ## ** 딱: 한달 걸리.{** 딱 한 달 걸려.}

10414 # 꼬치 따: 가능께 딱 한달 딱 걸리는데.{꼬치 따 가는 게 딱 한 달 딱 걸리는데.}

10414 # 한 시무 한 사오닐 대근네.{한 스무 한 사오일 되겠네.}

10414 # 사오일로가꼬 니이르 주물라야 데:.{사오일을 가지고 누에를 주물러야 돼.}

10414 # 이십사오일로 가꼬.{이십사오일을 가지고.}

10414 # 수::너 사람소느로 이리 크거덩.{순전히 사람 손으로 이렇게 크거든.}

10414 # 참 누에그어 참 카마이 보모 상:기합니더이.{참 누에 그것 참 가만히 보면 참 신기합니다.}

10414 @ 그래 그 말쓰를 생각나시는대로 해주이쇼.{그래 그 말씀을 생각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10414 # 예?{예?}

10414 @ 생각나시는대로:, 누에, 머 인자 키알라커머 뽕나무도 키아야델꺼 아임니까?{생각나시는 대로, 누에 뭐 인제 키우려고 하면 뽕나무도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10414 @ 그이 뽕나무 **{그것 뽕나무 **}

10414 # 그리대면 인자 중너네 이거 인자 니~이 인자 요 쪼매써 요리 인자 이이 저:게 내 애주고 할때는.{그렇게 되면 인제 도중에 이것 인제 누에 인제 이것 조금씩 이것 저기 내 주고 할 때는.}

10414 # 뽕나무로 이리 언자 마이 조:예.{뽕나무를 이리 인제 많이 줘요.}

10414 # 저: 논뚜루미니 바치니 천::시네 뽀~이라.{저기 논둑이니 밭이니 전신에 뽀이야.}

10414 # 드리 그마 전::시네 뽀이라, 마 이동네뽀 아이라 마 요: 마.{들이 그냥 전신에 뽀이야, 마 이동네뽀만 아니라 마 여기 마.}

10414 # 저::게 송개~이다 저: 산너메다 전:대도 고마.{저기 ***다 저 산너머다 저런 데도 그냥.}

10414 # 순::저네 뽀를 마 바테 송거가저고.{순전히 뽀를 마 밭에 심어서.}

10414 # 바테 아무겔또 모내묵찌 고마.{밭에 아무것도 못해 먹지 그냥.}

10414 # 전::시네 고마 타:익마 뽀만 요러길 키아가지고 해몽는기라.{전신에 그냥 모두 다

이 마 뽕만 이렇게 키워서 해 먹는 거야.}

10414 # 일러네 하무서 인제 비료해감썸.{일년에 한 번씩 비료 해 가면서.}

10414 # 두부늘 해야데네, 보매 해애 데고.{두 번을 해야 되네, 봄에 해야 되고.}

10414 # 요 또 보매는 지그른 언자 처::무 인자 나틀 가져고 가지를 찌가져고.{이 또 봄에
는 지금은 인제 전부 낫을 가지고 가지를 찌서.}

10414 # 지:바서 따가져고 미이고.{집에 와서 따서 먹이고.}

10414 # 거 언자 가지는 말랴가져고 나무하고.{그것 인제 가지는 말려서 나무하고.}

10414 # (웃음) 나무하고.{(웃음) 나무하고.}

10414 # 거 가지 저 나무 해나이 또: 집채 무디 거썸니다.{그 가지 저 나무해 놓으니 꼭
집채 무더기 같습니다.}

10414 # 집채 무디이. 하:리 우리영개미 그때마 해도.{집채 무더기. 하루 우리 영감이 그때
만 해도.}

10414 # 하리에 한 칠과썸썸 따야: 드리: 데는기라.{하루에 한 칠팔 썸썸 따서 들여야 되
는 거야.}

10414 # 지고 와야 대, 지고.{지고 와야 돼, 지고.}

10414 @ 예.{예.}

10414 # 근 뽕재이 여:여: 이능기 딱 지금 까지치모 이리 앙큼니까? 저:저: 뽕나무 저: 인
치 보모.{그 꼬챙이 여기에 여기에 이런 것이 딱 지금 가지 치면 이렇게 크잖습니까? 저기
저기 뽕나무 저기 ** 보먼.}

10414 # 그능거예, 뽕싸서 저저저: 재:노먼 저짜게 쓰 집채무디이 가썸니다.{그런 것요, 뽕
싸서 저 저 저기 재어 놓으면 저쪽에 쓰 집채 무더기 같습니다.}

10414 # 끝: 순저네 사래미 손을 따가져고 그래가: 하능기라.{그걸 순전히 사람이 손으로
따서 그렇게 하는 거야.}

10414 @ 예.{예.}

10414 # 그래 나는 언자 중녀네 고래가꼬:.{그래 나는 인제 중년에 그렇게 해 가지고.}

10414 # 한: 애기 두:개, 세:개?{한 아기 두 명 세 명?}

10414 # 세개채 노코넨:자{세 명째 놓고는 인제.}

10414 # 누에로 키로가져고 고마.{누에를 키워서 그냥.}

10414 # 실랑 고마 오슬 해이핀쓰.{실랑 그냥 옷을 해 입혔어.}

10414 # 차::게 언자 또 단성 오데 가매는.{저기 인제 또 단성 어디 가며는.}

10414 # 꼬치 갈따 또 꼰 자기네드리 꼬치 가지러 와각:꼬, 고치 가:가서.{꼬치를 가져다가
또 고 자기네들이 고치 가지러 와서, 고치를 가져 가서.}

10414 # 이 씨:가져고 베르 짜가: 이리 조:예.{이것을 써서 베를 짜서 이렇게 줘요.}

10414 @ 단 단성에서 베를 짜준단 말입니까?{단, 단성에서 베를 짜준단 말입니까?}

10414 # 단성 묵꼬.{단성 묵곡.}

10414 @ 묵꼬.{묵곡.}

10414 # 예{예.}

10414 @ 예, 예. 묵꼬.{예, 예, 묵곡.}

10414 # 요: 미테 요:는 산청 묵꼬이고 단성 무꼬기라 쿠는테가 인썸니다.{여기 밑에 여기
는 산청 묵곡이고, 단성 묵곡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10414 @ 예.{예.}

10414 # 강 건너 단성 저 지나가: 가져고.{강 건너 단성, 저 지나가서.}

10414 @ 예:, 여: 묵꼭 일따 그지예?{예, 여기에 묵꼭 있다 그죠?}

10414 # 예, 소나무로 그리 내려 가:저고.{예, 소나무(쪽)으로 그곳으로 내려가서.}

10414 # 고계:서 언자 그 밍지베 짜주는 사램: 일씨가저고 우리 꼬치 가:가며 언자 자잉 밍지베르 요리 짜가저고 오능기라.{그곳에서 인제 그 명주베 짜 주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꼬치 가져가면 인제 자연히 명주베를 이렇게 짜서 오는 거야.}

10414 @ 그러면 그 싹스, 싹쓸 주야 땀니까?{그러면 그 싹, 싹을 쥐야 땀니까?}

10414 # 예:.{예.}

10414 # 싹글 조야 데지.{싹을 쥐야 되지.}

10414 # 그 사암드른 언자 고래하는 기계가 삭:: 다 인능기라.{그 사람들은 인제 그렇게 하는 기계가 싹 다 있는 거야.}

10414 @ 예:.{예.}

10414 # 이 실:빼는 기계가 다:.{이 실 빼는 기계가 다.}

10414 # 우리 뿐 해주능 거 아이다, 열마.{우리 본(본보기) 해 주는 게 아니다, 임마.}

10414 # 그 밍지 베: 해도라쿠는 사람: 꼬치는 마 싹 다 해가거덩.{그 명주 베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은 꼬치는 그냥 싹 다 해 가거든.}

10414 @ 그 뽕나무 거하모 거: 뽕나무 그 열매도 안 열립니까?{그 뽕나무 그러면 거기에 뽕나무 그 열매도 열리잖습니까?}

10414 # 예, 시방 나옵니더.{예, 시방 나옵니다.}

10414 ## 그느: 오돌개라 크능거.{그것은 오디라고 하는 것.}

10414 # 오~을 짜아 요는 소구리에 한 소구리 하 그기: 이키로라 쿠더나?{오늘 장에 이런 소구리에 한 소구리 하 그것이 이킬로그램이라고 하던가?}

10414 # 다마노코 칙 칙쓴 칙.{답아 놓고 * * * *.}

10414 ## 비싸:, 겁내기 비싸 그거.{비싸, 겁나개(많이) 비싸 그것.}

10414 # 오키 삼킬로 다마파꼬 그일로.{오킬 삼킬로그램 담았다고 그것을.}

10414 ## 예: 삼키 그으로 망크로?{예, 삼킬로그램 그것이면 많게?}

10414 # 아 요는 소구리에 그거는 하모 그걸 칠쳐년 도라쿠더나?{아 이런 소구리에 그것은 아무럼 그것을 칠천 원 달라고 하더냐?}

10414 # 그립터라.{그렇더라.}

10414 @ 그기: 그 뽕 그:는 뽕나무 언자 가지로 치모: 그 오돌개는 우짬니까?{그게 그 뽕 그것은 뽕나무 인제 가지를 치면 그 오디는 어떻게 합니까?}

10414 ## 따~아 널쩌빼지:.{땅에 떨어져 버리지.}

10414 # 따~아 널쩌 빼지:여.{땅에 떨어져 버리지요.}

10414 ## 구웁또 분는겅또 익꼬:.{그것도 붙는 것도 있고.}

10414 @ 그 가지치는데 거어도 오돌개 따라 옥겨등예.{그 가지 치는 데 거기에도 오디 따라 왔거든요.}

10414 # 따물쭈도 익꼬, 우리가.{따먹을 수도 있고, 우리가.}

10414 # 거: 이그모 (웃음) 따묵꼬 이래각:꼬.(웃음){거기에 익으면 (웃음) 따먹고 이렇게 해서.(웃음)}

10414 # 그래 언자 * 여: 지고와서 여: 마다~아.{그래 인제 * 여기에 지고 와서 여기에 마당에.}

10414 # 갑빠: 그놈 퍼노코 땀섬도 언자 이 뽕 땀섬도 그 이씨몬 주:무:갑섬.{갑빠 그놈 퍼
 놓고 따면서도 인제 이 뽕 따면서도 인제 그것이 있으면 주워 먹어가면서.}

10414 # (웃음) 그리 합니다.{(웃음) 그렇게 합니다.}

10414 @ 그라먼 그 뽕나무 가지로 언자?{그러면 그 뽕나무 가지를 인제?}

10414 @ 날가꼬 치가 올 꺼***.{낮 가지고 쳐서 올 것 ***.}

10414 # 그래마 등치가 이만하지.{그래 마 등치가 이만하지.}

10414 @ 그런게 등치는 나아뚜고 가지만 잘라온다 말이지예?{그러니깐 등치는 놔 두고 가
 지만 잘라온다 말이지요?}

10414 # 하모, 창: 이리 마 장: 이리 인자.{아무렴, 늘 이렇게 마 늘 이렇게 인제.}

10414 # 시방 치મે는 인자 치파릴파레 올라오거등예.{지금 치며는 인제 칠팔월달에 올라오
 거든요.}

10414 # 고리대모 언자 또 칠팔누에 키우능기라.{그렇게 되면 또 칠팔 누에 키우는 거야.}

10414 # 칠팔누에 키아고나모 또 가을 니: 키우능기라.{칠팔 누에 키우고 나며는 또 가을
 누에 키우는 거야.}

10414 # 한 해 딱 네분 키워예.{한 해 딱 네 번 키워요.}

10414 @ 그라고{그리고.}

10414 # 봄 니: 키아고 여름 니: 나오고 칠팔 니: 나오고 가을니: 나오고.{봄 누에 키우고
 여름 누에 나오고 찰팔 누에 나오고 가을 누에 나오고.}

10414 @ 그래 고 봄니:부터.{그래 그것 봄 누에부터.}

10414 # 그래 키워써예.{그렇게 키워어요.}

10414 @ 봄니:부터 함 쪽 그라먼 봄니는 우째 키암니까, 그라모.{봄 누에부터 그러면 쪽
 그러면 봄 누에는 어떻게 키웁니까, 그러면.}

10414 # 봄니드른 봄니는: 요새 하능거느: 점::모 가지르 썬가오서 언자.{봄 누에들은 봄
 누에는 요즘 하는 것은 전부 가지를 썬 와서 인제.}

10414 # 가지를 썬아와서 인자 키우고.{가지를 썬 와서 인제 키우고.}

10414 # 고오서 인자 요린:자 수니 올라오메는.{거기서 인제 이렇게 인제 순이 올라오며
 는.}

10414 # 여르메 하잠이라꼬 또 나오는기: 인쓰예.{여름에 하잠이라고 또 나오는 것이 있어
 요.}

10414 # 요 마:침서 올라오메느 언자 미테서 차착 따올라 가능기라, 언자.{요만큼씩 올라오
 며는 인제 밑에서 착착 따올라 가는 거야, 인제.}

10414 # 미테서 따 미이감서 언자 오를 다 코올라가고.{밑에서 따 먹여 가면서 인제 오늘
 (?) 다 커 올라가고.}

10414 # 고리테면 언자 또 칠파레 또 나오능기라.{그렇게 되면 칠팔월에 또 나오는 거야.}

10414 # 추서게, 추서게 또 니이가 모두 익꺼덩.{추석에, 추석에 또 누에가 모두 있거든.}

10414 @ 예.{예.}

10414 # 고래테면 언자 또 자:꾸 이리 커올라 가지, 미테 이파리 당께네로, 자꾸마 한:정업
 시 커올라가고.{그렇게 되면 인제 또 자꾸 이렇게 커 올라 가지, 밑에 이파리 따니까, 자꾸
 마 한정없이 커올라 가고.}

10414 # 거름도 마이 하고 비료도 이래노으며 마 잘 커올라가.{거름도 많이 하고 비료도
 이렇게 해 놓으면 마 잘 커 올라가.}

10414 # 그라고 그때는 고마.{그리고 그때는 그냥.}

10414 # 봄 저게 지그른 이래 가지로 찌각:꼬 미이제.{봄 저기 지금은 이렇게 가지를 찌서 먹이지.}

10414 # 지금 가지 찌노오모예, 쪼깨마 인씨언 참::부 누니 또 다 티:납니더.{지금 가지 찌 놓으면요, 조금만 있으면 전부 눈이 또 띄어 납니다.}

10414 # 그래 둥치가 이마썩 해, 뽕나무 둥치가.{그래 둥치가 이만큼씩 해, 뽕나무 둥치가.}

10414 # 이마썩 합니다 고마.{이만큼식 합니다, 그냥.}

10414 # 아마 가지가 막 겹나미더, 마 일 비:싸:서.{아마 가지가 막 겹이 납니다, 마 이 베어 쌓아서.}

10414 @ 예.{예.}

10414 # 그런데 지금은 저어게 팔자게 저런데 저 산지슬가: 저런데 가모.{그런데 지금은 저기 골짜기 저런 데 산기슬 저런 데 가면.}

10414 # 그때 송근 뽕나무가 이런데 그런데는 오도래가 짹:: 찬쓰예.{그때 심은 뽕나무가 이런데 그런 데는 오디가 짹 찼어요.}

10414 # 이이가꼬.{익어서.}

10414 @ 그 일러네 아까 봄니:익꼬 여름니:익꼬 칠팔니:익꼬 가을리:익꼬.{그 일년에 아까 봄 누에 있고 여름 누에 있고 칠팔 누에 있고 가을 누에 있고.}

10414 # 예.{예.}

10414 @ 네버~이라 양캐썬니꺼?{네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0414 # 짱: 네번 키와예.{딱 네 번 키워요.}

10414 @ 그라든 그 중에서 언자 그람: 뽕나무 이파리는 쫄 머: 다 얼추 다 충다~이 텨땨니까?{그러면 그 중에서 인제 그러면 뽕나무 이파리는 쫄 뭐 얼추 다 충당이 됩니까?}

10414 # 삭:: 다묵찌예.{썩 다 먹지요.}

10414 # 그래 언자 뽕썩자 키우:모 언자 우리가 뽕썩로 송구능기라, 뽕썩 하모 언자.{그렇게 인제 몇 상자 키우면 인제 우리가 몇 주를 심는 거야, 몇 주 하면 인제.}

10414 # 뽕썩자 키우능걸로 그때는 언자 도 대강 그기: 또 계사니 다 나오테여.{몇 상자 키우는 걸로 인제 그때는 인제 또 그것이 또 계산이 다 나오테요?}

10414 # 그레가저고 우리는 참 항상 뽕 모지레르지는 안헐쓰, 그래도 거이 다 뽕~이 모지래가:꼬.{그래서 우리는 항상 뽕 모자라지는 안 했어, 그래도 거의 다 뽕이 모라라서.}

10414 # 처:: 막 차로 가져고 막 먼:데도 가고.{저 막 차를 가지고 막 먼 데도 가고.}

10414 # 막: 니아까도 각꼬 막.{막 리어카도 가지고 막.}

10414 # 참 저저 저게 머 기웅기로 가꼬 먼데 가고.{참 저 저 저기 뭐 경운기를 가지고 먼 데 가고.}

10414 # 이 또 키우는 욕시프로, 뽕~을 쫄 사다 미이도.{이 또 키우는 욕심으로, 뽕을 쫄 사다 먹여도.}

10414 # 거 도니 나오니께.{거 돈이 나오니까.}

10414 # 또 사로 가능기라.{또 사로 가는 거야.}

10414 # 뽕 자근 사라든 또 마~이 노을쭈도 이썩.{뽕 작은 사람은 또 많이 놓을 수도 있어.}

10414 # 똥 사다 미일라꼬.{똥 사다가 먹이려고.}

10414 @ 누에 키아다 보메는 그 똥도 가라야 텔거 아입니까?{누에 키우다 보며는 그 똥도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10414 # 하:이그 똥 가라야데여.{아이구, 똥 가라야 되지요.}

10414 ## 똥 그기: 참 큰니리구마느.{똥 그것이 참 큰일이전마는.}

10414 # 똥 씨리가꼬 미이고 나마 하리자고 저 하리 미이고 나뎡.{똥 썰어서 먹이고 나면 하루 자고 나면 저 하루 먹이고 나면.}

10414 # 또 망에 또 또 요녕게 또 나와예, 요능거 딱 왕이 요능기: 요능기: 그무리.{또 망에 또 또 ㅇ;런 게 나와요, 이런 것 딱 왕이(?) 이런 게 왕이(?) 그물이.}

10414 # 애기나:는 똑: 구녀~이 요마스 하고.{애기 누에는 똑 구멍이 요만큼씩하고.}

10414 # 여 와:꼬 언자 두자른 석자른 똥을 가리거등예.{여기 와서 두잠은 석잠은 똥을 가리거든요.}

10414 # 그라모 한잠 때는 인자 또.{그러면 한잠 때는 인제 또.}

10414 # 구녕이 따 요정도 나오능기라.{구멍이 딱 이 정도 나오는 거야.}

10414 # 여: 커:, 네모재비가.{여기 커, 네모잡이가.}

10414 # 한자메 나오능고느, 한잠 똥 가리능거느.{한잠에 나오는 것은, 한잠 똥 가리는 것은.}

10414 # 똥가렁갈:또 수아캅니다.{똥 가리는 그것도 흉악합니다(힘듭니다).}

10414 # 허리가 뿌러지능거 격꼬, 고마.{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고 그냥.}

10414 # 전::시네 고마 똥 니이 또~이고 고마 또~이고 마.{전신에 그냥 누에 똥이고 그냥 똥이고 마.}

10414 # 지비 집겄또 아나요 마:, 아이구 참.{집이 집 같지도 안 해요 마, 아이구 참.}

10414 # 시방 누에 양키웅게 참 망:구에 수올코 쟁코:.{시방 누에 안 키우니까 참 천하에 수월하고 편하고.}

10414 @ 똥 그어는 어데 씹니까?{똥 그것은 어디에 씹니까?}

10414 # 똥 그름합니다.{똥 거름합니다.}

10414 # 그르믈 하는데 이 중년 지내고 나서느.{거름을 하는데 이 중년을 지나고 나서는.}

10414 # 삼천포성:가 오딩가에서 또 말랴 노으라 쿵기라.{삼천포선가 어딘가에선가 또 말려 놓으라 하는 거야.}

10414 # 우리가 그르믈 해도 말랴:가 하거덩네.{우리가 거름을 해도 말려서 허거든요.}

10414 # 그래 말랴노으메는.{그래 말려 놓으려는.}

10414 # 저어게 이 한:녀름 냉기고 나뎡 또 사로와.{저기 이 한여름 넘기고 나면 또 사러와.}

10414 # 사로와:저고 언자 그얼또 키로수로 해가저고 머.{사로 와서 인제 그것도 킬로그램수로 해서 뭐.}

10414 # 돈 올매씩 주고.{돈 얼마씩 주고.}

10414 # 그래 그어 가꼬가서 점:부 야간다캐, 그사암들도 누에똥 그걸.{그래 그것을 갖고 가서 전부 약한다고 해, 그 사람들도 누에똥 그것을.}

10414 ## 고마 안 오테 인자, (웃음) 이리:능가.{그만 안 오테 인제, 일이 있는지.}

10414 # 하모, 한 삼년 고래 헨:데 고마 아노대:.{아무렴, 한 삼년 그렇게 했는데 그만 안

오데.}

10414 # 여:서망 이동네뿌마이 아이라 사:방 덴:서 마 멜::차로 마 가져가능기라.{여기서만 이동네뿐 아니라 사방 다니면서 몇 차례 가져가는 거야.}

10414 # 여: 우리 여: 니: 이거여, 요 요능거 요능거 딱 쓰:.{여기 우리 여기 누에 이것요, 이 이런 것 딱 쓰.}

10414 # 세동가리 딱 키우고 나모.{세 동가리 딱 키우고 나면.}

10414 # 니: 똥이 이마난 그르무디~이마 합니다.{누에 똥이 이만한 거름더미만 합니다.}

10414 @ 그리 마이 나옵니꺼?(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10414 # 예.{예.}

10414 # 움::마다 그마 마 전::시네 니: 또~이고.{온마다(온갖 것마다) 전신에 그냥 마 전신에 누에 똥이고.}

10414 # 말틀라쿠모 고마.{말리려고 하면 그냥.}

10414 # 아이구 말: 몬해여 참.{아이고 말 못해요 참.}

10414 # 일: 마능거는 누에 기기다.{일 많은 것은 누에 그것이다.}

10414 @ 아까 누에 올리능거 말쓰믈 해 주신는데예.{아까 누에 올리는 것 말씀해 주셨는데요.}

10414 # 예.{예.}

10414 @ 그 쫌: 더 자세히.{그 쫌 더 자세히.}

10414 # 누에예?{누에요?}

10414 @ 올리는 거.{올리는 것.}

10414 # 올리는 거?{올리는 것?}

10414 @ 예.{예.}

10414 # 녀:자미 한자민데.{넉잠이 한잠인데.}

10414 # 한잔자고 나서 이틀 묵꼬나모.{한잠 자고 나서 이틀 먹고 나면.}

10414 # 사을 무그메느.{사흘 먹으며는.}

10414 # 여: 여게 모가지 거트모 여: 주리 쪼록쪼록하이 인씨, 여: 요리요리 올라와.{여기 여기가 모가지 같으면 여기 줄이 쪼록쪼록하게 있어, 여기 이리이리 올라 와.}

10414 # 이 보면 하내~이 포가 나.{이거 보면 환하게 표가 나.}

10414 @ 예.{예.}

10414 # 그림:자 요:기 언자 요래 무어모.{그러면 인제 이것이 인제 이렇게 먹으면.}

10414 # 요기: 배거트며느 요:서 언자 누에 인자.{요것이 배 같으며는 여기서 인제 누에 인제.}

10414 # 뽕이 진짜배~이가.{뽕이 진짜배기냐.}

10414 # 요그 인자 밍:지가 나오능기라.{요것 인제 명지가 나오는 거야.}

10414 # 밍:지가 요:서 생기능기라. 밍지가.{명지가 여기서 생기는 거야. 명지가.}

10414 # 그래 요 언자 주리 요리요리 모디가 익꺼등네, 그랍:자.{그렇게 인제 줄이 이렇게 이렇게리 마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제.}

10414 # 한 사:알 미:고 나모.{한 사흘 먹이고 나면.}

10414 # 한 사:알 보모 한 사:알 미길째 보메느 별씨.{한 사흘 보면 한 사흘 먹일 때 보며는 별씨.}

10414 # 요리 딱 보메, 요래 딱 데베시보멘:.{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딱 뒤집어 보며는.}

10414 # 천 매기 여: 놀짱:하~이 올라옵니다.{첫 ?? 여기 노르스름하게 올라옵니다.}

10414 # 그라면:자 또 고 고우에 또 주리 익꼬 또 고 우에 주리 익꺼덩, 모게.{그러면 인제 또 그것 위에 또 줄이 있고 또 그것 위에 줄이 있거든, 목에.}

10414 # 이 모디 메이로 인써예.{이 마디처럼 있어요.}

10414 # 그라면:자 하리 인자.{그러면 인제 하루 인제.}

10414 # 사흘 목꼬 나:알 목꼬 이라든 차차:: 차차 올라가능기라.{사흘 먹고 나흘 먹고 이러면 차차차차 올라가는 거야. }

10414 # 그래언자 한 달째 딱 무그메느.{그래 인제 한 달째 딱 먹으며는.}

10414 # 요: 주디~이 이걸 뽕 가져고 뭉는 바리 익꺼덩.{여기 주둥이 이것 뽕 가져고 먹는 발이 있거든.}

10414 # 고까지 또 올라와예, 고리테며 밤 안무우:.{거기까지 딱 올라와요, 그렇게 되면 밥 안 먹어.}

10414 # 고리테며 올라갈라고 집 지일라꼬 언자 썩뜨능기라.{그렇게 되면 올라가려고 집 지으려고 인제 썩 뜨는 거야.}

10414 # 흐때는 막 씨: 올리야 대.{그때는 막 모조리 올려야 돼.}

10414 @ 집: 올리며 어디다 올립니까?{그러면 올리면 어디에다 올립니까?}

10414 # 그이 언자 저네는 우리가 언자 술깨~이다 대다.{그것이 인제 전에는 우리가 인제 술가지다 대다.}

10414 # 니~이 작끼 키울째느 이리 헨는데.{누에 조금 키울 때는 이렇게 했는데.}

10414 # 뽕나무런:자 키우라꼬 마~이 조오서.{뽕나무를 인제 키우라고 많이 줘서.}

10414 # 뽕나무로 사:바~아 송구노코 나서린:자 고:신:자.{뽕나무를 사방 심어 놓고 나서 인제 거기에서 인제.}

10414 ## 기계가 썩:다 인쓰예.{기계가 썩 다 있어요.}

10414 # 기계가 이리 또 나와.{기계가 이렇게 또 나와.}

10414 ## 기계가.{기계가.}

10414 # 기계 나아모 또 우리가 사가저고 삭::다 소느로 마차:야 데.{기계 나오면 또 우리가 사서 썩 다 손으로 맞춰야 돼.}

10414 @ 집 진는 기겜미까?{집 짓는 기겜니까?}

10414 # 어?{어?}

10414 @ 집 진는데.{집 짓는 데.}

10414 ## 하모, 집 진는 기계.{아무렴, 집 짓는 기계.}

10414 # 하모, 집 진는 기에 누에 드가서 집진는 거.{아무렴, 집 짓는 기계, 누에 들어가서 집 짓는 것.}

10414 # 또 그으마 함:서 하지마는.{또 그것만 하면서 (끝나면 말 아니)하지마는.}

10414 # 또 요:는 또 떼기 쪼가리가 나와 윤: 떼기 쪼가리가.{또 여기에는 또 딱지 조각이 나와 여기에 딱지 조각.}

10414 # 요건: 니칸재비로 요리 착착차 그 구녀~이 요리 인자 배키서 나오능기라.{이것은 네 칸잡이로 이렇게 착착착 그 구멍이 요렇게 인제 박혀서 나오는 거야.}

10414 @ 요 서핍니까?{이것 설입니까?}

10414 # 어~어?{응?}

10414 @ 섭. 누에 서피라 카능거.{썰, 누에썰이라고 하는 것.}

10414 # 허~어, 서피라 쿠능거.{응, 썰이라고 하는 것.}

10414 # 서피 인자 니이 서피 니~이 올리는 서피.{썰이 인제 누에 썰이 누에 올리는 썰이.}

10414 # 그래테면 요걸: 이리 오마가 익기때매 짹 벌라가꼬 언자.{그렇게 되면 이것을 이렇게 오뜨리고 있기 때문에 짹 벌려서 인제.}

10414 # 고따:다 인자 이 기계다 여 빙빙빙 돌아감:서 언자 건따: 따:: 끼: 니이로 올리노코 끼능기라.{거기에다가 인제 이 기계에다 여기 빙빙빙 돌아가면서 인제 거기에다 딱 끼워 누에를 올려 놓고 끼는 거야.}

10414 # ** 이니미 시:실 도라감:서 인자 누에가.{** 이놈이 실실 돌아가면서 인제 누에가.}

10414 ## 구녕 구~녀이 언자 ****.{구멍 구멍이 인제 ****.}

10414 # 구녕 구녀~이 인자 지가 드러 진능기라.{구멍 구멍이 인제 제가 들어가 짓는 거야.}

10414 # 하이고, 그때 서생님 함분 와보꺼 아이가, 우리지베.{아이고, 그때 선생님 한 번 와 보잖고, 우리 집에.}

10414 @ 지금도 누네 보이는, 누~이 보입니다, 지금.{지금도 눈에 보이는, 눈이 보입니다, 지금.}

10414 @ 짐: 빙:빙 돌아가산네에 저게.(웃음){지금 빙빙 돌아가 쌓네요 저기에.(웃음)}

10414 # 누에 거 참 신기합니다이, 가마~이 보며.{누에 그것 참 신기합니다, 가만히 보면.}

10414 @ 그람: 그람: 고치는 우째 우째 ****.{그럼 그럼 고치는 어떻게 어떻게 ****.}

10414 # 그랴언자 어~어 이리마네 언자 꼬치로 인자 안 땀니꺼?{그래 인제 응 이레 만에 인제 고치를 인제 따잖습니까?}

10414 # 꼬치 따며 언자 또 꼬치 또.{고치 따면 인제 또 고치 또.}

10414 # 꼬치 인너드 이 허불매이로 처문지 지 어레치는 그기인따:임니꺼?{고치 이 녀석들이(?)이 허물처럼 처음에 제 열개치는 그것이 있잖습니까?}

10414 # 고 아네 드리가가:꼬는 지가 언자 야물게 딱 직꺼덩.{거기 안에 들어가서는 제가 인제 야물게 딱 짓거든.}

10414 # 이 껌띠~이 이견또 베끼는 또 기계가 나와.{이 껌테기 이것도 벗기는 또 기계가 나와.}

10414 # 또 그언또 사야데.{또 그것도 사야 돼.}

10414 # 시 썰리 자바 돌리가저고:마.{마 마구 잡아 돌려서 그냥.}

10414 # 그란:자 매:꾸미 이리 까가:꼬 가능기라.{그러면 인제 매끈하게 이렇게 까서고 가는 거야.}

10414 @ 그란:자 아네는 머가 남습니까, 인자:.{그러면 인제 안에는 뭐가 남습니까, 인제.}

10414 # 아네 뽀디기 따: 이레 ***(웃음){안에 번데기 딱 이렇게 ***(웃음)}

10414 @ 고기: 그 쿵:기 인나 요요래 텐다 그지예?{그것이 그 큰 것이 인제 이렇게 된다 그쵸?}

10414 # 예.{예.}

10414 @ 그라믄 지 가에 인뎡거는 찜:부 다 실 그 멍지르 마 그 머꼬:.{그러면 제 가에 있던 것은 전부 다 실 그 명주를 마 그 뭐냐.}

10414 # 쏘:게 인는 고오는 찜:언자 멍지로 지가 싹 다하고.{속에 있는 그것은 전부 다 명주로 제가 싹 다하고.}

10414 @ **{**}

10414 # 지가 인자 이브로 싹 다 지끄덩:.{제가 인제 입으로 싹 다 짓거든.}

10414 # 쪼깨:는 발로 가져고 요: 진능거 보모요.{조그만 발로 가져고 이것 짓는 것 보모요.}

10414 # 요따 착 걸고 요리 착 요래 찰고 우습따, 그언또 딱 쳐라보모야:.{여기에다 착 걸고 이렇게 착 이렇게 착 걸고 우습다, 그것도 딱 쳐다보모요.}

10414 # 참 신기합니다, 그어.(웃음){참 신기합니다, 그것.(웃음)}

10414 # 그래 줄로 요리 이베다 요리 내:가져고.{그래 줄을 이렇게 입에다 이렇게 내어서.}

10414 # 요리요리요리 쭈깨:느 발로 가져고 요는 두발 각:꼬 그리해.{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그만 발을 가져고 이런 두 발 가져고 그렇게 해.}

10414 # 그라언자 지폴 고리 딱 그습하모언자 지가 허불 벽꼬 언자.{그렇게 인제 (집을) 짓고 그렇게 딱 그습하면 제가 허물 벗고 인제.}

10414 # 이 밤묵면 요 허벌 요거 벽꼬.{이 밥 먹던 허물 이 허물 이것 벗고.}

10414 # 저:저저 뽀디이 요기: 딱 나오능기라.{저기 저 저 번데기 이것이 딱 나오는 거야.}

10414 @ 그릉께{그러니까.}

10414 # 누에 뽀디기 그어는 찜:: 깨끗항기라, 그건 딱 먼 뽀만 묵꼬 사능긴데.{누에 번데기 그것은 참 깨끗한 거야, 그것은 딱 뭐 뽀만 먹고 사는 것인데.}

10414 ## 시방도 오테 거 뽀디:이가 마이 난다, 자~아.{지금도 어디 그것 번데기가 많이 난다, 장에.}

10414 # 지금도 또 뽀디기 마~이 나와.{지금도 번데기 많이 나와.}

10414 # 누에 봐서는 뽀디이 안묵찌:.{누에 봐서는 번데기 안 먹지.}

10414 # 누에 암바 농께 뽀뎡로 묵찌.(웃음){누에를 안 봤으니 번데기를 먹지.(웃음)}

10414 # (웃음) 누에 이마써항기: 우찌다 큼거느 이마써 한테 마.{(웃음) 누에 이만씩 한 것이 어찌다 큰 것은 이만씩 한테 마.}

10414 ## 아:무건또 안묵고 뽀만 따 **.{아무 것도 안 먹고 뽀만 딱 **.}

10414 # 누우러~이 해가꼬 마.(웃음){누렇게 해서 마.(웃음)}

10414 ## *** 아무건꼬 몽는기: 음서, 그건 뽀 아이른 고으 그으는 중는기라.{*** 아무 것도 먹는 게 없어, 그것은 뽀 아니면 죽는 거야.}

10414 # 아:무건또 안무:, 딱 그어는 찜.{아무 것도 안 먹어, 딱 그것은 찜.}

10414 # 항가지 묵꼬사는 거는 그어빼기 엄서, 누에빼기 엄서.{한 가지 먹고 사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 누에밖에 없어.}

10414 @ 참 히안하다, 우째 그:서 나와가꼬 이거.{참 희한하다, 어떻게 거기서 나와서 이것.}

10414 # 예:.{예.}

10414 # 압빠리 여: 주디 미테 여에 택쪼가리 미테 따: 세깁가 이서.{앞발이 여기 주둥이 밑에 여기에 턱 밑에 딱 세 갠가 있어.}

10414 @ 예.{예.}

10414 # 타: 실래기 그통기, 양쫄로.{딱 실날 같은 것이, 양쪽으로.}

10414 # 고을 가지고 요리요리요리요리 딱딱딱딱 부치데.{그것을 가지고 이리 이리 이리 이리 딱 딱 딱 딱 붙이데.}

10414 @ 그라운 꼬치가 난주 요마날꺼 아임니꺼이?{그러면 고치가 나중에 이만할 것 아닙니까?}

10414 # 예.{예.}

10414 @ 꼬치가.{고치가.}

10414 # 예.{예.}

10414 @ 하:양거 요고 요고 언자 그라운:자 기계 여:각:꼬 푸러냅니까, 실로 우짱니까?{하얀 것 이것 이것 인제 그러면 인제 기계(예) 넣어서 풀어냅니까, 실로 어떻게 합니까?}

10414 # 가: 왜 처문지 지일라꼬.{가에 왜 처음으로 지으려고.}

@ 예.{예.}

10414 # 지:가 인자 여 인자 지블 요래 칸 카~을 우리가 이리 안녀:주나요?{제가 인제 여기 인제 집을 이렇게 칸, 칸을 우리가 이렇게 넣어 주잖아요?}

10414 @ 예.{예.}

10414 # 요: 들가 가져고 이따다 열개르 막 치능기라.{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열개를 막 치는 거야.}

10414 @ 예 예.{예, 예.}

10414 # 열게로.{열게를.}

10414 # 예.{예.}

10414 # 열래르 마앙 치논꼬.{열게를 막 쳐 놓고.}

10414 @ 예 ****.{예 ****.}

10414 # 거무줄 메이로 싹 처노꼬.{거미줄처럼 싹 쳐 놓고.}

10414 # 골: 노코 인자 지가 엔자.{그래 놓고 인제 제가 인제.}

10414 # 요정도 인자 지몸하나 딱: 드러갈때 데모.{이 정도 인제 제 몸 하나 들어갈 데 되면.}

10414 # 딱 야물게 진는갑때:.{딱 야물게 짓는가 보데.}

10414 # 고마 그때는 그마 땅땅하~이 고마 야무라지거덩.{그만 그때는 그냥 땅땅하게 그냥 야물어지거든.}

10414 @ 예.{예.}

10414 #그으는 언자 지가 인자 집 저어게 설:게하능기라 설계,(웃음) 가:시 ***(웃음){그것은 인제 제가 인제 집 저기 설계하는 거야 설계, 가에 ***(웃음)}

10414 # 거무주거치 치능거 이거느, 그래 언자 이기 시바 부푸러, 저게 꼬치느 요만한데.{거미줄처럼 치는 것 이것은, 그래 인제 이것이 시방 부풀어, 고치는 이만한데.}

10414 # 이 저게게 부푸리하거덩 이기:, 가아세 이릉 마 그걸 이 따끼 때미네.{이 저게 부풀부풀하거든 이것이야, 가에 이런 것 마 그것을 이렇게 뺏기 때문에.}

10414 # 그렇게 그걸: 기계르가:꼬 싹:: 돌리 까야 데:.{그러니까 그것을 기계를 가지고 싹 돌려 까야 돼.}

10414 # 그걸.{그걸.}

10414 @ 그라머 기계 깎다카능거는 뽕뽕이만 나아쥬고 싹 다 깎다 마립니꺼?{그러면 기계

(로) 칸다고 하는 것은 번데기만 놓아 두고 싹 다 칸단 말입니까?}

10414 # 아아니.{아니.}

10414 # 열개 칭거 그거:.{열개친 것 그것.}

10414 # 요: 지베 요리요리 열개르 치거등, 지가 집 자블라꼬.{여기에 집에 이리이리 열개를 치거든, 제가 집 잡으려고.}

10414 @ 예.{예.}

10414 @ 설피하능거.{설피하는 것.}

10414 # 하모, 그렇게 여게는 허불허불하이 저:무 다 마 거무매이로 알구지 영기:가: 인능기라.{아무렴, 그러니까 여기는 허물허물하게 전부 다 마 거미줄처럼 알궂게 엉겨 있는 거야.}

10414 # 고 연:자 요아네 언자 지몸 한 딱 드리갈 시프모 고으는 언자.{거기 인제 이 안에 인제 제 몸 하나 들어갈 성 싶으면 거기는 인제.}

10414 # 야물게 딱 진능기라, 그리기 때매.{야물게 딱 짓는 거야,그렇기 때문에.}

10414 ## 벌쭈를 처, 벌쭈를 이리 ****.{벌줄을 처, 벌줄을 이렇게 ****.}

10414 # 하모, 벌쭈 이걸: 삭: 베끼야 대, 기계르 가:꼬.{아무렴, 벌쭈 이것을 싹 벗겨야 돼, 기계를 가지고.}

10414 @ 그라르 벽끼는 거 그어는 베끼는 그어는 가에 인썸니까, 아네 이썸니까?{그러면 벗기는 것 그것은 벗기는 그것은 가에 있썸니까, 안에 있썸니까?}

10414 # 가:에 인썸.{가에 있지.}

10414 @ 가에, 금: 베끼내고 그다매.{가에, 그럼 벗겨내고 그 다음에.}

10414 # 하모.{아무렴.}

10414 @ 베끼, 베끼내야 **{베껴, 베껴내야 **}

10414 # 고우 베끼내야만 인자 고치로 매사~앙을 하는기라.{그것을 베껴내야만 인제 고치를 배상을 하는 거야.}

10414 @ 아.{아.}

10414 @ 그러모: 썸데기를 언자 발가넨라카머는 그 그러니까 가에 그 언자 허물건: 베끼내고.{그러면 번데기를 인제 발라내려고 하려는 그 그러니까 가에 그 인제 허물 그것은 벗겨 내고.}

10414 @ 침:에 설게 해나앙 거:.{처음에 설게해 놓은 것.}

10414 @ 베끼내며 아네 꼬치 나올꺼 아임니까?{벗겨 내면 안에 고치 나올 것 아십니까?}

10414 # 그런치.{그렇지.}

10414 @ 꼬치아네 뽀디기 드리꺼 아임니까?{고치 안에 번데가 들었을 것 아십니까?}

10414 @ 썸데기는 우찌 뽀가넨니까?{번데기는 어떻게 발려넨니까?}

10414 # 썸데이는 언자 저 기에가서 하는데 머 우찌하는지 모르지.{번데기는 인제 저 기계가서 하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10414 ## 그거는 언자 우리느 이에 우리 키우는 사라문.{그것은 인제 우리는 이에 우리 키우는 사람은.}

10414 ## 꼬치마 해 조 조뽀리지:.{고치만 해 줘 줘 버리지.}

10414 # 돈보고 주지, 머 그 뽀디기 그열: 머.{돈 보고 주지, 뭐 그 번데기 그것 뭐.}

10414 # 하모.{아무렴.}

10414 ## 양장 헤사가 이서 게:에서 막 돌리가:꼬 암빠요.{양잠회사가 있어 거기서 막 돌

려서 빼잖아요.}

10414 # 궁게 언자 이 딱 다라가저고.(기침){그러니까 인제 딱 달아서.(기침)}

10414 @ 예.{예.}

10414 # 언자 이 각 이 맨 구네서 이거 누에 키우능거 언자:{인제 각 이 몇 군에서 이것 누에 키우는 것 인제.}

10414 # 거 인자 이 꼬치로 다능갑때?:{그 인제 이 고치를 다는가 보데?}

10414 # 꼬치로 다라야마니 인자 고기: 인자.{고치를 달아야만 인제 그것이 인제.}

10414 # 먼 카니이 바~알 말도 모나지:, 이기: 망 마.{뭐 칸이 ** 말도 못 하지, 이것이 망 마.}

10414 # 딱 이즘: 이카마 커제, 이릉기 막.{딱 이 정도 이것보다 크지, 이런 것이 막.}

10414 # 차떠기로 오는데여.{차떼기로 오는 데요.}

10414 # 그 여: 산청구네 여: 다 푸러, 그열.{그 여기 산청군에 여기 다 풀어, 그것을.}

10414 # 다 푸러.{다 풀어.}

10414 @ 그런큰네예.{그렇겠네요.}

10414 @ 그러면.{그러면.}

10414 # 말도 몬해.{말도 못해.}

10414 @ 꼬치가 요만한 하나예.{고치가 이만한 하나예.}

10415 @ 그럼 실빠고 하능거 이렇거는 몬보신네 그라머, 그:넌:자 그 파라뿌모 그 이스 더 이상 모르 모른다, 그지예?{그럼 실 빠고 하는 것은 못 보셨네 그러면, 그것은 인제 팔아 버리면 그 이상 더 이상 모르 모른다, 그쵸?}

10415 # 그런치여.{그렇지요.}

10415 ## 모르지예, 예 그저네.{모르지요, 여기 그 전에.}

10415 # 꼬넌:자 소느로 인자 밍지베 할라꼬 하는 사람드런.{그런데 인제 손으로 인제 명 주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10415 # 요만한 오가리 탄지.{요만한 향아리 단지.}

10415 # 고평다가 이래가: 인자 한주몽석 여코 불로 떼:고.{거기에다가 이래서 인제 한 주 먹씩 넣고 불을 떼고.}

10415 # 고: 인자 지까락 가져고 요:리요:리 돌리모 고: 시리 언자 다 영기나오거덩.{거기 인제 젓가락 가지고 요리요리 돌리면 거기 실이 다 영겨 나오거든.}

10415 # **.{{.}}

10415 @ 실 지가 빼넌:대로 그래 삭:삭 풀립니까?{실 제가 빼넌 대로 그래 살살 풀립니까?}

10415 # 하모, 인저 무리 막 끌코 이라모.{아무렴, 인제 물이 막 끓고 이러면.}

10415 # 고:스 인자 이기: 물러물러해고:.{거기서 인제 이것이 물렁물렁하고.}

10415 # 그스 인자 시리 이거.{거기서 인제 실이 이것.}

10415 # 인자 처문 처문지 인제 집 찢그 그이 풀리는 갑때:.{인제 처음 처음 인제 집 지은 것 그것이 풀리는가 보데.}

10415 @ 그으는 베끼내고이.{그것은 벗겨내고.}

10415 # 하모.{아무렴.}

10415 # 지까라글 가져고 요리요리: 돌리모느.{젓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돌리며는.}

10415 # 그: 인자 시리 나오는기라.{거기 인제 실이 나오는 거야.}

10415 # 그레가:꼬 인자 이 물레:다가 요래가꼬 자:꾸 자사내:, 그람자:.{그레 가지고 인제 이 물레에다가 이렇게 해서 자꾸 잣아내, 그러면 인제.}

10415 # 할:딱 버겨지고 나모 언자 뿐디이 고어 쏹 나오고 쏹 나오고 언자.{홀딱 벗겨지고 나면 인제 번데기 그것이 쏹 나오고 쏹 나오고.}

10415 @ 그라먼 그: 지베서 언자 소느로 하능거:.{그러면 그 집에서 인제 손으로 하는 것.}

10415 # 예.{예.}

10415 @ 베끼내 아꼬 적까락 가꼬 하능거 고어 직찌 함: 해보셔썸니까?{벗겨내서 젓가락 가지고 하는 것 그것 직접 한번 해 보셨습니까?}

10415 @ 아이머 여페하능거 보셔썸니까?{아니면 옆에 하는 것 보셨습니까?}

10415 # 어~어, 여: 미테 여: 저네 저 할매가 하나 이서썸.{응, 여기 밑에 여기 전에 저 할머니가 한 명 있었어.}

10415 @ 예.{예.}

10415 # 미테 이지베.{밑에 이 집에.}

10415 # 그 할매가 해서, 이 동네 사람 아무도 안해.{그 할머니가 했어, 이 동네 사람 아무도 안 해.}

10415 # 따 이 할매가 하능거 바:쓰.{딱 이 할머니가 하는 것 봤어.}

10415 @ 그 하나 그:스 마이 나옴따까? 시리.{그 하나 거기서 많이 나오던가요? 실이.}

10415 # 그기 썸 그얼또 또 요마난 오가리 판진데.{그게 저 그것도 저 요만한 향아리 단진 데.}

10415 # 고: 물: 향거스 보자 이기 꼬르모.{거기 물 가득 보자 이것이 끓으면.}

10415 # 그얼또 또 연는 양이 이썸.{그것도 또 넣는 양이 있어.}

10415 # 시리 너무 툇쳐도 안대거덩.{실이 너무 두꺼워도 안 되거든.}

10415 # 너무 가느라도 안대고:.{너무 가늘어도 안 되고.}

10415 # 하모, 고통께 요: 주묵 양을 가져고 실로 요리 빼능기라.{아무렴, 그러니까 여기 주먹 양을 가지고 실을 이렇게 빼는 거야.}

10415 # 어디나 명기실이라, 이 머끄디~이 양간나? 요:.{어디나 명주실이야, 이 머리카락 같잖아요? 이것.}

10415 @ 네.{예.}

10415 # 하모.{아무렴.}

10415 @ 그이 크 푸러나쁜 제버 상당이 질건따, 그지예?{그게 크 풀어 놓으면 제법 상당히 길겠다, 그쵸?}

10415 # 하이고, 질지요.{이이고, 길지요.}

10415 # 그레가: 내:나 우리 내:나 삼베 짜득끼 멩베 짜득끼.{그래서 내나 우리 내나 삼베 짜듯이 멩베 짜듯이.}

10415 # 내:나 그리 가지오 잉 나라 가져고 ***.{내나 그렇게 가지고 이 날아서(?) ***. }

10415 ## 고기: 꼬치 항개가 실 빼능기:.{그것이 꼬치 한 개가 실 빼는 것이.}

10415 ## 올매 상:키로 간다카더나?{얼마 삼킬로미터 간다고 하더냐? }

10415 # 상키로, 지리가.{삼킬로미터, 길이가.}

10415 @ 그래서 그긴:자 궁금해 가져고.{그래서 그것이 인제 궁금해서.}

10415 ## 상키로 간다캐:예.{삼킬로미터 간다고 해요.}

10415 # 사키로가 심니아이요?{사킬로미터가 십리 아니오?}

10415 @ 그런치예.{그렇지요.}

10415 # 여:서 여:서 여: 으베서 풀몬 자세꺼지 간다쿠대.{여기서 여기서 여기 읍에서 풀몬 자신까지 간다고 하데.}

10415 # 자신니 그람: 새고가.{자신이 그러면 ???.}

10415 ## ** 내 그은 드런데 **.{웃음}{** 내가 그것 들었는데 **.{웃음}}

10415 @ 그렇게 상다~이 길다, 그지예?{그러니까 상당히 길다, 그쵸?}

10415 # 어 상:키로 쿠는건떠라.{어 삼킬로미터라 하는 것 같더라.}

10415 # 하모, 사키로가 저 심닌께네.{아무렴, 사킬로미터가 저 십리니까.}

10415 @ 예.{예.}

10415 # 하모, 상:키로 간다 마리 일떠라.{아무렴, 삼킬로미터 간다는 말이 있더라.}

10415 # 그런네 그래사:서 그라모 여: 으베서 그결: 갑따 푸리내리모 그라모 자싱까지 가 건네 내 켜:서.{그런데 그렇게 해 쌓아서 그럼 여기 읍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풀어내리면 그러면 자신까지 가겠네 내 그렇게 말했어.}

10415 # 자신이.{자신이.}

10415 # 자신 더가지, 상:키로모.{자신 더 가지. 삼킬로미터면.}

10415 @ 읍내에서 자신.{읍내에서 자신.}

10415 # 예, 야:미테 여: 자신.{예, 여기 밑에 여기 자신.}

10415 @ 예.{예.}

10415 ## 자신 여: 심니가 안대는 마.{자신 여기 십리가 안 돼.}

10415 # 하모, 심니 안대:.{아무렴, 십리 안 돼.}

10415 @ 자신 더 하겄따, 그지예?{자신 더 하겠따, 그쵸?}

10415 # 예.{예.}

10415 @ 어쨌든 그 하나에 폴리능기 질다 이말 아임니까, 그렇게.{어쨌든 그 하나에 폴리는 것이 길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10415 # 예.{예.}

10415 ## 참 질과 **.{참 길어**.}

10415 # 탁 머끄대~이 거끄덩.{딱 머리카락 같거든.}

10415 # 요: 한주묵 여: 소테 딱 여:모 교:서 요래 돌리모 언자.{여기 한주먹 넣어 술에 딱 넣으면 거기서 요렇게 돌리면 인제.}

10415 # 요기: 폴리: 나오능기라, 무리 끄릉께네, 이기:.{이렇게 풀려나오는 거야, 물이 끓으니까, 이것이야.}

10415 # 끝으며 이기 시미 응꺼덩.{끓으면 이것이 힘이 없거든.}

10415 # 물렁물렁 그커덩, 꼬치가:.{물렁물렁 그렇거든, 고치가.}

10415 # 그라 요:래 지까락 요:래요:래 건지데:, 요래 건징께네로.{그래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래이래 건지데, 이렇게 건지니까.}

10415 # 고 시리 요래 폴리는데.{그 실이 이렇게 폴리는데.}

10415 # 그래가:꼬 여넌:자 자살: 해가저고 자꾸 돌리고 조: 빼네능기라.{그래서 여기는 인제 열레를 해서 자꾸 돌리고 저기 빼내는 거야.}

10415 # 그라며.{그러면.}

10415 # 암, 웨 저네 저거도 이지베도 한상자스 키아가저고 할마씨가 빼내:꺼덩.{암, 왜 전에 자기들도 이 집에도 한 상자씩 키워서 할머니가 빼냈거든.}

10415 # 실타래가 한타래가 요능기:.{실타래가 한 타래가 이런 것이.}

10415 # 세개더나: 네개더나:.{세 개던가, 네 개던가.}

10415 ## 한상자:는 머 항카~이지.{웃음}{한 상자는 뭐 한 칸이지.{웃음}}

10415 # 그제 두개덩가:, 딱 실타래 따 요런터라꼬.{그제 두개던가, 딱 실타래 딱 요런터라고.}

10415 @ 가마냥:기예?{감아 놓은 것이요?}

10415 # 예.{예.}

10415 # 그래가저고 밍지~이 이견또: 그래할라커모 이: 인자.{그래서 명주 이것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것이 인제.}

10415 # 우리가 베로 할때:는 여:.{우리가 베를 할 때는 여기.}

10415 # 이기: 썩우리라서 뽕뽕하거덩:.{이것이 생울이아서 뽕뽕하거든.}

10415 # 뽕뽕해서 비로 하는데.{뽕뽕해서 베로 하는데.}

10415 # 내가 인자 오슬 해 입을라 쿠메는.{내가 인제 옷을 해 입으려고 하며는.}

10415 # 재물로 여:서 어는 정도로.{재물을 넣어서 어느 정도로.}

10415 # 폭 쌀마야 대, 폭 쌀:마야마니.{폭 삶아야 돼, 폭 삶아야만이.}

10415 # 보들보드라~이 밍지가 데능기라.{보들보들하니 명주가 되는 거야.}

10415 # 뽕뽕단 그어는 생밍지라.{뽕뽕한 그것은 인제 생밍주야.}

10415 # 생밍지 고어런자: 새기야대:.{생밍주 그것은 인제 삭여야 돼.}

10415 # 비누나: 머 조칸 재무르나 여:쓰 어는 정도로.{비누나 독한 재물이나 넣어서 어느 정도로.}

10415 # 소테 여:서 폭포 타크따크다~이 쌀뜨메느.{술에 넣어서 폭폭 따끈따끈하게(?) 삶 으며는.}

10415 # 밍지가 주거서 생밍지 그기: 주거서.{명주가 죽어서 생밍지 그것이 죽어서.}

10415 # 보들보들 보드라이 그럭커덩, 그걸카 인자 따디미해서 오대 익꼬:.{보들보들 보들 하게 그렇거든, 그것을 가지고 다듬질해서 옷 해 입고.}

10415 @ 생밍자카능 그어는, 언자.{생밍주라고 하는 그것은, 인제.}

10415 @ 쫌.{쫌.}

10415 # 안 안 새기서 그런치예.{안 안 삭여서 그렇지요.}

10415 # 요:인자 바로 빼냉거.{여기 인제 바로 빼낸 것.}

10415 # 고고인자.{그것 인제.}

10415 @ 뽕뽕당거.{뽕뽕한 것.}

10415 # 음, 고고 인자.{음, 그것 인제.}

10415 # 베마 짜서 언자 베마 내:농기라 베 짜가저고.{베만 짜서 인제 베만 내어 놓은 거야, 베 짜서.}

10415 # 베만 내:농기라.{베만 내 놓은 거야.}

10415 @ 그라문:자 그 내:난 베를.{그러면 인제 그 내어 놓은 베를.}

10415 @ 지베서.{집에서.}

10415 # 허~어.{응.}

10415 @ 쫌 보들보드라이 해야 텐다 그말슴 아입니까?{쫌 보들보들하게 해야 된다 그 말

쑈 아넵니까?)

10415 # 예.{예.}

10415 # 보들보드라이 인자 그거로 언자 새이거덜.{보들보들하게 인제 그것을 인제 삭이거든.}

10415 # 비누로 마이 여튼지.{비누를 많이 넣든지.}

10415 @ 예 말씀하이소.{예, 말씀하세요.}

10415 # 고따다: 언자 자자 재물로 아라서 여튼지 요래가언자.{거기다가 인제 제 제 갓물을 알아서 넣든지 이렇게 해서 인제.}

10415 # 요: 소테 여코 쌀므메느 여게 수미 중능기라.{여기 술에 넣고 삶으려는은 이게 숨이 죽는 거야.}

10415 # 그람: 보들보들보드리해.{그러면 보들보들보들이 해.}

10415 # 고리테모 언자 이 여: 저게 이 머리카리거튼 요기.{그렇게 되면 인제 이 여기 저게 이 머리카락 같은 이것이.}

10415 # 줌 퍼지대.{줌 퍼지대.}

10415 # 요 올 요기:, 그렇게 그기: 보드라바 지능기라.{이 올 이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보드러워지는 거야.}

10415 @ 쫌 굴거지따라능 거쥬? 퍼지가저고이.{쫌 굶어졌다는 거쥬? 퍼져서.}

10415 # 하모.{아무럼.}

10415 # 그잉게네로 그 생거 이걸 이이 저저 찢짜는 보몬 탁:: 머카락거커덜.{그러니까 그 생것 이것을 이 이 저 저 찢 적에는 보면 딱 머리카락 같거든.}

10415 @ 예.{예.}

10415 # 그래도 내나: 그래언자 새~이가 해도 내나: 그래 비이도 그래도 그기: 보드라바질 때는.{그래도 내나 그래 인제 삭여서 해도 내나 그렇게 보여도 그래도 그것이 보드러워질 때는.}

10415 # 그이 퍼지능기라.{그것이 퍼지는 거야.}

10415 @ 예.{예.}

10415 # 참 밍지잘때몬 그언또 사리 점두룩 합니더, 오담불 해이불라쿠모.{참 명주잘 때면 그것도 하루종일 합니다, 옷 한 벌 해 입으려고 하면.}

10415 # 그언또 점:두룩 뚜디리 패야대, 고마.{그것도 종일 두드려 패야 돼, 그냥.}

10415 # 따디미로 가:꼬.{다듬이를 가지고.}

10415 @ 그라머 뚜디리, 너무 마이 뚜디리 패모 또.{그러면 두드려, 너무 많이 두드려 패면 또.}

10415 # 양 그래여.{안 그래요.}

10415 @ 여 저 똑 터지능거 아임니까?{여기 저 똑 터지는 것 아넵니까?}

10415 # 아:니여.{아니예요.}

10415 @ 터지지 아늘정도로.{터지지 않을 정도로.}

10415 # 안그를습니다, 예.{안 그렇습니다, 예.}

10415 ## 그기: 참 그러케 뚜디리 패:도.{그것이 참 그렇게 두드려 패도.}

10415 ## 따듬빵매~이 여자들.{다듬이방망이 여자들.}

10415 # 이언:자.{이것은 인제.}

10415 ## *** 서:각꼬 두리서 안자서 패능거 보몬.{*** 서서 들어서 앉아서 패는 것 보

면.}

10415 ## 섯팔 단대목데모.{섯달 단대목 되면.}

10415 # 방메~이로 뚜디리 가져고 말류는 기거덩.{방망이로 두드려서 말리는 것이거든.}

10415 # 밍지르 언자 오슬 헤이블라쿠모 요결: 새기가:꼬:.{명주로 인제 옷을 해 입으려고 하면 이것을 삭여서.}

10415 # 보드라께 새기가:꼬:.{보드랍게 삭여서.}

10415 @ 보드라께 하능거는 새긴다 그러지예?{보드랍게 하는 것은 새긴다고 그러지요?}

10415 # 예.{예.}

10415 # 새깅:기라, 그 언자 재무리나 머야 씹능기라, 쌀마 어느정도 쌀마야 여기: 보드라 바 지능기라.{삭이는 거야. 그 인제 잿물이나 뭐야 삶는 거야, 삶아 어느 정도 삶아야 이것이 보드라워지는 거야.}

10415 @ 예.{예.}

10415 # 고라모 언자 꼭짜꼭짜꼭짜 이라거등, 이이 이거노오모.{그러면 인제 꼭짜 꼭짜 꼭짜 이렇게 하거든, 이것이 익어 놓으면.}

10415 # 그나고 그거 인자 풀따블 해가저고.{그리고 그것 인제 풀답을 해서.}

10415 # 하루 점::두룩 해야 대, 하루 점::두룩 이걸 가따:.{하루종일 해야 돼, 하루종일 이것을 갖다가.}

10415 # 어느정도로 뚜디리 가져고 또 개가저고 또 어느정도로 뚜디리가저고 또 갠:때 요럴때 또 언자 또.{어느 정도로 두드려서 또 개어서 또 어느 정도로 두드려서 또 갠 때 이럴 때 또 인제 또.}

10415 # 바래미 인자 또 밍지로 말류:능기라.{바람이 인제 또 명주를 말리는 거야.}

10415 # 하모, 그래가꼬 난주~우는 인자.{아무럼, 그래 가지고 나중에는 인제.}

10415 # 다 말라지메는:자 마른 또디미로 은자 쎄::리 해가저고 마.{다 말려지며는 인제 마른 다듬이로 인제 마구 해서 마.}

10415 # 이: 이동네는 홍둘깨도 음따.{이 이 동네는 홍두깨도 없다.}

10415 # 저네 우리 친저~어는 홍둘:깨 저네 요능기 이션서.{전에 우리 친정에는 홍두깨, 전에 요런 것이 있었어.}

10415 # 홍둘깨:다 이리 거세해가저고 탁: 뚜디리모.{홍두깨에다 이렇게 그스해서 탁 두드리면.}

10415 # 이 모: 개비논: 이 포가 읍쎄, 매꼬마~이 고마 그런치여.{이 모 개어 놓은 표가 없어, 매끈하게 그냥 그렇지요.}

10415 # 포가 읍쎄.{표가 없어.}

10415 @ 그어:면 인제 쪼끔저네 말쑤하싱거는 언자 그이 베가 땀:쓸때 아십니까?{그러면 인제 조금 전에 말쑤하신 것은 인제 그것이 베가 되었을 때 아십니까?}

10415 # 예.{예.}

10415 @ 새긴걸또:.{삭인 것도.}

10415 # 예.{예.}

@ 10416 그람: 베가 텔때까 텔때는 어데 물레에 돌림 짜 어짬니까, 베를 자는 기계가 따러 인쑤니까?{그러면 베가 될 때까(지) 될 때는 어디 물레에 돌림(니까) 짜 어떻게 합니까, 베를 짜는 기계가 따로 있습니까? }

10416 # 내나 베트레.{내나 베틀에.}

10416 @ 베트레?{베틀에?}

10416 # 예.{예.}

10416 @ 고거 함: 말씀해 주이소, 우째 짜는지.{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짜는지.}

10416 @ 실가:꼬 베를 짜는 그어.{실 가지고 베를 짜는 그것.}

10416 @ 쪼금저네 세기능거는 짜 언자 베르 다 쟁거 아임니꺼이?{조금 전에 삭이는 것은 짜 인제 베를 다 짠 것 아십니까?}

10416 # 어~어.{응.}

10416 @ 쟁거 그거느, 그기: 시리 베가 짜지능거느 베트레 짜야텔꺼 아임니까?{짠 것 그것은, 그것이 실이 베가 짜지는 것은 베틀에 짜야 될 것 아십니까?}

10416 # 예, 베트리야제:.{예, 베틀이어야지.}

10416 @ 그 베트레서 우째 짜는지 그 말씀 쪼 (해주이소).{그 베틀에서 어떻게 짜는지 그 말씀 쪼 (해 주십시오).}

10416 # 내:나 인자 이 베틀로 (웃음) 여: 업습니꺼?{내나 인제 이 베틀로 (웃음) 여기 없습니까?}

10416 @ 나중 인는데, 그래 말씀 쪼 해주이소, 그래 그능거는:.{나중에 있는데, 그래 말씀 쪼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10416 # 이름 자: 이지뻘따 그거, 기계.{이름 다 잊어 버렸다, 기계.}

10416 @ 이름: 내 차자 드리, 우선 생각나는 데부터 말씀부터 쪼.{이름은 내 찾아 드리(-르 테니), 우선 생각나는 데부터 말씀부터 쪼.}

10416 ## ** 머 머터러 이지뻘리?{** 뭐 뭇을 잊어버려?}

10416 # 베짜는 기계.{베짜는 기계.}

10416 ## 보디로 가: 안 따나?{보디로써 짜잖아?}

10416 # 아이 그래 보디레 짜는데 그러케 머 머어시 잉애평나 머이니.{아니 그래 보디로 짜는데 그렇게 뭐 무엇이 잉앗대냐 뭐니.}

잉애평꼬 머.{잉애평대 있고 뭐.}

머:리.{머리.}

머:리 짜 깍찰찌.{머리 짹 짹 찼지.}

1.5. 식생활

1.5.1. 채소 재배와 요리

10501 @ 에 저 할머~이 저: 바테서: 키아는 채소에는 어떻거리 이습니꺼?{에 저 할머니 저 밭에서 키우는 채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501 @ 바테서 그렇게 캐아는 채소.{밭에서 그러니까 키우는 채소.}

10501 @ 생각나시는대로 말씀 쪼 해 주이소.{생각나시는 대로 말씀 쪼 해 주십시오.}

10501 # 설씨고 해동하고 나메여: 상추씨 바다 날:따가 상추 송구고.{설 쇄고 해동하고 나

면요 상추씨 받아 놓았다가 상추 심고.}

10501 # 또:: 배추씨 그거또 이저넌 참:부 바다해꺼등예.{또 배추씨 그것도 예전엔 전부 받아서 했거든요.}

10501 # 카가저고 종자로.{키워 가지고 종자를.}

10501 # 봄 데모 배추씨도 송구고 열무씨도 송구고.{봄 되면 배추씨도 심고 열무씨도 심고.}

10501 # 그리고 언자 보리 베내고 나메는 모카 양 감니꺼?{그리고 인제 보리 베어내고 나머지는 목화 갈잖습니까?}

10501 # 보리 벤 끝티기예.{보리 베고 난 그루터기(가 있는 땅)에.}

10501 # 모카 갈때 거: 언자 또 참 배추씨 또 하나씩 여노모 그 배추가 그:리 마싹씨예.{목화 갈 때 그 인제 또 참 배추씨 또 하나씩 넣어 놓으면 그 배추가 그렇게 맛있어요.}

10501 @ 예.{예.}

지금 우리 아:들 마 가꿈가다 그: 들미사안다.{지금 우리 아이들 마 가꿈 가다가 들먹여 쌓는다.}

10501 @ 미영바테 거: 그 배추 그기: 이파리 깔기가:꼬.{목화밭에 거기 그 배추 그것이(그것의) 잎을 깔겨(떼어) 가지고.}

10501 @ 예.{예.}

무우모 온찌 그리 마시 이시꼬.{먹으면 어찌 그리 맛이 있을까.}

10501 # 만:날 그게 생각난다쿠거덩.{만날 그것이 생각난다고 하거든.}

@ 네.{네.}

10501 # 그렇거 해가꼬오모녀 머 마이냐 대나:.{그런 것 해 가지고 오며는 뭐 많이나 되나.}

10501 @ 예.{예.}

그 머 한:주먹서 이리 뜨더가꼬 오면.{그 뭐 한 주먹씩 이렇게 뜯어 가지고 오면.}

10501 # 그는 고만 설렁설렁 씨꺼다가.{그것은 그냥 설렁설렁 씻어다가.}

10501 # 간장 인는 사라문: 간장을 가:꼬 언자 수물 지이가 꼬치까리 쪼깨 여코 목꼬.{간장 있는 사람은 간장을 가지고 인제 숨을 죽여서 고춧가루 조금 넣고(넣어) 먹고.}

10501 @ 네.{네.}

조아가저고.{버무려 가지고.}

10501 # 간장도 얹는 사라문: 만:날 소금물로 타날:파가 소금물로 타가저고 목꼬.{간장도 없는 사람은 만날 소금물을 타 놓았다가 소금물로(소금물에) 타서 먹고.}

10501 @ 예.{예.}

이저네는 꼬치도 얼마나 기하십니까?{예전에는 고추도 얼마나 귀했습니까?}

10501 # 꼬치도 기헐꺼등예.{고추도 귀했거든요.}

10501 # 꼬치가 항:상 저: 빠사 해몽니라, 도우토오 저게.{고추가(고추는) 항상 저기에 뺑아서 해 먹느니라, 절구통 저기에.}

10501 # 글따 빠사가저고 쪼맨서: 쪼맨서 여:가 고리 목꼬.{거기에다 뺑아서 조금씩 조금씩 넣어 그렇게 먹고.}

10501 # 그 머 사능거또 사능거또 아이고 참 요새 아:덜 새앙캐모 우습찌.{그 뭐 사는 것도 사는 것도 아니고 요즘 아이들이 생각하면 우습지.}

10501 @ 근데 아까 상추, 배추, 열무, 이렇거 말씀해 주신데 그거 말고도 머: 마:이 안 이

선습니까?{그런데 아까 상추, 배추, 열무,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말고도 뭐 많이 있었잖습니까?}

10501 # 머 쭈까시니 그렇거 이서도: 안:테:요.{뭐 쭈갓이니 그런 게 있어도 안 돼요.}

10501 @ 아.{아.}

잘 안테여.{잘 안 돼요.}

10501 # 날 쪼개 가물모 마 말라 주거 빠리고.{날이 조금 가물면 마 말라 죽어 버리고.}

10501 # 말라 주거 빨:고 고마, 날 좀 가물모.{말라 죽어 버리고 그만, 날 좀 가물면.}

@ 예.{예.}

10501 # 그래 참 우찌우찌 해가저고 그인 일시머 언자 그 한 주머서 그래 깔려가:꼬 무꼬 그라지.{그래 참 어찌어찌 해 가지고 그게 있으면 인제 그 한 주먹씩 갈겨(떼어) 가지고 먹고 그러지.}

10501 # 요새매이로 머 흐나고 이러치느 안습니더.{요즘처럼 뭐 혼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10501 @ 음 그래 머 혼하던 안하던 그:도 여게 머: 호박하고 까지거통거 이렇거는 다 키 아슬꺼 아임니까?{음 그래 뭐 혼하든 안하든 그래도 여기에 뭐 호박하고 가지 같은 이런 것은 다 키웠을 것 아납니까?}

10501 # 그능거는 키우기는 키아도 인자 시방 합참 언자 올라오지.{그런 것은 키우기는 키워도 시방 한창 인제 올라오지.}

10501 @ 네.{네.}

순:.{순.}

@ 예.{예.}

10501 # 수니 올란:자 모싱기 해 노코.{순이 올라 인제 모심기 해 놓고.}

10501 @ 예.{예.}

이자 치릴딱 딱 들모 인자: 호박꼬또 피고 호박또 따묵꼬 호방넙또 따묵꼬.{인제 칠월달 딱 들면 인제 호박꽃도 피고 호박도 따먹고 호박잎도 따먹고.}

10501 @ @ 예.{예.}

까치도 따묵꼬 그라지예.{가지도 따 먹고 그러지요.}

10501 # 그래 언자 콩바테 언자 또 열무도 또 여:노:몬.{그래 인제 콩밭에 또 열무도 또 넣어 놓으면}

10501 # 열모 고눔도 해서 무꼬, 지금 열무도 만또 엄서.{열면 그눔도 해서 먹고, 지금 열무도 맛도 없어.}

10501 # 와 그렇고.{왜 그런지.}

10501 @ 요게 고구매느 안 승겼습니까?{여기에 고구마는 안 심었습니까?}

10501 # 고구매도 마이 승겼지여:.{고구마도 많이 심었지요.}

10501 # 고구매도 승거서 한 여나므 여나므 가마~이스 해 노른:.{고구마도 심어서 한 여남은 여남은 가마니씩 해 놓으면.}

10501 # 전엔 저게 고 방에 한쭈기 딱 차는데여.{전에 저기 그 방에 한쪽이 딱 차는데요.}

10501 # 나락까마~이매이로.{벧가마니처럼.}

@ 예.{예.}

10501 # 그라:주: 묵꼬살고.{그래 가지고(?) 먹고 살고.}

10501 # 자혀니 이기: 곡시기 좀 기항젠 기양게네.{자연(환경)이 이게 곡식이 좀 귀하니까}

귀하니까.}

10501 @ 예.{예.}

그때는 참, 이 비료 이거 흔하게 나고 나서는 인제 이 곡시기 흔치.{그때는 참, 이 비료 이거 흔하게 나고 나서는 인제 이 곡식이 흔하지.}

10501 # 비료 안나고 나서는 머슨 곡수기 대에심니까?{비료 안 났을 때는 무슨 곡식이 되었습니까?}

10501 # 만:날 풀려고 사네 가서 풀 베다가 그거 여:서.{만날 풀 이고 풀 베다가 그것 넣어서.}

10501 # 소가 가라니피가지고 그으서 커가저고 그으서 그래가꼬 머이 열매 쪼개 열몬 그거 따먹고 그래헐:찌.{소가 갈아 얹어 가지고 거기서 커 가지고 거기서 그래 가지고 뭐 열매 조금 열면 그것 따먹고 그렇게 했지.}

10501 @ 요오서는 멀캄니까, 정구지라캄니까, 부추라캐습니까?{여기에서는 뭐라고 함니까, 정구지라고 함니까, 부추라고 했습니까?}

10501 # 이 초네느: 주로 고마 소풀.{이 촌에(서)는 주로 그냥 소풀.}

10501 @ 아 요:는 소풀이라캐습니까?{아 여기는 소풀이라고 했습니까?}

예.{예.}

@ 예.{예}

10501 # 소푸릅니다.{소풀입니다.}

10501 @ 소푸른 안 키웁니까?{소풀은 안 키웠습니까?}

10501 # 와 앙키아예?{왜 안 키워요?(키웁니다.)}

10501 @ 그렇게 구굴또 함면 말씀 해 봐주***.{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말씀해 (봐 주십시오).}

10501 # 소푸른 이 동네에서 내가 제일 마이 해무깁니다.{웃음}{부추는 이 동네에서 제일 많이 해먹을 것입니다.{웃음}}

15051 # 베:가 오마 마 넘도 주고.{베어 오면 마 남도 주고.}

15051 # 우리 소푸른 종자가 애정때부터 인닝기라서.{우리 부추는 종자가 왜정 때부터 있는 것이라서.}

15051 # 하: 베:무모:, 저 아:드리 가:가모 행이 마이 난다캐.{? 베어 먹으면, 아이들이 가져가면 향이 많이 난다고 해.}

15051 # 요새꺼는 참:부 다 이 종자가 또 틀리가:꼬: 행이 안난다쿠데예.{요즘 것은 전부 다 이 종자가 틀려서(달라서) 향이 안 난다고 하데요.}

15051 # 시자~아 사서 무우도.{시장에서 사서 먹어도.}

@ 예.{예.}

15051 @ 예.{예.}

우리는 애정때 그거 나온 그은 종자라서 그거 뿌릴:가저고 만:날 나는 해무거.{우리는 왜정 때 그것 나온 그것 종자라서 그것(의) 뿌리를 가지고 만날 나는 해 먹어.}

15051 # 지금도.{지금도.}

15051 # 도시 아:드리 가머 마 소풀래가 마 화악 난다캐, 부어케 드러가믄.{도시 아이들이 가면 마 부추내가 확 난다고 해, 부엌에 들어가면.}

15051 @ 네. {네.}

갈따 노옴:.{가져다 놓으면.}

15051 # 참 나이 망크마, 우리 소푸른.{참 나이 많건마는, 우리 부추는.}

15051 # 요새 소푸른 막 넓떠넙떡 이리 아내요?{요즘 부추는 막 넓적넙적 이렇잖아요?}

15051 # 우리 건 그리 안해.{우리 것은 그렇잖아.}

15051 # 아 조바다리:하~이 그러치.{아 좁다라니 그렇지.}

15051 # 너무 나이 마내농게 그거또 그렇가.(웃음){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것도 그런가.(웃음)}

15052 @ 저 아까 맥까지 언자 그 채소 종류를 말씀해 주신는데예.{저 아까 몇 가지 인제 채소 종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15052 @ 그라고 또: 그 말씀하시면서 또: 우째:: 길러가: 뭇는지도 쪼끔 말씀해 주신는데:.{그리고 또 그 말씀하시면서 또 어떻게 길러서 먹는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15052 @ 인제 제가 하나하나 여쭙우보면예:.{인제 제가 하나하나 여쭙보면요.}

15052 @ 그: 채소를 우째: 길러가:꼬 우째: 뭇는지.{그 채소를 어떻게 길러 가지고 어떻게 먹는지.}

15052 @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하문 해주이소.{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한 번 해 주십시오.}

15052 @ 먼저:, 상추는 우째: 길러가:꼬 우째: 반찬 해묵습니까?{먼저, 상추는 어떻게 길러 가지고 어떻게 반찬 해 먹습니까?}

15052 # 상, 상추르예?{상, 상추를요?}

@상추부터, 예.{상추부터, 예.}

15052 # 상추는 그때마 해도 어:.{상추는 그때만 해도 어.}

15052 # 이 노가리 이리가꼬는 잘 안대지예.{이 노가리 이렇게 해서는 잘 안 되지요.}

15052 # 시쿠가 망코, 오존도 마~이 바치고, 이런 사라문 잘 대:도, 시꾸 자근 사라문 오 줌도 안 바치고 함께 엄서.{식구가 많고, 오줌도 많이 받치고, 이런 사람은 잘 돼도, 식구가 적은 사람은 오줌도 안 받치고 하니가 없어.}

15052 # 주로 인자 이저네는 우리 절물짜:는 대애지르 키악꺼등예.{주로 인제 이전에는 우리 젊었을 적에는 돼지를 키웠거든요.}

15052 # 대애지 그: 그르미 참:: 도캄니더.{돼지 그 거름이 참 독합니다.}

15052 # 대애지그름 나가지고 보메 감자를 안 송검니까?{돼지 거름 놓아서 봄에 감자를 심잖습니까?}

15052 # 감자바테 하나썬 여노모 이래요, 상추가.{감자밭에 하나씩 넣어 놓으면 이래요, 상추가.}

15052 # 그래가꼬 이윤사암도 주고, 나도 묵꼬.{그렇게 해서 이웃 사람도 주고, 나도 먹고.}

15052 # 뜨더가: 씹도 싸묵꼬 마 조아도 묵꼬 국또 끼리 묵꼬.{뜯어서 씹도 싸 먹고 마 버무려도 먹고 국도 끓여 먹고.}

15052 # 근데 요새 상추는 또 또 이전 상추하고 종자가 또 틀리:서 그 마시 안나예.{그런데 요새 상추는 또 또 이전 상추하고 종자가 또 틀려서(달라서) 그 맛이 안 나요.}

15052 @ 그럼 상추는 그래하고.{그럼 상추는 그렇게 하고.}

15052 @ 배차는 우쨌습니까?{배추는 어떻게 했습니까?}

15052 # 배추도 인자 고마 감자 쫄 송구모.{배추도 인제 그냥 감자 좀 심으면.}

15052 # 그때는 감자도 마~이 송곤짜:.{그때는 감자도 많이 심었지.}

15052 # 마 대애지거름, 소믈꺼름 소도 미이고 이렇게.{뭐 돼지 거름 소믈 거름 소도 먹이고 이러니까.}

15052 # 그르른 마~이 하지, 그래가 송구모.{그름은 많이 하지, 그래 가지고 심으면.}

15052 # 며: 그: 한테 인능기라.{뭐 거기에 한테 있는 거야.}

15052 # 감자바테다가, 그: 인제 거르미 마~이 가기 때무네.{감자밭에다가, 거기에 거름이 많이 가기 때문에.}

15052 @ 예. {예.}

이 감자에 거르름 마이 안논심니까?{이 감자에 거름을 많이 놓잖습니까?}

15052 # 소대지로 미잉게.{소 돼지를 먹이니까.}

15052 # 그래가지고 먼 배추씨도 하나씩 여어노코.{그래서 뭐 배추씨도 하나씩 넣어 놓고.}

15052 # 상추씨도 하나씩 떼지 노오마 마.{상추씨도 하나씩 던져 놓으면 뭐.}

15052 # 배추도 일:코.{배추도 이렇고.}

15052 # 그라고 여르프로느 한 칠팔: 데몬, 어~어 저 여르프로 모싱기 나기 저네는.{그리고 여름으로는 한 칠팔월 되면, 응 여름으로 모싱기 나기(?) 전에는.}

15052 # 그 이파리 깔리다가.{그 잎을 갈겨다가(떼어다가).}

15052 # 그 배추이파리 착착 개애가지고.{그 배추 이파리 착착 개어서.}

15052 # 바부에 찌서 찜도 싸목꼬.{웃음}{밥 위에 찌서 찜도 싸먹고.{웃음}}

15052 # 그 배추도 그리 마식꼬.{그 배추도 그리 맛있고.}

15052 # 지그른 그리 마시 인능게 업서여.{지금은 그렇게 맛이 있는 게 없어요.}

15052 # 내:나 그 종자로 내로오긴데.{내나 그 종자로 내려올 건데.}

15052 # 그:느 마시 안나.{그것은 맛이 안 나.}

15052 @ 그라고.{그리고.}

그래 상추씨: 배추씨 이렇거는 그 감자바테 하나씩 여:나아모 참:: 조습니다, 잘: 텀니다, 그기:.{그래 상추씨 배추씨 이런 것은 감자밭에 하나씩 넣어 놓으면 참 좋습니다, 잘 됩니다, 그것이.}

15052 @ 자꾸 언자 감자: 말씀 마이 하시는데.{자꾸 감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15052 # 예.{예.}

@ 그래 감자 그는 우째 키아가꼬 우재 우째 길러가:꼬 먹습니까?{그래 감자 그것은 어떻게 키워 가지고 어찌 어떻게 길러서 먹습니까?}

15052 # 감자예? 고: 내난:자 소미꺼름 그어 나가저고:.{감자요? 그것 내나 인제 소믈 거름 그것 놓아서.}

15052 @ 아니, 감자 인자 씨:부터 바다야 델꺼 아입니까?{아니, 감자 인제 씨부터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15052 # 씨로 인자 장녀네 항걸: 만날 나:뚜지.{씨를 인제 작년에 한 것을 만날 놓아 두지.}

15052 @ 고고 하며 쫘 말씀해주이소.{그것 한 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예.}

15052 # 감자로 케모여:, 인자 종자할꺼느 고마 나뚜능기라.{감자를 캐면요, 종자할 것은 그냥 놓아두는 거야.}

15052 # 마 또로도로 나뒀수도 익꼬:.{뭐 따로따로 놓아둘 수도 있고.}

10502 # 그냥 우리 묵따아 마 나무지 찌끄리이 고마.{그냥 우리 먹다가 마 나머지 찌꺼기 그냥.}

10502 # 그거 언자 후년 봄데모 고마.{그것 인제 후년 봄 되면 그냥.}

10502 # 순날때: 송글때: 대모 오마 또개가저고 송글수도 익꼬.{순 날 때 심을 때 되면 그냥 쪼개 가지고 심을 수도 있고.}

10502 # 왜 요즈른 인자 참:부다 해마당 만날 종자가 온다:이미꺼?{왜 요즘은 인제 전부 다 해마다 만날 종자가 오잖습니까?}

10502 # 근디 저네는 자지감자라꼬 또: 까망기: 이서꺼등예.{근데 전에는 자주 감자(?)라고 또 까만 것이 있었거든요.}

10502 # 까망기 이서 그거 마 참 소대지거르 해노모 똑: 이마써합니다.{까만 것이 있어 그것 뭐 참 소 돼지 거름(으로) 해 놓으면 이만씩 합니다.}

10502 # 가:가 참 소키울때 소마구 더그메다 이:리: 더그를 해노코.{그렇게 해서(?) 참 소 키울 때 외양간 두엄에다 이렇게 두엄을 해 놓고.}

10502 # 그따: 마 메까매 가따부:노몬, 오는 사람마다 여르메 비오모 장마찌고 하모 내:가: 쌀마 무:(웃음).{거기다 몇 가마니 가져다 부어 놓으면, 오는 사람마다 여름에 비오면 장마 지고 하면 내어서 삶아 먹어.(웃음)}

10502 # 부 때:가꼬 쌀마 무거.{불 때어서 삶아 먹어.}

10502 # 근디 지그른 감자만또 그리: 영: 마시 틀리:.(그런데 지금은 감자 맛도 그렇게, 영 맛이 틀려(달라).)

10502 # 이전 토종이 엄마 엄씨.{이전 토종이 얼마 없어.}

10502 @ 그라모 고구매는 또 우째?{그러면 고구마는 또 어떻게 (키웠습니까)?}

고구매는: 언자 모싱기 날때 데모 지그문 해도 지금 하능거느 아리 마~이 안템니다.{고구마는 인제 모심기 할 때 되면 지금은 해도 지금 하는 것은 알이 많이 안 됩니다.}

10502 # 우린: 주로 이 종자를 바아가꼬 수니 이래 안남니까?{우리는 주로 이 종자를 받아 가지고 순이 이렇게 나잖습니까?}

10502 # 그:언자 수늘 때:가저고 언자 두 무티서 세 무티서 찼라가저고 구래 헨는데.{그 인제 순을 때어 가지고 두 마디씩 세 마디씩 잘라서 그렇게 했는데.}

10502 # 지그른 참:부 구마 막바러 이리 떠:가저고 고마 송구그등예.{지금은 전부 막바로 이렇게 때어 가지고 그냥 심거든요.}

10502 # 인자는 문해: 그거또.{이제는 못해, 그것도.}

10502 # 우리 안한제 오래 데:심니다.{우리 안 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10502 # 인자 시미 자궁께.{인제 힘이 작으니까(없으니까).}

10502 # 하도 모나국꼬 카지오이가 시미 드리, 영감이 다리 아프제.{하지도 못 하겠고 가져오기가 힘이 들어, 영감이 다리 아프지.}

10502 # 다리: 아파서 처째느 그마, 여러 해 대:서 언자.{다리가 아파서 첫째는 그만, 여러 해 됐어 인제.}

10502 # 감자 아나고 고구마 아나고 이렇거 안하여.{감자 안 하고 고구마 안 하고 이런 것 안 해요.}

10502 @ 고구매 그거 종 그 멈니까, 언자 순 그 할 때는 종자를 바다 해야 텔꺼 아임니까? 종자르 언자.{고구마 그것 종 그 무엇입니까, 순 그 할 때는 종자를 받아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종자를 인제.}

10502 # 종자로 인자 보메 해동 안 하며 송구지.{종자를 인제 봄에 해동 안 하면(안 돼서) 심지.}

10502 @ 어디다 송굽니까?{어디에 심습니까?}

무더 노치예.{묻어 놓지요.}

10502 # 고 언자 종자 할 마침:자 요마:침 요리 인자 딱 파가지고.{그 인제 종자 할 만큼 인제 이만큼 이렇게 인제 딱 파 가지고.}

10502 # 거따: 거르믈 마~이 까룽기라.{거기다 거름을 많이 까는 거야.}

10502 # 거르믈 마~이 까라가지고 언자 더퍼가지고.{거름을 많이 깔아 가지고 인제 덮어 가지고.}

10502 # 인자 고파 인자 다문다문 요: 고구매로 요래 나아노코.{인제 거기다 인제 다문다문 여기에 고구마를 이렇게 놓아두고.}

10502 # 고: 순 나라꼬 온사~아 따 해논능기라.{거기에 순 나라고 온상에 딱 해 놓는 거야.}

10502 # 근: 노면:자 한달:: 정도 데모 온사니 여래 올라와.{그렇게 해 놓으면 인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온상이 이렇게 올라와.}

10502 # 올로:모 이자.{올라오면 인제.}

10502 # 저네느 우리 저네 우리:들 고구매 할 때느 마 수니 이:리 질기 나가지고.{전에는 우리 전에 우리들이 고구마 할 때에는 순이 이렇게 길게 나서.}

10502 # 두 모디 세 모디 꼬너 송구꺼덩.{두 마디 세 마디 끊어 심었거든.}

10502 # 근:테 요주문 고평 막빠로 떼 송구능기라.{그런데 요즘은 그냥 막바로 떼어 심는 거야.}

10502 # 고평 여만하모, 그렇게 순도.{그냥 요만하면, 그러니까 순도.}

@ 여프로.{옆으로.}

10502 @ 여프로 가기도 저네.{옆으로 가기도 전에.}

10502 # 예.{예.}

@ 올로오마 고평만.{올라오면 그것만.}

예.{예.}

10502 # 고평 요마치서하모 고평 순 점:무 마 떼가: 파능기라.{그냥 요만큼씩 하면 그냥 순을 전부 떼어서 파는 거야.}

10502 # 그래가 또 온사네서도 마~이 나오노갑띠여, 요주문:.{그래서(그리고) 또 온상에서도 많이 나오는가 보데요, 요즘은.}

10502 # 그렇게 고: 온자 또 절순 나오능거또 마~이 떼:오는상 시프데, 딱 모로 보모.{그러니까 거기에 인제 또 절순 나는 것도 많이 떼어 오는 성실데, 딱 모종을 보면.}

10502 # 이 모종을 가져오능거 보모, 윤 요즈믈:.{이 모종을 가져 오는 것 보면, 요 요즘은.}

10502 # 이 이저네 우리드른 순너~이 여:꺼 떼가져 그리:.{이 이전에 우리들은 순전히 여기 것을 떼어서 그렇게.}

10502 # 초불 떼고 두불 고고 언자 또 또 다시 순나모 언자 또 고평 또 두불 떼가져 또 송구목꼬 이랜는데.{초벌 떼고 두벌 그것 인제 또 또 다시 순이 나면 인제 또 그것 또 두벌 떼어서 심어 먹고 이랬는데.}

10502 # 요제는 침::무 온사~알 항:계.{요새는 전부 온상을 하니까.}

10502 # 웅사네서 일측 송궁께 이 나간다 아임니까?{온상에서 일찍 심으니까 이 (순이 일찍) 나가잖습니까?}

10502 # 고오서 올: 때가오능겉때 딱:: 모디로 보꺼트모:.{거기에서 이것을 떼어서 오는 것 같데, 딱 마디를 볼 것 같으면.}

10502 # 그래가 따 일칙 하능기라.{그래서 딱 일찍 하는 거야.}

10502 # 이질 우리드른 안주꼬정 이: 저:기 고구마 송골라꼬 새앙또 안함니다.{이전 우리들은 아직까지 이 저기 고구마 심으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10502 # 마 이마::치 머 커야 찢라가저고 모디르 쥘아가저고.{뭐 이만큼 뭐 커야 잘라서, 마디를 잘라서.}

10502 # 그래가 송구가 캐묵찌.{그렇게 해서 심어서 캐어 먹지.}

10502 @ 고구마:넌:자 가시레 언자 안캠니까?{고구마는 인제 가을에 인제 캐잖습니까?}

예{예.}

10502 @ 우찌 캐습니까?{어떻게 캐습니까?}

10502 # 그냥 호미로 가져고 마 퍼지고 안자서 머 캐가저고 자꾸 머 가마~이 담찌 머.{그냥 호미를 가지고 퍼지고) 앉아서 캐어서 자꾸 가마니에 담지 뭐.}

10502 @ 그 캐다가 보든 잘못하며 그어 찌거가꼬 물 하:안 그 머 안노옵니까? 농말가리가통거.{그 캐다가 보면 잘못하면 찍어서 물 하안 그 뭐 나오잖습니까? 녹말가루 같은 것.}

예.{예.}

10502 # 농말 나오지.{녹말 나오지.}

10502 @ 무드든 지다 아나고 오세.{묻으면 지지도 앓고 옷에.}

10502 # 안 집니다.{안 집니다.}

10502 # 켈제:도 이 수니 딱 떠러지메는 그기: 나와.{켈 적에도 순이 딱 떨어지며는 그게 나와.}

10502 # 꼬나아 여부터너모 안떠러지여.{그게 나와 여기 붙어 놓으면 안 떨어져요.}

10502 # 물로 딱 뜨근 해가저오 비비야 문때저.{물로 딱 뜨겁게 해 가지고 비벼야 문대저 (지워져).}

10502 # 안 씨끼집니다 거이:, 농말가루 그기:.{안 씻겨집니다 그게, 녹말가루 그게.}

10502 @ 예예.{예.}

찌찌 번느기:.{찌찌 붙는 것이.}

10502 @ 열무는 우찌 송굽니까?{열무는 어떻게 심습니까?}

10502 # 열무:느: 언자 콩 갈 때.{열무는 인제 콩 갈 때.}

10502 # 콩 갈 때 주로 인자 보리 베:내고.{콩 갈 때 주로 인제 보리 베어 내고.}

10502 # 그 인자 콩: 보리 끝티다 인자 콩: 안송굽니까?{그 인제 콩 보리 그루터기에다 콩 심잖습니까?}

10502 # 고때 열무 뿌레이 이래 뿌러노:모.{그때 열무 뿌리 이렇게 뿌려 놓으면.}

10502 # 그때 참 열무도 마시 익꼬 행:데.{그 때 참 열무도 맛이 있고 했는데.}

10502 # 지금도 열무도 만또 업서, 와그런노?(웃음){지금도 열무도 맛도 없어, 왜 그렇니? (웃음)}

10502 # 세상이 배끼서 틀려서 그렇가:.{세상이 바뀌어서 틀려서(달라져서) 그런가.}

10502 @ 또 무시도 머 또 송구가:꼬.{또 무도 뭐 또 심어 가지고.}

10502 # 예, 인저 인자.{예, 인제 인제.}

@ 그걸또 함 송굴때부터 해가지고예.{그것도 한 번 심을 때부터 해 가지고요.}

10502 @ 무시 난주~우 빼가저고 그 할때까지 쪽: 과정을 말슴 쯔 해주이소.{무 나중에 빼 어 가지고 그 할 때까지 쪽 과정을 말슴 쯔 해 주십시오.}

10502 # 치릴따레 송구쥬, 무시?{칠월달에 심지요, 무?}

10502 # 치릴따렌:자 무시종자로 사:와가저고 배추씨하고.{칠월달에 무 종자를 사 와서 배 추씨하고.}

10502 # 그래 가라가:꼬 언자.{그렇게 갈아서 인제.}

10502 # 무시는: 요조믄 고마: 약도 너무 쳐사코 해상께네 무끼도 겁나고:.{무는 요즘은 그 냥 약도 너무 쳐 썩고 하니까 먹기도 겁나고.}

10502 # 그래 언자 고마 머 알구지 해가저고 키야가저고 마 머 짐장도 하고 머 동김치도 당구고.{그래 가지고 그냥 뭐 알궂게(대충) 해 가지고 키워 가지고 그냥 뭐 짐장도 하고 동 치미도 담그고.}

10502 # 또개가지고 머 쪼가리김치도 당꼬: 그라지.{쪼개어서 조각김치(깍두기?)도 담고 그 러지.}

10502 # 마 마 시위딸 십이릴딸 데모.{뭐 이 뭐 시월달, 십일월달 되면.}

@ 네.{네.}

10502 @ 파도 송구바:습니까?{파도 심어 보았습니까?}

10502 # 파는 우리 인자 가랑패 저거 송구 목찌.{파는 우리 인제 실파 저것 심어 먹지.}

10502 @ 머슨 패예?{무슨 파요?}

10502 # 가랑패 저거:.{실파 저것.}

10502 # 중패 말고.{파 말고.}

10502 # 쿵::거 이렇거느 중패.{큰 것 이런 것은 파.}

10502 # 저: 저저 자자낭거 저거느 가랑패.{저기 저 저 자잘한 것 저것은 실파.}

10502 # 초네 이인테느 그능게 해물찌.{촌에 이런 데는 그런 것 해 먹지.}

10502 @ 꼬찌느 우쥬 송굴습니까?{고추는 어떻게 심었습니까?}

10502 # 저:네느 꼬치로 가따가 이 해동하고 나미는.{전에는 고추를 가지고 이 해동하고 나며는.}

10502 # 우리가 종자로 바다 날:따가.{우리가 종자를 받아 놓았다가.}

10502 # 노:래로 흐 혼다임니까?{노가리로 흘잖습니까?}

10502 # 노가리 흐치날따 언자 모싱기 날때: 데믄.{노가리로 흘어 놓았다가 인제 모싱기 할 때 되면.}

10502 # 요거 인자 쯔 커모 고고로 인자 두두굴 지:가지고.{이것 인제 쯔 크면 그것을 인 제 두둑을 지어서.}

10502 # 그리 다문다무내 송구해서 목꼬.{그리 다문다문하게 심어서 먹고.}

10502 # 머단사라믄 고마 노가리 고마 씨 마는 사라믄 노가리 곱마 마~이 송거가꼬 고 마.{뿔한(웬만한) 사람은 그냥 노가리로 그냥 씨 많은 사람은 노가리로 그냥 많이 심어 가 지고 그냥.}

10502 # 소카내뻔:고 모종 녀 주기도 하고.{쑤아 내 버리고 모종 남 주기도 하고.}

10502 # 고마 고대:로 고마 키아 무끼도 하고.{그냥 그대로 그냥 키워 먹기도 하고.}

10502 # 그렇게 꼬치도 마~이 몬해무쥬:, 이저네너.{그러니까 고추도 많이 못 해 먹었어, 이전에는.}

10502 # 이저네 꼬치: 저런데 쟤맨서 찌가 몽는다쿠모 그거 머 고치농사라?{이전에 고추를 저런데 조금씩 지어 먹는다고 하면 그게 뭐 고추 농사야?}

10502 # 또또또또 쪼매~이 찌가 무:모.{**** 조금 지어 먹으면.}

10502 # 지그른 하노콤마 지이도 기계로 가야데고.{지금은 한 움큼만 지어도 기계로 가야 되고.}

10502 # 방:가늘 찌도 기계로 가야데고.{반 관을 지어도 기계로 가야 되고.}

10502 @ 씨금초는 안 캐안습니까?{시금치는 안 키웠습니까?}

10502 # 시금조 그으느 인자 마~알 갈때:, 가시레.{시금치 그것은 인제 마늘 갈 때, 가을에.}

10502 # 가시레 마~알 갈거등예, 타작 다: 해노꼬.{가을에 마늘을 갈거든요, 타작 다 해놓고.}

10502 # 언자 가을리를 딱 끝내고나모 언자 마늘 송굴때 언자.{인제 가을일을 딱 끝내고 나면 인제 마늘 심을 때 인제.}

10502 # 시금치 그거는 머 가:서로 쪼맨서쳐노모 마: 제 미끼 시른대로 무:.{시금치 그것은 뭐 (밭)가애다 조금씩 뿌려 놓으면 뭐 저 먹기 싫은 대로 먹어.}

10502 # 그렇거느 머 장사하는 사라미 마~이 하지 머, 이인테:는 머: 궁:금또 심도 안씨고.{그런 것은 뭐 장사하는 사람이 많이 하지 뭐, 이런 데는 뭐 그런 것도 힘도 안 쓰고.}

10502 # 시음치 그렇거느.{시금치 그런 것은.}

10502 # 주로 인제 이때 여르메 물:라꼬 언자 상추 저거 마~이 하고.{주로 인제 이때 여름에 먹으려고 인제 상추 저것 많이 하고.}

10502 # 무술 무시 배추 언자 그렇걸 가라가저고 언자.{무를 무 배추 인제 그런 것을 갈아서 인제.}

10502 # 안사무굴라꼬 언자 짐 짐치 다: 몽는다꼬 언자.{안 사 먹으려고 인제 김치 담아 먹는다고 인제.}

10502 # 자기네들 다 무:꾼 다: 하고.{자기네들 다 먹을 것은 다 하고.}

10502 # 이만함: 인자 안사무: 인자 * 해동하고 나모.{이만하면 인제 안 사 먹어 인제 * 해동하고 나면.}

10502 # 타: 저거 송구 해묵찌.{다 자기네들 심어서 해 먹지.}

10502 @ 아까 할머~이 저: 소폴 애정때끼라서 해~이 참 조타 말씀하셧는데.{아까 할머니 저 부추, 왜정 때 것이라서 향이 참 좋다고 말씀하셧는데.}

10502 @ 소폴 그거 우째 행이 조은지.{부추 그것 어떻게 향이 좋은지.}

10502 @ 엔나레, 지끔말고예.{옛날에, 지금 말고요.}

10502 @ 엔날 직접 자그마:낭거예.{옛날 직접 (키우셨다던) 자그마한 것요.}

10502 @ 행이 조아따카던 그: 소폴 키아덩거, 고 말씀 좀 해주이소.{향이 좋았다고 하던 그 소폴 키우던 것, 그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0502 # 그으느 우니가 종자로 바다 향간:테.{그것은 우리가 종자를 받아서 한 것인데.}

10502 # 저네 내 시집: 옹께네 거 종자로 저 농구티자~야: 해가저고{전에 내가 시집 오니까 그 종자를 저 ****에 해서.}

10502 # 그래 그거 언자 칠팔:테머 보::하~이 꼬치 올로오고등예.{그래 그것 인제 칠팔될 되면 보양게 꽃이 올라 오거든요.}

10502 # 그래 고 이그먼:자 딱 따날:따가.{그래 그것 익으면 인제 딱 따 놓았다가.}

10502 # 우리 놈머리다: 요마:침 송구농기:라, 종자르 가꼬:.{우리 논모리에 요만큼 심어 놓은 거야, 종자를 가지고.}

10502 # 늘: 그기라 만날, 그 뿌리~이가.{늘 그거야 만날, 그 뿌리가.}

10502 # 지그른 언자 글 지그른 그 사람들, 하는 사람들도 그 종자도 아니다.{지금은 인제 그 지금은 그 사람들, 하는 사람들도 그 종자도 아니다.}

10502 # 다 씨 씨로 다 바다가저고 아나고 자~아서 사가 하기때무네 다 틀리.{다 씨 씨를 다 받아서 안 하고 장에서 사서 하기 때문에 다 틀려(달라).}

10502 @ 그 소풀 처음 노오능거느 머 사촌하고도 안 갈라몽는다 마리 있는데.{그 부추 처음 나오는 것은 뭐 사촌하고도 안 갈라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10502 # 예.{예.}

@ 그마끔 그 모메 조타는 뜨심니꺼?{그만큼 그 몸에 좋다는 뜻입니까?}

그러치예.{그렇지요.}

10502 @ 소풀가꼬는.{부추 가지고는.}

소풀 한 소풀 한 지까라게 피 한수까라 나온다 마리 있꺼등, 피:.{부추 한 부추 한 것가락에 피 한 순가락 나온다는 말이 있거든, 피.}

10502 # 그렇게 그여글 생겔로 요리 딱 조아가 무:머.{그러니까 그것을 생것으로 이렇게 딱 버무려 먹으면.}

10502 # 침문지 올로오:, 요마침 올로오때.{첫 번째 올라올, 이만큼 올라올 때.}

10501 # 딱 베가저고.{딱 베어서.}

10502 # 초 살끔 여어서 시콤달콤해 해가저고 생겔로 이 조아 몽능기라.{초 살짝 넣어서 새콤달콤하게 해 가지고 생것으로 버무려 먹는 거야.}

10502 @ 치미.{침이.}

맵싸하~이.{웃음}{맵싸하게.{웃음}}

@ 치미 고입니다.{웃음}{침이 고입니다.{웃음}}

10502 # 보리밥 몰캉히 해가:꼬.{보리밥 몰캉하게 해 가지고.}

10502 # {웃음}그렇거는 그렇거 무:야 마신편.{웃음}그런 것은 그런 것(그렇게) 먹어야 맛있어.}

10502 @ 아, 마신편.{아, 맛있다.}

10502 @, # {웃음}

10502 @ 아까 마~아른 우찌 캐안다 캐습니까?{아까 마늘은 어떻게 키운다고 했습니까?}

10502 # 마느른 언자 가슬리리 끝나고 나미는.{마늘은 인제 가을일이 끝나고 나며는.}

10502 # 거름 짜악 갇다 언자 머 사다 연는 사람 사다 여코, 짐승 미:는 사라문 또 머 저 거 거름 여꼬.{거름 짹 갖다 인제 뭐 사다 넣는 사람은 사다 넣고, 짐승 먹이는 사람은 또 뭐 자기네 거름 넣고.}

10502 # 여:가저고 마 여새넌:자 전부 다 게웅기르 썰러 강께네로.{넣어 가지고 뭐 요새는 인제 전부 다 경운기로 '썰러' 가니까.}

10502 # 갈:릴 딱 끝나고나믄 그어 하거등예, 마늘.{가을일 딱 끝나고 나면 그것 하거든요, 마늘.}

10502 @ 오새 게웅긴 하능거 말고예.{요새 경운기로 하는 것 말고요.}

10502 @ 엔나레 해뎔 기어거서.{옛날에 했던 기억 해서.}

엔나레.{옛날에.}

@ 예.{예.}

10502 # 엔나레 점:부 소로 가랴.{옛날에 전부 소로 갈았지.}

10502 @ 그러~이까예.{그러니까요.}

거름 여어 가져고.{거름 넣어서.}

10502 # 소로 갈고 막 쪽꼬 써:리로 써:리고 이래 가지고.{소로 갈고 막 쪼고 써레로 써리고 이래서.}

10502 # 썰매: 해몽는 기:라도 쟁기로 가라노오며 이거 벨띠:가 안 깨지거등.{조금씩 해먹는 것이라도 쟁기로 갈아 놓으면 이것 흙덩어리가 안 깨어지거든.}

10502 # 그렇게 또 써:리가아꼬 또 고: 또 보드락께 하는 사람도 하고.{그러니까 또 썰러서 또 거기 또 보드랍게 하는 사람도 하고.}

10502 # 그냥 고마 절른 사암들 오마 께~이 두디 뽀사가주고 흑땡거리 너머오모 고마 뽀사가저고 막 거름 까라가저고 하는 사람도 익꼬.{그냥 그만 젊은 사람들 그냥 팽이(로) 두드려 부셔서 흙덩어리 넘어오면 그냥 부셔서 막 거름 깔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10502 #그래 해무스이.{그렇게 해 먹었어요.}

10502 @ 요:서: 그: 생강가통거는 안 키아습니까?{여기에서 그 생강 같은 것은 안 키웠습니까?}

10502 # 그는 마 자~아 썰매 사다 목지 안함니다.{그것은 마 장에서 조금 사다 먹지 안함니다.}

10502 # 인자 자기네들 무:울꺼 언자 머:단 사람: 머 삼쳐년치:써 이치리도 이쳐년치 파다 사다가 승구는 사람도 이꼬.{인제 자기네들 먹을 것 인제 웬만한 사람은 삼천원어치씩 이천원도 이천원어치 팔아다 사다가 심는 사람도 있고.}

10502 @ 예.{예.}

잘 안데테여.{잘 안되네요.}

10502 # 나능그: 이태로 함:서 항:게 안테데.{나는 그 두 해를 하면서 하니까 안 되네.}

10502 # 또오 이래가저고 해서 몽또 모나걸면데 타:신: 안해, 고마.{꼭 이래서 해서 먹지도 못하겠던데 다신 안 해, 그만.}

10502 # 기리고 여: 지금 장에 나아능거또 점:부 중구사늘 가져고 지베서 카:가 나오능기라.{그리고 여기 지금 장에 나오는 것도 전부 중국산을 가지고 집에서 키워서 나오는 거야.}

10502 # 요래 초글 내가 나오능기라.{요래 축을 내어서 나오는 거야.}

10502 # 그래도 머 마슨 똑 안 가트까이?:{그래도 뭐 맛은 꼭 안 같을까?}

10502 @ 생강예?{생강요?}

예.{예.}

10502 # 우리는 그래도 토종 그거 사묵꺼덩, 가:시레.{우리는 그래도 토종 그것 사 먹거든, 가을에.}

10502 # 김장할때는 글: 조금 사가 묵꺼덩.{김장할 때는 그것 조금 사다 먹거든.}

10502 @ 아까 쪽깁또 키윔다: 말씀하싰제?{아까 쪽갓도 키웠다고 말씀하셨지요?}

10502 # 여: 쪽깁또 내나 여: 상추하고 가치 해묵습니다.{여기 쪽갓도 내나 여기 상추하고 같이 해 먹습니다.}

10502 # 쌈 싸 몽:데.{쌈 싸 먹는 데.}

10502 # 쪽깁 언자 마~이 하는 사라문 칼로 베:가저고{쪽갓 인제 많이 하는 사람은 칼로

베어서.}

10502 # 칼로 베도 또 올로오고딩.{칼로 베어도 또 올라오거든.}

10502 # 미테 모디에서.(웃음){밀의 마디에서.(웃음)}

10502 # 그래가:꼬 국또 끼리묵꼬 고기 찢:테도 여: 묵꼬.{그래서 국도 끓여 먹고 고기 찢는 데도 넣어 먹고.}

10502 # 지금 식:따~아 가모.{지금 식당에 가면.}

10502 # 이거 매운타아 해주는데 그거 안 여심니꺼?{이것 매운탕 해 주는 데 넣잖습니까?}

@ 예.{예.}

썩까:{썩갓.}

10502 # 그으 또: 행이 또 쪼개 익꺼거덩, 그 형.{그것 또 향이 조금 있거든, 그 향.}

10502 @ 토란도 키웁니까?{토란도 키웁니까?}

10502 # 크으또 저네는 토란때고 머시고 마~이 해문:는데 인자 안함니다.{그것도 전에는 토란대고 뭐니 많이 해 먹었는데 이제는 안 합니다.}

10502 @ 예 엔나레 우째 해습니까?{옛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10502 # 내나 감자 송구드끼.{내나 감자 심듯이.}

10502 # 딱: 감자매로 고래 송구예.{똑 감자처럼 그렇게 심어요.}

10502 # 고고또.{그것도.}

10502 # 언자 마~이 안 하지:.{인제 많이 안 하지.}

10502 # 그리대머 인자 머 한 치파알 대민:자{그렇게 되면 인제 뭐 한 칠팔월 되면 인제.}

10502 # 가지가 이리 쳐서 나양젠드런자 대로 깔리다가 껍띠 까가: 가져고.{가지가 이렇게 쳐서 나오니까 인제 대를 갈겨다가 껍테기를 까서.}

10502 # 요마:치서 찢라가지고.{요만큼씩 잘라서.}

10502 # 또개가꼬 썩 말랴:{쪼개어서 썩 말려.}

10502 # 지금 시자~아 시방 마~이 나오거등예, 토란때.{지금 시장에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토란대.}

10502 # 그어 참 마식꼬 조와.{그 참 맛있고 좋아.}

@ 예.{예.}

그그느.{그것은.}

10502 # 우리 인자: 영가미 다리가 아풍께: 이 무궁거르' 나도 포리 아파서 몽가: 대~이 제.{우리 영감이 다리가 아프니까 이 무거운 것을, 나도 팔이 아파서 못 가져 다니지.}

10502 # 언자 그렇거느 고마 토:저히 고마 타 떼:스 언자.{인제 그런 것은 그만 도저히 그만 다 뺐어 인제.}

10502 @ 염뿌레~이라 카능거는 안해습니까?{염뿌리라고 하는 것은 안했습니까?}

예?{예?}

@ 염뿌레~이.{염뿌리.}

10502 # 염뿌리~이 구능거느 모:시 이시야 하는데.{염뿌리 그런 것은 못이 있어야 하는데.}

10502 # 핁글 핁글 롬매~이로 여어 봉게 그러튼데.{?? ?? 논처럼 여기 보니 그렇던데.}

10502 # 모시 웅덩이야 데:.{못이, 웅덩이어야 돼.}

10502 # 그능거느 오데: 바닥까: 그런데 걸편디여.{그런 것은 어디 바닷가 그런데 같던데}

요.}

10502 @ 물까다 그지예? {물가다, 그지요?}

예.{예.}

10502 # 그리하능 걷편데.{그리하는 것 같딘데.}

10502 @ 당그는예?{당근은요?}

10502 # 당그는:자 즈그 물:마침:자.{당근은 인제 자기네 먹을 만큼 인제.}

10502 # 씨 조금 사다가.{씨 조금 사다가.}

10502 # 함 봉다리 사가 마 여를 찌베 갈라가지고 쪼맨서 승거가지고 마.{한 봉지 사서 여러 마 여러 집에 갈라서 조금씩 심어서 마.}

10502 # 요시 요새 저문사람들 또 당근도 안 몰라쿠테:. {요새 요새 젊은 사람들 또 당근도 안 먹으려고 하데.}

10502 # 짐치 여응께네로 머 짐치 여어 무머 머 짐치가 시다쿠나 우째따쿠노.{김치에 넣으니까 뭐 김치에 넣어 먹으면 김치가 시다고 하나 어쨌다고 하나.}

10502 # 잘 잘 신다 또 마리 인떠라.{잘 잘 쉰다 또 말이 있더라.}

10502 # 그러타꼬 또 당그는 잘 안사테예.{그렇다고 또 당근은 잘 안 사데요.}

10502 # 아이고 마 그능거는 마 김장 할때 고마 요농거 고마 서너 뿌리 사모 테:. {아이고 마 그런 것은 뭐 김장할 때 그냥 이런 것 그냥 서너 뿌리 사면 돼.}

10502 # 안 합니더, 그렇거.{안 합니다, 그런 것.}

10502 # 기차내서 아나고.{귀찮아서 안 하고.}

10502 @ 우봉도 키아 바심니꺼?{우영도 키워보았습니까?}

예? {예?}

@ 우봉.{우영.}

10502 # 나: 우봉도 여러 해로 안 헐는데.{나는 우영도 여러 해를 안 했는데.}

10502 # 오래 한 오배거너치 종자 사다 승구날:파.{올해 한 오백 원어치 종자 사다가 심어 봤다.}

10502 # 지꼭 끼리 몰라꼬.{‘짓국’ 끓여 먹으려고.}

10502 # 들깨가리 여어서 지꼭 끼리몰라꼬, 보르메.{들깨 가루 넣어서 ‘짓국’ 끓여 먹으려고, 보름에.}

10502 @ 머슨 국 캐썬니꺼?{무슨 국이라고 했습니까?}

10502 # 지꼭.{‘짓국’.}

10502 @ 지꾸기 멈니꺼.{지국이 뭘니까?}

10502 # 우봉 뿌리.{우영 뿌리.}

@ 네.{네.}

10502 # 설 씨고 보르메 무굴라쿠테느.{설 쇠고 보름에 먹으려고 하면.}

10502 # 날 따신 날 정올따레.{날 따듯한 날 정월달에.}

10502 # 보르메 국끼리 몰라꼬.{보름에 국 끓여 먹으려고.}

10502 # 캐, 캐로 가능기라.{캐, 캐러 가는 거야.}

10502 @ 예.{예.}

그람: 내나 뿌리가 이렇기 내나 이 이리 들거등.{그러면 내나 뿌리가 이렇게 내나 이 이렇게 들거든.}

10502 # 고거 언자 쫑쫑 씨리 가지고.{그것 인제 쫑쫑 썰어서.}

10502 # 아시방 여르메 그 이파리 떼다: 씹도 씹묵꼬 이리 해각:꼬 언자.{**** 여름에 그
 잎 떼다가 씹도 씹서 먹고 이렇게 해서 인제.}

10502 # 마 씨리 여:머 다 엄따아임니까? 그랑게 뿌리~이만:자 땅에 нама 익꺼덩.{뭇 썰어
 넣으면 다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뿌리만 인제 땅에 남아 있거든.}

10502 # 그람:자: 보르메 언자 그 지꼭 끼리 물라꼬.{그러면 인제 보름에 인제 그 '짓국'
 끓여 먹으려고.}

10502 # 그래 모더 자~아 사느기라.{그래 모두 장에서 사는 거야.}

10502 # 자~아 상께 그어또 따 마시 안나데.{장에서 사니까 그것도 또 맛이 안 나데.}

10502 # 나: 또: 생저: 안 해 묵따: 또 오래 하며 해 무:바떠마는.{나는 또 생전에 안 해
 먹다가 또 올해 한 번 해 먹어 봤더마는.}

10502 # 무봉뿌리로 사가오 항께네로 파이데:.{우영 뿌리를 사서 하니까 나쁘데.}

10502 # 그래 오랜:자 또 토종을 언자 사다가: 쪼개: 송구날:씨.{그래 올해 인제 또 토종을
 인제 사다가 조금 심어 봤어.}

10502 # 후년 보메도 지꼭 끼림도고.{후년 봄에도 '짓국' 끓인다고.}

10502 # 지꾸 꼬 언자 어봉 뿌리~이로 깨꼬 씨:가:꼬.{'짓국' 그 인제 우영 뿌리를 깨끗이
 씻어서.}

10502 # 딱 떠 또개등가 자자나~이, 또개: 이놈 폭 쌀마각:꼬.{딱 딱 쪼개든지 자잘하게,
 쪼개어 이놈 폭 삶아서.}

10502 # 쌀하고 들깨하고 쌀로 부라각:꼬.{쌀하고 들깨하고 쌀을 불려서.}

10502 # 들깨하고 미ச்ச게 갈:든지.{들깨하고 믹서기에 갈든지.}

10502 # 쌀로 부라각:꼬.{쌀을 불려서.}

10502 # 기예: 가서 고마 소로로 내라도라쿠마 또 내라주거덩.{기계에 가서 그냥 스트럭
 내려 달라고 하면 또 내려 주거든.}

10502 # 쪼매:마 국 끼리물 마:침 이리캐 가모.{조금만 국 끓여 먹을 만큼 이렇게 하여 가
 면.}

10502 # 그래가:꼬 고 언자 우봉 뿌리~이 그거 포옥 쌀마 가져고.{그래 가지고 그 인제 우
 영 뿌리 그것 폭 삶아서.}

10502 # 꼬를때 언자 고거 언자 물로 마차:서 분능기라.{끓을 때 인제 그것 인제 물을 맞
 춰서 붓는 거야.}

10502 # 노고리::하~이 **** 그 지꾸버다 참 마싹씨, 들깨내가 나능기.{***하게 **** 그 '
 짓국'** 참 맛있어, 들깨 내가 나는 게.}

10502 # 후인 보름: 오이소, 내: {후년 보름에 오십시오, 내가.}

10502 # 지꾸 디리게. {'짓국' 드릴게.}

10502 @ 보름가능건 정월 대보름.{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월 대보름.}

10502 @ 예, 고맙습니다, ** 초대바다 나안썸니다.{웃음}{예, 고맙습니다, ** 초대받아 놓
 았습니다.웃음}}

예.{웃음}{예.웃음}}

10502 # 그거 해물라꼬.{그것 해 먹으려고.}

10502 # 오래 올 올 봄:.{올해 올 올 봄에.}

10502 # 모도 고열: 해무사도 고마 또 이 요새 저문 사람드른 저 그렇거 안 해 물라캐:.
 {모두 그것을 해 먹어 쌓아도 그만 또 이 요새 젊은 사람들은 저 그런 것 안 해 먹으려고

해.}

10502 # 나이 시방 욱시베 덴 사람드리 그렇거 안 해 몰라캐:.{나이 시방 욱십에 된 사람들이 그런 것 안 해 먹으려고 해.}

10502 @ 예. {예.}

그어나 언자 이저네 목편 그스기 데:서.{그러나 인제 이전에 먹던 거숙이 돼서.}

10502 # 하문 우봉뿌리로 함 자~아서 사가 용게.{한 번 우영 뿌리를 한 번 장에서 사 가지고 오니까.}

10502 # 그 애오봉 거 아임니까? 치다:망거.{그 왜우영 그것 아닙니까? 기다란 것. }

@ 예.{예.}

행이 엄페.{항이 없데.}

10502 # 그래서 내가 토제~이라꼬 이파리도 따묵꼬 한다꼬.{그래서 내가 토종이라고 이파리도 따먹고 한다꼬.}

10502 @ 예. {예.}

충구나:스.{심어 났어.}

10502 @ 호바근 우째 또 캐아습니까?{호박은 어떻게 또 키웠습니까?}

10502 # 호바기 저어 나네요 시방.{호박이 저기 나네요, 시방.}

10502 # 허, 저어 마당 꼬테 나는데 안중꺼여, 저주게.{허, 저기 마당 끝에 나는데 아직까지(?) 저쪽에.}

@ 예.{예.}

10502 # 그 인자 쭈인 자꾸 주리 나가면:자 저 우타리 저로 올리끼라.{그 인제 줄이 자꾸 줄이 나가면 인제 저 올타리 저리로 올릴 거야.}

10502 # 오 올리가지고 언자 자꾸 대갈빠~이로 요리 돌리고 요리 돌리오 해가지고 언자, 이파리 따물라꼬.{오 올려서 인제 자꾸 대가리를 요리 돌리고 요리 돌리고 해서 인제, 이파리 따서 먹으려고.}

10502 # 저거또 또 호방니파리 머:당거느 요새느 또 머.{저것도 또 호박 이파리 웬만한 것은 요새는 또 뭐.}

10502 # 어 호바게 또 머 종자가 머 커다삼스럼.{어, 호박의 또 뭐 종자가 뭐 크다(고 해) 쌓으면서.}

10502 # 오디서 이서가지고 여: 동네 사암드이 그 종자로 사다 승궁께네.{어디에 있어 가지고 여기 동네 사람들이 그 종자를 사다 심으니까.}

10502 # 허방니파리 꼬꼬리바서 몬 목구떼여.{호박 이파리 꺾꼬리워서 못 먹겠데요.}

10502 # 빠:빠다~이 거마 꾸쭈 찌르능기.{뻗뻗하니 그냥 꺾쭈 찌르는 것이.}

10502 # 이 인자 토종 저어느 호방니파리 따머: 소늘 안 찢러.{인 인제 토종 저것은 호박 이파리 따면 손을 안 찢러.}

10502 # 그람: 마 살랑사랑 썩꺼다가 밥소테 폭: 찢가지고 된장 바부에 찢게 해각:꼬.{그러면 마 살랑살랑 씻어다가 밥술에 폭 찢서 된장 밥 위에 조금 해 가지고.}

10502 # 쌈 싸무며 검:내기 마싹씨.{쌈 싸서 먹으면 아주 맛있어.}

10502 # 모캉모캉 해노모.{몰캉몰캉하게 해 놓으면.}

10502 # (웃음)

10502 @ "검:나게 마싹씨"카능게 그 요: 마림니까?{"겉나게 맛있어"라고 하는 게 여기 말입니까?}

예.{예.}

10502 # "کم내이 마시" 절라도 사람드른 "혼내게 마싹씨".(웃음){"겍나게 맛있(어)"(을), 전라도 사람들은 "혼나게 맛있어"(라고 해).(웃음)}

10502 # 혼내게 껌찌다쿤다 ***(웃음){"혼내게 껌찌다"고 한다 ***(웃음)}

10502 @ 저 하라버지도 "겍나게 겍나게 마싹따" 이런말 씌씀니꺼?{저 할아버지도 "겍나게 겍나게 맛있다" 이런 말 썼습니꺼?}

10502 # 허 여:느 하모 그뜨그랑 고마 "아따 그으참 겍내게 마싹떠라" 이리 쿠고.{하 여기는 아무렴 겍끗하면 그냥 "아따 그것 참 겍나게 맛있더라" 이렇게 하고.}

여어 지: 말투가 그러터~이.{여기 자기 말투가 그렇데요.}

10502 @ * 겍내게 마~이 씌스니꺼?{* 겍나게 많이 씌스니꺼?}

으~으(웃음).{응.(웃음)}

10502 # 저 절라도 사람가트며 저 우에 사암 가트모 "혼:내기 무꾼따, 혼:내기 껌찌다" 이리쿠고.(웃음){저 전라도 사람 같으면 저 위에 사람 같으면 "혼나게 먹었다, 혼나게 껌찌다" 이렇게 말하고.(웃음)}

10502 # 그리 데데여, 근데 우리 쟁상데:느 보통 보모 고마 "아따 그 참" 그 조웅기: 인씨며 "아따 그 참 겍내~이 조타:".{그리 되데요, 그런데 우리 경상도에는 보통 보면 그냥 "아따 그 참" 그 좋은 것이 있으면 "아따 그 참 겍나게 좋다".}

10502 # 토종이 그래야, 여:느.{토종이 그래요, 여기는.}

@ 예.{예.}

쟁상도에는.{경상도에는.}

10502 # 상:추 저거또 언자 춤 이서 보이요, 이씨보른 아:들 오모 마 봉다리에 마 봉다리 봉다리 해가: 간다. {상추 저것도 인제 좀 있어 보십시오, 있어 보면 아이들이 오면 뭐 봉지에 봉지봉지 해 가지고 간다.}

10502 @ 예.{예.}

10502 @ 오이도 키아 보이습니꺼?{오이도 키워 보셨습니꺼?}

10502 # 오이 머 즈즈게 두피: 세피: 송구머 머 즈으 묵꼬도 남:데 머, 우리 두리 묵꼬도 남아예.{오이 뭐 저 저기에 두 포기 세 포기 심으면 뭐 자기들 먹고도 남는데 뭐, 우리 둘이 먹고도 남아요.}

10502 # 마 아:들 저거 머 사목제.{뭐 아이들 자기들(은) 뭐 사 먹지.}

10502 # 도시에 머 항개두개 사가: 묵찌 머.{도시에 뭐 한 개 두 개 사다 먹지 뭐.}

@ 저 오이는 또 우째 송금습니꺼?{저 오이는 또 어떻게 심었습니꺼?}

10502 # 오이여?{오이요?}

10502 @ 예. {예.}

거 자외라꼬 거 종자가 인따:임니꺼?{그 '자외'라고 종자가 있잖습니꺼?}

10502 # 초네 사람드른 그 콩바테도 여:코 일:사커딩.{촌에 사람들은 그 콩밭에도 넣고 이리 썻거든.}

10502 # 그거 마 한 두어피 사다: 두어피 어더다가, 나: 안사:.{그것 뭐 한 두어 포기 사다가 두어 포기 얻어다가, 나는 안 사.}

10502 # 인:데 사암드른 그런 종자를 그래 당: 바다가꼬 저거 마 콩바테도 송구고 이라거딩.{이런데 사라들은 그런 종자를 그렇게 늘 받아서 자기네 마 콩밭에도 심고 이러거든.}

10502 # 그라메 그 종자 그거 언자 맥개 어더다가.{그러면 그 종자 그것 인제 몇 개 얻어

다가.}

10502 # 송구노오모 한 두우 피:마 송구나:도.{심어 놓으면, 한 두어 포기만 심어 놓아도.}

10502 # 만:날 늘궁기: 이씨, 누:루~이 (웃음) 풀파테 파부치가:꼬 누룽기: 인씨.{만날 늙은 게 있어, 누룽게 (웃음) 풀밭에 파묻혀서 누런 것이 있어.}

10502 # 아이기, 이시버 또 킁기도 아내.{아이고, 있으면 또 먹히지도 않아.}

10502 # 또 절문사람처럼 이나 조코하모 그이 또.{또 젊은 사람들처럼 이나 좋으면 그게 또.}

10502 # 자외라쿠능거느 행:기가 익꺼더~이.{‘자외’라고 하는 것은 향기가 있거든.}

10502 # 행이 찰:: 마이. {향이 참 많이.}

10502 # 여 저 따가 도름: 부써 행내가 난다, 자외라쿠능거느.{여 저 따서 들어오면 벌써 향기가 난다, ‘자외’라고 하는 것은.}

10502 # 그으는 커다:나고 똑 조만 조고매~이 그런는데.{그것은 크지도 않고 똑 조그만 조그마하게 그렇는데.}

10502 # 자외라꼬 고통기: 이씨예.{‘자외’라고 그런 게 있어요.}

@ 예.{예.}

10502 @ 도마도도 카:보셨습니까?{토마토도 키워 보셨습니까?}

10502 # 하이, 저네 해문는데 지금 안 합니다.{아, 전에 해 먹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10502 @ 그 저네 우째 했습니까?{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10502 # 저네 내나 머 머 모적 사다가 모종이 만날 낭:께 모종 사다 고마 바께 송구노모 마.{전에 내나 뭐 뭐 모종 사다가 모종이 만날 나니까 모종 사다 그냥 밖에 심어 놓으면 뭐.}

10502 # 지 땀:대로 머 올라가가지고 이이가꼬 따묵***{제 마음대로 뭐 올라가서 익어서(익으면) 따먹***}

10502 @ 그 대도 세아주고 이래야 텔꺼 아임니까?{그 대도 세워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0502 # 우리느 마 언덕 미테 송거노모 언덕글 올라가.{우리는 마 언덕 밑에 심어 놓으면 언덕으로 올라가.}

10502 @ 도마도가예.{토마토가요?}

10502 # 예, (웃음) 그으는 마 머 이그른 따뭇: 대:여 그마.{예, (웃음) 그것은 마 뭐 익으면 따먹으면 돼요 그냥.}

10502 # 아내: 언자 그것또, 하기 시러서 안 해.{안 해 이제 그것도, 하기 싫어서 안 해.}

@ 예.{예.}

10502 # 함: 안하능기: 만습니다, 인자느.{참 안 하는 것이 많습시다, 이제는.}

10502 @ 혹시 여:서 버섯가통거는 안 키야받습니까?{혹시 여기에서 버섯 같은 것은 안 키워 봤습니까?}

10502 # 버섯 여: 참나무버섯 저: 하는 사라브 마~이 합니다, 이 동네.{버섯 여기에 참나무버섯 저기 하는 사람은 많이 합니다, 이 동네.}

10502 @ 할무~이는 아내 보셨습니까?{할머니는 안 해 보셨습니까?}

10502 # 아이고:, 그 누가 그 사네 가서 참남: 베고아서 그거 할깎니까?{아이고, 그 누가 그 산에 가서 참나무 베어 와서 할 것입니까?}

10502 # 그으또 또 저게 그느리 이:야 데는데.{그것도 또 저기 그늘이 있어야 되는데.}

10502 # 이 베테는 안 데거덩예.{이 별에는 안 되거든요.}

10502 # 오테 응강진테, 근데 딱: 야글 여:가저고.{어디 그늘진 데, 그런 데 딱 약을 넣어
서.}

10502 # 그래 인: 지베도 마~이 하고 저:짜 사암도 마~이 해.{그래 이런 집에도 많이 하
고 저쪽 사람도 많이 해.}

10502 # 그으 벨 만또 엄떠마는 그이 모도 조타산테.{그것 별 맛도 없더마는 그게 모두 좋
다 썬테.}

1.5.2. 나물 채취와 요리

10504 @ 할머~이 이버네는예.{할머니, 이번에는요.}

10504 @ 그: 사네서 나는 나물 안 이습니까? 나물.{그 산에서 나는 나물 있잖습니까? 나
물.}

예.{예.}

@ 산나물. {산나물.}

예.{예.}

10504 @ 어~어, 이 동네: 사네서는 주로 어떤 나물드리 납니까?{어, 이 동네 산에서는 주
로 어떤 나물들이 납니까?}

10504 @ 산나물 나능거예.{산나물 나는 것요.}

10504 # 저:: 산나물 이 동네느여.{저 산나물 이 동네는요.}

10504 # 땅거 안나, 만날 치 그기라, 치.{만 것 안 나, 만날 취 그거야, 취.}

10504 @ 치가 멈니까?{취가 뭍니까?}

10504 # 참치라꼬 이써여, 참치라꼬.{참취라고 있어요, 참취라고.}

10504 @ 쪼끔 설명 해주이소, 우리 잘 모르거든요.{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는 잘 모르
거든요.}

10504 # 참치.{참취.}

@ 예.{예.}

10504 # 그 보통 보모 고마 아무데 업시 그:는 마 치나무라쿠거덩.{그 보통 보면 그냥 아
무데 없이 그것은 뭐 취나물이라고 하거든.}

10504 # 근데 언자 우리드른: 사네도 몽가고.{그런데 인제 우리들은 산에도 못 가고.}

10504 # 여: 절문 사람덜 두:서너시 인는 사람더리 가서 언자.{여기 젊은 사람들 두서너
명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인제.}

10504 # 차:: 손너머서 오지꺼정 가야꼬.{저 산 넘어서 어디까지 가서.}

10504 # 만날 돈:사로가고 그라제.{만날 돈 사러 가고(?) 그러지.}

10504 # 인자 세에서 데지도 아내.{인제 쇠어서 되지도 않아.}

10504 @그 언자.{그 인제.}

요주므.{요즘은.}

10504 @ 지금 제가 여쭙 보능거는 요즈음 하능기: 아니고 엔나레 해보썬덩 거:.{지금 제가
여쭙 보는 것은 요즘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해 보썬던 것.}

10504 # 엔나레여, 엔나레느: 절물짜:는 머 사늘 온:소방 타고 대~이찌:.{옛날에요, 옛날에

는 젊을 적에는 뭐 산을 온 사방 타고 다녔지.}

10504 @ 그거 말씀 좀 해주이소.{그것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0504 @ 사네서:, 그라먼:자 캐가지고 오테 너:야 텔꺼 아임니꺼?{산에서, 그러면 인제 캐어서 어디에 넣어야 될 것 아십니까?}

10504 # 압치매르 열 딱 차고 간다:임니꺼?{앞치마를 여기 딱 차고 가잖습니까?}

@ 그렇거 좀 말씀 좀 해: 달라능김니더.{그런 것 좀 말씀 좀 해 달라는 겁니다.}

하모.{그렇지.}

10504 # 아적 무꼬: 아직 일찍 목꼬 사네 갈라쿠메는.{아침 먹고 아침 일찍 먹고 산에 가려고 하려는.}

10504 # 마 꾸:물 꾸:꺼덩.{마 꿈을 꾸었거든.}

10504 # (웃음) 그래가 압치매 딱 챙기고.{(웃음) 그래서 앞치마 딱 챙기고.}

10504 # 칼 챙기고 이래가모 언자.{칼 챙기고 이렇게 가면 인제.}

10504 # 오디 머 깨끄단 형거때: 마 밤 요마:침 싸가지고 다 가:가서 목꼬.{어디 뭐 깨끗한 형짚에 뭐 밥 요만큼 싸서 다 가지고 가서 먹고.}

10504 # 그래가꼬 사네 가서 인자 실:큰 후채 대~이다가 나물 요:마침 뜨드모.{그렇게 해서 산에 가서 인제 실컷 훑고 다니다가 나물 요만큼 뜯으면.}

10504 # 인자 치이파리 이렇거 가져고 언자 던장 쪼깨이 가:가서.{인제 취 이파리 이런 것 가지고 인제 된장 조금 가지고 가서.}

10504 # 밥 밤: 너페 나:가져고.{밥, 밥 옆에 놓아서.}

10504 # 그라이 그넌 썸썸 몽능기라, 저: 인자 상꼬짜: 오테 물:라는데 가서.{그렇게 해서 그놈 썸 썸해서 먹는 거야, 저 인제 산골짜기에 어디 물 나는 데 가서.}

10504 # 지금도 해:가네 사람들 안점: 만날 그 에박 한다.{지금도 회관에 사람들 앉으면 만날 그 이야기 한다.}

10504 # 그때 그이 와그래 마시식꼬.{(웃음){그때 그게 왜 그렇게 맛있었을까.(웃음)}

10504 # 그때.{그때.}

@ 그룸 점수만 잡숙꼬 머 어데 나물도 안 캔능가베예, 나물 하나또 엄네 지끔예.{그럼 점심만 잡수시고 뭐 어데 나물도 안 캔는가 보네요, 나물 하나도 없네 지금요.}

10504 # (웃음) 다 묻따:임니꺼?{다 먹었잖습니까?}

10504 @ 사네 돌가지가통거느 업서습니꺼?{산에 도라지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10504 @ 더더기나 꼬사리 이렇거.{더덕이나 고사리 이런 것.}

10504 # 고사리는 우리도 언자 장녀네 크나:가 송구각:꼬.{고사리는 우리도 인제 작년에 큰아이가 심어서.}

10504 # 쪼끔 꺾꺼 나:는데.{조금 꺾어 놓았는데.}

10504 # 언자 그은도 계가 마나서 언자 내: 사네 몽간다꼬 우리 아드리 언자 노네다 쪼끔 송구날:스.{인제 그것도 피가 많아서 인제 내가 산에 못 간다고 우리 아들이 인제 논에다 조금 심어 봤어.}

10504 # 부리~이르 파가 와가:꼬.{뿌리를 파 와서.}

10504 # 그라 쪼끔 꺾꺼 나:쓰.{그래 조금 꺾어 놓았어.}

10504 # 그라고여: 여어 여: 강 일찌예?{그리고예 여기 여기에 강(경호강) 있지요?}

@ 예 예.{예 예.}

10504 @ 저: 읍내: 인능거예?{저기 읍내에 있는 것요?}

예.{예.}

10504 @ 쟁오가~임니까?{경호강입니까?}

10504 # 예, 그 내: 진주 남가~아로 안 지내감니까?{예, 그 내나 진주 남강으로 지나가잖습니까?}

@ 오 까 감니더.{?? 갑니다.}

10504 # 하모, 저: 거창 함양:서 내로아가저고, 응.{아무렴, 저기 거창 함양에서 내려와서, 응.}

10504 # 강 저쭈러는 고사리고 나무리고 여짜만 몬합니다.{강 저쪽으로는 고사리고 나물이고 이쪽만 못합니다.}

10504 # 이전보탕.{이전부터.}

10504 # 요러타, 요짜느 고사리고 산나무리고 이 행이 나는데.{이렇다, 이쪽에는 고사리고 산나물이고 이 향이 나는데.}

10504 # 저짜꺼는 행이 안 나데여.{저쪽 것은 향이 안 나데요.}

10504 @ 감: 저짜이면 **. {그럼 저쪽이면 **.}

강 저짜꺼느.{강 저쪽 것은.}

10504 @ 저짜끼며 그 그: 어느 동넌니까 그러면, 저기.{저쪽 것이면 그 그게 어느 동네입니까 그러면, 저기.}

10504 # 조짜에는 언자 지리산 쪼그로.{저쪽에는 인제 지리산 쪽으로.}

10504 @ 아, 지리산 쪼에끼 향이 안 논다 마립니까?{아, 지리산 쪽의 것이 향이 안 난다 말입니까?}

예.{예.}

10504 @ 그러습니까? 아.{그렇습니까? 아.}

강 강 강 저쭈게.{강 강 강 저쪽에.}

10504 # 여: 게~우강.{여기 경호강.}

@ 예.{예.}

저쭈게.{저쪽에.}

10504 @ 예.{예.}

저네 우리 클짜:도 내가 저어게 시난써 켜찌마는.{전에 우리 클 적에도 내가 저기 신안에서 켜지마는.}

10504 # 조짜:가서 나물 뜨더오마 만:날 나무레 노렁내가 나.{저쪽에 가서 나물 뜯어 오면 만날 나물에 노린내가 나.}

10504 # 저: 시난서 내 클짜:도 그 강을 건너야 가거덩, 큰 사느로 저짜그로.{저기 신안에서 내가 클 적에도 그 강을 건너야 가거든, 큰 산으로 저쪽으로.}

10504 # 지리산 쪼그로.{지리산 쪽으로.}

10504 # 그 가모 마 나물도 썰끼해도: 만:날 나무리 노롱내가 나데여.{그 가면 마 나물도 속히 해도 만날 나물이 노린내가 나데요.}

10504 # 근:테 그때마 해도 우리느 아:들 그스기서 그 내애미 나서.{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는 아이들 거숙이라서(민감한 후각이어서) 그 냄새가 나서.}

10504 # 내:미로 안 조아해서 잘 안 문는데.{냄새를 안 좋아해서 잘 안 먹었는데.}

10504 # 어른드른 그 나무리라꼬 잘 무궁썰.{어른들은 그 나물이라고 잘 먹었지.}

10504 @ 근데.{그런데.}

그는데.{그런데.}

@ 예.{예.}

10504 # 근:데 여: 시집 와아꼬 여: 나물로 딱 뜨더각꼬.{그런데 여기에 시집을 와서 여기 나물을 딱 뜯어서.}

10504 # 단: 한 냄비러도 뜨다가 와가 쌀뜨모.{단 한 냄비(?)라도 뜯어 와서 삶으면.}

10504 # 내미: 하나또 엄서.{냄새가 하나도 없어.}

10504 # 너무 마싹씨.{너무 맛있어.}

10504 @ 근데 우리가 생각하문네:.{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요.}

10504 @ 지리산 가튼데 그 지픈 산중에 인능기 더 마시슬가튼데.{지리산 같은데 그 깊은 산중에 있는 것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10504 @ 아이다 말 아임니꺼?{아니라는 말 아납니까?}

10504 # 그래도 마순 나물 마순 요짜마 문합니다.{그라도 맛은 나물 맛은 요쪽만 못 합니다.}

10504 # 고사리고 머시고.{고사리고 뭇이고.}

10504 # 우리 클 짜아도 그: 사티예.{우리 클 적에도 그래 썩테요.}

10504 # 우라 클 켜에도. {우리 클 적에도.}

@ 예.{예.}

10504 # 여 강 계~우강 저쭈우르느 나무리 노른내가 난다:.{여 강 경호강 저쪽으로는 나물이 노른내가 난다.}

10504 # 고사리도 행이 음:따:.{고사리도 향이 없다.}

10504 # 아래 시자~아 강계네로 그 난매저네 그 강께, 운지 사래미.{그저께 시장에 가니까 그 난전에 거기 가니까, 원지 사람이.}

10502 # 그 저어게 을미산 미테 거어서 고사리 꺼꼰따꼬.{그 저기 을미산 밑에 거기에서 고사리 꺾었다고.}

10504 # 각꼬 왈때.{가지고 왔대.}

10504 # 그래 그거 온째~이가.{그래 그것 옷 파는 사람이.}

10504 # "아이고 인 할매 고사리 이거 좀 사라 너무 마싹따:" 산네.{ "아이고 이, 할머니 고사리 이것 좀 사라, 너무 맛있다" 고 하네 .}

10504 # "나도 인씨" 상께네.{ "나도 있어" 하니까.}

10506 @ 지금까지 또 말씀해 주싱거는: 사네서 나능기고예: {지금까지 또 말씀해 주신 것은 산에서 나는 것이고요.}

예.{예.}

10506 @ 또 산 말고 언자 드레서도 나능기: 안 이십니까이?{또 산 말고 인제 들에서도 나는 것이 있잖습니까?}

10506 @ 드레서는 또 어떤 나물드리 낚습니꺼?{들에서는 또 어떤 나물들이 났습니까?}

10506 @ 나물 종닙니다, 드레서 나능거.{나물 종류입니다, 들에서 나는 것.}

10506 # 내나 우리 남새 저렁거빠끼 업찌예, 드레서 나능거느, 이런테:느.{내나 우리 남새 저런 것밖에 없지요, 들에서 나는 것은, 이런 데는.}

10506 @ 개래도 보른 쫘 쫘 더 인쓸킨테예, 예로들모 민들레 가통거는 암 썩내~이거통거느 이렇거느 안 잡살습니꺼?{그래도 보면 쫘 쫘 더 있을 건데요, 예를 들면 민들레 같은 것은 안 썩바귀 같은 것은 안 드셨습니까?}

10506 # 그녕거또 쎄엔찌, 여게.{그런 것도 많지, 여기에.}

10506 @ 그렇게 그렇게 하문 말씀해, 여:서 어떤 들라무리 난는지, 산나물 말고 이제.{그러니까 그런 것 한번 말씀해, 여기에서 어떤 들나물이 났는지, 산나물 말고 이제.}

10506 # 드레가모 썬나물 구녕거느 쎄엔찌여.{들에 가면 쓴나물 그런 것은 많지요.}

10506 @ 그렇게 어떤 종주가 또 인:지, 썬나물 말고도 또 머 여러가지 안 이겔습니까? 썩 또 이슬까:고:.{그러니까 어떤 종류가 또 있는지, 쓴나물 말고도 또 뭐 여러 가지 있잖겠습니까? 썩도 있을 것이고.}

10506 # 요새 사람드른 그렇게 안 캐몽께네로.{요새 사람들은 그런 것 안 캐 먹으니까.}

10506 @ 요즘 말고 엔나레예.{웃음}{요즘 말고 옛날예요.{웃음}}

10506 # 엔나레는 참 썩또 기하고.{옛날에는 참 썩도 귀하고.}

10506 # 썬나물도 참 기했는데.{쓴나물도 참 귀했는데.}

10506 @ 예. {예.}

지그른 인자 이 모다 배가 부룽께 그렇거도 잘 안 캐몽캥께 천:지라.{지금은 인제 이 모두 배가 부르니까 그런 것도 잘 안 캐서 먹고 하니까 천지야.}

10506 @ 예. {예.}

썬나무도.{쓴나물도.}

10506 # 머 가시개썬내~이도 일따:.{뭐 '가시개썬냉이'도 있다.}

10506 # 민들레썬내~이 그건또 민나, 제 민드레썬~내이 그얼또 조타한다꼬 또.{민들레썬냉이' 그것도 몇 개 저 '민들레썬냉이' 그것도 좋다고 한다고 또.}

10506 # 캐러 대~이사코: {캐러 다녀 쌓고.}

@ 예. {예.}

10506 @ 말씀하이소, 예.{말씀하십시오, 예.}

10506 # 또 그 머 먹 썬내~이 그 머시라? 그 버펄버퍼랑 그거.{웃음}{또 그 뭐 뭐 씹바귀 그 뭐니? 그 부풀부풀한 그것.}{웃음}

10506 @ 머 고들빼기라 캐:습니까?{뭐 고들빼기라고 했습니까?}

10506 # 어 고들빼~이도 익꼬:.{어 고들빼기도 있고.}

10506 # 고들빼~이 언자 주로 뿌리 그눔 캐가저고.{고들빼기 인제 주로 뿌리 그 놈 캐서.}

@ 예.{예.}

김치 다마 묵꼬:.{김치 담아 먹고.}

10506 @ 그래 그렇게 좀 말스믈 해주이소. {그래 그런 것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라지여.{그러지요.}

10506 # 내가 언자 그렇거느 안 항께:.{내가 이제 그런 것을 안 하니까.}

10506 @ 요게 머 나송개사~이 이렇거느 업서습니까?{여기에 뭐 나송개니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10506 # 나송개느 모르건:데여.{나송개는 모르겠는데요.}

10506 @ 냉이랑건 업서습니?{냉이라는 것은 없었습니까?}

10506 # 아 냉이?{아, 냉이?}

10506 @ 예. {예.}

냉이도 천지지.{냉이도 천지지.}

10506 @ 냉해, 요 나송개란 말 안 씹니까?{냉이, 여기 나송개란 말은 안 씹니까?}

10506 @ 냉이라캅니까? 국 끼러 묶는거.{냉이라고 합니까? 국 끓여 먹는 것.}

10506 # 글: 나승개라쿤니꺼?{그걸 나승개라고 합니까?}

10506 @ 저짜 저어서느 나승개라캐***.{저쪽 저기에서는 나승개라고 해***.}

10506 # 요오느 나사~이라쿤데, 나사이.{요기는 '나상이'라고 하는데, '나상이'.}

10506 @ 나사~이.{나상이.}

예.{예.}

@ 예.{예.}

10506 # 나시래~이라쿠기도 하고 나사이라쿠기도 하고.{나시랭이'라고 하기도 하고 '나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10506 # 보통 보모 고마 이 부인드리 안자놀모 아이 나시래~이 오데 가모 깝:찰떠라, 이리 쿠지.{보통 보면 그냥 이 부인들이 앉아서 놀면 '나시랭이' 어디 가면 꼭 찻더라, 이렇게 하지.}

10506 @ 고 나시래~이 그으 말씀 좀 해주이쇼.{그 '나시랭이' 그것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0506 # 나시래~이 그거 머슨 말로 해주근노요.{나시랭이' 그것 무슨 말을 해주겠나요.}

10506 # 캐가저고 내나 머 국 끼리 목꼬 머 초집 해목꼬 그러치 머, 뿌리~이.{캐어 가지고 내나 국 끓여 먹고 '초집'해 먹고 그렇지 뭐, 뿌리.}

10506 @ 할머~이는 그냥 초지비라카지마는.{할머니는 그냥 '초집'이라고 하지마는.}

10506 @ 저이:느 그 초집 우짖:지 모른다:임니까?{저희는 그 '초집'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 습니까?}

10506 @ 그렇게 쌀마가지고 머 양니를 치가:꼬 이령걸 쫘 말썸해 달라능김니더.{그러니까 삶아 가지고 양념을 쳐서 이런 것을 좀 말썸해 달라는 것입니다.}

10506 @ 누가 드러도 알구로 말입니더.{누가 들어도 알게끔 말입니다.}

10506 # 주로 여어느 마 국 끼리 무거.{주로 여기는 뭐 국 끓여 먹어.}

10506 # 그기 폐남갑떼.{그게 편한가 보데.}

@ 네.{네.}

10506 # 에 인자 머단 사라믄 언자 우짜알라 치믄.{인제 웬만한 사람은 인제 어떻게 하려고 하면.}

10506 # 보지란: 사라믄 언자 쌀마가지고 초로 삭:짱 여어서 인자 새콤달콤하~이.{부지런 한 사람은 인제 삶아서 초를 살짝 넣어서 새콤달콤하게.}

10506 # 고르 따 무쳐 몽: 사암도 익꼬.{그렇게 딱 무쳐 먹는 사람도 있고.}

10508 @ 어, 나물 켈라칸머 그지에 옛날 그트모 칼 카리나 머 나슨 안할꺼아임니꺼, 카이지이어?{나물 캐려고 하면 그죠, 옛날 같으면 칼 칼이나 뭐 낫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칼이지요?}

10508 # 카리지예.{칼이지요.}

10508 @ 거러모 캐가저고 또 여페 담:능 그릇또 이서야 텔꺼 아임니꺼?{그러면 캐어 가지고 또 옆에 담는 그릇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0508 # 주루 압치때로 가대~임니더, 요새느.{주로 앞치마를 가지고 다닙니다, 요새는.}

10508 @ 요새던 그라고 또.{요새든 그리고 또.}

하모.{아무렴.}

10508 # 이지네도 이지네느 소구리로 마~이 가대:는데.{이전에도 이전에는 소구리를 많이 가지고 다녔는데.}

소구리 그거르 대소고리 그거르 가덴~는데.{소구리 그것 대소구리 그것을 가지고 다녔는

데.}

10508 # 요주문 점:모 오마 이 압치매 이거 각꼬 나완니라.{요즘은 전부 그냥 이 앞치마 이것 가지고 나왔니라.}

10508 # 이지네는 다: 대소구리.{이전에는 다 대소구리.}

10508 # 구룡구 캐로 갈라쿠머 대수구리도 또 기헐따, 요 저네너.{그런 것 캐러 가려고 하면 대소구리도 귀했다, 요 전에는.}

10508 # 도넘는 사람: 그언또 사가도 모난다.{돈 없는 사람은 그것도 사지도 못한다.}

10508 # 대소구리 그건또.(웃음){대소구리 그것도.(웃음)}

10508 # 요새는 나이론소구리나 쎄엔꺼냐.{요새는 플라스틱 소구리나 많지.}

10509 @ 아까 저: 어 참치: 캔다고 할:때 머 후치댕길따 이 말씀하신티데예.{아까 저 참취 캔다고 할 때 뭐 훑고 다녔다고 말씀하셨는디요.}

10509 # 예.{예.}

후치댕기몐서 그게 머 혹시 머 배애미르 만날때든지?{훑고 다니면서 거기에 뭐 혹시 뱀을 만났다든지?}

10509 @ 또는.{또는.}

배:미 흔히 보고 놀래제, 사네가모.{뱀은 흔히 보고 놀라지, 산에 가면.}

10509 @ 그래 그런 재민능거또 또는 짐승을 만넌따든지 이렇거, 이 놀랭거 머 또 어짜모 머 우수웅거 이렇 기억뜰 안인썸끔니까?{그래 그렇게 재마있는 것 또 또는 짐승을 만났다는지 이런 것, 이 놀란 것 뭐 또 어찌면 뭐 우스운 것 이런 기억들 있지 았았겠습니까?}

0509 @ 생강나는대로 한번 말쓰매 주이소.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시 대~잉께 그렁건 업써.{여럿이 다니니까 그런 것은 없어.}

10509 # 여:는 또 야산아임니까? 큰산그란데 말이지 머.{여기는 또 야산 아닙니까? 큰 산 그란데 말이지 뭐.}

10509 # 우처가 참 나무 뜨더르 대~이먼.{어떻게 해서 참 나물 뜯으러 다니면.}

10509 # 배:미는 일찌, 배:미 인써도 머.{뱀은 있지, 뱀이 있어도 뭐.}

10509 # 아:띠야, 배:미 인따 마 이러쿠머 고마 그마이고.{아띠야, 뱀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만이고.}

10509 # 머 재미인능 거스근 여:는 음서.{뭐 재미있는 그속은 여기에는 없어.}

1.5.3. 밀반찬의 조리

10510 @ 지금 말씀해 주싱거 점:부다 재민:는데예.{지금 말씀해 주신 것 전부 다 재미있는 데요.}

10510 @ 그라믐 할무이 그라믐예.{그러면 할머니 그러면요.}

10510 @ 언자 나물하고 이렇거는 언자 제가 잘 드립습니다.{인제 나물하고 이런 것은 인제 제가 잘 들었습니다.}

10510 @ 언자 반찬해도 보른 미빠차거통거 안이썸니까? 밀반찬.{인제 반찬 해도 보면 밀반찬 같은 것 있잖습니까? 밀반찬.}

10510 @ 밀반찬네는 어떤 종류가 인꼬, 또 밀반찬을 우째 만드는지 요걸 제가 쫘 여쭙볼 테니까.{밀반찬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밀반찬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걸 제가 여쭙볼 테니까.}

10510 @ 생각나시는대로 쭉: 그냥 말씀 쭉 해주이소이:.{생각나시는 대로 드냥 죽 그냥 말씀 쭉 해 주십시오.}

10510 # 요새. {요즘.}

@ 이동네에서는 주로 해물은 그 주식하고 반찬네는 어떻게: 인습니까?{이 동네에서는 주로 해 먹는 그 주식하고 반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510 @ 주식카느거는 우리가 언자 밥거통거 이렇거를 말하고.{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제 밥 같은 것 이런 것을 말하고.}

10510 @ 언자 부식근 반찬중늬데.{인제 부식은 반찬 종류인데.}

10510 @ 먼저 주시게는 어떻게 인썸습니꺼? 엔나레, 요즘 생각하시지 마시고예.{먼저 주식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옛날에, 요즘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10510 @ 옛날:때 주시기 어떻게 주로 인썸습니꺼?{옛날 때 주식이 주로 어떤 것이 주로 있었습니까?}

10510 # 엔나레 주식 업서.{옛날에 주식 없어.}

10510 @ 그럼 머 잡수꼬 그 저 그 사싹습니꺼?{그럼 뭐 잡습고 사셨습니까?}

10510 # 강:가하기는 이동네거치 강:구한데 업썸요.{가난하기가 이 동네처럼 가난한 데가 없어요.}

10510 # 이동네거치.{이동네같이.}

10510 @ 강구하다능거는 살기가. {'간구'하다는 것은 살기가.}

참:: 어러반.{참 어려운.}

10510 # 어러반 세상이 이동네빼끼는 음서, 내 시집올때마 해도.{어려운 세상이 이 동네밖에는 없어, 내 시집올 때만 해도.}

10510 @ 에이구, 그때 첨:부 동네마다 다 어러웠습니더, 우리도 머 그때느 머 어데업시 다 어러웠습니더, 그때.{아이고, 그때 전부 동네마다 다 어러웠습니다, 우리도 뭐 그때는 뭐 어디없이 다 어러웠습시다, 그때.}

10510 # 그:래도 그래도 판데는 그러키 이동네매로 그러치 아나.{그래도 그래도 판 데는 그렇게 이 동네만큼 그렇지 앓아.}

10510 @ 그럼 이동네 우째**. {그런 이 동네(는) 어뻤(는데요)?}

이동네는여 머 쪼끼 그스하모 고마 비 쪼매마 안오모 고마 모로 몬송구는기라:.{이 동네는요 뭐 조금만 그스하면 그만 비 조금만 안 오면 그냥 벼를 못 심는 거야.}

10510 # 그렇게 무을끼: 업는기라:.{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야.}

10510 @ 그래서 강구하다고 **. {그래서 가난하다고 **.}

그능께 머 머 서수그똥거 조거통거 알구지 그렇거 해노며.{그러니까 뭐 수수 같은 것 조 같은것 알곳이 그런 것 해 놓으면.}

10510 # 아:드리 한때두때 목썰, 물라쿠나, 우리 아:드른.{아이들이 한끼두끼 먹지, 먹으려고 하니, 우리 아이들은.}

10510 # 참 그 조밥 그: 해노:면 두째아:는 고마 주로 고마 벤또 딱 내:노으면.(웃음){참 그 조밥 그것 해 놓으면 둘째 아이는 주로 도시락 딱 내어(싸서) 놓으면.}

10510 # 아네 딱 딜:노코 고마 간다.{안에 딱 들여 놓고 그냥 간다.}

10510 # 우리 세채노른 언자 가:가서, 저그 칭구하고도 칭구는 판데는 언자 물조은 사암드
른 언자.{우리 셋째놈은 인제 가져가서, 자기 친구하고도 친구는 인제 판 데는 인제 물
조은 사람들은 인제.}

10510 # 그룽기: 줌 기해거덩:, 그넌 만날 바까 묵끼도 하고.{그런 것이 줌 귀하거든, 그런
것 만날 바꿔 먹기도 하고.}

10510 # 우리 두채아:는 건:또 업서, 두채아:느.{우리 둘째아이는 그것도 없어, 둘째아이
는.}

10510 @ 그 우리는 그 저: 벤또 싸가지가모 우리는 맨:날 우리는 보리밥 싸간썬요.{그 우
리는 그 저 도시락 싸 가지고 가면 우리는 만날 보리밥 싸 가지고 갔어요.}

10510 # 하이고, 누는예?{아이고, 누구는요?}

10510 @ 보리밥뿐다 저**.{보리밥보다 저**.}

선생니른 켄짜: 어데 켄는데, 일본서 켄다 캐노코.{선생님은 클 적에 어디서 켄는데, 일
본에서 켄다고 해 놓고서.}

10510 @ 아니, 일보는 그 저 아버지하고 어무~이하고 하라버지와 할무~이가 그 게(썬
꼬).{아니, 일본은 그 저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거기서 계셨고.}

10510 @ 제가 그 이 나이 그때: 일 그 나이에 무슨 일본서 큼니꺼?{제가 그 이 나이 그때
일 그 나이에 무슨 일본에서 큼니까?}

10510 @ 요:서 나 요:서 켄꼬 그연또 기국태가:꼬 멘너니 지나서 **. {여기에서 나 여기에
서 켄고 그것도 귀국해서 몇 년이 지나서 (태어났습니다).}

어~어, 우때 어런더리 일본서 사락꾸나.{어, 웃대 어른들이 일본에서 살았구나.}

10510 @ 어런더리 사싹썬예.{어른들이 살썬지요.}

예. {예.}

@ 나고야에.{나고야에.}

10510 @ 그땐 참: 머 점:부 다.{그땐 참 뭐 전부 다.}

참:부 보리밥이지여?{전부 다 보리밥이지요?}

@ 보리바베다가 반찬 따 인쓰모 텐장.{보리밥에다가 반찬 딱 있으면 된장.}

10510 #. 예. {예.}

@ 그라모 그어 몬가져 가가저고{그러면 그것 못 가져가서.}

참, 딴:장{참, 된장.}

10510 # 딴:장도예, 꼬치 꼬치가 기해농:께네.{된장도요, 고추 고추가 귀해 놓으니까.}

10510 # 참: 꼬치까리 쪼깨~이 여:서 우찌참:.{참 고추가루 조금 넣어서 어떻게 참.}

10510 # 마~을 이파리나 녀한테 쪼깨~이 어더메는 고: 썬리여:서 고: 마~을내 이파리내:
미.{마늘 이파리나 남에게 조금 얻으며는 그것 썰어 넣어서 그것 마늘 냄새 이파리 냄새.}

10510 # 고그 언자 쪼꼼 나른 인자 고기: 쪼꼼 언자 마시 쪼꼼 익꼬.{그것 인제 조금 나면
인제 그것이 인제 맛이 조금 있고.}

10510 # 저네 우리:드른 살때는 마늘 그연또 송굴 요랑도 안헐쓰.{전에 우리들은 살 때는
마늘 그것도 심을 생각도 안 했어.}

10510 # 마 엄시모 엄는대로 고마 묵꼬 나가능기라.{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먹고 나가
는 거야.}

10510 @ 반찬는 그래도 어떤 종뉴 이서, 이름 생각나시는대로 말씀해 보이소, 반찬.{반찬
은 그래도 어떤 종류(가) 있었(는지), 이름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반찬.}

10510 # 주:로 텨장 간장 가꼬 무웁찌 머.{주로 텨장 간장 가지고 먹었지 뭐.}

10510 # 나는 그래도 또 텨장 간장 가:꼬 무웁찌, 나는 소곰 가:꼬는 안무웁십니다. {나는 그래도 또 텨장 간장 가지고 먹었지, 소곰 가지고는 안 먹었습니다.}

10510 # 내 시집와가꼬는.{내 시집와서는.}

10510 # 우 큰지베는 맨날 소곰해 묵꼬 우리 자근지베도 어른들 만날 소웁 그: 타각:꼬 묵꼬 행따.{우리 큰집에는 만날 소곰해 먹고, 우리 작은집에도 어른들 만날 소곰 그것 타서 먹고 했다.}

10510 @ 그래도 머 짐치도 인썸썸끼고 그게머 여러가지 안 인썸썸썸니꺼?{그래도 뭐 짐치도 있었을 것이고 그게 뭐 여러 가지 안 있었겠습니까?}

10510 # 짐치도여 내 시집웁께네로 여:게는 무시뿌리도 크다쿠능기: 머:꺼뜨꼬?{김치도 여기 내 시집오니까 여기는 무 뿌리도 크다고 하는것이 뭐 같을까?}

10510 # 요카마 쪼깨~이 크디여. {이것보다 조금 크데요.}

@ 예.{예.}

10510 @ 그기: 요새 치믄 참 조용김니다.{그것이 요즘으로 치면 참 좋은 것입니다.}

10510 @ 쿵기: ***** 조용기: 아임니다, 쿵기:.{큰 것이 ***** 좋은 것이 아닙니다, 큰 것이.}

10510 # 이렇거 가:꼬. {이런 것 가지고.}

@ 예.{예.}

10510 # 가로동:우에 요마:난데 항:군데 다마 노메는.{??? 위에 이만한 데에 한군데 담아 놓으며는.}

10510 # 식구는 열두부~이나 열서이나 데모.{식구는 열두 분이나 열셋이나 되면.}

10510 # 설: 안 다:서 벌써 업는기라.{설 안 당아서 벌써 업는 거야.}

10510 # 그라:지고 만:날 쌀:뜨물 이거 바다가지고.{그래 가지고 만날 쌀뜨물 이것 받아서.}

@ 예.{예.}

10510 # 소곰쪼깨~이 여:서 바부에 쪼가:꼬 밥안칠때 여:가저고.{소곰 조금 넣어서 밥 위에 쪼서 밥 안칠 때 넣어서.}

10510 # 고: 밤물 쪼깨~이 너머 드러가고 참 그래 묵꼬, 나는 그래는 안해묵:쓰.{거기 밤물 조금 넘어 들어가고 참 그렇게 해 먹고, 나는 그렇게는 안 해 먹었어.}

10510 # 코~을 파라무:도 나는 고마 자~을 다마가: 무웁:찌.{콩을 사 먹어도 나는 그냥 장을 담아서 먹었지.}

10510 # 이동네 사람들 거이 어른들 해가:몽는거 다 그래가: 무웁:쓰.{이 동네 사람들 거의 어른들 해서 먹는 것 다 그렇게 해서 먹었어.}

10510 # 쿵도 이저네는 기헐꼬.{쿵도 이전에는 귀했고.}

10510 # 그때마 해도 참 우리 영가미 나무장사를 해각:꼬.{그때만 해도 참 우리 영감이 나무장사를 해서.}

10510 # 나무장사르 해도 쿵 톱 파라가지고 나는 마.{나무장사를 해도 쿵 톱 사서 나는 뭐.}

10510 # 열티마 팔모 고마 묵꺼당.{열 되만 사면 그냥 먹거든.}

10510 @ 나무장사라 켜썸니꺼, 나물장사라 켜썸니꺼?{나무장사라고 하셨습니까, 나물장사라고 하셨습니까?}

나무 나무.{나무 나무.}

10510 @ 나무 사네서 ****. {나무 산에서 ****.}

예.{예.}

10510 @ 그라몬 장에 가서 파십니까?{그러면 장에 가서 파십니까?} ## 예, 하모.{예, 아무렴.}

10510 # 예:, 자~아 가서 팔기도 하고. {예, 장에 가서 팔기도 하고.}

아치그로도 팔고.{아침으로도 팔고.}

10510 # 여 인자 으비 게즈거 노옹께.{여 인제 읍이 가까우니까.}

10510 # 새보게 일:츄 나오가저고 언자 으베가서 팔기도 하고.{새벽에 일찍 나와서 읍에 가서 팔기도 하고.}

10510 # 몬 팔몬 언자 또 니: 아는지베 나:또따가 또 장날가서 팔기도 하고.{못 팔면 인제 또 누구 아는 집에 놓아두었다가 또 장날(예) 가서 팔기도 하고.}

10510 @ 그라모 할머~이 잠시만네.{그러면 할머니 잠시만요.}

10510 @ 할아버지 ** 그거 나무 그 우찌해가지고 또 우찌 파라 ** .{할아버지 ** 그거 나무 그 어떻게 해서 또 어떻게 팔아 **.}

나무요?{나무요?}

@ 고거 한번 쯤 말쓰믈 해 주이소.{그것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예.}

10510 ## 나물요? 여: 인자 바블 {나무요? 여기 인제 밥을.}

10510 ## 그저네는 우리 제그블 나온따 말이야, 제그블.{그 전에는 우리 분가를 했던 말이야, 분가를.}

10510 ## 제그블 나알때 본택 본 본식꾸도.{분가나올 때 본택 본 본식구도.}

10510 # 내 시 가마~이 이썸바, 내 시지온 지비 여: 저 가운데 저 홀:령하~이 비:가: 인찌 예?{내 시 가만히 있어 봐, 내 시집온 집이 여기 저 가운데 홀러덩 비어 있지요?}

10510 @ 예.{예.}

고계: 사칸으로 지블 지각꼬.{거기에 네 칸으로 집을 지어서.}

10510 # *** 이저네 우리 할무~이 하:라부지가 부재로 살****.{*** 이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자로 살****.}

10510 # 근디 우리 어무~이 아분니미 어찌 잘 몬해 가져고 마 큰메느리 바가저고 고마 다 틀빈썸.{그런데 우리 어머니 어머님이 어떻게 잘 못해 가지고 큰며느리를 보고 그만 다 잘 못되어 버렸어.}

10510 # 그렇게네 마 행지간도 만체? 우리 어무이 또 이런 메느리 또 아들만 수두룩 나노코 항게 우리 할:무아가 이래가 인썸는 감떠마는:, 마 부재로 상께네로, 마 그 살림도 엄서지고. {그러니까 마 형제간도 많지? 우리 어머니 또 이런 며느리 또 아들만 많이 낳고 하니까 우리 할머니 이래 가지고 있었는가 보더마는, 마 부자로 사니까, 마 그 살림도 없어지고.}

10510 # 여: 큰지비 쫄땅 망해가저고 시방 여:썸 일따.{여기 큰집이 왕창 망해서 시방 여기에 썸 있다.}

10510 ## 저네는 그렇게 쫄깁:짜:부텅.{전에는 그러니깐 조그만했을 적부터}

10510 @ 예. {예.}

하능기 노동니리고, 노동 노 노.{하는 것이 노동 일이고, 노동 노, 노.}

10510 ## 농사도 지각:꼬 만날 그 그얼만 갈라묵꼬 인따가.{농사도 지어서 만날 그것만 나
 뉘먹고 있다가.}

10510 ## 나이 한 한 이십세 탕:께네.{나이 한 이십세 되니까.}

10510 ## 일본 모지블, 모집도 아이고 세시 너이서 이양꺼늘 내:가 그저네 이저네 여행꺼
 늘 그: 이썩꺼마느여.{일본 모집을,모집도 아니고 셋이 네 명이서 여행권을 내어 그 전에 이
 전에 여행권을 거기에 있었건마는요.}

10510 ## 이양꺼~이 이선는데 그걸가저고 언자.{여행권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인제.}

10510 ## 여 일보:늘 간따 왓따 한:데.{여기 일본을 갔다 왔다 했는데.}

10510 ## 마른 설치요, 아즈그로 일보느 아 양가쓰면.{말은 설치요, 아침으로 일본을 아
 안 갔으면.}

10510 ## 아즈그로 인:나서 새보그로 인난는다.{아침으로 일어나서 새벽으로 일어났다.}

10510 ## 새벽게 인나 저어게 시방 지리 또 손바닥만하데.{새벽에 일어나 저기 시방 길이
 꼭 손바닥만하데.}

10510 ## 두리 몬피한다 마리아, 두리.{둘이 못 피한다 말이야, 둘이.}

10510 ## 그런데 서로 아등꼬 피한데 그런 질: 인따가.{그런데 서로 안고 피한 데 그런 길
 에 있다가.}

10510 ## 여게 아서 아즈게 나우 나무르 해가: 또 공가라 오믄.{여기 와서 아침에 나무 나
 무를 해서 받치리(?) 오면.}

10510 ## 나무 사로 오는 사람드리 올때도 인꼬 안올때도 인꼬, 팔때도 익꼬 몬팔때도 익
 꼬.{나무사러 오는 사람들이 올 때도 있고 안올 때도 있고 팔 때도 있고 못 팔 때도 있고.}

10510 ## 그러면 언자 몬팔믄 오데 아는 지베 가서 세:아난따가 또 그 이튼날 가서 또 팔
 고:.{그러면 이제 못 팔면 어디 아는 집에 가서 세워 두었다가 또 그 이튼날 가서 또 팔고.}

10510 ## 만:날 언자 그때느 그 돔빠리도 엄꼬.{만날 이제 그때는 그 돈벌이도 없고.}

10510 ## 저머: 초네 산다카는, 묵꼬 인는 그거뿌~이라예, 묵꼬 인는거 아~무꺼또 영꼬.
 {젊어 촌에 산다고 하는, 먹고 있는 그것뿐이에요, 먹고 있는 것 아무 것도 없고.}

10510 ## 그래서 언자 일본 드가가저고 조선나오게 탕:거.{그래서 인제 일본 들어가서 조
 선에 나오게 된 것.}

10510 ## 한 사년 데엔데.{한 사년 되었는데.}

10510 ## 우리 행님 중씨가 펠레라:.{우리 형님 중씨가 ??야.}

10510 ## 내가 돈 번 도늘가타 홀티리 다 썩빠리고.{내가 돈 번 돈을 몽땅 다 썩 버리고.}

10510 ## 또 도니 인씨야 나오지 내가.{또 돈이 있어야 나오지 내가.}

10510 ## 그래가저고 자개드러 나가고.{그래서 장가들어 나가고.}

10510 ## 머 술, 쪼끄매::난 술 저 저 까만술 저 알구지 반들반드랑 그 머.{뭐 술, 조그만
 한 술 저 저 까만술 저 알곳이 반들반들한 그 뭐.}

10510 ## 제금난 소치라고 아버지가 사왓쓰. 사완데.{??난 술이라고 아버지가 사 왔어, 사
 왔는데.}

10510 ## *****.{*****} # 아버지가 사중기: 머고, 자기 금세 목게 그거 금시게 그거 파
 라가 사왓찌.{아버지가 사준 것이 뭐니, 자기 금시게 목에 그것 금시게 그것 팔아서 사 왔
 지.}

10510 # 아버지가 사주더라네.{아버지가 사주더라네.}

10510 ## 그래 언자.{그래 인제.}

10510 # 와저리 거진말 하꼬?{왜 저리 거짓말 할까?}

10510 ## 거진말 아이다.(웃음){거짓말 아니다.(웃음)}

10510 ## 만:날 언자 그런진 하다가.{만날 인제 그런 짓 하다가.}

10510 ## 아 그러거로 저러거로 아:르 아:르 놀: 노키 시자하니께네.{아 그럭저럭 아이를 아이를 낳 낳기 시작하니까.}

10510 ## 영:머 머달 짜:는 상:고저도 미약또 몬살 행페니 데가* 미역또.{영 뭐 웬만할 적 에는 산고를 해도(?) 미역도 못 살 형편이 되어서. 미역도.}

10510 ## 그걸또 머 시방거트면 대가 쿵 그렇거 인는데, 그게 대가 쿵게 조용기: 시방커마 더 조안지요,대가기.{그것도 뭐 시방 같으면 대가 큰 그런 것 있는데, 그것이 대가 큰 것이 좋은 것이 지금보다 더 좋았지요. 대각이(?).}

10510 ## 그걸또 몬사무우서 이자 잔:자낭결: 언자 그: 사다가.{그것도 못 사 먹어서 인제 자잘한 것을 인제 그것 사다가.}

10510 ## 대로 일바시도 몬하고 고마.{대를 세우지도 못하고 그냥.}

10510 ## 그래언자 세살터울 노:니까네(?).{그래 인제 세살 터울로 낳으니(?).}

10510 ## 아:가 제:우 언자 생기뜰만하른 또 아:가 생기가꼬 노코.{아이가 겨우 인제 생기 들 만하면 또 아이가 생겨서 낳고.}

10510 ## 그린 그 지경이 데니까네.{그렇게 그 지경이 되니까.}

10510 ## 참 고달판찌여.{참 고달팠지요.}

10510 @ 나무는 주로 어떤 나무로 헐씀니꺼?{나무는 주로 어떤 나무를 했습니까?}

10510 ## 칼:비여.{술가리요.}

10510 @ 갈비.{술가리.}

사 사네서.{사 산에서.}

10510 ## 술립.{술잎.}

@ 예.{예.}

10510 ## 이파리 나겅 떠리징거:.{이파리 낙엽 떨어진 것.}

10510 ## 그을: 다 까꾸리로 거머가꼬.{그것을 다 갈퀴로 꺾어서.}

10510 ## 새끼르 여어서 지플가꼬 뽕찌블 가: 새끼 까가저고.{새끼를 넣어서 짚을 가지고 뽕짚으로 새끼를 꼬아서.}

10510 ## 세메르 따 까가고 저: 딴사네 저:가서.{??를 딱 *** 저기 뒷산에 저기 가서.}

10510 ## 아츠그로 일:칙 가지요, 일치가모 저잉때 해그르파~아 데머 해:꼬거등요.{아침으 로 일찍 가지요, 일찍 가면 저녁때 해그름판 되면 해서 오거든요(?).}

10510 ## 그래서 인자 배가 고파서 머 그때 눈도 마이 오싱께네 눈도 거머무:사코.{그래서 인제 배가 고파서 뭐 그때 눈도 많이 왔으니까 눈도 거머 먹고.}

10510 ## 배가 **마로 오다가.{배가 **** 오다가.}

10510 ## 그런지슬 참 마이 해꼬마야.{그런 짓을 참 낳이 했건만요.}

10510 ## 아츠그로 그저 인때대서 오몬 또 나무를 파다보니까네 지배 뽕라무가 엽따마리 야.{아침으로 ** 이때되어서 오면 또 나무를 팔다 보니까 집에 뽕 나무가 없단 말이야.}

10510 ## 그래서 언자 또 요때와가꼬 거 판다크는 나무로 잘: 공가날:따가.{그래서 인제 또 이맘때 와서 판다고 한 나무를 잘 받쳐 놓았다가.}

10510 ## 아 정:또로 언자 뽕라무 그걸 좀 해주고.{아 저물도록(?) 인제 뽕나무 그것을 좀 해 주고.}

10510 ## 그래 좀 자고 새부게 허부:하모 머 안 지고 감니꺼?{그래 좀 자고 새벽에 희뵤하면 지고 가잖겠습니까?}

10510 ## 지고가모 출제, 머달 짜:네는 그어 참.{지고 가면 출지, 웬만할 적에는 그것 참.}

10510 ## 말:소리도 발발발 떠러지고.{말소리도 발발발 떨어지고.}

10510 ## 그래 몬파고 올때도 익꼬 파 팔고 올때도 익꺼등.{그래 못 팔고 올 때도 있고 팔 팔고 올 때도 있거든.}

10510 ## 그리 마:~이 헐씀니다.{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10510 ## 그러고 또 그기: 업싱께네 장자글:요.{그리고 또 그것이 없으니까 장작을요.}

10510 ## 너부가고와서 장자글 술로 베가저고 장자글 패가저고.{** 가고 와서(?) 장작을 술을 베서 장작을 패서.}

10510 ## 그걸 갈따가 연뵤을 헐꺼등요.{그걸로다가 연뵤을 헐거든요.}

10510 ## 그걸: 인자 파라가고 양식도 파라목꼬: 이영뽤또 씨:고{그것을 인제 팔아서 양식도 사먹고 용돈도 쓰고.}

10510 ## 그런줄: 참 마~이 헐씀니다, 으~이?{그런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응?}

10510 ## 저르파: 고상도 언자 마이 헐쥬요.{젊을 때 고생도 인제 많이 했지요.}

10510 ## 아무건또 하능거 업시 고상을 참 마이헐꾸마이.{아무 것도 하는 것 없이 고생을 참 많이 했건마는.}

10510 @ 딘사네서 그 갈비가 마이 나왓씀니까?{뒷산에서 술가리가 많이 나왔습니까?}

10510 ## 마이 나오지여, 나나 나하나뽤 아이라 그 저네는.{많이 나오지요, 나 나 나 하나뽤 아니라 그 전에는.}

10510 ## 이: 한 오십호가 사락꺼등예.{여기에 한 오십 호가 살았거든요.}

10510 ## 오십호 사란:데 그사람들 얼쭤다 나무자~아 거무다 파랗따 마리라.{오십 호 살았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 다 나무장에 검어서(?) 팔았다 말이야.}

10510 ## 장자 언자 장자뽤 언자 사늘 베:다가.{장작 인제 장작도 인제 산을(산에서) 베다가.}

10510 ## 시방거트면 머 기계토비라도 인찌만 쪼개난 톱 그: 톱또 잘 안드지요, 문디 거룽거 가:꼬.{시방 같으면 기계톱이라도 있지만 조그만 톱 그것 톱도 잘 안 들지요, 안 좋은 것을 가지고.}

10510 ## 사네 비하고 가서 떠갈라쿠면 그:시 시미 억쭤로 들고:.{산에 *하고 가서 떠가려면 그것이 힘이 많이 들고.}

10510 ## 참 고상을 마이 헐씀니다, 절믈짜예.{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젊을 적에.}

10510 @ 그러모 갈비도 하시고 장작또.{그러면 갈비도 하시고 장작도.}

네.{네.}

@ 그래할 나무가 디에 그뵤 딘싸네 인쥬씀니꺼?{그렇게 할 나무가 뒤에 그뵤 뒷산에 있었습니까?}

10510 ## 딘싸네요? 깨: 멀리 가야 뽤니다. {뒷산에요? 꽤 멀리 가야 뽤니다.}

10510 ## 가지근 데는 다하, 해목꼬.{가까운데는 다 하, 해 먹고.}

10510 ## 멀리가서 헐쓰예.{멀리 가서 했어요.}

10510 # 저네는 **데 아:들 사네 소로 미:모 소 가능기가 하:니 뵤:니다.{전에는 ** 데 아이들 소를 먹이면 소 가는 것이 환히 보입니다.}

10510 # 사네 나들 * 썩 다 해목꼬.{산에 ** * 다 해 먹고.}

10510 ## 한부는 언자 아츠게 인:나잔 자~아 갓따: 나무 팔고.{한 번은 인제 아침에 일어나자 장에 가져가 나무 팔고.}

10510 ## 저: **** 새부리라 큰테가 인씨예.{저기 **** 새부리라고 한 테가 있어요.}

10510 ## 새부리 근데가서 인테 지게를 버서노코 깔비를 한 대에뻔 깔따가.{새부리 그런 곳에 가서 지게를 벗어 놓고 술가리를 한 대여섯 번 겹다가.}

10510 ## 고: 문다메 저 차항가는 질에 질초예.{그것 문 다음에(?) 저 차항 가는 길에 길 초입(?)에.}

10510 ## 녀때:간 바우가 어자 저 사느로 가든 차항가는 질러가는텐데.{넓적한 바위가 인제 저 산으로 가면 차항 가는 질러가는 길데.}

10510 ## 녀때:간 바우가 하나 인는데.{넓적한 바위가 하나 있는데.}

10510 ## 개:가 처라보니까네 새카만 개가 함바리 쪼굴수리 딱:: 안자인능기라.{그래서 처다보니까 새카만 개가 한 마리 쪼그리고 딱 앉아 있는 거야.}

10510 ## 이 개가 상건까 주궁건까 시퍼서 가보이께 호래~이가 애모글 각: 무리서.{이 개가 산 것인가 죽은 것인가 싶어 가보니까 호랑이가 ??을 확 물어서.}

10510 ## 딱 쥐기날:때.{딱 죽여 놓았는데.}

10510 ## 머를 지 무러가꼬예?{뭘 죽 물어서요?}

10510 ## 호래~이 호래~이 범.{호랑이 호랑이 범.}

@ 버미가?{범이?}

10510 # 호래~이가.{호랑이가.}

@ 예.{예.}

개르 무러다가 도레다 딱 난 나또:씨.{개를 물어다가 돌에다 딱 놓아 두었어.}

10510 @ 개는 **.{개는 **.}

하날 쓰 상한테가 영꼬.{하나도 쓰 상한 데가 없고.}

10510 ## 모가지마 머 애무게 구메~이 빠꾸마~이 나왈때.{모가지만 뭐 **에 구멍이 빠끔하게 나왔데.}

10510 ## 그래가: 그녀를 언자 그때는 또 팔라무도 팔라무도 아나고.{그래서 그놈을 인제 그대는 또 팔나무도 팔나무도 안 하고.}

10510 ## 땔라무를 해가꼬 언자 지고오는 파네 그기: 인떼예.{땔나무를 해서 지고 오는 판에 그것이 있데요.}

10510 ## 예:, 비러무를 주워 갈빠끼라꼬.{예, 빌어먹을 주워 갈 수밖예(?)라고.}

10510 ## 깔비르 깔비를 거머가:꼬:.{술가리를 술가리비를 겹어서.}

10510 ## 질머 질머가서 그 개루 갓따가 나무침 쪼게다가 질 여:가져고 질머지고 와서.{깊어 깊어가서(?) 그 개를 갖다가 나무짐 속에다가 지 넣어서 깊어지고 와서.}

10510 ## 지게질 거비나서 ** ***** 아무일 업따 사서.{지게질 겁이 나서 ** ***** 아무일 없다 쌓아서.}

10510 ## 그래도 언자 어른드리 그리 갈라잡수꼬 그런진꺼정 하고 그랜썸니다.{그래도 인제 어른들이 그렇게 나눠 잡습고 그런 짓까지 하고 그랜썸니다.}

10510 @ 예, 그럼 그때 그 사네예, 호랭이가 인썰판 말썸입니까?{예, 그럼 그때 그 산에 호랭이가 있었던 말썸입니까?}

10510 ## 예.{예.}

아고 인썰찌.{아이고 있었지.}

10510 @ 직접 호랑이를 보셨습니까?{직접 호랑이를 보셨습니까?}

10510 ## 보지는 안했쓰.{보지는 안했어.}

10510 ## 우리 우리 하라버지가 "야야이:, 여: 쪼겐: 호래이가 함마리 인니라, 어북 마이 켄따, 요새:."{우리 우리 할아버지가 "애야, 여기 조그만 호랑이가 한 마리 있니라, 제법 많이 컸다, 요새."}

10510 ## 그런 마른 드러받쓰예.{그런 말은 들어 봤어요.}

10510 # 함부는 여름인데 비가 와가지고, 마당이 그때 글 저녁는 세메니 엄설꺼등예.{한번은 여름인데 비가 와서, 마당이 그때 그 전에는 시멘트가 없었거든요.}

10510 # 해방데고 난 디엔께네.{해방되고 난 뒤에니까.}

10510 # 비가 부스리 부스레이 완는데 자까 나옴께, 머 너리 발짝쭈기 마다~아 여게 흙뽕 흙뽕 *****.{비가 부슬부슬 왔는데 잠깐 나오니까, 뭐 노루 발자국이 마당에 여기에 움푹 움푹 움푹 *****.}

10510 # 똑 산돼지 거룻기: 또 바리 또 이랑기: 인닝기:라.{꼭 산돼지 같은 것이 또 발이 이런 것이 있는 거야.}

10510 # 그라고 저저 그 얻 저네 살빠~아 요리 일썬는데.{그리고 저 저 그 어 전에 사랑방이(?) 이렇게 있었는데.}

10510 # 삼짜기 고: 올라와가지고 ***** 언자 내 완따쿠는 포시로 내:빙:기라.{사립문이 거기 올라와서 ***** 내 왔다고 하는 표시를 내 보인 거야.} @ 그기:?(그것이?)

10510 #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는 그 언자 노리로 이리 함마리 자바다가 목꼬.{그래서 그날 저녁은 그 인제 노루를 이렇게 한 마리 잡아다가 먹고.}

10510 # 한다리 두다링가 남은걸: 그때 저네 저건네 또 절문사람도 하나 일썬서.{한 다리 두 다리가 남은 것을 그때 전에 저건네에 또 젊은 사람도 하나가 있었어.}

10510 # 그 사래미 저 압사네 나무하러 강께네 일떠라꼬 그 주우다 무우꺼덩.{그 사람이 저 앞산에 나무하러 가니까 있더라고 그 주워다 먹었거든.}

10510 # 개로 참 노리로 무:운데.{개를 참 노루를 먹었는데.}

10510 # 그날 저녁어: 마 흐클 마 썰리 마 물러케다 지버편지는데.{그날 저녁에 마 흙을 마 마구 마 **에다 집어던지는데.}

10510 # 호~이 날떠랍니다.{혼이 났더랍니다.}

10510 # 어떠게 무섭던지, 그래도 참 여:는 갠:차날썰예.{어떻게나 무섭던지, 그래도 참 여기는 켜썰았어요.}

10510 @ 그기: 운제때 운제때 예김니까?{그것이 언제 언제 때 얘기입니까?}

10510 # 우리 애정 해방데고 나서예.{우리 애정 해방되고 나서요.}

10510 # 그때 그때 내가 아: 두개.{그때 그때 내가 아이 두 명.}

10510 # 아: 두개 나:서깁게, 서른도 안땡썰.{아이 둘을 낳았을 것이니까, 서른도 안 났지.} @ 예.{예.}

10510 # 딱 지배 완따가농게 포시로 딱 내:주테.{딱 집에 왔다가니까 표시를 딱 내어 주테.}

10510 # 비가 와각:꼬 이 가다리농:께네로, 마다~아 무리 일썬농께네 요기: 표가 낭기야. {비가 와서 이 고여 있어 놓으니까, 마당에 물이 있어 놓으니까 이것이 표가 난 거야.}

10518 @ 그람 저 짐자~을 운제부터 할 김니까?{그럼 저 김장을 언제부터 할 겁니까?}

10518 # 짐장을레?{김장을요?}

10518 # 어제 아래 게리서 저 마루에다 저 더퍼난:는데.{어제 그저께 가려서 저 마루에다 저 덮어 놓았는데.}

10518 # 오~을 언자 오후에 저리 각:꼬.{오늘 인제 오후에 절여서.}

10518 # 내애 아쳐메 일:척 썩꺼가:꼬.{내일 아침에 일찍 씻어서.}

10518 # 내앨 토요일 데모 아:들 용께 언자 해:열:깁니다.{내일 토요일 되면 애들 오니까 인제 해 넣을 겁니다.}

10518 @ 그라먼자: 짐장을 할라카모 배차부터 캐아야 텔꺼 아임니까?{그러면 인제 짐장을 하려면 배추부터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10518 # 배차여?{배추요?}

10518 # 요주먼자: 모중이 나옴께.{요즘은 인제 모중이 나오니까.}

10518 # 모중을 사다 이래 언자 앵기기도 하고.{모중을 사서 이렇게 인제 읊기기도 하고.}

10518 # 또: 마 머단 사라문 마: 종자: 씨: 그걸 사다가 언자 흐치가:꼬 해 묵기도 하고.{또 마 뒗한(웬만한) 사람은 마 종자씨 그걸 사다가 인제 뿌려서 해 먹기도 하고.}

10518 @ 그러면.{그러면.}

10518 # 오래 짐장도 모두 다 파이라.{올해 짐장도 모두 다 좋지 않아.}

10518 @ 옼나레는 점:무 다 언자 종자를 사가:꼬 안 뿌리습니(까), 씨아슬 뿌리슬꺼 아임 니까?{옛날에는 전부 다 인제 종자를 사서 뿌렸잖습니까, 씨앗을 뿌렸을 것 아닙니까?}

10518 # 우리 클 때는: 점:부 다: 바다가 해습니다.{우리 클 때는 전부 다 (씨앗을) 받아서 했습니다.}

10518 # 보르로 일척 무신 어 저 세아네.{봄으로 일찍 무슨 어 저 겨울에.}

10518 # 어 보르로 일척 무근 무시씨로 노논따가 하메는, 무근 배추시로 하메는.{어 봄으로 일찍 묵은 무시로 놓아 두었다가 하메는, 묵은 배추씨로 하메는.}

10518 # 초여름데모 꼬치 피거등예.{초여름 되면 꽃이 피거든요.}

10518 # 고고 언자 이카가꼬.{그것 인제 익혀 가지고.}

10518 # 종자 바다날:따가 언자 그가 승구고.{종자 받아 놓았다가 인제 그것 가지고(그것으로) 심고.}

10518 @ 그라문 그: 씨아시 어느 그: 세안 그 한해 아페꼐 판다 말입니까, 아니메는 보메 바다 나양거를 쓴다 마립니까?{그러면 그 씨앗이 어느 그 겨울 그 한해 앞에 걸 판다 말입니까, 아니면 봄에 받아 놓은 것을 쓴다 말입니까?}

10518 # 그 인자 보메 데는 보메 종자가 데는 거시.{그 인제 봄에 되는 봄에 종자가 되는 것이.}

10518 # 계우레 예 언자 무시 야구지 해서 묵꼬.{겨울에 예 인제 무 알곳이 해서 먹고.}

10518 # 그 무시 뿌리~이 요령거 안 나뎡니까?{그 무 뿌리 이런 것 놓아두잖습니까?}

10518 # 고거 언자 가따 무더노오모 고오 언자 장:니 무시란 마리지.{그것 인제 갖다 무더 놓으면 그것 인제 작년 무란 말이지.}

10518 # 고오 보메 언자 드레 가따 승구 노오메느.{그것 봄에 인제 들에다 심어 놓으면.}

10518 # 고: 언자 찡다리가 데능기라.{그것이 인제 장다리가 되는 거야.}

10518 # 커서 꼬치 피고.{커서 꽃이 피고.}

10518 # 그래가 그:서 언자 요런 종자가 드러가:꼬 언자 고 이카가지고 언자 이래 흐쳐묵 꼬.{그래서 거기에서 인제 이런 종자가 들어서 인제 그 익혀 가지고 인제 이렇게 뿌려 먹

고.}

10518 @ 그런데 배추 씨아시 무시에서 노옵니까?{그런데 배추 씨앗이 무에서 나오니까?}

10518 # 배추씨는 배추가 데고 무시씨는 무시씨 무시가 데고 그러치.{배추씨는 배추가 되고 무씨는 무씨 무가 되고 그렇지.}

@ 그라모 배차부터 함문 말씀해 주이소.{그러면 배추부터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10518 @ 배추 씨아슬 우째 받는지 그거부터 함번 말씀해 주이소.{배추 씨앗을 어떻게 받는지 그것부터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10518 # 배추씨디여?{배추씨도요?}

10518 # 배추씨도 세아네 이 김장하고 나모 마 나뚜지.{배추씨도 겨울에 이 김장하고 나면 마 놓아 두지.}

10518 # 알구재~이 찌꺼래~이 문뭉능거.{알קות은 것 찌꺼기 못 먹는 것.}

10518 # 그기: 인자: 봄데모 사라가꼬 해동하모.{그것이 인제 봄 되면 살아 가지고 해동하면.}

10518 # 크리 추부도.{그렇게 추워도.}

10518 # 그렇게네 언자 머던 사라문 언자 그 종자로 더퍼노치, 말:가꼬 마 지피나 마 쫘 더퍼노모.{그러니까 인제 뒸한 사람은 인제 그 종자를 덮어 놓지, 뭇 가지고 마 쫘이나 마 쫘 덮어 놓으면.}

10518 # 고기 인자 보메 일척 올라와가지고 언자 종자가 데능기라.{그것이 인제 봄에 일척 올라와 가지고 인제 종자가 되는 거야.}

10518 # 보통 그래 해서 무우서예.{보통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10518 # 무시도 구루코.{무도 그렇고.}

10518 # 무시도 파가와서.{무도 파가지고 와서.}

10518 # 이때 대:서 파가꼬아서 무지구디기 무더날:따가.{이때 돼서 파가지고 와서 무 구덩이(에) 묻어 놓았다가.}

10518 # 몬:땡거 고령거 나또따가 언자.{못 된 것 그런 것 놔 두었다가 인제.}

10518 # 개안습니더.{괜찮습니다.}

10518 # 몬:땡거 그렇거 나또따가 언자 드레가따 송구노오메느 그게 봄데모 잘:: 크거등 예.{못 된 것 그런 것 놔 두었다가 인제 들에다 심어 놓으며는 그게 봄 되면 잘 크거든요.}

10518 # 그라~이 그 언자 무시 배추씨가 언자 또로 또로 언자 다 그리 크능기라.{그러니 그 인제 무 배추씨가 인제 따로 따로 인제 다 그렇게 크는 거야.}

10518 # 고: 바다가: 여개 이래 흐터목꼬 그래서예.{그것 받아서 여기에 이렇게 뿌려 먹고 그랬어요.}

10518 @ 그라면 씨 바들때가 한 메덜달쫘 텡니까?{그러면 씨 받을 때가 한 몇 월 달쫘 됩니까?}

10518 # 씨 바드 때가 모싱기 해 노코 나모.{씨 받을 때가 모내기해 놓고 나면.}

10518 # 보메 이 올라옹께네 모싱기 해나코 나모 익찌.{봄에 이 올라오니까 모내기해 놓고 나면 익지.}

10518 # 그라~이 모싱기 해나코 나모 언저 고: 언자 이그모 언자 여: 바다날:따가.{그러니 모내기해 놓고 나면 인제 그 인제 익으면 인제 여기에 받아 놓았다가.}

10518 # 치러따레 무시배추 간다아임니까, 치러따레.{칠월달에 무 배추 갈쫘겠습니까, 칠월

달에.}

10518 # 치털 그몽끼 데메는 보통 무시로 무시배추로 갈거등예.{칠월 그믐께 되며는 무를 무 배추를 갈거든요.}

10518 # 그 종재 바다날:따가.{그 종자 받아 놓았다가.}

10518 # 처:: 언자 지추: 진주: 대평 거튼데는.{저 인제 진주 진주 대평 같은 데는.}

10518 # 진주 한들거튼데는 그 종자르 언자 우리 농사지디끼 이래 하능갑떼예.{진주 한들 같은 데는 그 종자를 인제 우리 농사짓듯이 이래 하는가 보데요.}

10518 # 농사지디끼.{농사짓듯이.}

10518 # 그래가저고 언자 우리 웨가찌베서 ** 종자로 가꼬와가꼬 여:서 언자 사는 사라문 사고.{그래 가지고 인제 우리 외가집에서 ** 종자를 가져와서 여기에서 인제 사는 사람은 사고.}

10518 # 고래 노오모 또 그짜 무시씨느 또 더 조와, 무시 뿌리:가.{그렇게 해 놓으면 또 그 쪽 무씨는 또 더 좋아, 무 뿌리가.}

10518 # 요런테 우리 받 하능거느: 똑 무시뿌리도 야구지 이러코.{이런 데 우리 받(예) 하는 것은 꼭 무 뿌리도 알곳이 이렇고.}

10518 # 그래 그:에 언자 저 대평서 언자 저 드파네서 이리 언자 가꼬 와서 언자 쏘 사가 하는 사라문 무시 뿌래~이 요래 좀 곡꼬.{그래 거기에 인제 저 대평에서 인제 저 들판에서 이리 인제 가지고 와서 인제 좀 사서 하는 사람은 무 뿌리 이렇게 좀 곱고.}

10518 # 그런테고마 자기가하능거는 아나고 그짜 무시씨 내가 언자 웨가집에서 각꼬오모.{그런테 그냥 자기가 하는 것은 안 하고 그쪽 무 씨 내가 인제 외가집에서 가지고 오면.}

10518 # 그라~이 파라가저고 참 너카무꼬 그래합니다.{그러니 팔아 가지고 참 넓혀 먹고 그렇게 합니다.}

10518 # 그라고나서 이냐 장으로 언자 장으로 언자 이 종자가 싹다 나능기라.{그리고 나서 인제 장으로 인제 장으로 인제 이 종자 싹 다 나는 거야.}

10518 # 그래가꼬 언자 처:무 장에서 언자 파라가:꼬 이래 사가저고 쪼맨서 사가 송구다가.{그렇게 해서 인제 전부 장에서 인제 사서 이렇게 사서 조금씩 사서 심다가.}

10518 # 그런테 지그므로 언자 참 멘년 멘년 아파:만 해도.{그런테 지금은 인제 참 몇 년 몇 년 앞 해만 해도.}

10518 # 저 머꼬 종자로 열씨미 해서 바다가지고 요래 봉다리로 해서.{저 뭐니 종자를 열심히 해서 받아 가지고 이렇게 봉지를 해서.}

10518 # 똑: 종자도 요마:침서 여어.{똑 종자도 요만큼씩 넣어.}

10518 # 그렇게 요즈믄 천:지 해 그리 옹그로 언자, 종자로 사가저고 하거등.{그러니까 요 즘은 전부 그렇게 해 온 것을 인제, 종자를 사 가지고 하거든.}

10518 @ 그라먼자: 배추든 무시든 언자 어디에 뿌릴꺼 아입니까?{그러면 인제 배추든 무든 어디에 뿌릴 것 아입니까?}

10518 @ 주로 할무이 경우는 어디에다가 마~이 뿌려습니까?{주로 할머니 경우는 어디에다가 많이 뿌렸습니까?}

10518 # 보통 바테 감니더.{보통 밭에 갑니다.}

10518 @ 바치 어테 이습니까?{밭이 어디에 있습니까?}

10518 # 내나.{내나.}

@ ** 요게도 마당에도 언자 쏘 이석꼬.{** 여기에도 마당에도 인제 좀 있었고.}

10518 # 요거는 한 이삼년 텍:꼬.{이것은 한 이삼년 되었고.}

10518 @ 그래 고거 말씀쭈 해 주이소.{그래(요) 그것 말씀 쭈 해 주십시오.}

요거예?{이것이요?}

10518 @ 말고 바테부터 해가꼬 요거 이삼년 텐 *****{할머니 웃음소리 겹침}.{말고 밭에
부터 해서 이것 이삼년 된 *****.}

10518 @ 배추씨 어데: 무시씨하고 어데 뿌린는지 고거 말씀해(주이소).{할머니 웃음소리}
{배추씨 어디에 무씨하고 어디에 뿌렸는지 그것 말씀해(주십시오).}

10518 # (웃음)

10518 # 인:데는 이: 참: 들판도 아이고 야구지 머 꼴짜: 이래 이승계.{이런 데는 이 참 들
판도 아니고 야콧이 뭐 골짜기에 이렇게 있으니까.}

10518 # 땅도 안 더럽습니까?{땅도 더럽잖습니까?}

10518 # 저:: 머 들판네 저언데는 참 무어 땅도 조코 하지마는.{저 뭐 들판에 저런 데는
참 뭐 땅도 좋고 하지마는.}

10518 # 그래 해 해 묵꼬 언자.{그렇게 해 해 먹고 인제.}

10518 # 그래 사다사다 언자 언자 장에 언자 종자르 지그문 참:부 사다 한다 아임니까?{그
렇게 살다 살다 인제 인제 장에(서) 인제 종자를 지금은 전부 사서 하잖겠습니까?}

10518 # 그래 가꼬 언자 요새는 우리가 언자 나이 만코 이렇게 고마 드레서 가오기도 기
창코.{그래서 인제 요새는 우리가 인제 나이 많고 이러니까 그만 들에서 가져 오기도 귀찮
고.}

10518 # 그 한 이삼년 저네 언자 우리 집 요거 새로 요 언자 개조함:섬.{그 한 이삼 년 전
에 인제 우리 집 이것 새로 이것 인제 개조하면서.}

10518 # 여 마당에 여: 아래채가 이썬습니다.{여 마당에 여기에 아래채가 있었습니다.}

10518 # 소도 미이고 대지도 미이고 이래가꼬.{소도 먹이고 돼지도 먹이고 이래서.}

10518 # 그래가: 참 짐: 이거 그마 함:서 마당도 좀 주리티리고.{그래서 참 짐 이것 그냥
(개조)하면서 마당도 좀 줄이고.}

10518 # 그래 마당 여: 인자 찐디 승군다꼬 저 저만치 저래 낭가놓:기라.{그래 마당 여기
에 인제 잔디 심는다고 저 저만치 저렇게 남겨 놓은 거야.}

10518 # 그래서 찐디 그거 승구가: 머하끼고?{그래서 잔디 그것 심어서 뭐할 거니?}

10518 # 마 남: 남:새 마 남새바체도 몽가끼고 인자.{마 남 남새 마 남새 밭에도 못 갈 것
이고 인제.}

10518 # 고마 이에 남새 가라물란다.{그냥 여기에 남새 갈아 먹으려다.}

10518 # 그라:기 한 이삼년 요래 해묵습니더, 여개.{그리고 나서 한 이삼 년 이렇게 해 먹
습니다. 여기에.}

10518 # 그렇게 언자 머 드레는 마 그거 하지르 양코.{그러니까 인제 뭐 들에는 뭐 그것
하지를 앓고.}

10518 # 마 거름도 옹꼬 언자 짐승도 안 미잉게.{마 거름도 없고 인제 짐승도 안 먹이니
까.}

10518 @ 언자 그: 종자 씨아슬 언자 뿌리노오모 씨기 틀꺼 아임니까?{인제 그 종자 씨앗
을 인제 뿌려 놓으면 싹이 틀 것 아십니까?}

10518 @ 그라머 뿌리노코 나서 씨기 틀때까지는 한 얼마나 메칠이나 걸립니까?{그러면 뿌
려 놓고 나서 싹이 틀 때까지는 한 얼마나 며칠이나 걸립니까?}

10518 # 고기에.{그것이요.}

10518 # 한 저어게 한 멘년저네는 무시씨하고 배추씨하고 이래 또로 이래 골로치서 흐쳐 노오메는 무시씨가 먼저 올로오는데.{한 저기 한 몇 년 전에는 무시하고 배추씨하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골을 쳐서 뿌려 놓으려는 무시가 먼저 올라오는데.}

10518 # 요즈믄 또 배추씨가 먼저 올로와.{요즘은 또 배추씨가 먼저 올라와.}

10518 ## 한 사밀마이마 올라옵니다.{한 삼일 만이면 올라옵니다.}

10518 # 삼사일 대:야 올라오니더.{삼사일 돼야 올라옵니다.}

10518 # 삼사일 대:먼:자 요즈믄 우짖지 저 머 이 세상이 좀 다르게 그렇가.{삼사일 되면 인제 요즘은 어쩐지 저 뭐 이 세상이 좀 다르니까 그렇는가.}

10518 # 살기가 조웅게 그렇가 배추씨가 먼저 올로오거등예, 저제는 장: 무시가 먼저 올로 오는데.{살기가 좋으니까 그렇는가 배추씨가 먼저 올라오거든요, 전에는 늘 무가 먼저 올라 오는데.}

10518 # 무시가 언자 먼저 올로오는데.{무가 인제 먼저 올라오는데.}

10518 # 한 이삼년꺼지는 한 이삼년 요 아느로는 배차씨가 먼저 올로와.{한 이삼년까지는 한 이삼년 이 안으로는 배추씨가 먼저 올라와.}

10518 # 히안하데여.{희한하데요.}

10518 # 아 모두 다 그러쿠거등, 참 이상하다.{아 모두 다 그렇다고 하거든, 참 이상하다.}

10518 # 무시가 먼저 올로오는데 배차씨가 먼저 올로온다, 그러사커등예.{무가 먼저 올라 오는데 배추씨가 먼저 올라온다, 그렇게 해 쌓거든요.}

10518 @ 그럼 씨가 쫘 엔날하(고) 쫘 다릉강:가예?{그럼 씨가 좀 옛날하고 좀 다른 것인 가요?}

10518 # 아이지 안 다르지, 안 다른데.{아니지 안 다르지, 안 다른데.}

10518 # 요새는 종자가 배차씨가 먼저 올로와.{요새는 종자가 배추씨가 먼저 올라와.}

10518 # 저네는 무시씨가 먼저 올로와꺼등예.{전에는 무씨가 먼저 올라왔거든요.}

10518 # 머 종자도 이래 빈하능갑데여.{뭐 종자도 이렇게 변하는가 보데요.}

10518 @ 저: 언자 싸기 틀 때예 쥔: 주이할 이리 머가 이습니까?{저 인제 싸기 틀 때예 제일 주의할 일이 뭇이 있습니까?}

10518 # 머 아무거또 엄찌 머, 가마이 나뚜지 머.{뭐 아무 것도 없지 뭐, 가만히 놓아 두지 뭐.}

10518 @ 아: 나:뚜모 땀니꺼?{아 놓아 두면 됩니까?}

 # 예, 마 흐쳐마 노오모 고마.{예, 마 뿌려만 놓으면 그만.}

10518 ## 틀 때 흐~이 그 칸치 빼들키 쫘:.{틀 때 흔히 그 까치 비둘기 쫘.}

10518 # 짐승이 뽀바무거.{짐승이 뽀아 먹어.}

 ## 그기: 쫘사가꼬 마이 몬씨거로 맨들거등예.{그것이 쫘아서 많이 못 쓰도록 만들 거등요.}

10518 @ 그래 고고 함: 말씀 쫘 해주이소, 할머~이가.{그래 그것 한 번 말씀 쫘 해 주십시오, 할머니가.}

10518 # 그래 이기: 올:{그래 이것이 올.}

 @ 그렇게네 짐승드리 머 쫘 쫘 머 쫘사무울거 가테예.{그러니까 짐승들이 뭐 쫘 쫘 뭐 쫘아 먹을 것 같아요.}

10518 # 인제 이 종자 올라올때느 대가리가 노:래이 해가꼬 이래 자잔:히 올로오거등예.

{인제 이 종자 올라올 때는 대가리가 노라니 해서 이렇게 자잘히 올라오거든요.}

10518 # 고:서 언자 이파리 요리 언자 필라꼬커모 쪼깨이 클라쿠메는.{거기에서 인제 이파리 이렇게 인제 피려고 하면 조금 크려고 하면.}

10518 # 빼들키 칸치 그어느 빼무우빼리.{비둘기 까치 그것은 빼먹어 버려.}

10518 # 빼묵꼬 언자 저 언자 빼묵따가 언자 또 흘리는거또 마나.{빼먹고 인제 저 인제 빼먹다가 인제 흘리는 것도 많아.}

10518 # 이마:치서 콩나물매이로.{이만큼씩 콩나물처럼.}

10518 # 키가 이래 커가꼬.{키가 이렇게 커서.}

10518 # 대갈빼이 다 때묵꼬.{대갈통 다 때어먹고.}

10518 # 그런 때미네 종자도 좀 좀 나끼 흐쳐야 대.{그런 때문에 종자도 좀 좀 낫게(여유 있게) 뿌려야 돼.}

10518 # 짐승이 재로 주기사:서{짐승이 *를 죽여 쌓아서.}

10518 # 똥: 노래:: 올로오고나모 콩나물 이 대가리매로 노래: 자자::니 이리 올로오거든요.{똥 노랗게 올로오고 나면 콩나물 이 대가리처럼 노랗게 자잘히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10518 # 쭉쭉쭉 빼:무:빼리.{쭉 쭉 쭉 빼 먹어 버려.}

10518 # 그래가꼬 언자 몬빼무꾸로 언자 디띠까리.{그래 가지고 인제 못 빼 먹도록 인제 디띠(디디티?) 가루.}

10518 # 농낙 아이 가리 인능거 아임니꺼, 보:항거 밀까리거통거.{농약 ** 가루 있는 것 아 낚니까, 하얀 것 밀가루 같은 것.}

10518 # 고 사다 언자 흐치노모 좀 덜빼묵꼬.{그것 사다 뿌려 놓으면 좀 덜 빼 먹고.}

10518 # 올로올때:데모 그가따 마 보하:이 흐치노습니더.{올라올 때 되면 그것을 마 하얗게 뿌려 놓습니다.}

10518 # (웃음) 몬빼무꾸로.{(웃음) 못 빼어 먹게.}

10518 @ 그: 농낙 그거 흐치논닝기 얼마나 땀:습니꺼, 옌나레는 농낙 그: 기해실긴:데.{그 농약 그것 뿌려놓은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옛날에는 농약 그것 귀했을 것인데.}

10518 # 이저네는 그렇거또 엉꼬.{이전에는 그런 것도 없고.}

10518 # 그래 올로오도 빼물짱도 모르고 짐승도, 그래헨는데.{그렇게 올라오도 빼먹을 줄도 모르고 짐승도, 그랬는데.}

10518 # 한 한 한 십 한 한 십너는 냉기텐는가베 그래 빼문재가, 짐승이.{한 한 한 십 한 한 십년은 넘게 되었는가 봐 그래 빼 먹은 지가, 짐승이.}

10518 # 그래 재:를 저지르디여.{그렇게 재(손실)를 저지르데요.}

10518 # 그런데 언자 그 농냐글 가따 혼는기라.{그런 데 인제 그 농약을 가져다 뿌리는 거야.}

10518 # 그래 이게 언자 또 이래 또 크고나몬 언자 또 이파리 또 두개 세개 요래 올로오몬 또 쪼게 또 올로온다아임니꺼?{그래 이것이 인제 또 이렇게 또 크고 나면 인제 또 이파리 또 두 개 세 개 이렇게 올라오면 또 속에 또 올라오잖겠습니까?}

10518 # 그: 또 벌레가 생기:{거기에 또 벌레가 생겨.}

10518 # 마 도구통벌레라꼬 자잘항기:{마 절구통벌레라고 자잘한 게.}

10518 # 도구통벌레라꼬 그렇기: 이서가꼬 언자 또 농낙 또 갠따 뿌리고.{절구통벌레라고 그런 것이 있어서 인제 또 농약 또 갖다 뿌리고.}

10518 # 언자 디띠까리 이걸또 사다 흘 언자 뿌리노코.{인제 디띠(디디티?) 가루 이것도

사다 뿌 인제 뿌려 놓고.}

10518 # 이라면:자: 그래가꼬 해서 묵꼬.{이러면 인제 그렇게 해서 먹고.}

10518 # 그런데 언자 이 한 덴년 이 가리로 흔따가 봉께네로 가리가 또 너무 도카다꼬 또 엄시진다쿠네여, 지그문 또.{그런데 인제 이 한 몇 년 이 가루를 뿌리다가 보니까 가루가 또 너무 독하다고 또 없어진다고 하네요, 지금은 또.}

10518 # 달리 언자 그렇 가리가 언자 또 곧 대하로 또 나오능갑데여.{달리 인제 그런 가루가 인제 또 곧 *** 또 나오는가 보데요.}

10518 # 그런데 오라고 장년하고는 벌레가 그러케쳐나.{그런데 올해하고 작년하고는 벌레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10518 # 그언데 인자 땅에다 너머 그렇거 약또 그래(?)상께네로 좀 그는 벌레도 좀 덜 생기능가.{그런데 인제 땅에다 너무 그런 것 약도 그렇게 해 쌓으니까(?) 좀 그런 벌레도 좀 덜 생기는가.}

10518 # 그래도 들고.{그렇게 (생각이) 들고.}

10518 # 그래도 우디우디에 그 벌레가 파무우예.{그래도 군데군데에(?) 그 벌레가 파먹어요.}

10518 # 마 쏘글 요래 싹: 파모 머 여꼴티리 이리 막 티:나와.{마 속을 이렇게 싹 파면 옆으로 이리 막 (다른 속잎이) 튀어 나와.}

10518 # 수니.{순이.}

10518 # 배추나 무시나.{웃음}{배추나 무나.{웃음}}

10518 # 그런 때메 야글 처야데능기라.{그런 때문에 약을 처야 되는 거야.}

@ 어~어 어디에 치는다꼬예?{어 어디에 친다고요?}

10518 # {웃음} 무시배추 올로올때에 요게 언자 나폴나푸:라~이 요래 요 정도 큰다아임니까?{웃음} 무 배추 올라올 때에 이게 인제 나폴나폴하게 이렇게 이 정도 크잖습니까?}

10518 # 고라미 언자 이기: 가운데 송이파리가 탁 주거, 웅구라지가꼬.{그러면 인제 이것이 가운데 속이파리가 탁 죽어, 오무러져서.}

10518 # 그래 요리 헤시보모, 똑:: 요런 벌레가 이써.{그래 이렇게 헤쳐 보면, 똑 이런 벌레가 있어.}

10518 # 요런 벌레가.{이런 벌레가.}

@ 그기: 도구통벌레니까?{그것이 절구통벌레입니까?}

예, 도구통벌레.{예, 절구통벌레.}

10518 # 그기: 마 도구통매로 혹: 파무우빠리, 파무뿌리모 언자 이기: 언자 지 언자 목시미 양갈상시풍거는 언자.{그것이 마 절구통처럼 확 파먹어 버려, 파먹어 버리면 인제 이것이 인제 제 인제 목숨이 안 갈 성실은 것은 인제.}

10518 # 그 여꼴티로 또 노라~이 언자 또 티가꼬 올로오고.{그 옆구리로 또 노랑게 인제 또 띄어서 올라오고.}

10518 # 그 식물 그거또 참 수악카데여.{그 식물 그것도 참 대단하데요.}

10518 # 그래 해무끼도 하고.{그렇게 해 먹기도 하고.}

10518 # 오라고 장년하고는 고마 약 그래 안처도 고마 쪼끔 더라데여.{올해하고 작년하고는 그냥 약 그렇게 안 쳐도 그냥 조금 덜하데요.}

10518 # 이 땅에다 너:무 약도 처사능게네로 버 벌레도 아능가.{이 땅에다 너무 약도 처 쌓으니까 벌 벌레도 아는지.}

10518 # 그이 규~이 좀 인능가 그리도 시푸고.{거기에 규이 좀 있는지 그렇게도 싶고.}

10518 @ 그라모.{그러면.}

오라고 장년하고는 약 안쳐바서여.(올해하고 작년하고는 약 안 쳐 봤어요.)

10518 @ 그: 배차 깔가 멍는거 도구통벌레말고 또 다룽거는 업서습니까?{그 배추 깔아 먹는 것 절구통벌레 말고 또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10518 # 딱째~이라꼬 일찌:.{무당벌레라고 있지.}

10518 # 저이: 그이 그 빨가이 덩거리 요거 빨강거 요마냥거 날라댕기능거 머임니까?{저이 그 이 그 빨강게 등어리 요것 빨간 것 요만한 것 날아다니는 것 뭇입니까?}

10518 # 머 머 무당벌레라 산능거 (웃음) 고기: 또 배추배라도 깔가묵꼬.{뭇 뭇 무당벌레라고 하는 것 그것이 또 배추배도 깔아먹고.}

10518 @ 그러습니까?{그렇습니까?}

무시이파리도 깔가묵꼬.{무 이파리도 깔아먹고.}

10518 # 고: 새파랑겉또 익꼬 빨강겉또 인꼬 아나습니까?{그 새파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10518 # 요새 아:들 그거보모 마 무당벌레라꼬 잡아가대이고 그란다.{요새 아이들 그것 보면 마 무당벌레라고 잡아가 다니고 그린다.}

10518 @ 음: 그러면 무당벌레 그겉또 그러면 배차: 무시 이파리 깔가묵꼬.{음 그러면 무당벌레 그것도 그러면 배추 무 이파리 깔아먹고.}

10518 # 무시는 안 깔가묵는데 배차 이파리로 갈라묵떼 그기:.{무는 안 깔아먹는데 배추 이파리를 깔아먹데 그것이.}

10518 ## *****.{*****.}

그래 고기: 언자 또 알로 우째 씨리모 비리가 대:.{그래 그것이 인제 또 알을 어떻게 슬면 진딧물이 돼.}

10518 # 비리가 데머 그거느 고마 엄능기라.{진딧물이 되면 그것은 그만 없는 거야.}

10518 # 그러데면냐 농낙 이거로 쳐도 안데능기라여.{그렇게 되면 인제 농약 이것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10518 # 또 비리야기 또 나와.{또 진딧물 약이 또 나와.}

10518 # 비리야글 처야데지 농낙 아무리 쳐바도 안됩니다.{진딧물 약을 처야 되지 농약 아무리 쳐 봐도 안 됩니다.}

10518 # 이 벌레에 따라서 야기 다 나옵니다.{이 벌레에 따라서 약이 다 나옵니다.}

10518 # 꼬치도 그런는디여.{고추도 그렇는데요.}

10518 # 꼬치도 이리 크몬 이 꼬치발 ** 가서 맨:다가 이리 보모.{고추도 이렇게 크면 이 고추발 ** 가서 매다가 이렇게 보면.}

10518 # 자잔한 개미가 꼬치나무에 올라갈따 내리갈따 합니다.{자잔한 개미가 고추나무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10518 # 그래 보모 고: 비리가 딱 꼬치이파리 미테.{그래 보면 거기에 진딧물이 고추 이파리 밑에.}

10518 # 그: 무당벌레 그에 알로 톱 누에씨리매이로 아라가꼬.{그 무당벌레 그것이 알을 꼭 누에(가 알을) 스는 것처럼 알아 가지고.}

10518 # 그 꼬치이파리 그 디에다 시라나:.{그 고추 이파리 그 뒤에다 슬어 놓아.}

10518 # 요래가: 그기: 알:까가저고 나오모 언자 그기: 또 비리가 데능잡테여.{이래서 그것

이 알을 까서 나오면 인제 그것이 또 진딧물이 되는가 보데요.}

10518 # 그래데모 고마 또 비리야글 사 처야대.{그렇게 되면 그냥 또 진딧물 약을 사 처야 돼.}

10518 # 꼬치도 그루코.{고추도 그렇고.}

10518 # 이런 농냐글 비리는 농낙 그렇거 치가꼬는 안대.{이런 농약을 진딧물은 농약 그런 것을 쳐 가지고는 안 돼.}

10518 # 그렇게 엔만:하모 고마 소니 좀 여유가 익꼬 시가니 익꼬 이라*모.{그러니까 웬만 하면 그람 손이 좀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이러면.}

10518 # 보지란 사라문 가 작끼도 하고.{부지런한 사람은 가 잡기도 하고.}

10518 # 이파리 이래 문때기도 하고 (웃음) 비리 그거 지길라꼬.{이파리 이렇게 비비기도 하고 (웃음) 진딧물 그것 죽이려고.}

10518 # 약 안치가꼬 안치고 무올라꼬.{약 안 쳐서 안 치고 먹으려고.}

10518 # 그래 삼니더.(웃음){그렇게 삼니다.(웃음)}

10518 @ 저:: 요 배차하고 무시 올라올때.{저 이 배추하고 무 올라올 때.}

10518 @ 언자 요마치 올라올때 그때.{인제 이만큼 올라올 때 그때.}

10518 @ 땅소게 머 가라 우째 아침 일:라보몬 이게 폭: 주거이딴 말이지, 그 새가 그: 쪼 사무운거또 아인데.{땅 속에 뭐 갈아 어째 아침 일어나 보면 이것이 폭 죽어 있다는 말이지, 그 새가 그 쪼아먹은 것도 아인데.}

10518 @ 그 미테 파보모 요게 사리 통통하~이 쟁게 요게 요게 안저~이 새카마타 아나고.{그 밑에 파 보면 이게 살이 통통하게 찢 게 이게 이제 완전히 새카맣지도 않고.}

10518 @ 고 별개~이 이때예 요거.{그 별레 있데요 이것.} # 굼비~이.{굼벥이.}

10518 @ 굼비~이 말고.{굼벥이 말고.}

10518 @ 굼비는 하야코 굼비말고.{굼벥이는 하얏고 굼벥이 말고.}

10518 # 아 꺼문 굼비~이도 이써여, 그 파몽능거.{아 검은 굼벥이도 있어요, 그 파 먹은 것.}

10518 @ 고고는 미테 뿌레~이나 딱 찢라무우뿌는 모야~이던데.{그것은 밑에 뿌리나 딱 찢라 먹어 버리는 모양이던데.} # 하모하모.{그래 그래.}

10518 @ 고거 함문 말씀해 주이소.{그것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그 굼비~이 거기: 그래여.{그 굼벥이 그것이 그래요.}

 @ 아 그거또 굼비~이라 캄니까?{아 그것도 굼벥이라고 합니까?}

 # 예 거기 내나 카망 굼(비~이).{예 그것이 내나 카만 굼(벥이).}

10518 # 그 저 채소에 갈가묵꼬 하능거는 저게 쫄.{그 저 채소에 갈아먹고 하는 것은 저게 쫄.}

10518 # 매 새카마타 아나고 소똥색 비스하까.{매 새까맣지도 안하고 쇠똥색 비슷할까.}

10518 # 거기: 난주~우 그걸 우찌 오렉 오래 나뭇고 이기 언자 커지모 이마서합니더.{그것이 나중에 그걸 어찌 오래 오래 놓아 두고 이것이 인제 커지면 이만큼 합니다.}

10518 # 배추가 이래 커도 딱 갈가묵꼬 배추 해딱 넣기빠:.{배추가 이렇게 커도 딱 갈아먹고 배추 휘떡 넘겨 버려.}

10518 @ 고거 함분 말씀 더 해주이소,그.{그것 한 번 말씀 더 해 주십시오. 그}

10518 @ 우리도 그 저 지베 어무이가 엔나레 그 그렇거 쫄 키우신는데 아침마다 나가가지고.{우리도 그 저 집에 어머니가 옛날에 그 그런 것 죽 키우셨는데 아침마다 나가 가지고.}

10518 @ 해 보모 자브모 이기: 이마큼 자파:, 그기: 땅미테.{해 보면 잡으면 이것이 이만큼 잡혀, 그것이 땅 밑에.}

10518 # 이런데는 그러치는 안 인는데.{이런 데는 그렇게는 안 있는데.}

10518 # 우짜다가 이: 저:개 채소가 여 주거가꼬 히:떡 너머가능거는 파모 고기: 이썸.{어찌다 이 저기 채소가 여 죽어서 휘떡 넘어 가는 것은 파면 그것이 있어.}

10518 @ 히떡 너머가능거 미테마다 이떠라고예.{휘떡 넘어가는 것 밑에마다 있더라고요.}

예.{예.}

10518 # 고 고거는 땅미트로 대이거등.{그 그것은 땅 밑으로 다니거든.}

10518 # 고기: 언자 안 재피고 사람 누네 안 재피:고 나:뚜모 지금 배차 안 뺨니꺼?{그것이 인제 안 잡히고 사람 눈에 안 잡히고 놓아 두면 지금 배추 빼잖습니까?}

10518 # 배추 빼가저고 이래 또개메는.{배추 빼어 가지고 이렇게 쪼개며는.}

10518 # 그 아네 드리가이십니더, 썩 딱 썩 다 파묵꼬.{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속(을) 딱 썩 다 파 먹고.}

10518 # 이:리가 인는 디여.{이렇게 해서 있는데요.}

10518 @ 그거는 도구통벌레하고 다릅니까?{그것은 절구통벌레하고 다릅니까?}

아이 그 그건 틀리지예.{아이 그 그것은 틀리지요.}

10518 # 도구통벌레는 꼭 요마서요마서 해.{절구통벌레는 꼭 이만씩 이만씩 해.}

10518 @ 색까리 우떠습니까?{색깔이 어떻습니까?}

요카마 가늘고.{이것보다 가늘고.}

10518 @ 색까리 우떠습니까, 그거는.{색깔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10518 # 새까리 그거는.{색깔이 그것은.}

@ 파라치예?{파랑쥬?}

안지예.{아니요.}

10518 # 또 저 이 배추이파리 무시이파리 걸거묵는 또이 또 벌레가 이서.{또 저 이 배추 이파리 무 이파리 갇아먹는 또 또 벌레가 있어.}

10518 # 고농거는 요리 요막서해.{그런 것은 이리 이만씩해.}

10518 # 고거는 새파래.{그것은 새파래.}

10518 # 배추이파리 걸거묵꼬 하능거 이능거느.{배추 이파리 갇아먹고 하는 것 이런 것은.}

10518 # 곧:또 새파란걸 또 또 요막서항기: 이서.{그것은 또 새파란 것 또 또 이만씩한 것이 있어.}

10518 # 도구통벌레라쿠능거는 이거는 거트로 안나오고 소그로 파고드러가기 때미네.{절구통벌레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겉으로 안 나오고 속으로 파고들어가지 때문에.}

10518 # 새기 우떠까?{색이 어떨까?}

10518 # 새기 흑색?{색이 흑색?}

10518 # 흑색 정도, 도구통벌레 그거는.{흑색 정도, 절구통벌레 그것은.}

10518 @ 그거는 크기가 얼마마란합니까?{그것은 크기가 얼마만합니까?}

10518 # 그거 앙큼니더, 마~이.{그것 안 큼니다, 많이.}

10518 # 그거는 또 요정도빼끼 안 대:.{그것은 똑 이 정도밖에 안 돼.}

10518 @ 아까 그러면 파랑거하고 *****.{아까 그러면 파란 것하고 *****.} # 하~아, 파랑거또 하모 요정도 대:.{응, 파란 것도 응 이 정도 돼.}

10518 # 과랑거는 예부 참 큼거는 이마서 하다.{과란 것은 제법 참 큰 것은 이만씩 하다.}
 10518 # 예부 이거는 예부 맨센치 데긴데여.{제법 이것은 제법 몇 센티미터 될 건데요.}
 10518 # (웃음) 요새 절문 사람드른 점부 세세 ****.{(웃음) 요새 젊은 사람들은 전부 센센 (티미터로 말하잖습니까?)}

@ 그러면 도구통 도구통벌레가 제엘 작다 그지예, 크기가.{그러면 절구통 절구통 벌레가 제일 작다 그쵸, 크기가.}

예, 제엘 작지여.{예, 제일 작지요.}

10518 @ 그다메 아까 그 굼비~이라카능 그거는.{그 다음에 아까 그 굼벥이라고 한 그것은.}

10518 # 아이고 굼비~이.{아이고 굼벥이.}

@ 그거는 마 나중예 사리 찌가꼬 여페 **.{그것은 마 나중예 살이 찌서 여페 **.}

하이고이.{아이고.}

10518 # 이마씩하다쿵께, 배추쏘게 드러가인따쿵께.{이만씩하다니까, 배추 속에 들어가 있 다니까.}

10518 # 그거르 우찌 잘 암보고 마 잘모 암비서 나뚜고 하모.{그것을 어떻게 잘 안 보고 마 잘 못 안 보여서 놓아두고 하면.}

10518 # 배추빨때 가시레 짐장할래이 빨때.{배추 빨 때 가을에 김장하려고 빨 때.}

10518 # 쏘기 빙기: 이서, 배추가.{속이 빈 것이 있어, 배추가.}

10518 # 허 보모 그 딱 드러가이꺼등예.{그 보면 그 딱 들어가 있거든요.}

10518 # 어:마이 파무거 그얼또.{엄청나게 많이 파 먹어 그것도.}

10518 # 그렇 마 이런 누에막서해, 그거느.{그것은 마 이런 누에만씩 해, 그것은.}

10518 @ 마썸니더, 예.{맞습니다, 예.}

그렇거또 내나 흑째그로 그래와 이서.{그런 것도 흙색으로 그렇게 와 있어.}

10518 # 도구통벌레라쿵거는 흑색카다 쪼끔 연하지.{절구통벌레라고 한 것은 흙색보다 좀 연하지.}

10518 # 또 배추이파리 무시이파리 꺾거몽는 입 벌레는 또 도구통벌레카마 쪼끔 크고 새 파락코.{또 배추 이파리 무 이파리 갇아먹는 입 벌레는 또 절구통벌레보다 조금 크고 새 파 랑고.}

10518 # 그언 딱 배차새게라 고래가 이찌.{그것은 딱 배추속에다(?) 그래서 있지.}

10518 # 벌레 그얼또 소아캄니다.{벌레 그것도 흉악합니다.}

10518 @ 그라모 **.{그러면 **.}

그리테민 그런데가모 만:날 그짜다 놀리바가야 대.{그렇게 되면 그런 데 가면 만 날 놀려박아야 돼.}

10518 @ 그라모 할머~이 요래 정리가 데게습니까?{그러면 할머니 이렇게 정리가 되겠 습니까?}

10518 @ 이파리 깔가멍는거는 새파라코 쪼끔 쭈 길고 그지예, 쪼끔 크고.{이파리 갇아 먹 는 것은 새파랑고 조금 쭈 길고 그쵸, 조금 크고.} # 예, 쪼:큼 크고.{예, 조금 크고.}

10518 @ 도구통벌레 그거는 아네 드러가가지고 ***** 고거는 쭈 작고.{절구통벌레 그것은 안에 들어가서 ***** 그것은 쭈 작고.} # 예, 그거는:{예, 그것은.}

10518 # 그거는 바끄로는 안나오거등예, 온더니 미트로 파고드러가제, 쏘그로.{그것은 밖으

로는 안 나오거든요, 온전히 밑으로 파고들어가지, 속으로.}

10518 @ 그다메 아까 꺼멍굴비~이라 캐습니까?{그 다음에 아까 검은 굴벙이라고 했습니까?}

10518 # 야, 굴비~이 그건 언자 땅미테서 인제 이 뿌리.{예, 굴벙이 그것은 인제 땅 밑에서 인제 이 뿌리.}

@ 땅미테 이따가 그건또 쏘그로 드러간단 말아입니까?{땅 밑에 있다가 그것도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드러가지여.{들어가지요.}

10518 # 우예 사람누네 안재피:고 언자 안 비이고 나뭇모.{어째 사람 눈에 안 잡히고 인제 안 보이고 놓아두면.}

10518 # 그거는 막 마 이정도 텐다쿵께:.{그것은 마 마 이 정도 된다니까.}

10518 # 징글바사서 (웃음) 우리는 그거 검잡다 몬해여, 무서바서.(웃음){징그러워서 (웃음) 우리는 그것 거머잡다지도 못해요, 무서워서.(웃음)}

10518 # 벌레 세가지라.{벌레 세 가지야.}

10518 @ 그러켄네예.{그렇겠네요.}

그: 무우 배추 걸거몽는 벌레가.{그 무 배추 갇아먹는 벌레가.}

10518 # 고게서 또 또 딱짱벌거지 이 저:게 그 그기: 이시며 고기: 언자 알로 씨러메느.{거기에서 또 또 무당벌레 이 저기 그 그것이 있으면 그것이 인제 알을 슬면.}

10518 # 고:기: 언자 알 씨러가지고 언자 비리가 데: 가꼬.{그것이 인제 알 슬어 가지고 인제 진딧물이 되어서.}

10518 # 고오는 언자 또 비리야글 처야데제, 농낙그렁거느 처가:꼬는 안대:.{그것은 인제 또 진딧물약을 처야 되지, 농약 그런 것은 처서는 안 돼.}

10518 # 이 벌레따서여, 야기 다 나와.{이 벌레 따라서요, 약이 다 나와.}

10518 # 참: 히아나제.{참 회한하지.}

10518 @ 엔나레 거르른 어떻거르 마~이 주:습니까? 그어 저: 배차바테 무시바테.{옛날에 거름은 어떤 것을 많이 주었습니까? 그 저 배추밭에 무밭에.}

10518 ## 엔나레는 그르른 소대지가 미이께네.{옛날에는 그름은 소 돼지가(를) 먹이니까.}

10518 # 짐승 미잉께네.{짐승 먹이니까.}

*** 처가지고 모아가:꼬.{*** 쳐서 모아서.}

10518 ## 포: 씨카가지고.{폭 썩혀서.}

10518 ## 딱 고거마 하거등요.{딱 그것만 하거든요.}

10518 ## 그 또 비료 그 가게에는 비료도 업서꼬.{그 또 비료 그 과거에는 비료도 없었고.}

10518 ## 비로 업슬제는 그까:꼬 캐아서예.{비료 없을 적에는 그것 가지고 (무 배추를) 키웠어요.}

10518 ## 그리 중가네 언자 우 우리가 어북 나이가 어북 만트루까징 비루가 그때까지 비루가 업서꺼등요.{그리 중간에 인제 우 우리가 제법 나이가 제법 많도록까지 비료가 그때까지 비료가 없었거든요.}

10518 # 한 비: 비리 그건또이 중녀네 생기서.{한 진 진딧물 그것도 뒤에 생겼어.}

10518 ## 그라고 그 그 아 잘 하 잘 데능기야, 우째끈 그르믈 머 장만하지요.{그리고 그 그 아 잘 하 잘 되는 거야, 어쨌든 그름을 뭐 장만하지요.}

10518 ## 막 사네가 풀로 베어가꼬 씨리가저고 마 오줌하고 서꺼가저고.{막 산에 가 풀을 베어서 씨려서 마 오줌하고 섞어서.}

10518 ## 덩기조차 무강에 잡종을 해가저고.{등겨조차 **에 잡종을 해서.}

10518 ## 씨씨 여러가지 씨꺼가: 그래가: 무시로 갑니다.{섞 섞 여러 가지 섞어서 그렇게 해서 무를 갑니다.}

10518 ## 그라모 무시 잘 대:요, 그리데모.{그러면 무 잘 돼요, 그렇게 되면.}

10518 # 잘 데기는 머시 잘데? 꼬짜기 이런데는 마 땅이 이리 마가노옹께네.{잘 되기는 뭇이 잘 돼? 골짜기 이런 데는 마 땅이 이리 막아 놓으니까.}

10518 # 운나레 쪼꼬마 뜨거바모 고마 씨들씨들씨드라~이 마.{웃날이 조금만 뜨거우면 그 만 시들시들시들한 게 마.}

10518 # 억찌억찌로 사능기라.{억지 억지로 사는 거야.}

10518 ## 다른데는 엄남?(웃음){다른 데는 없나?(웃음)}

 # 그런데.{그런데.}

10518 @ 음:, 그라몬 거르몬 어چه튼 푸리나 이렇거 가:꼬 언자.{음, 그러면 거름은 어چه튼 풀이나 이런 것 가지고 인제.}

10518 @ 마우까네서 하거나 아이몬.{마굿간에서 하거나 아니면.}

10518 @ 집 그 마 소마구까엔 아이더라도 차:가지고.{짚 그 마 소마굿간에는 아니더라도 채워서.}

10518 # 소집승 대지집승 업는 사람드른 쏜 남새 쪼깨~이 해물라쿠메는.{소 짐승 돼지 짐승 없는 사람들은 그 남새 조금 해 먹으려면.}

10518 # 이저네는 점:부 소 안이십니까?{이전에는 전부 소 있잖습니까?}

10518 # 풀로 씨리가꼬 재이가꼬 소왕을 퍼제기자꼬.{풀을 썰어서 채워서 똥거름을 퍼 쳐서.}

10518 @ 멀: 퍼 **.{뭘 퍼 **.}

 # 소왕을.{똥거름을.}

10518 @ 소왕이 멈니까?{'소왕'이 뭇니까?}

10518 # (웃음) 그이 소왕.{(웃음) 그 이 '소왕'.}

 ## 이분 임분.{인분 인분.}

10518 # 대벤하능거 소왕.{대변하는 것 '소왕'.}

10518 @ 그 소왕이라갑니까? 어::.(웃음){그 '소왕'이라고 합니까? 어.(웃음)}

 # 예.{예.}

10518 @ 예, 말쑤 좀 해주이소.{예, 말쑤 좀 해 주십시오.}

 ## 그 전말로 그 전말로 소왕이라 캐서예.{그 전의 말로 그 전의 말로 '소왕'이라고 했어요.}

 # 소왕.{'소왕'.}

10518 # 소왕에다 소왕을 여게 퍼가저고 이리 함부썬 뿌리가꼬.{똥거름에다 똥거름을 여기에 퍼서 이렇게 한 번씩 뿌려서.}

10518 # 그래가:꼬 또 거름 씨쿨라꼬 또 또 이 씨리논: 거르를 가따가 또 그따다 또 함블로코.{그래서 또 거름 썬히려고 또 또 이 썰어 놓은 거름을 가져다 또 거기에다 또 한 벌 넣고.}

10518 # 딱치 노트키.{딱 쳐 놓듯이.}

10518 # 그래가꼬 언자 마 소개~이 거통거 이리 마 더퍼가:꼬 언자.{그래서 인제 마 술가지 같은 것 이렇게 덮어서 인제.}

10518 # 그어는 씨쿠능기라.{그것은 썩히는 거야.}

10518 # 언자: 소미이고 대지미이고 하는 사람드른 그래할 피료도 업꼬.{인제 소 먹이고 돼지 먹이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10518 # 마 소먹꺼름 대지꺼름 이거 쳐내몬 마 그렇거 해묵꼬 보리갈고 할라꼬.{마 소 밀거름 돼지 그름 이것 쳐내면 마 그런 것 해 먹고 보리 갈고 하려고.}

10518 # 예 가꾼: 함분서 파디집니다, 그르믈.{예 가꾼 한 번씩 파 뒤집니다, 거름을.}

10518 # 이 저 예 스스스 호우꾸.{이 저 예 스스스(쇠스랑) 포크.}

10518 # 여 세가랑 네가랑채비제, 호우꾸가?{여 세 가락 네 가락잡이지, 포크가?}

10518 # 호우꾸 네가랑자비 이래 떠능기 익꺼등예, 삼매이로.{포크 네 가락잡이 이렇게 떠는 게 있거든요, 삼쳐럼.}

10518 # 가래~이 떡 버리장거 이렇거 이렇거 이래가꼬.{가랑이 떡 벌어진 것 이런 것 이런 것 이래서.}

10518 # 한다레 함분서:는 아매 디비끼다.{한 달에 한 번씩은 아매 뒤집을 것이다.}

10518 # 한다레 두분서 디비끼다, 꼬스 예.{한 달에 두 번씩 뒤집을 것이다, ** 예.}

10518 # 언자 마 가새 마룽거또 아느로 드러가고.{인제 마 가에 있는 마른 것도 안으로 들어가고.}

10518 # 아네 또 물끼: 또 지지메 씨궁거는 또 갑 바끄로 내고 이래가저고.{아네 또 물기 또 저들끼리 썩은 것은 또 갑 밖으로 내고 이래서.}

10518 # 거름 건:또 장만나갈라쿠모 욱뵘니다.{거름 그것도 장만해 나가려면 고생합니다.}

10518 # 타: 이저네 거름할라쿠몬 인:테는 참 머 지리엄승게 그러치 저네 우리들 클짜:는. {다 이전에 거름하려고 하면 이런 테는 참 뭐 길이 없으니까 그렇지 전에 우리들 클 적에는.}

10518 # 그 신냥노 그 참 다 독째가 아임니꺼, 그 가아새.{그 신작로 그 참 다 *** 아닙니까, 그 가에.}

10518 # 이 신냥노가 이리 이스민 여: 가아새 푸리 이만치서 안드롭니꺼.{이 신작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가의 풀이 이만큼씩 들어오잖습니까?}

10518 # 보지란 사라믄 깨~이로 가져고, 껀아란 사라믄 그걸또 우다다 몬한다.{부지런한 사람은 팽이를 가지고, 게으른 사람은 그것도 '우다지도' 못한다.}

10518 # 그 풀 그거는 깨~이가자 홀::트리 파가저고.{그 풀 그것은 팽이를 가지고 *** 파서.}

10518 # 오테 저거 직꼬 이런데 너른데 이시몬.{어디 자기들 ** 이런 데 넓은 데 있으면.}

10518 # 흥무더메 이래 가따 재:.{흥무덤(흥무더기?)에 이렇게 갖다 재어.}

10518 # 가따 재애고 태아.{가져다 재고 태워.}

10518 # 태와가저고 그:서 언자 또 소왕도 퍼서지이가지고 거름도 하고 감자도 갈고.{태워서 거기에서 인제 또 똥거름도 퍼서 제여서 거름도 하고 감자도 갈고.}

10518 # 순:저니 거르믈 소느로소느로 장만해가:꼬 이래한다 아임니꺼.{순전히 거름을 손으로 손으로 장만해서 이렇게 하잖겠습니까.}

10518 # 요새는 머 거름 업시머 머 한 이삼쳐년 주모 고마 한포대 사가:와서 흑꼬.{요새는 뭐 거름 없으면 뭐 한 이삼천 원 주면 그만 한 포대 사서 뿌리고.}

10518 # 이리 살기로 편하기 안하나요.{이렇게 살기를 편하게 하잖아요.}

10518 @ (웃음) # 그런데 거름 그걸 또 너머 닥똥 거르미라 쿠능거는 곡서기 안대.{그런데 거름 그것도 너무 닥똥 거름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이 안 돼.}

10518 # 바테가따 흐치노응께네 와그런노 오래 마~알 안 가다가도 오래 또 그걸: 서너포 사다가 마~알: 가란떠마는 마~알도 나다 아난다.(웃음){밭에다 뿌려 놓으니까 왜 그러니 올해 마늘 안 갈다가도 올해 또 그것을 서너 포 사다가 마늘을 갈았더니만 마늘도 나지도 않는다.(웃음)}

10518 @ 너무 도캐서 그러습니까?{너무 독해서 그렇습니까?}

너무 도캐서 그러타쿠네여.{너무 독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10518 # 보메 그러싸:{봄에 그렇게 해 쌓아.}

10518 # 여름 저 노오매 아요 우리는 호바기 안난다 호바기 안난다.{여름 저 놓을 때 이봐 우리는 호박이 안 난다 호박이 한 난다.}

10518 # 아 그래싸: 절문 사람드리, 그래 와그리꼬 그리고.{아 그렇게 해 쌓아 젊은 사람들이, 그래 왜 그럴까 그리고.}

10518 # 포봉께네로 아매 거름 그기: 아매 달구똥 거르미 나오고.{과 보니까 아마 거름 그것이 아마 닥똥 거름이 나오고.}

10518 # 이기 또: 나무로 베가저고 와 이 와 거르를 기계로 써가저고.{이것 또 나무를 베어서 왜 이 왜 거름을 기계를 써서.}

10518 ## 툽도, *** 그라고 그까:{툽도, ***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걸 또 툽뺨.{그리고 또 툽밥.}

10518 # 그렇거또 거름맨드능기: 인능갑데예.{그런 것도 거름 만드는 것이 있는가 보데요.}

10518 # 고농거는 쫄 덜 도카는데.{그런 것은 좀 덜 독한데.}

10518 # 덜도칸데 달구똥거리미라쿠능거는 우리는 이때꺼정 농사지:도 그걸 몰라싸, 몰란는데.(웃음){덜 독한데 닥똥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때까지 농사 지어도 그것을 몰랐어, 몰랐는데.(웃음)}

10518 # 올뽀메 이 저:게 해가네 저: 놈:섬:{올봄에 이 저기 회관에 저기에 놀면서.}

10518 # 아이고 호바기 안난다 떠단 사람 호바기 안난다 호배기 안난다.{아이고 호박이 안난다 뭇한 사람 호박이 안 난다 호박이 안 난다.}

10518 # 그래 와그리꼬.{그래 왜 그럴까.}

10518 # 그래 언자 어떤 사라미 또 생각하기로 아이 거르미 도카다.{그래 인제 어떤 사람이 또 생각하기를 아이 거름이 독하다.}

10518 # 이래 가저고 그: 만날 승구도 안데능기라.{이래서 거기에 만날 심어도 안 되는 거야.}

10518 # 이거 디에 우리조카는 모: 쪼개 간다꼬 달구똥거름 고걸: 내나 비로푸대매로 나오능거 안이심니꺼.{이것 뒤에 우리 조카는 뭇 조금 간다고 닥똥 거름 그것을 내나 비로 푸대처럼 나오는 것 있잖습니까.}

10518 # 고래 함포로가따 흐치노코 요마* *****.{그렇게 한 포를 갖다가 뿌려 놓고 요만큼 *****.}

10518 # 오래도 쿵이 안테더라쿠네.{올해도 쿵이 안 되더라고 하네.}

10518 # 장녀네 고: 한다꼬 행는데.{작년에 거기에 한다고 했는데.}

10518 # 아무리 앵기도 안테더라캐.{아무리 읊겨도 안 되더라고 해.}

10518 # 거기: 그만큼 도강거가따가 우리는 이때꺼징 농사지이도 그걸: 몰라서.{그것이 그만큼 독한 것을 우리는 이때까지 농사 지어도 그것을 몰랐어.}

10518 # 그래가 오래 마~알 쪼개이 송구노응거 그거또 머 데다다 아난다.(웃음){그래서 올해 마늘 조금 심어 놓은 것 그것도 뭐 되지도 않한다.}

@ 아, 그거 도카능가베예.(아, 그것 독한가 봐요.) # 예:.{예.}

10518 # (웃음) 그 닥똥거리미 그래 도카다쿠네.{(웃음) 그 닥똥 거름이 그렇게 독하다고 하네.}

10518 @ 저: 아까 할무~이 그 말씀 안 하셔습니까, 그:.{저 아까 할머니 그 말씀 하시잖았습니까, 그.}

10518 @ 배차 씨뿌리가꼬 언자 올라올때:.{배추 씨 뿌려서 인제 올라올 때.}

예:.{예.}

10518 @ 칸치나: 그다메.{까치나 그 다음에.}

새:도 떼묵고.{새도 떼어 먹고.}

10518 @ **한다고 언자 야글 언자 처.{**한다고고 인제 약을 인제 처.}

10518 @ 고 야근 언자 새가 그: 그 띠묵찌 마라꼬 치능김니까?{그 약은 인제 새가 그 그 떼어 먹지 말라고 치는 것입니까?}

예:.{예.}

10518 @ 그 말고 언자 자라쓸때 아까 머 벌개~이들 안 이서습니까?{그 말고 인제 자랐을 때 아까 뭐 벌레들 있었잖습니까?}

10518 @ 그 입팔가몽능거도 이꼬 도구통: 그: 벌개 벌레도 이꼬, 딱쟁벌레도 익꼬.{그 잎 갇아먹는 것도 있고 절구통 그 벌레 벌레도 있고, 무당벌레도 있고.}

10518 @ 그라도 언자 야글 우째 우째 오시 칠꺼 아임니까, 머 소느로 잡기도 하겠찌마는.{그러면 인제 약을 어찌 어찌 요새 칠 것 아닙니까, 뭐 손으로 잡기도 하겠지마는.}

10518 # 밀까리 거테노응게 내나 요런 봉지인능거 그라지고 잘분잘분잘분 머 이래 지버너으로 데.{밀가루 같아 놓으니까 내나 이런 봉지 있느는 것 그걸 가지고 잘분 잘분 잘분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10518 # 잘분잘분하~이 지버너으로.{잘분잘분하게 집어넣으면.}

10518 @ 머 붐무기가꼬 이래 안 치고예?{뭐 분무기 가지고 이렇게 치잖고요?}

안: 치고.{안 치고.}

10518 # 그 머: 채소 그 쪼텐성 송구몽능거 그거 머 품무게 델:겘또 엄꼬.{그 뭐 채소 그 조금씩 심어 먹는 것 그것 뭐 분무기 델 것도 없고.}

마~이 하능거는 품무기로 치고예.{많이 하는 것은 분무기를 치고요.}

10518 @ 마이 하는 사라문 품무게, 장사하는 사암드른 그 하겠찌:.{많이 하는 사람은 분무기,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하겠지.}

마~이하는 장사하는 사람들 **.{많이 하는 장사하는 사람들 **.}

10518 # 요새는 약안치고 해몽는다캐도 약안치고는 안대:.{요새는 약 안 치고 해 먹는다고 해도 약 안 치고는 안 돼.}

10518 # 추채는 내가 약치능거 몽는데 우짜끼라?{첫째는 내가 약 치는 것 먹는데 어쩔 거야?}

10518 ## 그 그사람 채 채소에 약치능거는 벨또로 이씁니다.{그 그 사람 채 채소에 약 치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10518 ## 물라기라고.{물약이라고.}

10518 ## 한지 그거는 사오일데모 떼무우도 갠찬타.{한 지(약을 찐 지) 그것은 사오일 되면 떼어 먹어도 괜찮다.}

10518 ## 굴:쿠고 물락 약까블 ***. {그렇게 말하고 물약 약값을 ***.} # 그 야글 침:자.{그 약을 치면 인제.}

10518 # 언자 요 요정도 요거데능거 한 사오쳐넌 합니더, 물락.{인제 이 이 정도 이래 되는 것 한 사오천원 합니다, 물약.}

10518 # 고거 언자 뵙에 또 지름이서.{그것 인제 병에 또 기름 있어.}

10518 # 물 뵙뻔: 요정도 요래 처라, 이래나와.{물 몇 배에 이 정도 이래 처라, 이래 나와.}

10518 # 우리는 마 별로 대: 고마.{우리는 마 '별로' 해, 그만.}

10518 # 마 물마 보:하모 고마.{마 물만 희게 되면 그만.}

10518 # 머에 머슨 풀리파리나 가꼬 요래 차차차찰 이래 뿌리빠리, 물락 그거느.{뭐 무슨 풀이파리나 가지고 이렇게 찰찰찰찰 이렇게 뿌려 버려, 물약 그것은.}

10518 @ *****.{*****.}

 # 올:매 안땡께.{얼마 안 되니까.}

10518 ## 그렇게네 언자.{그러니까, 인제.}

 # 술립또 꺼꺼가꼬.{술잎도 꺾어서.}

 @ 아::.{아.}

10518 # 이 시술대 가:가:꼬.{이 세숫대야 가져가서.}

10518 # 물로 얼르 정도 다마각:꼬.{물을 어느 정도 담아서.}

10518 # 그 남새에 뿌릴정도로 해가지고.{그 남새에 뿌릴 정도로 해서.}

10518 # 고: 야글 쪼끔 노오메는.{거기에 약을 조금 놓으려는.}

10518 # 소독매:로 마 보:할테여.{소독처럼 하얏데요.}

10518 # 그래가: 언자 솔리피나 언자 풀리파리나 한:짐 뜨더각:꼬.{그렇게 해서 인제 술잎이나 인제 풀이파리나 한 짐 뜯어서.}

10518 # 이래가꼬 고마 이래가꼬 마 차차차 요리 적사:감:서로 마 차찰 약뿌리기도 하고. {이래서 그냥 이래서 마 차차차 이렇게 적서 가면서 마 차찰 약 뿌리기도 하고.}

10518 # (웃음) 그래 산다 아임니까?{(웃음) 그렇게 살잖습니까?}

10518 @ 그라모 배차하고 무시하고가 언자.{그러면 배추하고 무하고가 인제.}

10518 @ 뻔:무울때 언자 김장할쫼대 대 그 완저~히 자란슬때.{뻔 먹을 때 인제 김장할 쫼되어 되어 그 완전히 자랐을 때.}

10518 @ 다 자랄 때까지는 한 시가니 얼마나 걸립니까, 한 뵙파리나 걸립니까?{다 자랄 때까지는 한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몇 달이나 걸립니까?}

10518 # 치릴파레 음녁 치릴파레 그러하닝게 내나 시울파레 암뵙니까?{칠월달에 음력 칠월달에 그러하니까 내나 시월달에 뵙잖습니까?}

10518 # 음녁 시울파레 지금 언자 내엘모레 시울파리 다간다.{음력 시월달에 지금 인제 내일모레 시월달이 다 간다.}

10518 # 그래내:나 치릴 파릴 구월 마 녀딸, 마 녀뵙딸.{그래 내나 인제 칠월 팔월 구월 마 녀 딸, 마 녀뵙 딸.}

10518 # 세아네꺼지 마 남 녀 녀뵙딸 이리 하지.{겨울에까지 마 남 녀 녀뵙 딸 이렇게 하

지.}

10518 # 그엠평 내가 종자로 사가지고 흐치가 하능거는 자:꾸 소늘 바야테고.{그것도 내가 종자를 사서 뿌려서 하는 것은 자꾸 손을 봐야 되고.}

10518 # 부통기: 이스모 술까 무우야되고.{불은 게 있으면 숙아 먹어야 되고.}

10518 # 빼내야 테고.{빼내어야 되고.}

10518 # 언자 지자리자리 언자 세아감:섬.{인제 제자리 제자리 세워 가면서.}

10518 # 빼무우감:섬.{빼 먹어 가면서.}

10518 # 종자로 혼는거는.{종자를 뿌리는 것은.}

10518 # 이 언자 시방은 이 꼬치모매이로 포장이 이리 나옴께 그거는 빼무꺼또 엄서.{이 인제 시방은 이 고추모처럼 포장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은 빼먹을 것도 없어.}

10518 # 빼몽능거 *** 가아시다 우리 배추씨 알구지 인능거또.{빼 먹는 것 *** 가에다 우리 배추씨 알곳이 있는 것도.}

10518 # 나도 그거이 항개 그이 참 나서 요마:침 바다나따가 송구~이 점:부 다 봄배추가 데빠리.{나도 그것 한 개 그것 참 나서 이만큼 받아 놓았다가 심으니 전부 다 봄배추가 되어 버려.}

10518 # 그렇게네 안사고는 안테능기라.{그러니까 안 사고는 안 되는 거야.}

10518 # 무슨 이런지 점:부 다 봄배추가 데:빠리.{무슨 일인지 전부 다 봄배추가 되어 버려.}

10518 # 지반 시방 저 가:새 인능거 저거.{집 안 시방 저 가에 있는 것 저것.}

10518 @ 그라먼자: 참 너덜말 걸린다 그 말씀아임니까?{그러면 인제 참 너덜 달 걸린다 그 말씀 아십니까?}

그러치여.{그렇지요.}

10518 # 너덜말 아네는 머 매능거는 머머 푸리나 이시모 매고.{너덜 달 안에는 뭐 매는 것은 뭐 뭐 풀이나 있으면 매고.}

10518 # 머 벌레 이스모 야기나 치고.{뭐 벌레 있으면 약이나 치고.}

10518 # 인자 이 내가 이 종자로 이리 뿌링거는 자꾸 소까무우야 대.{인제 이 내가 이 종자를 이렇게 뿌린 것은 자꾸 숙아 먹어야 돼.}

10518 # 다 큼거마 딱: 세아노코.{다 큰 것만 딱 세워 놓고.}

10518 # 보프로 남스 이 저 채소해몽능거는 큼거마 빼묵꼬.{봄으로 남새 이 저 채소 해 먹는 것은 큰 것만 빼어 먹고.}

10518 # 칠팔레 하능거는 이 키우기 때미네 장거마 소까내야대.{칠팔월에 하는 것은 이 키우기 때문에 잔 것만 숙아 내야 돼.}

10518 # 큼거는 안빼무야 대.{큰 것은 안 빼어 먹어야 돼.}

10518 # 키아가: 짐장해야제.{웃음}{키워서 짐장해야지.{웃음}}

10518 # 봄남새는 키아가: 조그 빼무:야 또 멀 갈제, 칠팔레.{봄남새는 키워서 조금 빼어 먹어야 또 멀 갈지, 칠팔월에.}

10518 # 크런테: 이 저 만날 봄남새는 큼거마 빼무꼬, 캐아감섬.{그런데 이 저 만날 봄남새는 큰 것만 빼어 먹고, 키워 가면서.}

10518 # 언자 칠팔남새는 자꾸 언자 미테 언자 자궁거 치이능거.{인제 칠팔남새는 자꾸 인제 밑에 인제 작은 것 치이는 것.}

10518 # 그걸 자꾸 빼내조오야대.{그걸 자꾸 빼어 내어 줘야 돼.}

10518 @ 그라몬 요: 마당에 송구나안 그 배차 안 이습니까?{그러면 여기 마당에 심어 놓은 그 배추 있잖습니까?}

10518 @ 그거는 씨로 뿌렁김니까, 아이모.{그것은 씨를 뿌린 겁니까, 아니면.}

10518 # 지금 가새 알구지 시푸리~이 인는 그거느:{지금 가에 알곳이 시퍼렇게 있는 그것은.}

10518 # 장녀네 내가 저:게 우리농가 노네 이거 송구문:는데.{작년에 내가 저기 우리 논가 논에 이거 심어 먹었는데.}

10518 # 그 우째 종자가 항개 낳썬.{그 어떻게 종자가 한 개 낳어.}

10518 # 그래 그걸 씨하겄따고 내가 언자 바다나:빼꺼등.{그래 그걸 씨하겄따고 내가 인제 받아 놓아 버렸거든.}

10518 # 요마침 데능걸:.{요만큼 되는 걸.}

10518 # 바다난:는데 인자 어서 해무올라꼬.{받아 놓았는데 인제 어서 해 먹으려고.}

10518 # 인자 모종을 사다가 앵기노코 모종사다 앵기노모로 항:개도 무울끼 업서예.{인제 모종을 사다가 옮겨 놓고 모종 사다 옮겨 놓으면 한 개도 먹을 것이 없어요.}

10518 # 딱:: 지자리 저 하나서 송구거등.{딱 제 자리 저 하나씩 심거든.}

10518 # 그래~이 나는 언자 씨 그 인능기라꼬 고고로 데끼다 시퍼서 가:시다가 흐쳐노옹께네 짐:부 봄배추가 데빼:, 알구지 그마.{그러니까 나는 인제 씨 그 있는 것이라고 그것을 될 것이다 싶어서 가에다가 뿌려 놓으니까 전부 봄배추가 돼 버려, 알곳이 그만.}

10518 # 이 쪽도 영:꼬 머 너풀너푸리 이리 쿵:거.{이 속도 없고 뭐 너풀너풀하게 이렇게 큰 것.}

10518 # 머 쪽때가 이:막사하~이 커올라가능거.{뭐 대궁이(?) 이만큼씩하게 커올라 가는 것.}

10518 # 지금 내나 난주: 선생님 똑똑기 쳐라보이소.(웃음){지금 내나 나중에 선생님 똑똑히 쳐다보십시오.(웃음)}

10518 # 알구지 그리 데:빼리.{알곳게 그렇게 되어 버려.}

10518 @ 그라모 언자 아네 지난버네 제가 받:덩거.{그러면 인제 안에 지난 번에 제가 봤던 것.}

10518 # 아 그 예 짝: 빼서 언자 해날:*. {아 그 예 짝 빼어서 인제 해 놓았*.*}

10518 @ 고거는 그래 고거는 뿌렁김니까?{그것은 그래 그것은 뿌린 겁니까?}

10518 # 그거는:.{그것은.}

10518 @ 고거 함: 말씀해 주이소.{그것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10518 # 이 꼬치판매이로 포 모조~이 나온다:임니까?{이 고추판처럼 포 모종이 나오잖습니까?}

10518 # 선생님 안주 그 안보신능가베?{선생님 아직 그 안 보셨는가 봐?}

10518 @ 잘 모릅니다.{잘 모릅니다.}

10518 # 꼬추모종매이로.{고추 모종처럼.}

10518 # 이 꼬치장사하는 사람 아니가, 모중.{이 고추 장사하는 사람 아니니, 모중.}

10518 # 처: 기매서 오*, 하모 요:는 호베.{저 김해서 오*, 응 이만한 흠에.}

10518 @ 요그마한테 너어가꼬.{이만큼한 데 넣어.}

10518 # 고라~이인는데 언자.{그렇게 있는데 인제.}

10518 # 요저느, 지그른 한 한 이삼년.{이 이전은, 지금은 한 한 이삼 년.}

10518 # 한 한 삼사오년 댄:능가?{한 한 삼사오 년 댄는가?}

10518 # 고 정도 요래 언자 요: 모종이 나오능기라.{그 정도 이렇게 인제 여기 모종이 나오는 거야.}

10518 # 배추로.{배추를.}

10518 # 배추갈때 데미는.{배추 갈 때 되며는.}

10518 # 모종 그이 언자 요런데 딱 함피~이 드러꺼등예.{모종 그것 인제 이런 데 딱 한 포기 들었거든요.}

10518 # 그래 이거는 머 빼모 이이기: 더 비쌍게네로.{그래 이것은 뭐 빼면 이 이것이 더 비싸니까.}

10518 # 빼무꺼로도 쏘물기 문송구능기라.{빼 먹게 촘촘히 못 심는 거야.}

10518 # 하모, 딱:딱 고마 지자리 세울꾸마 요리요리 마 딱: 요리 세아노코.{응, 딱 딱 그냥 제 자리 세울 것만 이렇게 이렇게 세울 것만 마 딱 이렇게 세워 놓고.}

10518 # 그건 빼무꺼도 엄서 그배추,(웃음) 내 배추씨 그거 (웃음) 빼무꺼로 흐쳐노응께네로 빼묵다 모나고 *** 내:: 지금 그래대:비:데여.{그것은 빼어 먹을 것도 없어 그 배추, (웃음) 내 배추씨 그것 (웃음) 빼어 먹기로 (하고) 뿌려놓으니까(?) 빼어 먹지도 못하고 *** 내 지금 그렇게 되어 버리데요.}

10518 @ 음, 그렇게네 아네 알뱅:거는 언자 말하자모 그 함포기함포기 사가: 송궁기:고. {음, 그러니까 안에 알 뻐 것은 인제 말하자면 그 한 포기 한 포기 사서 심은 것이고.}

예.{예.}

10518 @ 가에 언자.{가에 인제.}

알구지 여 저래 인능거는, 하모.{알קות게 이 저렇게 있는 것은, 그래.}

@ *** 그거는 씨 뿌릴따 그말씀이지예?{*** 그것은 씨 뿌렸다 그 말씀이지요?}

10518 # 내가 바다가저고 농까 하나 이스스 씨로 뿌링께네로 자가도 몬씨거씨.{내가 (씨를) 받아서 논 가 하나 있어서 씨를 뿌리니까 아무데도 못 쓰겠어.}

10518 # 그래 언자 종자로 이에 봉다리 등거는.{그래 인제 종자를 이게 봉지에 든 것은.}

10518 # 한 육칠처닐.{한 육칠천 원.}

10518 # 좀 조타쿠능거는 마:닐.{좀 좋다고 하는 것은 만 원.}

10518 # 그 종자도 올매 안듣니더, 딱 요마치 듣니더.{그 종자도 얼마 안 듭니다, 딱 이만큼 듭니다.}

10518 # 그래 언자 해가:꼬, 이 이리 뿌리능거는 내가 언자 소까무감섬, 캐에감섬 이라는 데.{그래 인제 해서, 이 이렇게 뿌리는 것은 내가 인제 속아 먹어 가면서, 키워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10518 # 이 모종을 사다 송구능거는 항:개도 빼무울끼: 업서.{이 모종을 사다 심는 것은 한 개도 빼어 먹을 것이 없어.}

10518 # 딱 지자리 지자리 딱 송구노응께.{딱 제 자리 제 자리 딱 심어 놓으니까.}

10518 ## 여:는 언자 꼬추모종은 점:부 기매서 옵니다, 기매.{여기는 인제 꼬추 모종은 전부 김해에서 옵니다, 김해.}

10518 ## 별씨버텅 공무~이 와서요, ** 꼬치 ** 우리 여: 우리 사라꼬.{별씨부터 공문이 왔어요, ** 꼬추 ** 우리 여기 우리 사라꼬.}

10518 # 기매서 만날 옵니더, 만날 오고.{김해서 만날 옵니다, 만날 오고.}

10518 # 아래 사닌장에 그: 딱빠~아찌베 강께네 내수 사람드른.{그저게 산인장에 그 딱방

아집에 가니까 내수 사람들은.}

10518 # 우째똥가 마 그 꼬치가 마 이막서해:.{어쨌든지 마 그 고추가 마 이만큼씩 해.}

10518 # 그래 "아주머~이 내수서 와소?" 쿵께네로, "예." 썬능기라.{그래 "아주머니 내수서 왔소?"라고 하니까, "예." 썬는 거야.}

10518 # "내수는 그라모 오테 꼬치모종을 하냐?" 이래 쿵께네로.{내수는 그러면 어디 고추 모종을 하냐?" 이렇게 말하니까.}

10518 # 하동 오디서 온다캐:.{하동 어디서 온다고 해.}

10518 # 하동 오디서 온다꼬.{하동 어디서 온다고.}

10518 # 그래 내수는 그 차떼이로 그래 오는데, 그 침:부 다 차로 이리 막 가꼬 오거등예. {그래 내수는 그 차떼기로 그렇게 오는데, 그 전부 다 차로 이리 막 가지고 오거든요.}

10518 # 요는 요는 판 하낙서 하낙서 요래 실꼬.{이런 이런 판 한 날씩 한 날씩 이렇게 신고.}

10518 # 박쓰가 딱 딱 여:가저고.{상자가(상자에) 딱 딱 넣어서.}

10518 # 그 꼬추 그거는 너무 조아.{그 고추 그것은 너무 좋아.}

10518 ## 내수 그거는 우찌 그 *****.{내수 그것은 어지 그 *****.}

그:는 여:꺼.{거기는 여기 것.}

10518 # 저:게 기매꺼 아난다캐.{저기 김해 것 안 한다고 해.}

10518 # 판테 한다캐.{판 데 (것) 한다고 해.}

10518 ## 기매 모 모종은 어마어마크단테, 지금:.{김해 모 모종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던데, 지금.}

10518 # 아 우서네 여: 기억때 여: 그 저 저 그속 저 저 모다네 고:도.{아 우선에 여기 *** 여기 그 저 저 그속 저 저 못안에 거기에도.}

10518 # 쿵::거로 세동을 해날:더랑게, 그렇게 황새~이는 만날 저거 샤와.{큰 것을 세 동을 해 놓았더라니까, 그러니까 황생이는(?) 만날 자기네 **.}

10518 # 그 저:게 그스기 그 대림 차가 이승께네로.{그 저기 그속이 그 도련님 차가 있으니까.}

10518 # 그래 가가저고 고마 포로 만날 사가온다:이가.{그렇게 가서 그냥 포를 만날 사오잖겠니.}

10518 @ 저 요 동네:서는 언자 승구능거는 주로 언자 짐장 우리가 무울껌만 승군단 말씀이지예?{저 이 동네에서는 인제 심는 것은 주로 인제 짐장 우리가 먹을 것만 심는다는 말씀이지요?}

10518 @ 시장에 팔끼 아이고?{시장에 팔 게 아니고?}

예.{예.}

10518 @ 혹시 머 그래도 시장에 하문 파라.{혹시 뭐 그래도 시장에 한 번 팔아.}

10518 @ 배차나 상추거통거 함: 파라본 그런 이리 이승니까?{배추나 상추 같은 것 한 번 팔아본 그런 일이 있습니까?}

10518 # 나: 그렇거 몬하겸때여.{나는 그런 것 못하겠데요.}

10518 ## 혹:: 가다 그는 사라미 일찌.{혹 가다 그런 사람이 있지.}

10518 # 여: 한사람배끼 업서 언자.{여기(에는) 한 사람밖에 없어 인제.}

10518 # 우게 여: 한 사라미 호방이파리고 머시고 마 만날 가가서 파라사아도 그렇거 늘푼수 엄습니다.{위에 여기 한 사람이 호박 이파리고 뿔이고 마 만날 가져 가서 팔아 썬아도

그런 것 늘폰수 없습니다.}

10518 # 나마는 사람 주근 사람 보모: 그리한 사람 늘폰수 엄서.{나이 많은 사람 죽은 사람 보면 그리한 사람 늘폰수 없어.}

10518 # 우리드른 고마 이시모 목꼬 엄스모 쪼끔 사서 목꼬.{우리들은 그만 있으면 먹고 없으면 조금 사서 먹고.}

10518 # 마 이래하지 애터지 그영거 그그머.{마 이렇게 하지 애터지게 그런 것 그 그 뭐.}

10518 @ 그 배추나: 그 그 무시: 요언자 뽕블때는 머 머 주이할 찌미 이습니까?{그 배추나 그 그 무 이 인제 뽕을 때는 뭐 뭐 주의할 점이 있습니까?}

10518 # 뽕블때여? 인자 짐장할라쿠메는.{뽕을 때요? 인제 짐장하려고 하려는.}

10518 # 무시넌:자 아페 빼지.{무는 인제 앞에 빼지.}

10518 # 알:배기 이저네는 침:부 다 집까다: 굴로 파놓고 이 무시로 갈따 승곤찌마는.{본래(?) 이전에는 전부 다 쥔 가에다 굴을 파 놓고 이 무를 갖다 심었지마는.}

10518 # 언자 지플 이리 뭉기가:꼬 언자 아구지르 이리 내:노코.{인제 쥔을 이렇게 묶어서 인제 입구를 이렇게 내어 놓고.}

10518 # 이리 내:목꼬 이랴:찌마는.{이렇게 내어 먹고 이랬지마는.}

10518 # 요즈른 침:부 드레 호치 문능기라.{요즘은 들에 뿌려 묻는 거야.}

10518 # 그 여페 무시 뺨 그 여페다가.{그 옆에 무 뺨 그 옆에다가.}

10518 # 그 땅을 마 이:리 파노코.{그 땅을 마 이렇게 파 놓고.}

10518 # 그래가 호클 비리 바로 더푸예.{그래서 흙을 이렇게 바로 덮어요.}

10518 # 그래가꼬 언자 머 요새는 머 푸대 이렇거 안:심니까?{그래서 인제 뭐 요새는 뭐 푸대 이런 것 있잖습니까?}

10518 # 그넌가:서 고마 한포대 갈따노코 그놈 다 무우모 또 가서 호클 요래 파고 이렇게.{그놈 가지고 와서 그냥 한 포대 갖다 놓고 그놈 다 먹으면 또 가서 흙을 이렇게 파고 이러니까.}

10518 # 그래함께네로 무시가 바라미 안 들고.{그렇게 하니까 무가 바람이 안 들고.}

10518 # 이저네는 점:부 다 지블 가꼬와서 직까에 구디기로 파노코 지플 이래 마 이래가꼬 이 쭈시가꼬 내무웁다:임니까?{이전에는 전부 다 집으로 갖고 와서 쥔 가에 구더이를 파 놓고 쥔을 이렇게 마 이렇게 해서 이 쭈서서 내어 먹었잖습니까?}

10518 # 바라미 드러서 목따 몬해.{바람이 들어서 먹지도 못해.}

10518 # 그런데 요즈른 고마 땅에 호깨다 이래 딱 무등계네 바라미라꼬는 안듣니더.{그런데 요즘은 그냥 땅에 흙에다 이렇게 딱 묻으니까 바람이라고는 안 듭니다.}

10518 # 이전 사람드른 한다캥게 만날 용만 봉기라.{이전 사람들은 한다고 한 것이 만날 고생만 한 거야.}

10518 # 요새는 마 무시 이리 파가저고 고마 그 여페 고마 구디기 지담하~이 이리 파노코.{요새는 마 무 이렇게 파서 그냥 그 옆에 그냥 구덩이 길다랗게 이렇게 파 놓고.}

10518 # 마 호클 바로 여: 딱 더푸베리모 바람 향:개도 안 드 아무것도 ** 바람은 안들러.{마 흙을 바로 여기에 딱 덮어 버리면 바람 하나도 안 들 아무것도 ** 바람은 안 들어.}

10518 # 이 흑새: 마 바라미 몬드러가능갑데.{이 흑 새에 마 바람이 못 들어가는가 보데.}

10518 # 지베 가을 사람 아무도 엄습니더.{집에 가져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0518 # 지베 문서름.{집에 ***.}

10518 @ 무시가 그러치예?{무가 그렇지요?}

10518 @ 그러면 배차는 그 알빨:라카면:자.{그러면 배차는 그 알 배려 하면 인제.}

10518 @ 지난버네도 와 집가꼬 안 무꺼습니까?{지난 번에도 왜 짚으로 묵잖았습니까?}

10518 # 몽건는데 오래는 안대:.{묵었는데 올해는 안 돼.}

10518 # 아래 내 빼봉께네로.{그저께 내 빼어 보니까.}

10518 # 아래 우리 자근지베 가서, 자 우리 자근지베도 열 마다~아 근 남새바를 해가:꼬 이래헨:데.{그저께 우리 작은집에 가서, 작 우리 작은집에도 여(기) 마당에 거(기) 남새밭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10518 # 배추르 뺑께 안빠지데여.{배추를 빼니까 안 빠지데요.}

10518 # 우리 거:는 이리하모 휘떡 너머가요.{우리 거기는 이리하면 휘떡 넘어가요.}

10518 # 그래 배추르 빼가꼬 이 거껍띠기 깨고.{그렇게 배추를 빼서 이 겉껍질 깨고.}

10518 # 그 중가네 인는 껍띠이가 점:부 대가 요래뿌서, 중가네 가서.{그 중간에 있는 껍질 이 전부 대가 이렇게 돼 버렸어, 중간에 가서.}

10518 # 고라빠서.{끓아 버렸어.}

10518 # 그옇또 머 배추가 비~이 드런능갑떼.{그것도 뭐 배추가 병이 드렸는가 보데.}

10518 # 그렇게 마 뿌리도 심도 엄꼬 고마 알구지.{그러니까 마 뿌리도 힘도 없고 그만 알 곳이.}

그때 똥빠루 우에 아넨나? 하데.{그때 똥비료 위에 안 했니? 하데.}

10518 # 똥빠료 그거 내나 푸대에 요:마치 나뭇거 *** 고오는.{똥비료 그것 내나 푸대에 요만큼 남은 것 *** 그것은.}

*****.{*****.}

10518 ## 그 예해~이 마내.{그 영향이 많아.}

10518 # 자근지베도 그해따쿠네.{작은집에도 그것 했다고 하네.}

10518 # 그라머 그기: 죽찌 그라모 안주거?{그러면 그것이 죽지 그러면 안 죽어?}

10518 ## 우에 해꺼등.{위에 했거든.} # 다 커가저고 그란데.{다 커서 그렇는데.}

10518 ## 이거느 뿌리~이 아나고?{이것은 뿌리 안 하고?}

10518 # 니가 우예?{뉘가 위에?}

10518 ## 우에다가 그게 그 *** 겉떼.{위에다가 그것이 그 *** 갈데?}

아이가?{무슨 소리?}

10518 # 아 그러하~이 내나 골디리서 더편는데, 머:~{아 그러하니 내나 골 만들어 덮었는데, 뭐?}

10518 ## 아이 **하고 나서 몬달:따고 그 우에 호칭거 그이 머시라?{아이 **하고 나서 못 됐다고 그 위에 뿌린 것이 그것이 뭐야?} # 아이라.{아니야.}

10518 # 그어느 우리지베 거름이명거 내나.{그것은 우리 집에 거름 있던 것 내나.}

10518 # 덩기 덩기 사카노응거 그거 해서.{등겨 등겨 삭혀 놓은 것 그것 했어.}

10518 @ 그 오래는 쯔م 그러타해도 어째든 그 몽능거는 알 잘 배라꼬 몽능기:지예?{그 올 해는 쯔م 그렇다 해도 어쨌든 그 묶는 것은 알 잘 배라고 묶는 것이지요?}

10518 # 예, 아리 노::라~이 차가저고.{예, 알이 노랗게 차서.}

10518 @ 그 안몽꾸모 어떠습니꺼?{그 안 묶으면 어떻습니까?}

10518 # 안무꺼도 데기는 데는데.{안 묶어도 되기는 되는데.}

10518 # 욱시메 언자 쏘은 잘 차라꼬.{욕심에 인제 속 속은 잘 차라고.}

10518 # 그리 묻찌.{웃음}{그렇게 묶지.}

10518 # 이리 뭉끼지, 안 뭉끼도 대.{이렇게 뭉지, 안 뭉어도 돼.}

10518 # 내 욕시킨 언자 쪽 어서 차라꼬.{내 욕심은 인제 속 어서 차라고.}

10518 # 이 이리 버러지지 말고.{이 이렇게 벌러지지 말고.}

10518 # 어서 차라꼬 이리 뭉끼지.{어서 차라고 이렇게 뭉지.}

10518 # 안 뭉끼도 지 쏘근 다 차예.{안 뭉어도 제 속은 차요.}

10519 @ 언자 그: 그느 배차 뽐바가지고.{인제 그 그런 배추 뽐아서.}

10519 @ 짐장할때까지는 머 또 메칠 시가~이 걸립니까, 뽐자마자 짐장을 바로 합니까?
{짐장할 때까지는 뭐 또 며칠 시간이 걸립니까, 뽐자마자 짐장을 바로 합니까?}

10519 # 아 뽐자마자 그어는 해도 데고.{아 뽐자마자 그것은 해도 되고.}

10519 # 뽐바빼리모 고마 마 일칙 해빼리모 펜치.{뽐아 버리면 그만 마 일찍 해 버리면 편치.}

10519 # 그언데 그 하고 함께 다 추버서 나는 나가다 모하거서.{그런데 그 하고 하니까 다 추워서 나는 나가지도 못하겠어.}

10519 # (웃음) 그어도 시방 저리야 데거등.{(웃음) 그것도 시방 절여야 되거든.}

10519 # 소금무래.{소금물에.}

10519 @ 그런데 짐장.{그런데 짐장.} # 소금무른 오~올 정때나: 딱 언자 통에 요:서 언자 소금 흐치가 딱 밤새두루 이 수미 주운다:임니까?{소금물은 오늘 저녁때나 딱 인제 통에 여기에서 인제 소금 뿌려서 딱 밤새도록 이 숨이 죽잡겠습니까?}

10519 # 그라모 내엘 날마 새모 씨:꺼가:꼬 언자 딱:파이 그스해노오모 착착 가따나노오모 언자.{그러면 내일 날만 새면 씻어서 인제 딱 딱 이 그스해 놓으면 착착 갖다 놓으면 인제.}

10519 # 무리 쪽 빠지거등.{물이 쪽 빠지거든.}

10519 # 고라민:자 꼬치가리 빠사노옹거 양념 그어 머.{그러면 인제 고춧가루 뽐아 놓은 것 양념 그것 뭐.}

10519 # 막 서꺼서 다라~이 서꺼가지고 언자.{막 섞어서 '다라이' 섞어서 인제.}

10518 # 무 쪽 빠지고 나모 내엘 정때 새나.{물 쪽 빠지고 나면 내일 저녁 때 새나.}

10519 # 언자 양념 요: 치대고 마 여: 먼.{인제 양념 여기에 치대고 마 여기에 뭐.}

10519 @ 그라면 그: 드러가는 양념에는 어떻게: 이습니까?{그러면 그 들어가는 양념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519 # 양념네?{양념요?}

10519 # 그 열라카모 한정도 엄찌여.{그 넣으려고 하면 한정도 없지요.}

10519 @ 거: 드러가는 양념 그 하나 하나하나 쫘 말썸해 보이소.{거기에 들어가는 양념 그 하나 하나하나 쫘 말썸해 보십시오.}

10519 # 양념네?{양념요?}

10519 # 꼬추까리 빠사가꼬 꼬추가리에다가.{고춧가루 뽐아서 고춧가리에다가.}

10519 # 마~알도 언자 엄시모 사각꼬 까각꼬 언자 마늘 좀 사서 역코.{마늘도 인제 없으면 사서 까서 인제 마늘 좀 사서 넣고.}

10519 # 생강 좀 사서 역코.{생강 좀 사서 넣고.}

10519 # 또: 굴: 연는 사라몬 언자 우서넥.{또 굴 넣는 사람은 인제 우선에.}

10519 # 이 서카라쿠능거는 당 당시 묵능데 해야테지 질게 묵능데는 다마노오모 안테거 등.{이 석화라고 하는 것은 당 당시 먹는 데 해야 되지 질게 먹는 데는 담아 놓으면 안 되

거든.}

10519 # 질:기 뭉는데는 언자 참조구새끼 요령거: 시자아 가면 나거등예.{길게 먹는 데는 인제 참조기 새끼 이런 것 시장에 가면 나거든요.}

10519 # ** 그:령거 다 배추가 조코.{** 그런 것 다 배추가 좋고.}

10519 # 또 인는 사람드른 또 고: 해보자시퍼서 언자 참조구새끼 고름도 언자 사다가.{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해 보자 싶어서 인제 참조기 새끼 그놈도 인제 사다가.}

10519 # 함티에 배추 이래 쿵:거는: 민쪼가리 여섯쪼가리 내야데고.{함지에 배추 이렇게 큰 것은 몇 쪼가리 여섯 쪼가리 내어야 데고.}

10519 # 배추 요령거느 고마 또겔겔또 엄꼬.{배추 이런 것은 쪼겔 것도 없고.}

10519 # 그령거느 열:피로도 엄꼬 고마.{그런 것은 넣을 필요도 없고 그만.}

10519 ## 어지 어지 자~아 가봉게넌.{어제 어제 장에 가 보니까.}

10519 ## 임:추리 인따고.{**이 있다고.}

10519 ## 예: 배추 김장한다꼬.{예 배추 김장한다꼬.}

10519 ## 여자는 걸차주고: 남자는 적꼬 그러사테.{여자는 가르쳐 주고 남자는 적고 그렇게 해 쌓데.}

10519 ## 머: 마~알 두쪽 머 머 또.{뭐 마늘 두 쪽 뭐 뭐 또.}

10519 # 고치: 언자 떡빠~아 가서 꼬치 꼬치 가리는 언자 도늘 주고 빠수는데.{고추 인제 떡방아 가서 고추 고춧가루는 인제 도늘 주고 뺏는데.}

10519 # 마느른 언자 그냥 언자 기계다 가라조.{마늘은 인제 그냥 인제 기계에다 갈아 줘.}

10519 # 그냥 그냥 기계다 가라주모 언자 가꼬 와서 언자.{그냥 그냥 기계에다 갈아주면 인제 갖고 와서 인제.}

10519 # 그 언자 단:자 시방 감 무울꺼는 언자 굴 좀 여어도 데고.{그 인제 단 인제 시방 갖 먹을 것은 인제 굴 좀 넣어도 되고.}

10519 # 오래 무울꺼느 언자: 고마 하고지브모 마 조구새끼 그거 고마 좀 크모 또개가: 여코 고마.{오래 먹을 것은 인제 그냥 하고 싶으면 마 조구 새끼 그것 그냥 좀 크면 쪼개서 넣고 그냥.}

10519 # 함 피:예 고마 함 뭉테이에 고마 마 두개서 여튼지 항개서 여튼지 이래각꼬 언자 그래해서 묵기도 하고.{한 포기에 그냥 한 뭉텅이에 그냥 마 두 개씩 넣든지 한 개씩 넣든지 이래서 인제 그렇게 해서 먹기도 하고.}

10519 # 고마 그령거 안 여어도 고마 마늘 마늘 마이 드러가모 고마 대:.{그냥 그런 것 안 넣어도 그냥 마늘 마늘 많이 들어가면 그냥 돼.}

10519 # 그: 그:인자.{거기에 거기에 인제.}

마~알 말고 언자 그: 우째가: 저 청각 여코:.{마늘 말고 인제 그 어떻게 해서 저 청각 넣고.}

10519 # 마늘 생강 청가:.{마늘 생강 청각.}

배 배: 익꼬.{배 배 있고.}

10519 ## 오망기: 다 드가지 머.{온갖 게 다 들어가지 뭐.}

10519 # 고리:.{그렇게.}

카모.(헛기침){라고 하면.(헛기침)}

10519 # 저: 고리 세가지는 단순간 드러가는데.{저 그렇게 세 가지는 한꺼번에(?) 들어가는

데.}

10519 # 고게서 언자 잘: 다물라쿠메는 언자 조구새끼로 여튼지.{거기에서 인제 잘 담으려고 하면 인제 조기 새끼를 넣든지.}

10519 # 머: 깔치로 사가저고 머 기계에 가라 여튼지 그렇거는 할 피로도 엉꼬.{뭐 깔치를 사서 뭐 기계에 갈아 넣든지 그런 것은 할 필요도 없고.}

10519 ## 생:지여테, 새비:.{새우(?) 넣테, 새우.}

10519 # 언자 끈치가리 언자 마~알 여어 치델때 언자.{인제 고춧가루 인제 마늘 넣어 치델 때 인제.}

10519 # 새우전 이시모 그걸또 언자 가늘 잘 마차야 데지 마니 여어도 안데고 작기 여어도 마시 엄판 마:라.{새우젓 있으면 그것도 인제 간을 잘 맞춰야 되지 많이 넣어도 안 되고 적게 넣어도 맛이 없단 말이야.}

10519 # 새우 저기: 또 저지라서 짬파 아임니꺼?{새우 저게 또 젓이라서 짜醤습니까?}

10519 # 그람:자 밀치 언자 밀치전.{그러면 인제 밀치 밀치젓.}

10519 # 이거넌:자 보통 보모 다 여치예.{이것은 인제 보통 보면 다 넣지요.}

10519 # 밀치전또 이 꼬치가리에 대해서 내 짐장에 대해서 아라서 그걸또 잘 해야 대:.{밀치젓도 이 고춧가루에 대해서 내 짐장에 대해서 알아서 그것도 잘 해야 돼.}

10519 # 마~이 여어모 짹꼬 경꼬.{많이 넣으면 짜고 겹고.}

10519 # 새우저슨 새우전또 마~이 여어모 짹꼬 이는 겹찌는 아난는데.{새우젓은 새우젓도 많이 넣으면 짜고 이는 겹지는 않은데.}

10519 # 밀치저든 마~이 여어모 짐자~이 꺼머 그스기, 꼬치가리가.{밀치젓은 많이 넣으면 짐장이 겹어 그스기, 고춧가루가.}

10519 # 이기 좀 고기 좀 짬파 아임니꺼?{이게 좀 고기 좀 겹醤습니까?}

10519 # 그래가저고 요즈믄 언자 이저네는 막: 불로 때:악꼬 물로 부서 다리각꼬 이래헨데, 요즈믄 침:부 썩겉로 고마.{그래서 요즘은 인제 이전에는 막 불을 때서 물을 부어서 다려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전부 생것으로 그냥.}

10519 # 처각꼬:, 도메다 처가꼬.{쳐서, 도마에다 쳐서.}

10519 # 이래 꼬치가리가 요리 오모 이젠: 그기 또 쪼끔 전또 다리하능거카마 나아.{이렇게 고춧가루가 이렇게 오면 이젠(?) 그게 또 조금 젓도 다려하는 것보다 나아.}

10519 @ 아까 청가기라 캐씀니까?{아까 청각이라고 했습니까?}

예.{예.}

10519 @ 그기 멈니까?{그게 뭘니까?}

청강네?{청각요?}

@ 예.{예.}

10519 @ 예, 그기 멈니까?{예, 그게 뭘니까?}

10519 # 서앵님 암반능가베여.{선생님 안 보았는가 봐요.}

@ 모름니더.{모릅니다.}

10519 # 우리 두주에, 저: 부어케 드러가는데.{우리 뒤주에, 저 부엌에 들어가는데.}

10519 # 까망 봉다리 요만한 하나 이씨요.{검은 봉지 이만한 것 하나 있어요.}

10519 # 향: 가져 오 보래.{한 번 가져 와 봐.}

10519 ## 사 난:나?{사 놓았니?}

10519 # 으~으, 사나:서.{응, 사 놓았어.}

10519 # 고: 비이제, 그거.{거기에 보이지, 그것.}

10519 ## 똑 거시~이거치 흘러우 거시.{꼭 지렁이처럼 *** **}.}

10519 # 고: 까망 봉다리 함: 드리보래.{그 검은 봉지 한 번 들어 봐.}

10519 # 으~으, 그거.{응, 그것.}

10519 # 요거는 마~이 여어모 조와.{이것은 많이 넣으면 좋아.}

10519 # 이게 해우거등.{이게 해우거든.}

10519 # 요거슬 무레 여: 당구메느.{이것을 물에 넣어 담그며는.}

10519 # 부십니다, 나탈나탈하~이.{붓습니다, 나탈나탈하게.}

10519 # 요래 까무꾸름해:지거등, 무레 부르모.{이렇게 거무스름해지거든, 물에 붙으면.}

10519 # 마 춤::부 소안 가니거등예, 소금:.{마 전부 모두 간이거든요, 소금.}

10519 # 거더가저고.{걸어 가지고.}

10519 @ 이거 바다서 납니까?(이것 바다에서 납니까?)

응.{응.}

10519 # 바다에 언자, 바다에서 이걸: 따가저고 소고메다 이 저리논는기라, 그래 말류는기라.{바다에 인제, 바다에서 이걸 따서 소금에다 이 절여 놓는 거야, 그렇게 말리는 거야.}

10519 # 이 점:부 다 가니거등예, 소금:.{이 전부 다 간이거든요, 소금.}

10519 # 이거는 마이 여어모 조와, 짐장예.{이것은 많이 넣으면 좋아, 짐장예.}

10519 # 요거이 저어게 거슴, 김내가 나:.{이것이 저기 거슴, 김내가 나.}

10519 # 해우 요령거는 마~이 여어모.{해우 이런 것은 많이 넣으면.}

10519 # 이거 오쳐너:치다.{이것 오천 원어치다.}

10519 # 인:또 비싸, 이걸또.{이것도 비싸, 이것도.}

10519 # 이거 당구모예 새:파랴습니다, 까모꾸로:마~이.{이것 담그면요 새파랴습니다, 거무스름하게.}

10519 # 나탈나탈하~이 보콜보콜해 그래 비: 이.{나탈나탈하게 보콜보콜하게 그렇게 보여이.}

10519 @ 네::{네.}

놀리찌게능 크데:.{놀릴 적에는 크데.}

10519 # 으~으, 미테 누리모 커:, 부르모 부르모 커:, 누턱때.{응, 밑에 놀리면(?) 커, 붙으면 붙으면 커, **때.}

10519 # 이걸 씨겔짜게도여 이 흥무리 근::대로 나갑니더.{이걸 씻을 적에도요 이 흙물이 겹나게(?) 나갑니다.}

10519 # 바다서 바루 그: 흑소게 인는 거 건저가저고 고마 소고물 저리능갑때, 그래가저고 말류능갑때.{바다에서 바로 그 흙속에 있는 것 간저서 그냥 소금을 절이는 가 보테, 그래서 말리는가 보테.}

10519 # 흑소게서 나오능거는 아인테.{흙속에서 나오는 것은 아인테.}

10519 @ 바다 바다에서도 그라든 미테 흥미테서 나옵니까?(바다 바다에서도 그러면 밑에 흙밑에서 나옵니까?)

아니, 도레 판다캐.{아니, 돌에서 판다고 해.}

10519 # 도레 따도: 우물(?) 보통 고마 흐키 마~이 인는갑때여.{돌에서 따도 ** 보통 그냥

흠이 많이 있는가 보데요.}

10519 # 대:장 시치가저고 고마 소고물 간치는 몬냉이라.{대강 씻어서 그냥 소금을 간치는 모양이야.}

10519 # 이 가오: 시끄로 흥무리 얼::마나 나옵니더 이거.{이것 가져와 씻으면 흠물이 얼마나 나옵니다(얼마나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것.}

10519 # 메::뿌 주물러 씨꺼야 대.{몇 번 주물러 씻어야 돼.}

10519 # 소고리 바차가저고 또 짜가저고 또 주무주고 주무리고.{소쿠리 받쳐서 또 짜서 또 주무르고 주무르고.}

10519 # 그래가: 총::총 씨:리여모느 요기: 언자 해우내가 낭께.{그래서 총총 썰어 넣으면 이것이 인제 해우내가 나니까.}

10519 # 바다에 김:내가 낭께.{바다의 김내가 나니까.}

10519 # 요거는 청가.{이것은 청각.}

10519 @ 해우내가 난다가능거는 김내가 난다느 마릅니까?{해우내가 난다고 하는 것은 김내가 난다는 말입니까?}

예.{예.}

10519 # 요거 무레 부러노오모예 요막사합니다.{이것 물에 불어 놓으면요 이만큼씩 합니다.}

10519 # 이카마 툭찌다.{이것보다 두껍다.}

10519 # 머 하딱 부러노오모.{뭐 ** 불어 놓으면.}

10519 # 고콜고콜하~이.{고콜고콜하게.}

10519 # 비슬때는 우리는 이거 사아다 모난다.{비쌀 때는 우리는 이것 사지도 못 한다.}

10519 # 메치너치 사도 마 요마치빠끼 안준다.{몇 천 원어치 사도 요만큼밖에 안 준다.}

10519 # 그런데 요거는 해우내가 나서 마~이 드러가모 조와.{그런데 이것은 해우내가 나서 많이 들어가면 좋아.}

10519 # 요새 아:드른 또 이거 안 여어 **** 벌레라꼬 안몽는다, 김치.{요새 아이들은 또 이것 안 넣어 **** 벌레라고 안 먹는다, 김치.}

10519 @ (웃음) # 툭 벌레:꺼등.{꼭 벌레 같거든(?).}

10519 # 칼로 총:총 씨러서 해노오모 딱: 요만치서 해노오모.{칼로 총총 썰어서 해 놓으면 딱 요만큼씩 해 놓으면.}

10519 # 툭 시퍼러~이 벌레 거타, 시커머~이.(웃음){꼭 시퍼러니 벌레 같다, 시커머니.}

10519 # 요거는 마~이 여어모 김장이 조와.{이것은 많이 넣으면 김장이 좋아.}

10519 # 요: 나또:, 고마 갠차나.{여기에 놓아 뒀, 그냥 팬찮아.}

10519 @ 그러면 아까 언자 청각또 드러가고.{그러면 아까 인제 청각도 들어가고.}

여기 청가.{이것이 청각.}

10519 # 생강.{생강.}

10519 # 마늘.{마늘.}

10519 # 언자 새우절 이시모 새우절 언자.{인제 새우절 있으면 새우절 인제.}

10519 # 저든 아내본 사람 그 볼래 마 까뜩꺼리모 짝꼬 몬몽는다이.(웃음){젓은 안 해 본 사람 그 본래 마 까딱하면 짜고 못 먹는다.(웃음)}

10519 # 고: 언자 가늘 잘 마차 씨야 데고.{그 인제 간을 잘 맞춰 씨야 되고.}

10519 # 새우절또 이 쪼사가꼬 여:야 대.{새우절도 이 쪼아서 넣어야 돼.}

10519 # 도매다 타다닥 처가:꼬.{도매에다 타다닥 처서.}

10519 @ 아까 조구새끼를 연:다 그러시는데.{아까 조기 새끼를 넣는다 그러시는데.}

예.{예.}

10519 @ 조구새끼를 통채로 여쭙니까, 그거를 저를 만드려 여쭙니까?{조기 새끼를 통채로 넣습니까, 그것을 젖을 만들어 넣습니까?}

10519 # 이거로: 어제 장구~이지베네 강께네 장구~이딸 그거는 싹: 가라주더라.{이것을 어제 장군이 집에 가니가 장군이 딸 그것은 싹: 알아주더라.}

10519 # "할매, 가라주까?"쿠데.{ "할머니, 알아 줄까?"라고 하데.}

10519 # "아이, 가라주모 더 조치."{"아이, 알아 주면 더 좋지."}

10519 # 어 미스기매이로 요리 저저 저 먹 가능기계 요마난: 나발가통기 이때:.{어 믹서기 처럼 이렇게 저저 저 뭇 가는 기계 이만한 나팔 같은 것이 있데.}

10519 # 고:뿌가꼬 이 마~알 가득끼 싹:: 가라주데.{거기에 부어서 이 마늘 같듯이 싹: 알아 주데.}

10519 # 싹통하더라이.{싹통하더라.}

10519 @ 그라모 가라가:고 저즌 아나고 그냥 바로 여쭙니까?{그러면 알아서 젖은 안 하고 그냥 바로 넣습니까?}

10519 # 고고마 여:물라쿠모 전 안여어도 데고.{그것만 넣어 먹으려고 하면 젖 안 넣어도 되고.}

10519 # 전 녀어도 데고.{젖 넣어도 되고.}

10519 @ 말고 언자.{말고 인제.}

다:: 고마 합동이 데능기라 고마.{다 그냥 합동이 되는 거야 그냥 .}

@ 말고 언자.{말고 인제.}

10519 @ 그 아까 조구새끼.{그 아까 조기 새끼.}

음:{음.}

10519 # 빠승거.{빵은 것.}

@ *** 어~어 빠승거.{*** 어 빵은 것.}

조구새끼 안 빠사:도.{조기 새끼 안 빵아도.}

10519 # 이 저 해빙가: 가마 자자낭거 마~이 이스끼마:.{이 저 해변 가 가면 자잘한 것 많이 있을 거야.}

10519 # 가통갑시모 쪼끄댄:서한 요령기: 조와.{같은 값이면 자그마한 이런 게 좋아.}

10519 # 이:느 온마리 고마 배추피이 요리 머 그숙할때 고마 따 해노코.{이것은 온마리 그냥 배추 포기 이렇게 그숙할 때 그냥 딱 해 놓고.}

10519 # 마 두개썰마 딱따 여:노모 쪼게다 여:노모.{마 두 개씩만 딱 딱 넣어 놓으면 속에 다 넣어 놓으면.}

10519 @ 쪼글 그대로 다 듬니까, 조구새끼 쪼도 다 두고, 아니모 쪼근 빼내고.{속을 그대로 다 듬니까, 조기 새끼 속도 다 두고, 아니면 속은 빼내고.}

10519 # 아이, 쪼 업서:.{아이, 속 없어.}

10519 @ 조구새끼 쪼기 업습니까?{조기 새끼 속이 없습니까?}

아이, 쪼 업서:.{아이, 속 없어.}

10519 # 쪼기 이서도 머머 요만:치 인는거 그 우째 빼내킨데?{속이 있어도 뭐 뭐 이만큼 있는 것 그 어떻게 빼낼 건데?}

10519 # 이막상:거 요막:상:거 그는거는.{이만한 것 요만한 것 그런 것은.}

10519 # 어자 요기 언자 큼기:{인제 이것이 인제 큰 게.}

10519 # 그걸또 참조구: 참조구새끼 그렇기: 마시서.{그것도 참조기 참조기 새끼 그런 게 맛있어.}

10519 # 배때이가 노:라~이.{배때기가 노라니.}

10519 # 조매새:도 참조구새끼 그어느 배때이가 노라커등.{조그마해도 참조기 새끼 그것은 배때기가 노랑거든.}

10519 # 이 미테 여: 날감지 이거다고.{이 밑에 여기 지느러미 이것 하고.}

10519 # 고고는 참조구고.{그것은 참조기고.}

10519 # 쪼개~이 노무래이는 그거는 참조구는 아~이라.{조금 노란 그것은 참조기는 아니야.}

10519 # 가통 감시모 참조구 그기: 마시서.{같은 값이면 참조기 그것이 맛있어.}

10519 @ 그라멘:자 켈국 조구도 양니메 쓱쓱 버무리지능기지에?{그러면 결국 조기도 양념에 쓱쓱 버물려지는 것이지요?}

10519 # 고마 꼬치가리오 지 씨램: 대.{그냥 고춧가루와 치 치대면 돼.}

10519 # 마느라고 마 이걸하고 여어서 함께 여어서 마 주물룩쭈물룩해가저고.{마늘하고 마 이것하고 넣어서 함께 넣어서 마 주물럭쭈물럭해서.}

10519 # 그라고 마 배추 며 척:{웃음}{그리고 마 배추 뭐 척.{웃음}}

10519 # 배추이파리는 {웃음} 착착착 개얌서 고마 한주무 여어서 마 우두두 문때가: 고마 착착 여:노:모 대.{배추 이파리는 {웃음} 착착착 개면서 그냥 한 주먹 넣어서 마 우두두 치대서 그냥 착착 넣어 놓으면 돼.}

10519 ## 그 밀치로 또 보까가:꼬 짐치여테, 마~이.{그 밀치를 또 볶아서 김치에 넣데, 많이.}

10519 # 밀치로 보까가저고 빠사가저고 그 인자 마시 우리나라꼬 밀치만 우리나라꼬, {하이다}.{밀치를 볶아서 빵아서 그 인제 맛이 우리나라고 밀치 맛 우리나라고, {아니다}.}

10519 @ 짐장은 보통 누구하고 가치 합니까?{짐장은 보통 누구하고 같이 합니까?}

10519 # 조심중은 점: 보통 다 조금하지.{웃음}{조생중(?)은 전부 보통 다 조금 하지.}

10519 # 우리넌:자 아이 언자 자 저어게.{우리는 인제 아이 인제 제 저게.}

10519 # 이우집에선 골라: 주기도 하고.{이웃집에선 골라주기도 하고.}

10519 # 서로서로가 이리 언자.{서로 서로가 이렇게 인제.}

10519 # 우리 이리 언잔 언잔.{우리 이렇게 인제 인제.}

10519 # 우리 사촌드리 인 조카드라고 이렇게 이승게 언자.{우리 사촌들이 있 조카들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인제.}

10519 # 가치 인자:{같이 인제.}

10519 # "오~올 우리 지배 하로 오이라."{"오늘 우리 집에 하러 오너라."}

10519 # "내엘 너거 해:라."{"내일 너희들 해라."}

10519 # {웃음}"모래 너거 해:라." 그러하지라고.{웃음}"글피 너희들 해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10519 # 언자 또이 저거 새끼드리 이스모 저거 새끼드리 와서 썩 해대 해다주기도 하고. {인제 또 자기들 자식들이 있으면 자기들 자식들이 와서 썩 해다 해다 주기도 하고.}

10519 # 이 참 더디거등:.{이 참 더디거든.}

10519 # 배초 그 딱딱 또개노응거예.{배추 그 딱딱 쪼개 놓은 것요.}

10519 # 그 함피~이 그 이파리 조치고 거이 양념 그 치대노응거.{그 한 포기 그 이파리 젓히고 거기에 양념 그 치대 놓은 것.}

10519 # 문때가:꼬 여: 뭉치가저고 착착 여코 할라쿠모 좀 더디다.{치대서 여기에 뭉쳐서 착착 넣고 하려고 하면 좀 더디다.}

10519 # 그렇게 소니 마느모 장깐 해빠.{그러니까 손이 많으면 잠깐 해 버려.}

10519 # 소니 마~을쭈룩.{손이 많을수록.}

10519 # 그라모 밥재~이는 그람: 김치로 우째합니까?{그러면 밥쟁이(조사자의 아내)는 그러면 김치를 어떻게 합니까?}

10519 # 사다 자시나요?{사다 자시나요?}

10519 @ 아임니더, 어지 김치 해습니더.{아닙니다, 어제 김치 했습니다.}

10519 # 어지 해서:~{어제 했어?}

10519 # 마시께 해나꾼네:~{맛있게 해 놓았겠네.}

10519 @ (웃음){(웃음)} # 언자 자라 자라싱긴데 머.{인제 잘 하 잘 하실 건데 뭐.}

@ 저기:~{저기.}

 # 어머니만테 배아서.{어머님한테 배워서.}

 @ 예:~{예.}

10519 @ 하내: 짐장을 한 뽕페기나 합니까?{한 해에 짐장을 한 몇 포기나 합니까?}

10519 # 우리 이리 하능거는.{우리 이렇게 하는 것은.}

10519 # 우리 초네 이리 하능거는 뽕페기도 업서.{우리 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몇 포기도 업서.}

10519 # 도시에 언자 사:서 뭉는 사라미: 뽕페기마 하모 언자 우리 뭉는다, 요새는 머 짐치냉장고가 이승게 머.{도시에 인제 사서 먹는 사람이 몇 포기만 하면 인제 우리 먹는다, 요새는 뭐 짐치냉장고가 있으니 뭐.}

10519 # 그 한:통 해서 여:나:도 머 일러늘 무:도 까딱엄꼬 이너늘 무:도 까딱엄따쿠네.{그 한 통 해서 넣어 놓아도 뭐 일년을 먹어도 까딱없고 이년을 먹어도 까딱없다고 하데.}

10519 # 그렇게 그어느 아무 소애~이 엄겨서.{그러니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겠어.}

 @ 그렇게:~{그러니까.}

10519 @ 대충 할머~이는 옌나레:~{대충 할머니는 옛날에.}

10519 @ 그 페기느 이슬때 아임니까?{그 포기는 있을 때 아십니까?}

10519 @ 내가 머 수물페기 해따, 오십페리르 해따, 이렇거 이슬꺼 아임니까?{내가 스물 포기 했다, 오십 포기를 했다, 이런 것 있을 것 아십니까?}

10519 # 그렇건 업서, 이런데느.{그런 것 없어, 이런 데는.}

10519 # 이런데는 고마 저거 종재해가저 종자 사가저고 송구능거는 고마 인:대로 다 담능기라.{이런 데는 그냥 저것 종자해서 종자 사서 심는 것은 그냥 있는 대로 다 담는 거야.}

10519 # 피기도 영꼬:~{포기도 없고.}

10519 # 그어느 도시에 사무:~: 사람드리 언자 "내가 뽕페마 하모 텐다."{그것은 도시에 사 먹는 사람들이 인제 "내가 몇 포기만 하면 된다."}

10519 # 장: 그래 사무:사양게 언자 그래 정가니 일찌:~{늘 그렇게 사먹어 쌓으니까 인제 그렇게 정함이 있지.}

10519 # 초네 이리 지게농사 진능거는 그걸또 엄꼬:~{촌에 이렇게 지게 농사 짓는 것은 그

것도 없고.}

10519 # 그렇거 해가꼬 테능가:?(웃음){그런 것 해서 되는가?(웃음)}

@ (웃음) 알게습니더.{(웃음) 알겠습니더.}

10519 ## 날추도 저거 너머 조오모 안데고.{**도 저것 너무 좋으면 안 되고.}

10519 ## 채수도 그러코, **** 저저 **** 시풍거.{채소도 그렇고, **** 저저 **** 싶은 것.}

10519 ## 그거 가져고 오라쿠거등.{그것 가져 오라고 하거든.}

10519 ## 너무 조응거는 안.{너무 좋은 것은 안.}

10519 # 요새는 언자 초네 농사지꼬 아:드리 침:부 도시에 이싱게 언자.{요새는 인제 촌에 농사짓고 아이들이 전부 도시에 있으니 인제.}

10519 # 부모네드리 농사르 지잉게 언자.{부모네들이 농사를 지으니 인제.}

10519 # 새:끼들 줄라고.{자식들 주려고.}

10519 # 쪽끔 마이 할수도 익꼬.{조금 많이 할 수도 있고.}

10519 @ 앙 그래도 언자.{그렇지 않아도 인제.}

침:부 새끼들 줄라 그라지 머.{전부 자식들 주려고 그러지 뭐.}

10519 @ 자식들한테도 좀 나눠주시나 고: 함: 여쭙볼 차미여습니다, 우짖니까?{자식들한테도 좀 나눠 주시나 그것 한 번 여쭙볼 참이었습니더, 어떻게 합니까?}

10519 # 우리네예:.{우리는요.}

10519 # 내가 선생님한테 이거 말하기도 참 부끄럽찌마는.{내가 선생님한테 이것 말하기도 참 부끄럽지마는.}

10519 # 우리 큰메느리가 일 중녀네 일 저:게 참 멘심년저네 엄:서전습니다.{우리 큰며느리가 이 뒤에 어 저기 참 몇 십 년 전에 없어졌습니더(유명을 달리함).}

10519 @ 그 그때 참 드러서 압니다.{그 그때 참 들어서 압니다.}

그래서 그런데 참:.{그래서 그런데 참.}

10519 # 짐치 이렇거또 쪼개 할라쿠몬: 창:건: 새끼들 갑따 조오야 안 텨니까?{김치 이런 것도 조금 하려고 하면 적으나마(?) 자식들(한테) 갖다 주어야 하잖습니까?}

10519 # 저거 와서 갑따 묵꼬.{자기들(이) 와서 갖다 먹고.}

10519 # 그래서 마이 하고 이래했는데.{그래서 많이 하고 이려했는데.}

10519 # 언자 참 한 멘년저네 또 메해로 하고 낭께.{인제 참 한 몇 년 전에 또 몇 해를 하고 나니까.}

10519 # 여어꺼 언자 갑따가 저거가 당꼬.{여기(에 있는) 것 인제 가져다가 자기들이 담고.}

10519 # 언자: 좀 언자 다마노오모 언자 딸레드리 좀 와서 가따 묵끼도 하고.{인제 좀 인제 담아 놓으면 인제 딸네들이 좀 와서 가져다 먹기도 하고.}

10519 # 예: 그래 갈라묵찌예 머.{예 그렇게 나눠먹지요 뭐.}

10519 @ 어~어 그래 짐장을 해나코.{어 그렇게 짐장을 해 놓고.}

10519 @ 요즈믄 머 짐치냉장고도 이찌마는 엔나레야 어데 그렇기: 이서습니까?{요즘은 뭐 짐치냉장고도 있지마는 옛날에야 어디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10519 # 아이가.{아이가.}

@ 엔나레 우찌 갈무리로 우찌 해습니까, 다마가지고.{옛날에 어떻게 갈무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10519 # 이저네여? 이저네는 점:부 장담능거 짐치담능거 다 장꼬바~이 안 이습니꺼?:{이전에요? 이전에는 전부 장 담는 것 김치 담는 것 다 장독대가 있잖습니까?}

10519 # 타: 그래 다마가 무우찌.{다 그렇게 담아서 먹었지.}

10519 @ 그래 땅 미테느 묵꼬 이렇거는 업서습니까?{그래 땅 밑에는 묻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이런데는 그리는 안함니더.{이런 데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10519 # 땅미테 묵꼬 항거또 머 마니 해각꼬.{땅 밑에 묻고 하는 것도 뭐 많이 해서.}

10519 # 마니 해가저고 참 머 장내시를 바래고 그래 하:지:.{많이 해서 참 뭐 장래를 바라고 그렇게 하지.}

10519 # 인테는 고마 설시고 나모 고마 영꼬.{이런 데는 설 쇠고 나면 그만 없고.}

10519 # 머 언자 지그른 참 짐치냉장고 이기: 이끼 때무네 언자 참 머 마이 다마가:꼬 머.{뭐 인제 지금은 참 김치냉장고 이게 있기 때문에 인제 참 뭐 많이 담아서 뭐.}

10519 # 일런내 묵끼도 하고 이년도 무끼하고 그라지.{일년 내 먹기도 하고 이년도 먹게 하고 그러지.}

10519 # 우리도 언자 짐치냉장고 하나 드러와꺼드.{웃음}{우리도 인제 김치냉장고 하나 들어왔거든.{웃음}}

10519 # 학새이 바:도 아:마따 아난다.{학생(보조자)이 봐도 아무 말도 안 한다.}

10519 # 짐치냉장고 쿵:고 하나 드와꺼마.{웃음}{김치냉장고 큰 것 하나 들어왔건마는.{웃음}}

10519 @ 그러면 요즈미야 머 일러내내 누우꾸 하지마는 옰나레 그렇기: 업슬때:.{그러면 요즘이야 뭐 일년 내내 먹고 하지마는 옛날에 그런 게 없을 때.}

10519 # 아이가 아이가.{아이가 아이가.}

@ 짐장 아니 짐장 해 나코 나몬예.{짐장 아니 짐장 해 놓고 나면요.}

10519 @ 다암해 메달달까지 짐장짐치르 먹습니까?{다음해 몇월 달까지 짐장김치를 먹습니까?}

10519 # 이저네 그리 다들때게는 마이 아나고 항께.{이전에 그러하게 담을 때에는 많이 안 하고 하니까.}

10519 # 고마 설시모 영꼬:.{그만 설 쇠면 없고.}

10519 # 설시모 영꼬:.{설 쇠면 없고.}

10519 # 내가 언자 상추 이 거통거 머 무시지 거통거 얄구증 그렇거 이시모 언자.{내가 인제 상추 이 같은 것 뭐 무지 같은 것 알קות은 그런 것 있으면 인제.}

10519 # 허:, 감자 승굴때 승구 각꼬 언자.{허, 감자 심을 때 심어서 인제.}

10519 # 그래해서 반찬해묵꼬 그래헨:찌.{그렇게 해서 반찬 해 먹고 그렇게 했지.}

10519 # 지금매이로 머 그 오래까징 그래 무올꺼또 영꼬.{지금처럼 뭐 그 오래까지 그렇게 먹을 것도 없고.}

@ 혹시 머 짐장짐치가 내년꺼지 가가지고 머 씨이가저고 머 몬묵꼬 이렇거는 업설습니까? 옰나레.{혹시 뭐 짐장김치가 10519 내년까지 가서 뭐 시어서 뭐 못 먹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옛날에.}

10519 # 이 초네는 그렇거느 업서:.{이 촌에는 그런 것은 없어.}

10519 # 탄서방 고마 설세고 나모 마 보통 고마 한 이월데모 고마 타무뻔:.{단숨에(?) 그냥 설 쇠고 나면 마 보통 그냥 한 이월 되면 그만 다 먹어 버려.}

10519 # 그래 담찌 머.{그렇게 담지 뭐.}
 10519 # 인자 머 냉장고 인는 사라몬 앙그래.{인제 뭐 냉장고 있는 사람은 안 그래.}
 10519 # 마이 해가저고 마이 다마.{많이 해서 많이 담아.}
 10519 ## 그래도 엔징기는 그스근 마이 하데.{그래도 있는집은(?) 그속은 많이 하데.}
 10519 ## 모: 숭굴때까지 무운짐치가 인는 사라미 이서요.{모심을 때까지 묵은 김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10519 # 그영거는 부재:.{그런 것은 부자.}
 ## 단도리로 잘해가저고 ***.{단속을 잘해서 ***.}
 10519 # 부:자들.{부자들.}
 10519 # 그때마 해도 무더가꼬 무울쭈도 모르고.{그때만 해도 묻어서 먹을 줄도 모르고.}
 10519 # 짹께 해가저고.{짜게 해서.}
 10519 # 안 시길 정도로, 안 썩글 정도로.{안 썩을 정도로, 안 썩을 정도로.}
 10519 # 고리 짹께 해가저고 고리 이저네 부채드론 모숭굴때꺼정 무우서예, 부채드론.{그렇게 짜게 해서 그렇게 이전에 부자들은 모심을 때까지 먹었어요, 부자들은.}
 10519 # 엄는 사암드론 그견또 영꼬:.{없는 사람들은 그것도 없고.}
 10519 # 세상이 이만치 조아절따:임니꺼?{세상이 이만큼 좋아졌잖습니까?}

= 1. 고사리 꺾기와 일상사

=1 @ 할~머이 그 저 꼬사리 켜능거:.{할머니 그 저 고사리 꺾는 것.}
 # 예.{예.}
 =1 @ 그 얘기를 하면 재:믹께:.{그 얘기를 한 번 재미있게.}
 # 예.{예.}
 =1 @ 오늘 마~이 켜꺼오신편데.{오늘 많이 꺾어 오셨던데.}
 =1 # 예.{예.}
 @ 그냥 웅깁 얘기 다 존습니더, 함 해주이소.{그냥 온갖 얘기 다 좋습니다, 한 번 해 주십시오.}
 =1 # 고사리는.{고사리는.}
 =1 # 내 까꼬메이스니까 너미 앙꺼끄니까, 한 삼사일 데몽.{내 산에 있으니까 남이 안 꺾으니까, 한 삼사일 되면.}
 =1 # 감니더.{갑니다.}
 =1 # 가모 언자 아즈게 한 여섯씨 반 데모.{가면 인제 아침에 한 여섯 시 반 되면.}
 =1 # 딱 가서 인자.{딱 가서 인제.}
 =1 # 한 두 군데 세 군데 데거등네, 자리가.{한 두 군데 세 군데 되거든요, 자리가.}
 =1 # 세 군데 이기: 나는데가 이서.{세 군데 이계 나는 데가 있어.}
 =1 # 고마 인자 세 군데 요리 꺾꺼 오면:자 여덜시 쪼끔 너머여.{그냥 인제 세 군데 요렇게 꺾어 오면 인제 여덟 시 조금 넘어요.}
 =1 # 꺾꺼오서 가리각:꼬 언자 썰마 너러 노코.{꺾어 와서 가려서 인제 삶아 넣어 놓고.}

=1 # 아즉 묵끼도 하고.{아침 먹기도 하고.}

=1 # 그라므 또 또 저건네 또 우리 노네 송구논테 또 가능기라.{그러면 또 또 저 건너 또 우리 눈에 심어 놓은 데 또 가는 거야.}

=1 # 우리 노네 또 송구날:소.{우리 눈에 또 심어 놓았소.}

=1 # (웃음)그 그 또 (웃음) 아즉 묵꼬 또 또 꺽꺼로 감니더.{(웃음)그 그 또 (웃음) 아침 먹고 또 또 꺽으러 갑니다.}

=1 @ 아: 노네도 송구 날:습니꺼?{아, 논에도 심어 놓았습니까?}

예, 수무 날쓰예.{예, 심어 놓았어요.}

=1 # 뿌릴 패애 와악꼬.{뿌리를 파서 와서.}

@ 예.{예.}

=1 # 그래각:꼬 또 아적 묵꼬 또 거어 가서도 꺽거모 또 조마칭 꺽꺼오고.{그래 가지고 또 아침 먹고 또 거기 가서도 꺽으면 또 저만큼 꺽어 오고.}

=1 # 그리 텨니다.{그렇게 됩니다.}

=1 @ 요 사네까지 얼마나 걸립니꺼?{여기 산에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1 # 사네여? 올때 안 텨니다.{산에요? 얼마 안 됩니다.}

=1 # 여:서 가며 저: 볼때 인찌여?{여기에서 가면 저기 ?? 있지요?}

=1 # 저: 우에.{저 위에.}

@ 예.{예.}

고정도 텨니다.{그 정도 됩니다.}

=1 # 장강 가:여.{잠깐(이면) 가요.}

=1 # 사:사 올라가든 머.{살살 올라가면 뭐.}

=1 @ 혼자 가십니까?{혼자 가십니까?}

예.{예.}

=1 # 거 하사나라서 지픈 사니 아니라서 혼차 가도 테여.{거기 야산이라서 깊은 산이 아니라서 혼차 가도 돼요.}

=1 # 거: 미테 또 점:부 또 전다비 익꼬.{그 밑에 또 전부 또 전답이 있고.}

=1 @ 예.{예.}

사람도 익꼬.{사람도 있고.}

=1 @ 그람: 오늘 끄큰 꼬사리는 가르므 또 어떤 다른 사람들로 와섭띠꺼?{그러면 오늘 꺽은 고사리는 그러면 또 어떤 다른 사람들도 왔습니까?}

=1 @ 할머~이 혼차서 끄곁습(니까)?{할머니 혼자서 꺽었습니까?}

안 오지여.{안 오지요.}

1=1 # 거: 우리 따~이라서 우리 까끄미라서 너미 안 옵니다.{거기 우리 땅이라서, 우리 산이라서 남이 안 옵니다.}

=1 @ 꼬사리가 바르 잘 보임니꺼?{고사리가 바로 잘 보입니까?}

=1 @ 오새 풀소게 머 파묻치각 잘 안 보이긴데, 우짜습니꺼?{요새 풀 속에 뭐 파묻혀서 잘 안 보일 건데, 어떻습니까?}

=1 # 풀소에 잘 안 보이지여.{풀 속에 잘 안 보이지요.}

=1 # 그래 언자 요거 장: 언자 누네 인자 누니 이걸찌.{그래 인제 이것 늘 인제 눈에 인제 눈이 익었지.}

=1 # 고사리가 언자 누니 이거모 잘 보이고.{고사리가 인제 눈이 익으면 잘 보이고.}

=1 # 첨먼지 가서는 잘 안 보입니다.{처음에 가서는 잘 안 보입니다.}

=1 # (웃음) 자꾸 차라보고 차라보고.{자꾸 쳐다보고 쳐다보고.}

=1 # 지나가가지고 또 도라와가지고 또 차라보며 또 익꼬.{지나가서 또 돌아와서 또 쳐다보면 또 있고.}

=1 # 하나서:: 하나서: 그리 준능기라예.{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줍는 거예요.}}

=1 @ 엔나레 꼬사리는 머.{옛날에 꼬사리는 뭐.}

=1 @ 불라고 나믄.{불나고 나면.}

=1 @ 잘: 크다 이런 마리 이썸는데.{잘 크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예, 이저네 이저네는 글사알찌, 그산:찌만.{예, 이전에는 그래 쌓았지, 그래 쌓았지만.}

=1 # 지그른 머 사네 불나머 크닐난다꼬 머.{지금은 뭐 산에 불나면 큰일 난다고 뭐.}

=1 # 참, 불로 올매나 금지르 한다:임미꺼?{참, 불을 얼마나 금지를 하잖습니까?}

=1 # 영기마 나도 마 쫓초오는데.{연기만 나도 뭐 쫓아오는데.}

=1 # 영기마 마 이 썰리 올로아도.{연기만 뭐 이 '썰리'(강조어) 올라와도.}

=1 # 그러키때미네 두르메 폴도 향:사 이래가:꼬 인썸예.{그렇기 때문에 두둑의 폴도 항상 이래 가지고 있어요.}

=1 # 나틀 안 베모.{낮으로 안 베면.}

=1 # 그나 만:날 나틀가 베야지.{그러니 만날 낮으로 베어야지.}

=1 # 불로 몬노코로하니께.{불을 못 놓게 하나까.}

=1 @ 꼬사리러 운제썸: 부터 땀니까?{고사리를 언제썸부터 꺾습니까?}

=1 # 고사리에?{고사리요?}

=1 # 어: 이월.{어, 이월.}

=1 # 이월 금:끼데모 꼬사리 올로 옵니다.{이월 그믐께 되면 고사리 올라옵니다.}

=1 @ 이월 그믐끼?{이월 그믐께?}

음너그로.{음력으로.}

@ 예.{예.}

=1 # 이월 금:끼데모 요리 빼찌빼썸: 올로와.{이월 그믐께 되면 이렇게 뽕족뽕족 올라와.}

=1 @ 예.{예.}

으냐 한 한 오일 일파 가몬.{?? 한 한 오일 있다가 가면.}

=1 # 요 정데 요래 커올로오거등예.{요 정도 요렇게 커 올라오거든요.}

@ 아.{아.}

=1 # 요 중도, 찰: 큼니더, 그거.{이 정도, 잘 큼니다, 그것.}

=1 # 따 올로오기마 올로오모.{딱 올라 기만 올라오면.}

=1 # 끈네 초파네 이리 언자.{그런데 초반에 이렇게 인제.}

=1 # 초파네 이리인자, 요새는 늑끼사리라.{초반에 이렇게 인제, 요새는 늑고사리야.}

=1 # 늑끼사리라서 애비다:임미꺼?{늑고사리라서 야위잖습니까?}

@ 아.{아.}

=1 # 예, 초파네 나는 고사리니느녀.{예, 초반에 나는 고사리는요.}

=1 # 야무치서 올로오모 이마치서 꺾꾸오는데.{이만치서 올라오면 이만큼씩 꺾어오는데.}

=1 @ 아, 그러면 초보메 나능거 하고 짐 느끼사리하고는 머 차이가 이습니까?{아, 그러면 초봄에 나는 것과 지금 늑고사리하고는 뭐 차이가 있습니까?}

=1 # 차이 인찌여.{차이 있지요.}

=1 # 마~이 애비다:임니꺼?{많이 야위잖습니까?}

=1 # 뽀뽀하:~이.{뽀뽀하게.}

=1 # 요새는 언자 고마인자 이 뿌리약 언자 자::꾸 꼬너가꼬 이기: 인자.{요새는 인제 그냥 인제 이 부리를(?) 인제 자꾸 끊어서 이게 인제.}

=1 # 초비나섬, 땅미테서.{촉이 나면서, 땅밑에서.}

=1 # 이 언자 수니 낭:께네.{이 인제 순이 나니까.}

=1 # 이거는 양부니 언나 자궁:기라.{이것은 양분이 인제 작은 거야.}

=1 # 흐 인자: 고사리도 언자 시이 너머갠쓰예. {인제 고사리도 인제 시기 넘어갔어요.}

=1 # 구사리 쟁능겅또 언자.{고사리 꺾는 것도 인제.}

=1 # 인자 몬텅거는 고마 이마 이리 막 너:풀너:퍼리 이리 패:가: 익꼬.{인제 못된 것은 그냥 이만 이렇게 막 너풀너풀 이렇게 패어 있고.}

=1 # 그 새:로 언자 하나스 느 언자 늑게 올로오농거 그거 하나씩.{그 새로 인제 하나씩 인제 늑게 올라오는 것 그것 하나씩.}

=1 # 이리 준능기라.{이렇게 줍는 거야.}

@ 예.{예.}

=1 @ 그라가 아프로도 머 한두 번 더 딸 수 이습니꺼, 우뻗습니꺼?{그래서 앞으로도 뭐 한두 번 더 꺾을 수 있습니꺼, 어떻습니꺼?}

=1 # 한 두:부는 더 갈 수 이찌여.{한 두어 번은 더 갈 수 있지요.}

=1 # 또 한 한 사오일 일따가.{또 한 한 사오일 있다가.}

=1 # 가모 또 조정도 끄느키거마.{가면 또 저 정도 끊을 것이건만.}

=1 @ 아, 그러면 일려네 꼬사리를 깎꼬메서 멘뽀~이나 그라모 꺾습니꺼?{아, 그러면 일년에 고사리를 산에서 몇 번이나 그러면 꺾습니꺼?}

=1 # 어?{응?}

@ 일려네 메뿌~이나 까꼬메(서)?{일년에 몇 번이나 산에서?}

=1 # 아~이고 그거 밭뽕 가는 그: 종해야지여.{아이고, 거기 몇 번 가는 그것 정해야지요(?)}

=1 # 초파네노 우째딩가 고마 이 나리 해동하고 이라몬.{초반에는 어찌든지 그냥 이 날이 해동하고 이르면.}

=1 # 한 사밀마네 가고 사밀마네 가고 이라거등예.{한 삼일 만에 가고 삼일 만에 가고 이러거든요.}

=1 # 저어게 절면 사암드른 참:: 너무 까꼬를 간다아임(니꺼)? 저: 산 너머.{저기 젊은 사람들은 저 남의 산으로 가잖습니까? 저기 산 너머에.}

=1 # 그리감: 마 이리와꼬 온다, 꼬사리르.{그렇게 가면 뭐 이렇게 가지고 온다, 고사리를.}

=1 # 산 쏘그로 여 수푸루 이래가 다~임서, 우룬 그른데 무서바서 몽 가.{산 속으로 여기 숲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는 그런 데 무서워서 못 가.}

=1 # 여는:자 우리 전다비 익꼬 안자, 전답우이 데농께네로.{여기는 인제 우리 전답이 있고 인제, 전답 위가 되어 놓으니까.}

=1 # 그래 혼차 사살 가지:, 저: 저런 데로 몽감니더.{그래 혼자 살살 가지, 저기 저런 데로는 못 갑니다.}

=1 # 무서바서.{무서워서.}

=1 # 가야와 산때지 밭때지가 머 이:링기 인는데.{거기에(?) 뭐 산돼지 '밭돼지'가 뭐 이런 것이 있는데.}

=1 @ 아: 위습니까?{아, 있습니까?}

예.{예.}

=1 # 산때지가 이룬데 칠과릴 데몬 고구마 전디도 아내여.{산돼지가 이룬 데 (설치고 다니는) 칠팔월이 되면 고구마가 건디지를 못 해요.}

=1 # 니르와사:서.{내려와 쌓아서.}

=1 @ 하라버지도 머 산때지 마~이 보셨습니까?{할아버지도 뭐 산돼지 많이 보셨습니까?}

=1 ## 나 마~이 받찌여:.{나 많이 봤지요.}

마~이 보지여:.{많이 보지요.}

=1 # 머득때는 막 드레도 가면 새끼로 나:가져고 마 줄줄주 덕꼬 대~이는데.{뭇할 때는 막 들에도 가면 새끼를 낳아서 뭐 줄줄줄 데리고 다니는데.}

=1 @ 직쩍 보셨습니까?{직쩍 보셨습니까?}

예.{예.}

=1 # 놀짱::하~이 그래아꼬망 얼맨 날랩니까? 그이.{노르스름하니 그래 가지고 뭐 얼마나 날랩니까? 그제.}

=1 @ 놀짱:하단 마른 머슨 말입니까?{‘놀짱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1 # 놀무리:하~이 그래.{노르스름하니 그래.}

=1 @ 아!{아!}

터리, 안지 예리농께네.{털이 아직 어려 놓으니까.}

@ 예, 노리무리하다:.{예, 노르스름하다.}

예.{예.}

=1 @ 예:, 그 산때지 그 말슴 쫘 해주이소, 그러머.{예, 그 산돼지 그것 말슴 쫘 해 주십시오, 그러면.}

=1 # (웃음) 산때지 그거르?{(웃음) 산돼지 그것을?}

=1 @ 아니 그으 사람한테 잘못하모 해꼬지해가꼬 사라미 다친단 말도 드릴꺼든네.{아니 그것 사람한테 잘못하면 해꼬지해서 사람이 다친다는 말도 들었거든요.}

=1 # 아 거 데레비여 사래며~이 올매나 안 다칩니까?{아 그 텔레비전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치잖습니까?}

=1 ## 거 안건디리몬 안 달라드는데 건딘다커모 그림 수양칸 (노미야).{그것 안 건드리면 안 달려드는데 건드린다고 하면 그 놈 흉악한 (놈이야).}

=1 ## 안 건디리머 안 달:드리, **** 치고는.{안 건드리면 안 달려들어, **** 치고는.}

아이 그래도 무수와.{아이, 그래도 무서워,}

=1 ## 그 저네 늑대는 사:하 안 건디리도 사람한테 달:든다커디 늑팬: 언자 존자가 응꼬.{그 전에 늑대는 사람이 안 건드리도 사람한테 달려든다고 하더니 늑대는 인제 종가자 없고.}

=1 @ 예, 하라버지 올 꺼 산때지 말슴 쫘 좀 더 해주이소, 그럼.{예, 할아버지 올 그 산돼지 말슴 쫘 좀 더 해 주십시오, 그럼.}

=1 # 장년.{작년.}

할꺼또 업스여.{할 것도 없어요.}

할꺼또 엉꼬, 장년 세아네.{할 것도 없고, 작년 겨울에.}

=1 # 하~애편 여:서 언자 자:꾸 언자 이.{하여튼 여기에서 인제 자꾸 인제 이.}

=1 # 가실 데모 막 나락 벨 때가 이리 대몬:.{가을 되면 막 벼 벨 때가 되면.}

=1 # 대:지가 내로오각꼬 나라글 마 썰:리 깨 뭉게거등.{돼지가 내려와서 벼를 뭐 '썰리' 깨 뭉게거등.}

=1 # 그애 여 누우가 언자 요쳐~을 해애저고, 대지 사라면.{그래 여기 누워서(?) 인제 요청을 해서, 돼지 ??면.}

=1 # 대:지 잡는 사래민:자 산대찌 잠: 사르미 차르 가져고 옵니더.{돼지 잡는 사람이 인제 산돼지 잡는 사람이 차를 가지고 옵니다.}

=1 # 여: 세아네 뎨뎨 와가저고 저: 저 건네서.{여기 겨울에 몇 번 와서, 저 저 건네서.}

=1 # 한 두: 마리 아매 자바간는 몬냐이라.{한 두어 마리 아마 잡아간 모양이야.}

=1 # 그래 노:선 언자 저저근 안주끼 안내로오능잡떼:.{그리고 나서는 인제 저쪽은 아직까지 안 내려오는가 보데.}

=1 @ 네.{네.}

=1 @ 그라머 근 자바가야고 저:악 가져갑니까? 동네에 머 잔치를 합니까?{그러면 그 잡아 가지고 자기들이 가져 갑니까, 동네에 뭐 잔치를 합니까?}

=1 # 아이가, 살:짜 가져가지여.{아이고, 살짝 가져가지요.}

=1 # 차를, 차로 가악꼬 딱 자바완대 머:.{차를, 차를 가지고 딱 잡아 왔는데 뭐.}

=1 # 머하로 대~이는 사람밍고 아능가여, 언자 총소리가 나며 언자.{뭐하러 다니는 사람인지 아는가요, 인제 총소리가 나면 인제.}

=1 # 아 저 언냐 대지 자바러 왁꾸나, 이러쿠지.{아 저 인제 돼지 잡으러 왔구나, 이러지.}

=1 @ 금: 허가:를 바든 사라미다, 그지예?{그럼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그죠?}

=1 @ 구네서 온 사라미, 이런 사람잉가베, 그라모.{군에서 온 사람, 이런 사람인가 보네, 그러면.}

=1 # 그 사래미 허가 내고 하능갑텐데여.{그 사람이 허가 내고 하는가 보던데요.}

=1 @ 그렇게 허가를 바든 사라미다, 허가넌: 사람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허가를 낸 사람 ***.}

=1 # 그러컨찌예, 하무.{그렇겠지요, 아무렴.}

=1 # 차 가져고 머덜때는.{차 가지고 뭇할 때는.}

=1 # 게우레 바프로도 여: 올라갑니더.{겨울에 밤으로도 여기 올라갑니다.}

@ 아.{아.}

=1 # 대:지 내려:오며 자블라꼬.{돼지 내려 오면 잡으려고.}

=1 @ 허가를 잘 내애 줘니까?{허가를 잘 내어 줘니까?}

=1 # 예?{예?}

@ 허가를 잘 내줍니까? 거 대지 자바라꼬, 산때지.{허가를 잘 내어 줘니까? 돼지 잡으라고, 산돼지.}

=1 # 아니예.{아니요.}

그릴 때는 요청을 해야꼬.{그릴 때는 요청을 해서.}

=1 ## 잘 만나지여, 그걸또.{잘 만나지요, 그것도.}

=1 @ 오새 그릉거느 함부레 안 내주거든, 잘레:.{요새 그런 것 함부로 안 내 주거든, 잘요.}

잘 안 **. {잘 안 내 줘.}

안 내주기로.{안 내 주지.}

=1 ## 총가:고 사고가 잉가~이 나야제.{총 가지고 사고가 어지간히 나야지.}

=1 @ 그라머 저어 산 먼 산 너머 너므 까끄메 가는 사람드른.{그러면 저 산 너머 남의 산에 가는 사람들은.}

=1 @ 그 머 산때지 가통거 머 거비 나능거도.{그 뭐 산돼지 같은 것 뭐 겁이 나는 것도.}

=1 @ 그런데도 막 간다 말 아임니꺼?{그런데도 막 간다는 말이잖습니까?}

=1 ## 카치요.{가지요.}

가기루예.{가기만 해요.}

=1 ## 사람 안 다 안 건디르며 안 달:라드러여.{사람이 안 다 안 건드리면 안 달려들어요.}

=1 # 그래도 여자들 무섭찌.{그래도 여자들(은) 무섭지.}

=1 # 그래도 여자 혼차 대~이는 사라문:.{그래도 여자 혼자 다니는 사람은.}

=1 # 가니 벨또라.{간이 별도야.}

=1 # 와~이 저 이 절문살미 저 건네 하나 이써여.{?? 저 젊은 사람이 저 건너 하나 있어요.}

=1 # 그 사라므 고마.{그 사람은 그냥.}

=1 # 죽꾸 살고 가서 고마 꼬너오능기라.{죽기 살기로 가서 그냥 끊어오는 거야.}

=1 # 우리거튼 사라문 두:리 가도 그리 그 그 사람 문 따라 갑니다.{우리 같은 사람은 둘이 가도 그 그리 그 사람 못 따라 갑니다.}

=1 # 이 절문 사람 데낭게 마 팔랑빨랑해가 사네 가며 마 대지거치 기대~인다 마.{이 젊은 사람 돼 놓으니까 뭐 빨랑빨랑해서 산에 가면 뭐 돼지 같이 기어 다닌다 마.}

=1 @ 할무~이도 연세에 비해서 머 참 모미 가볍던데예.{할머니도 연세에 비해서 뭐 참 몸이 가볍던데요.}

=1 # 에이, 머이 개거와예.{아이, 뭐가 가벼워요.}

=1 @ 그라모 꼬사리 끄커 오가저고 언자:.{그러면 고사리 꺾어와서 인제.}

=1 @ 아까 봉께네.{아까 보니까.}

=1 # 가리 날:찌여.{가려 지요.}

=1 @ 가리시테예.{가리시테요.}

예{예.}

=1 @ 고: 머하고 머하고 가린:지.{그것 뭐하고 뭐하고 가렸는지.}

=1 @ 또 그 가리어 나코 낭거는 어디에 쓰는지.{또 그 가려 놓은 것은 어디에 쓰는지.}

=1 # 팽: 거너.{팽 것은.}

=1 # 요리 요리 세간재비 요리 팽:거는.{이렇게 이렇게 세간잡이(?) 이렇게 팽 것은.}

=1 # 쌀마가저고 또로 너러예.{삶아서 따로 넣어요.}

=1 # 요: 가리나, 가리농거 조대로 쌀마각:꼬.{여기 가려, 놓은 가려 놓은 것 저대로 삶아서.}

=1 # 인자 통나무로 언자 인잔.{인제 통나무로 인제 인제.}

=1 # 이다리 요리 커 올라강거는: 야구리 무올라 카고.{이대로 이렇게 커 올라간 것은 우리 먹으려고 하고.}

=1 # 이리 버러징거는:자 고 쪼끔 세:거덩:.{이렇게 벌어진 것은 인제 그게 조금 세거든.}

=1 # 그나 그렁고느 엔자 소고기 머 국거통거 이리 끼리는데:.{그냥 그런 것은 인제 쇠고기

국 같은 것 이렇게 끓이는 데}

=1 # 고농고느 인자 식당에 잘 사아 가.{그런 것은 인제 식당에서 잘 사 가지고 가.}

=1 @ 아.{아.}

국, 국끄리 할라꼬.{국, 국거리하려고.}

=1 @ 예.{예.}

고 토론때 거통거.{그 토론대 같은 것.}

=1 # 토론때 거통 그능거 여어각:꼬 식당에 와.{토란대 같은 그런 것 넣어서 식당에 와.}

=1 # 인 국 안 끼러 줘니까? 고론데 마~이 씨.{이 국 끓여 주잖습니까? 그런 데 많이 씨.}

=1 # 이 인나 우린 쪼개 이래 꺼깁겐:자 우리 아아들 전부 다 마.{이 인제 리는 조금씩 꺾으니까 인제 우리 아이들 전부 다 뭐.}

=1 # 여나마개식 주모 오마.{여남은 개씩 주면 그냥.}

=1 # 다 갈라 무빠거.{다 갈라 먹어 버리고.}

=1 # 산천 장에는 여 정도 요리 데능거는.{산청장에는 이 정도 이리 되는 것은}

=1 # 항개 마너썩 구쳐너서 합니다.{한 개 만 원씩, 구천 원씩 합니다.}

=1 # 말라 가지고{말려 가지고.}

=1 # 검내: 비쌘니다, 여:{매우 비쌘니다, 여기.}

=1 @ 그람: 저: 쌀마각꼬.{그러면 저기 삶아서.}

=1 # 말라각꼬.{말려서.}

=1 @ 말라각:꼬.{말려서.}

=1 @ 말라머 그 쫄 꼬 인자 완저**.{말리면 그 조그 그 인제 완전.}

아, 쪼깁치여.{아, 조그만하지요.}

@ 예.{예.}

=1 # 하모.{아무렴.}

@ 그라몬 구구로 가타: 우짖니까?{그러면 그것을 갖다 어떻게 합니까?}

=1@ 그으려 한주미라캅니까, 한제기라 캅니, 우짖니까, 이르미 이슬꺼, 한모수미라 캅니거, 멀캅니까?{그것을 한 줄이라고 합니까, 한 죄기라고 합니까, 어쩍니까, 이름이 있을것, 한 모숨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1 # 한 모스블 몽길라쿠모:{한 모숨을 묶으려고 하면.}

@ 예.{예.}

=1 # 인자 주묵주무~이 해가져 인자 어째평가 마 이 요: 정도로 해.{인제 주묵 주묵 크기로 해서 인제 어쨌든가 이 정도로 해.}

=1 # 우리는 마 요마스빠끼로 안해.{우리는 뭐 요만큼씩밖에 안 해.}

=1 # 자:자나~이 그마 우리는 우리 아:들 무:끼라서 크기 안 해.{자잘하게 그냥, 우리는 우리 아이들 먹을 것이라서 크게 안 해.}

=1 # 장사하느 사암드르 인자.{장사하는 사람들은 인제.}

=1 # 꼭 주무글 이래 버어지거러 이리 해액:꼬, 그래하제.{꼭 주먹을 이렇게 벌어드록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1 # 우리 아: 우리는 마 저 썩깨~이 저리 이서농:게네로.{우리 아이 우리는 뭐 저 조그마하게 저렇게 있으니까.}

=1 # 아:드라고 갈라뭉능거는.{아이들하고 갈라먹는 것은.}
 =1 # 팔라꼬 안 하고.{팔려고 안 하고.}
 =1 # 그룽께 고마.{그러니까 그냥.}
 =1 # 참, 생거또 앙격꼬.{참 쉰 것도 안 꺾고.}
 =1 # 우리 새끼들 줄라꼬.{우리 자식들 주려고.}
 =1 # 장사하는 사:암드른 생건또 꺾꼬.{장사하는 사람들은 쉰 것도 꺾고.}
 =1 # 팽:거 이것또 팽:거:.{팬 것 이것도 팬 것.}
 =1 # 아꺼 거 팽:거:.{아까 그 팬 것.}
 =1 # 말라가지고.{말려서.}
 =1 # 요 조온 꼬사리에 아네 시물 여:.{요 좋은 고사리 안에 심을 넣어.}
 =1 @ 아.{아.}
 # 그래가: 팔:기 때미네.{그래 가지고 팔기 때문에.}

=1 @ 그라머 저거: 쌀마가꼬 얼마나 말라야 땀니까?{그러면 저것 삶아서 얼마나 말려야 땀니까?}
 =1 # 조거예?{저것요?}
 =1 # 뽕 찌모 고마 정때: 데머 싹 다 말라.{별 쪼면 그냥 저녁때 되면 싹 다 말라.}
 =1 # 잘 마릅니더, 저거이.{잘 마릅니다, 저것.}
 =1 # 뽕:마 조:모 대베네 말라.{별만 좋으면 대번에 말라.}
 =1 # 따 헬머가머 고마 싹 거더날뽕:.{딱 해 넘어가면 싹 걷어 놓아 버려.}
 =1 # 저기: 저리 저 엄 저: 거슴 마나디여:.{저게 저렇게 저 엄 저기 거슴 많아도요.}
 =1 @ 예.{예.}
 # 요말랑거 두몽티~이 텔똥말똥 함니더.{요만한 것 두 몽치 될 듯 말 듯합니다.}
 =1 # 요마냥거 두 몽테~이.{요만한 것 두 몽치.}
 =1 # 마르머 업씨.{마르면 없어.}
 =1 @ 마르머 업씨마는 또.{마르면 없지마는 또.}
 =1 @ 제사:스 그알라 그러머.{제사에서 그 하려고 그러면.}
 =1 # 지사 씨는 사:암드른, 하모.{제사에 쓰는 사람들은, 아무럼.}
 =1 @ 또 그 나중에 쌀므머 또 폭: 퍼지꺼 아입니까?{또 그 나중에 삶으면 또 폭 퍼지잖겠 습니까?}
 # 예.{예.}

=1 # 그러~인:자 주로 인제 꼬너가저고 모아가저오 장사하는 사람드른.{그래 인제 주로 인제 끓어서 모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1 # 사짜:기 쌀마, 살째:기{살짝 삶아, 살짝.}
 =1 # 그렇게 고사리 사서 뭉는 사람드른 고사리가 잘 안 썩긴:다 이라거덩.{그러니까 고사리 사서 먹는 사람들은 고사리가 잘 안 삶긴다 이러거든.}
 =1 # 쌀마가:꼬.{삶아서.}
 =1 # 이 건칠 나물 하능거느 쌀마가:꼬 말류:는 나무른.{이 건채로 하는 것은 삶아서 말리는 나물은.}
 =1 # 우쭈덩가 아시로 썩겼때 폭 쌀마야대, 몰캉하거로.{어떻게든 애초에 생것일 때 폭 삶아야 돼, 몰캉해지게.}

=1 # 고래해스 난주: 말라가지고 무울 때.{그렇게 해서 나중에 말려서 먹을 때.}

=1 # 소로로: 쌀마모 고마 퍼지닝기라.{소르르 삶으면 그만 퍼지는 거야.}

=1 # 소로로 쌀마모.{소르르 삶으면.}

=1 # 그래, 새파리 이리 쌀마농:고느 쏘기 다 안마르다 아임니꺼?{그래, 새파랗게 이렇게 삶아 놓은 것은 속이 다 안 마르잖습니까?}

=1 # 그래가 파라문: 사람도 익꼬.{그렇게 해서 팔아먹은 사람도 있고.}

=1 # 우리는 우리 아:들마 목끼 때무네.{우리는 우리 아이들만 먹기 때문에.}

=1 # 이리 마 몰카~이 마 폭 쌀마.{이렇게 마 몰강하게 마 폭 삶아.}

=1 @ 예.{예.}

그래언자 저거 언자 해 목꾸 주:모 언자.{그래 인제 자기들 인제 해 먹고 싶으면 인제.}

=1 # 요마냥거 언자 항개 내:다가.{요만한 것 인제 한 개 내어다가.}

=1 # 두개르 내:다 고마.{두개를 내어다 그냥.}

=1 # 소로로 쌀마 가지고.{소르르 삶아서.}

=1 # 행가서 딱: 다마노모.{행귀서 딱 담아 놓으면.}

=1 # 몰강:하~이 퍼져.{몰강하게 퍼져.}

=1 # 저거도 쌍기르 자 쌀마야대:.{저것도 삶기를 잘 삶아야 돼.}

=1 @ 운제쫘 쌀마실킴니까?{언제쫘 삶으실 것입니까?}

=1 # 그예?{그것요?}

=1 # 난주 정때 주건네 가서 또.{나중에 저녁 때 저 건너 가서 또.}

=1 # 조마침 해골랑가 저카머 작게 해올랑가.{저만큼 해 가지고 오려는지, 저보다 적게 해 오려는지.}

=1 # 내: 아저: 쌀마 너러야 데건네여.{내일 아침에 삶아 널어야 되겠네요.}

=1 # 요마:난 소테.{요만한 술에.}

=1 @ 저 건네가능건: 내나:.{저 건너에라고 하는 것은 내나.}

예, 저: 건네.{예, 저 건너에.}

@ 또 노네.{또 논에.}

예.{예.}

@ 송구 날:파카는데.{심어 놓았다고 하는 데.}

예.{예.}

=1 # 우리 방마:춤 송구농:거 이썬.{우리 방만치 심어놓은 것 있어.}

=1 @ 어우, 마~이 송군네예.{어, 많이 심었네요.}

=1 @ 구:는 점: 다 올로오슬꺼 아임니꺼?{거기는 전부 다 올라왔잖겠습니까?}

=1 @ 그 저도 꼬사리 그 머 사네서 난다캉거는 머:하고 아는데, 노네꺼 여: 항거는 함무 본 저기 업꺼던네:.{그 저도 고사리, 그 뭐 산에서 난다고 하는 것은 뭐 하고 아는데, 논의 것 여기 한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1 # 노네 파더 저: 사례 가서 우리 크나:가 파더 송궁기라.{논에다 파다, 저기 산에 가서 우리 큰 아이가 파다 심은 거야.}

=1 # 오래 한: 사오년 데엔능가베, 승근제가.{올해 한 사오 년 되었는가 보네, 심은 지가.}

=1 @ 어떠습니, 그라모 사네서 나능거하고.{어떻습니까, 그러면 산에서 나는 것하고.}

=1 # 똑간찌여{똑같지요.}

=1 # 여: 여리느 땅 토리가 똑간능갑떠:여.{여기 이리는 땅 토질이 꼭 같은가 보데요.}

=1 # 땅 토리가.{땅 토질이.}

=1 @ 예.{예.}

토:리에 대에써 이걸또 언자 마시 나고 안나고 그렇갑떠:여.{토질에 대해서(따라서) 이것도 인제 맛이 나고 안 나고 그런가 보데요.}

=1 # 땅 성:지레 아매 매이는 모내~이라, 마시 익꼬 영꼬 하능건또.{땅 성질에 아마 매이는 모양이야, 맛이 있고 없고 하는 것도.}

=1 # 그렇게 요 요짜 요짜끼는.{그러니까 이 이쪽 이쪽 것은.}

=1 # 고사리고 이 산치가 다: 마시 일따쿠거덩.{고사리고 이 산나물이 다 맛이 있다고 하거든.}

=1 # 저어게 강 저꾸구루는 마시 엄서도.{저기 강 저쪽으로는 맛이 없어도.}

=1 # 중국 꼬사리 안: 잡사받심니까?{중국 고사리 안 잡춰보았습니까?}

=1 @ 머 머언지도 모르고 함: 머 안 무어 박쨌습니까?{뭐 뭔지도 모르고 한 번 뭐 먹어 보았겠잖습니까?}

=1 만또 모르고 무우슬깁:다, 아마.{맛도 모르고 먹었을 것입니다, 아마.}

=1 # 예, 하넨:재: 우리 자은지베.{예, 한 해 인제 우리 작은집에.}

=1 # 고사리가 엄서서 중국 고사리르 산는데.{고사리가 없어서 중국 고사리를 샀는데.}

=1 # 그:는 마 이마사:거등예, 통:통하~이.{그것은 뭐 이만큼씩 하거든요, 통통하니.}

=1 # 통토하이 따머 요마이 여어야텐:데.{통통하니 따면 요만 넣어야(?) 되는데.}

=1 # 무우도.{먹어도.}

=1 # 고사리 내애미가 안 나.{고사리 냄새가 안 나.}

=1 @ 음, 꼬사리 내미가 안 난다 말이지예?.{음, 고사리 냄새가 안 난다 말이지요?}

예.{예.}

=1 # 이년 고사리 무구마 행이 일따:임니까?{이런 고사리 먹으면 향이 있겠습니까?}

=1 # 행 그으 조타:임니까?{향, 그게 좋겠습니까?}

=1 # 그래 중구 꼬사리느 마시 엄따쿠대:.{그렇게 중국 고사리는 맛이 없다고 하대.}

=1 # 고사리 저: 도접서요, 박:지 독 일따캐도.{고사리 저것 독 없어요, 공연히 독 있다고 해도.}

=1 # 저너 올 시동새 그 군대 가서 그으 머 썩거 이리 꺼꺼 무어 때느.{전에 우리 시동생 군대에 가서 생것 이렇게 꺾어 먹을 때는.}

=1 # 통: 매륵:하~이 삼박거떠란데?{통 **** 삼발 같다 하더란데?}

=1 # 제주더느 가모.{제주도는 가면.}

=1 # 마.{마.}

@ 그 씨동생.{그 시동생.}

=1 @ 꺼: 끄꺼 무운따카능거.{꺾 꺾어 먹었다고 하는 것.}

아까 여: 여:우리 여: 조카 왁편 즈그 아버지.{아까 여기 여기 우리 여기 조카 왔던 자기

아버지.}

=1 @ 그 말씀 좀 해 주이소.{그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 @ 제주도 군대생활레.{제주도 군대생활요.}

예.{예.}

=1 @ 거 말씀 함 더 해주이소.{그것 말씀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1 # 우리 시동상네?{우리 시동생요?}

@ 예.{예.}

=1 # 군대 가가저고.{군대 가서.}

=1 # 오데 먼 먼 머슨 사다네 인따가.{어디 뭐 뭐 무슨 사단에 있다가.}

=1 # 그때느 상게워리, 삼너니 꼬박 지대 아이가?{그때는 삼 개월이, 삼 년이 꼬박 제대잖아?}

=1 # 사너~이 지담니꺼?{사년이 제대입니까?}

=1 @ 사년까지는 아~이고 삼년, 삼년 어절때: 삼년 쫘 념게 이래 이션습니다.{사 년까지는 아니고, 삼 년, 어떨 때는 삼 년 쫘 념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 한 사년 핵건네 .{한 사 년 했겠네.}

=1 @ 사꺼~이 나모: 진때 제대를 몬 하고.{사건이 나면 제때 제대를 못 하고.}

=1 @ 아~이며 삼년마네 제대르 하는데.{아니면 삼 년만에 제대를 하는데.}

=1 # 그래 그렇게 살아 생너네 오래 사란시메는.{그래, 그러니까 살아 생전 올해 살았으며는.}

=1 # 팔십너:잉께네.{팔십 넷이니까.}

=1 # 자기 갈 시가네 몽각꺼등예.{자기 갈 시간에 못 갔거든요.}

=1 # 양갈라꼬 빼군나리 치다가 게옥 갈찌.{안 가려고 뺑소니치다가(숨어다니다가) 결국 갔지.}

=1 # 가가지오 그:리 고생을 하고.{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1 # 여: 항국 여: 거 군대 이설자:도 또옥.{여기 한국 여기 그 군대 있을 적에도 똑.}

=1 # 배가 고파서 머 그때는 구닌들 열:매나 배로 끌리고.{배가 고파서 뭐 그때는 군인들 얼마나 배를 끌리고.}

=1 # 군대 갈따 온 사:암들 보몬 애비서 보도 모나고 이리 행는데.{군대 갔다 온 사람들 보면, 야워서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1 # 그때 딱 가가지고 배로 고라각:꼬.{그때 딱 가서 배를 끓아서.}

=1 # 그래 우:찌 언자 그 부대가.{그래 어찌 인제 그 부대가.}

=1 # 제주도로 갈뎌 갑데여.{제주도로 갔던 가 보데요.}

@ 아:!!{아:!!}

=1 # 제주도로 와아지고 악.{제주도로 와서, 아.}

=1 # 여: 수채 여: 여 여 국씨 찰마가:꼬.{여기 수채 여기 여 여 국수 삶아서.}

=1 # 묵꼬나머 꾸중물 여: 안 내 물 안내뺨니꺼?{먹고 나면 구정물 여기 안 내 물 버리잖습니까?}

=1 # 그란 수채 구녕에 이런 동가레가 일떠람니더.{그런데 수챗구멍에 이 동가리가 있더라입니다.}

=1 # 그걸 쭈: 물따 쿠능기라, 배가 고파서.{그것을 주워 먹었다고 하는 거야, 배가 고파서.}

=1 # 그리아꼬 지대르 해고 완는데, 딱: 빼하고 까죽하오마 나마가 이써.{그래 가지고 제대를 하고 왔는데, 딱 빼하고 가죽하고만 남아 있어.}

=1 # 거:서 그라가주오 한 반 개월(?) 인선나?{거기서 그래 가지고 한 반개월(?) 있었나?}

=1 # 발런 이선제?{반년 있었지?}

=1 # 발런.{반년.}

=1 # 일러는 몬니석꼬.{일년은 못 있었고.}

=1 # 그래가 와가저고 언자.{그래 가지고 와서 인제.}

=1 # 또 올매 인따가 제대로해가: 완는데.{또 얼마 있다가 제대를 해 왔는데.}

=1 # 딱 빼하고 까주아고 부터가 완띠여.{딱 빼하고 가죽하고 붙어서 왔네요.}

=1 # 그래 그 애바글, 안지머 그 애바글 하능기라.{그래 그 이야기를, 앞으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1 # 배가 고파서.{배가 고파서.}

=1 # 구:시 동아리 이렇기:시모, 군대드리 구닌드리 이르 가다가 그 수채꾸녀~어 머 이시모.{국수 동가리 이런 게 있으면, 군대들이 군인들이 이렇게 가다가 그 수챗구멍에 뭐 있으면.}

=1 # 그 몽능기라꼬.{그것 먹는 것이라고.}

=1 # 서르 구견또 서르 주물라꼬.{서로 그것도 서로 주워 먹으려고.}

=1 # 막 밀고 탁치고 그랜따니더.{막 밀고 당기고 그렇게 했답니다.}

=1 # 그렇거 다 주:목꼬 사람따쿠능기라.{그런 것 다 주워 먹고 살았다고 하는 거야.}

=1 @ 그때 꼬사리로 경커 묻:따 그 말스밈니꺼?{그때 고사리를 꺾어 먹었다 그 말씀입니까?}

=1 # 예, 그 우네 구마 사네 강:게, 고마.{예, 그 위에(?) 그냥 산에 가니까, 그냥.}

=1 # 거:는 머 저 제주도라닝게 고마 인 찌 질서베 첨::부 구만.{거기는 뭐 제주도라니까 그냥 이 길 길옆에 전부 그냥.}

=1 # 전답도 웅꼬:.{전답도 없고.}

=1 # 첨:부 고마 사니디여.{전부 그냥 산이네요.}

=1 # 그르네 나 마: 멜:하다캐.{그런 데에 ***** 하다고 해.}

=1 # 그라:꼬 마 그 중대장이야 머싱가 보머 저 어제까지 따라오모 그 보까 시퍼서.{그래 가지고 뭐 그 중대장인지 무엇인지가 보면 그 어디까지 따라오면 그 볼까 싶어서.}

=1 # 멀리 마 한::줌서 꺼:까주 마 무:감섬.{몰래 막 한 줍씩 꺾어서 막 먹어 가면서.}

=1 # 이 마 입소리가 막 기사레 생무리 드런쓰예.{이 뭐 입술이 막 고사리의 생물이 들었어요.}

=1 # 시:커미 그런떠랍니다.{시커머니 그렇더랍니다.}

=1 # 이도 구루코.{이도 그렇고.}

=1 # 그렇게 그이 도기 엄능기라.{그러니까 그제 독이 없는 거야.}

=1 # 그: 산치라서 도기 업서.{그것 산채라서 독이 없어.}

=1 # 산치는 다: 조용:기텅, 사람 몽능거느.{산채는 다 좋은 것이거든, 사람 먹는 것은.}

=1 # 그래가저오 참.{그래 가지고 참.}

=1 # 거리구런 기론 해가저오.{그러구러 결혼을 해서.}

=1 # 새기 두깁가 노코.{자식 둘인가 낳고.}

=1 # 고마 가뻘쓰, 먼나로.{그냥 가 버렸어, 먼 나라로.}

=1 # 그래 이 집지:가져고 그마 가뻘는데.{그래 이 집 지어서 그냥 가 버렸는데.}

=1 @ 바라 그림: 엽찌빔니까?{바로 그림 옆집입니까?}

예.{예.}

=1 # 그래 애초에 언자 요게 한: 따~이거등네:, 내 시집 웅께 여게 우리가.{그래 애초에 인제 여기가 한 땅이거든요, 내 시집 오니까 여기에 우리가.}

=1 # 바틀 해서 문:써.{밭을 해서 먹었어.}

=1 # 우리언자 씨오마~이 씨아바~이가.{우리 인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1 # 인자 저어게 소누에 언자 행님하고.{인제 저기 손위의 인제 형님하고.}

=1 # 여: 언자 바틀 이래 해 무운는데.{여기 인제 밭을 이렇게 해 먹었는데.}

=1 # 그래서 우리가 언자 처문지 인자 여따다 지블 이래 지잉기라.{그래서 우리가 인제 처음에 인제 여기다가 집을 이렇게 지은 거야.}

=1 # 지블 지인는데.{집을 지었는데.}

=1 # 그리구레 한: 멘년 인따가 언자 저짜겐:자.{그러구러 한 몇 년 있다가 인제 저쪽에 인제.}

=1 # 동생이 지블 진는데 친저~어 아버지가 오시각:꼬.{동생이 집을 짓는데, 친정의 아버지가 오셔서.}

=1 # 너거 집찌:머 여: 동상하고 새~이하고 바까:라.{너희 집 지으면 여기 동생하고 형하고 바뀌라.}

=1 # "그래 와예?" 형께.{ "그래 왜요?" 하니까.}

=1 # 한 태에는 동상이 엔:쭈게야 데지, 동창이 오온쭈게 이시마 니가 치:도 하나 치인다. {한 태에는(한 태에서 난) 동생이 왼쪽이어야 되지, 동생이 오른쪽에 있으면 누가 치여도 치인다.}

=1 # 아버지가.{아버지가.}

=1 # 딱 구루쿠타라코여.{딱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1 # 그래 그 소리르 득꼬.{그래 그 소리를 듣고.}

=1 # 내가 인제 허파삼: 우리 동시안데, "동시야!"{내가 인제 허탕 삼아 우리 동서한테, "동서야!"}

=1 # 글:그루언자 지블 지이가꼬 언냐 지블 참 우리 영가미 우리 실랑이 지이 조:서.{그러구러 인제 집을 지어서 인제 집을 참 우리 영감이 우리 신랑이 지어 줘서.}

=1 # 이새르 드리갈써.{이사를 들어 갔어.}

=1 # 그래 우리 아버지가 와악꼬:.{그래 우리 아버지가 와서.}

=1 # 이망가 저마양가 그러쿤데, 동시야 지을 바꾸라코더라 형께, 우리 동시가 펼쩍건능기라.{*** ***/ 그러는데, 동서야 집을 바꾸라고 하더라 하니까, 우리 동서가 펼쩍하는 거야.}

=1 # 저너꼬짜(?) 내 집 사지 만다 바까요?{**** 내 집에 살지 뭐 한다고 바뀌요?}

=1 # 크라고머 울마 아니서서 고마 가뻘쓰.{그러고 그만 얼마 안 있어서 가 버렸어.}

=1 # 그래 삼남매 딱 인따여, 삼남매.{그래 삼남매 딱 있대요, 삼남매.}

=1 @ 그래서 아까 언자 디르 드러가봉께네 함: 가박꺼등예.{그래서 아까 인제 뒤로 들어가 보니까 한 번 가 보았거든요.}

예.{예.}

=1 @ 디에는 그래 울타리가 엮떠라꼬예.{뒤에는 그래 울타리가 없더라고요.}

=1 @ 여: 요기하고 요요예.{여기 여기하고 여 여기에.}

=1 @ 윤: 윤: 다미 하나 인는데, 엮쩍하고.{여기는 여기는 담이 하나 있는데, 옆집하고.}

=1 # 규웁또 우리 장꼬방 이: 진:다꼬 인파: 다물 싹찌:.{그것도 우리 장독대 이거 짓는다고
여기다가 담을 싹았지.}

=1 # 예, 저네는 고마 민미나~이 이리**.{예, 전에는 그냥 밋밋하게 이리**.}

@ 그렇게 디이르 봉게, 그 담도 억꼬 그냐, 지비 그냥 머 한 그 한 한쭈어로 요 가치.{그러
니까, 뒤를 보니까, 그 담도 없고 그냥, 집이 그냥 뭐 한 쪽으로 이렇게 같이.}

예.{예.}

=1 @ 그:서 참 나는 히한하다 켜떠마는 동생 ***. {그래서 나는 참 희한하다고 했더니만,
동생 ***.}

=1 @ 어, 짐: 조카지비다 그렇게, 그지예?{어, 지금은 조카집이다 그러니까, 그쵸?}

=1 @ 그 아까 아빠.{그 아까 앞에.}

=1 @ 하라버지 아까 어성초라 캐습니까?{할아버지 아까 어성초라고 했습니까?}

=1 # 예, 예, 여 끝 피가: 인능거, 어성초.{예, 예, 여기 꽃 피어 있는 것, 어성초.}

=1 @ 어성초 거 말씀 쫘 머, 누구 두 분 주~에 어느 부니 하시든지 함 ***, 어성초는 어
데 존습니까?{어성초 그것 말씀 쫘 뭐,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하시든지 한 번 ***, 어성초
는 어디에 존습니까?}

=1 # 어성초가 피로.{어성초가 피를.}

만병통치라 크능기라예.{만병통치라고 하는 것이예요.}

=1 # 피로 막게 해중게:.{피를 맑게 해 주니까.}

=1 # 어성초를 마이 무그모 나이 마나도 중풍이 안온다.{어성초를 많이 먹으면 나이 많아
도 중풍이 안 온다.}

=1 # 그래 나도 언자 저건또 몰라안테.{그래 나도 인제 저것도 몰랐는데.}

=1 # 오래 델:심니다.{오래 되었습니다.}

=1 # 하:논제 진주 우리 친정~어 강께.{하루는(?) 인제 진주 우리 친정에 가니까.}

=1 # 우리 동상이 요: 수늘.{우리 동생이 여기 순을.}

=1 # 아 요 뿌리~이로 톡, 모매뿌리 순생님 모르지야?{아, 요 뿌리를 톡, '모매' 뿌리 선생
님 모르지요?}

=1 @ 바테 나능 거 하양거 그 나능거.{밭에 나는 것, 하얀 것 그 나는 것.}

=1 # 노네, 노네.{논에, 논에}

@ 노 아* ** 바테에그 그 노네나능 거.{논 아 밭이 아니고 그 논에 나는 것}

노네나능.{논에 나는.}

@ 꼬치 나풀매커 피고.{꽃이 나팔처럼 피고.}

=1 # 농 갈머 하머.{논 갈면, 아무렴.}

@ 예, 저 마~이 무머 톡 안 노온다 카능거.{예, 저 많이 먹으면 톡 안 나온다고 하는 것.}

=1 # 설싸하지.{설사하지.}

@ 설사합니까?{설사합니까?}

독캐서.{독해서.}

=1 @ 독캐서 설사하는 ***. {독해서 설사하는 ***.}

그 뿌리~이.{그 뿌리.}

@ 뭐쩌던 똥 노온데 이상하다카는 그거 마리지예?{어쨌든 똥 나오는 데 이상하다고 하는 그것 말이지요?}

=1 @ 쪼깨: 암니다.{조금 압니다.}

뚝 그: 뿌리매~이로 그런티여.{뚝 그것 뿌리처럼 그렇데요.}

=1 # 세아네 강께:, 친저~어 강:께네.{겨울에 가니까, 친정에 가니까.}

=1 # 그래 동새~이 요리, 고기:.{그래 동생이 요리, 그계.}

=1 # 이키로라 쿠더나 사 상키로라쿠더나.{이킬로그램이라고 하던가 삼킬로그램이라고 하던가.}

=1 # 봉다리르 여리 여노코 파능기라.{봉지에 이렇게 넣어 놓고 파는 거야.}

=1 # 그래, 동새~이 이 먹꼬:, 이랑게.{그래, 동생 이게 뭐지, 이러니까}

=1 # 그계 누운님 어성춌니다.{그계 누님 어성초입니다.}

=1 # 그남 이거 마아능킨데, 흥께.{그러면 이것이 뭐하는 것인데, 하니까.}

=1 # 으성초로 내가 절라도 사래미.{어성초를 내가 전라도 사람이.}

=1 # 아는 사래미 일따 갈따노코.{아는 사람이 여기다 갖다 놓고.}

=1 # 내가 파라주요, 이러쿠크데.{내가 팔아 줘요, 이렇게 (말)하데.}

=1 # 그래서 그때마 해도 고기: 봉다리 요마침 드런데 스 삼마넌 도라캐.{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계 봉지에 요만치 들었는데 삼 삼만원 달라고 해.}

=1 # 그런:자 삼마넌 준다쿠고 내가 한 봉다리 갈따가.{그래 인제 삼만 원 준다고 하고 내가 한 봉지 갖다가.}

=1 # 저: 건네 저 언자 노니 인자 일써서 승굴쓰예.{저 근너에 저 인제 논이 인제 있어서 심었어요.}

=1 # 그래 노네 언자 짹: 깔리가 이리 인는데.{그래 논에 인제 짹: 깔려서 이렇게 있는데.}

=1 # 그래 그람: 이기: 마안데 무운데, 흥께네로 이기: 누우님 만병촌데.{그래 그럼 이게 뭐하는데 먹는데, 하니까 이게 누님 만병(통치)초인데.}

=1 # 이걸 마니 무그몬.{이걸 많이 먹으면.}

=1 # 피로 막게 해주기 때머네:.{피를 맑게 해주기 때문에.}

=1 # 나이 마나도 중푸~이 안 온답니다.{나이 많아도 중풍이 안 온답니다.}

=1 # 그래 누우님도 그라 하나 갈따 승굴라며 승구 보소.{그래, 누님도 그래 하나 갖다 심으려면 심어 보소.}

=1 # 그래 언자 그짖: 승거쓰예.{그래 그 쪽에는 심었어요.}

=1 # 아 애초 여: 디에 여: 참 우리 까끔 미테 저 노네도 승굴따.{아, 애초에 여기 뒤에 여기 참 우리 산 밑에 저 논에도 심었다.}

=1 # 승구 가져고.{심어서.}

=1 # 고기: 한:: 삼 사넌:: 덴:는데.{그계 한 삼사넌 됐는데.}

=1 # 서울 우리 두채 아:가.{서울 우리 둘째 아이가.}

=1 # 가니 나빠각:꼬.{간이 나빠서.}

=1 # 아:가 우찌:: 일러네 한 두서너번스 멧질로 두분 내려오고.{아이가 어찌 일년에 한 두서너 번씩 명절에 두 번 내려오고.}

=1 # 참 두: 분써 이리 내로울.{참 두 번씩 이렇게 내려올.}

=1 # 어자 저:아버지 인자 내 이 생아때 언자 내려오고 이라모.{인제 자기 아버지 인제 내 이 생일 때 인제 내려오고 이러면.}

=1 # 모::든 야글 게지리미 찌고:.{모든 약을(?) 개기름이 끼고.}

=1 # 약베~이로 저롱걸: 갑파나코 왁 각꼬 와서 묵꼬: 묵꼬 이래:.{약병을 저런 것을 갖다 놓고 가지고 와서 먹고 먹고 이래.}

=1 # 그래서 거기 야야 무슨 야:이고 홍께:.{그래서 그것이 애야 무슨 약이니 하니까.}

=1 # 아무곶뚜 아~임니더, 어래:.{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래.}

=1 # 거기: 아~이지:.{그게 아니지.}

=1 # 그래 인자 한 해 가고 두 해 가고 우리 아:가 너무 말라여:.{그래 한 해 가고 두 해 가고 우리 아이가 너무 말라요.}

=1 # 여어 고마 새::캄해가주마 개지리미 막 각:: 찌조 그래:.{여기 그냥 새카맣게 해서 그냥 개기름이 짹 끼어서 그래.}

=1 # 지 누구도 오몬 보고 걱정을 하고:.{제 누나도 오면 보고 걱정을 하고.}

=1 # 나도 오면 고마 닥 거저~이 테서 마 죽꾼능기라:.{나도 오면 그냥 딱 걱정이 돼서 죽겠는 거야.}

=1 # 그래 니가 오:디가:푸노, 오디가:푸노?{그래 네가 어디가 아프냐, 어디가 아프냐?}

=1 # 그루구루 참 유시킨 마리 나온다:.{그러구러 참 유식한 말이 나온다.}

=1 # 그루구루 참 딸래미 두 개 노코:.{그러구러 참 딸 둘 낳고.}

=1 # 우리 두채 아:가 서울서:.{우리 둘째 아이가 서울에서.}

=1 # 언자 사간학교 나와아저고 언자:.{인제 사관학교 나와서 인제.}

=1 # 거:서 누아 이 인자 소령 소령 다라가저고:.{거기서 ?? 이 인제 소령 소령 달아서.}

=1 # 고마 지가 지대르 헐뽀스예:.{그냥 자기가 제대를 해 버렸어요.}

=1 # 언자 고 아넌:자 게로늘 헐:찌:.{인제 그 안에 인제 결혼을 했지.}

=1 # 언자 고등하교 언자 승승님하고:.{인제 고등학교 인제 선생님하고.}

=1 # 게론 해가 사:다가:.{결혼을 해서 살다가.}

=1 # 살다가 그루구루 참 딸래미 노코, 딸래미 두 개 노코:.{살다가 그리저리 참 딸 낳고, 딸 둘 낳고.}

=1 # 우리 메느리가 마 너머 가뽀는데:.{우리 며느리가 넘어가 버렸는데(저세상으로 가 버렸는데).}

=1 # 그리해서 그루 우째 그런노:쿵:께네:.{그리해서 그래 어찌 그렇냐고 하니까.}

=1 # 내 스새~인데 이리쿠지요, 하이그, 내 말로 몬함니더:.{내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하지요, 아이고, 내 말을 못 합니다.}

=1 # (한숨소리) 그라고 우리 두채 메느리 고거 딱 고래 데오 나서:.{(한숨소리) 그리고 우리 둘째 며느리 그거 딱 그렇게 되고 나서.}

=1 # 우리 참 그루구루 한 삼년:.{우리 참 그러구러 한 삼 년.}

=1 # 한 삼녀늘 그렇게 인자:.{한 삼 녀를 그러니까 인제.}

=1 # 재인 장모가 와서 인능기라:.{장인장모가 와서 있는 거야.}

=1 # 우리 아:로 안 떠러질라쿠능기라, 사위렐:.{우리 아이를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야. 사위를.}

=1 # 안 떠러질라쿵걸:, 거 참 골란하데, 그래 인자:.{안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거 참 곤란하데, 그래서 인제.}

=1 # 그 인자 그스할 때 인자 이 우리 메느리가:.{그 인제 거석할 때 인제 이 우리 며느리가.}

=1 # 우쨌냐 그트모 그때 유방아를 몰란는 모내~이라.{어쨌느냐 같으면 그 때 유방암을 몰랐던 모양이야.}

=1 # 유방아를.{유방암을.}

=1 # 그렇게 고마 핵:꼬 고마 테지글 하고.{그러니까 그냥 학교 그만 퇴직을 하고.}

=1 # 고마 이 비우느로 이리 대~이고 이래헨:데.{그냥 이 병원으로 이리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1 # 그: 마를 갑파 우리 자시기 마를 안 한다 마립니다.{그 말을 갖다 우리 자식이 말을 안 한다 말입니다.}

=1 # 이리 와도:{이렇게 와도.}

=1 # 가끔 가다 와도.{가끔 가다 와도.}

=1 # 그래, 누: 우똥네 우똥네쿠모.{그래 너희 어떻니 어떻니라고 하면.}

=1 # 메느리 개안나쿠메, 예, 어머~이 갠차네요:.{며느리 괜찮냐고 하면, 예, 어머니 괜찮아요.}

=1 @ 예.{예}

이리 나오다가.{이렇게 나오다가.}

=1 # 마: 난주 고마 너머갑파쿠대.{뭐 나중에 그냥 넘어갔다고 하대.}

=1 # 그래 마 저거 막 헹간드리 마 저녁게 고마 저녁차로. {그래 마 자기들 막 형제간들이 저녁에 그냥 저녁차로.}

=1 # 싹 다 올라가가지고 언자 일로 치고 왔는데.{싹 다 올라가서 인제 일을 치르고 왔는데.}

=1 # 크나드이 재인 장모가 우쨌든지 우리 사위로 검:작꼬 이실라캐, 참 우리 아:로 검:작꼬 이실라캐, 안 놀라쿠능기라.{그나저나 장인 장모가 어쨌든지 우리 사위를 거머잡고 있으려고 해, 참 우리 아이를 거머잡고 있으려고 해, 안 놓으려고 하는 거야.}

=1 # 그라가지 사:년마네 그래각꼬 언자.{그래서 사 년 만에 그래서 인제.}

=1 # 우리 메느리 안 뜨스.{우리 며느리 안 떠서(안 죽어서).}

=1 # 아파뜨로 언제 해놓기라, 안사네서.{아파트를 인제 해 놓은 거야, 안산에서.}

=1 # 어자 애초에 언자 서울, 거: 인선는데.{인제 애초에 인제 서울, 거기에 있었는데.}

=1 # 안산: 와서 언자 아파또로 하나 해난:데.{안산 와서 인제 아파트를 하나 해 놓았는데.}

=1 # 그래 고마 우리 메느리 고마 떠빼리고.{그래 그만 우리 며느리 그만 떠 버리고.}

=1 # 이양지 지븐 해놓기고:.{이왕지사 집은 해 놓은 것이고.}

=1 # 우리 아드리 이리 언자 자기 지브로 딸래미 두 개 텍꼬 웅께.{우리 아들이 이렇게 인제 자기 집으로 딸 둘을 데리고 오니까.}

=1 # 내가 딸로 키아줄란다, 세순자를 키아줄란다.{내가 딸을 키워 주려다, 외손자를 키워 주려다.}

=1 # 이래가지오 재인 장모가 자기 지블 팔고 우리 두채 아들 지브로 완써.{이렇게 해서 장인 장모가 자기 집을 팔고 우리 둘째 아들 집으로 왔어.}

=1 # 그래각꼬 사녀~을 딱 인는데.{그래 가지고 사 년을 딱 있는데.}

=1 # 그렇게 고마 우리 아:도 고마 고미~이 데는갑때.{그러니까 그냥 우리 아이도 그냥고 민이 되는가 보대.}

=1 # 그라고 고마 아:가 고마 참 이 가니 나쁘다쿠능기라.{그리고 그냥 애가 그냥 참 이 간

이 나쁘다고 하는 거야.}

=1 # 가니 나뽕겉도 우째서 인냐 나뽕냐거트모, 우째서 아란냐가뜬머.{간이 나쁜 것도 어째서 인제 나쁘냐고 하면, 어째서 알았냐고 하면.}

=1 # 우리 미느리 죽꾸나서 인자 사년마네 인자.{우리 며느리 죽고 나서 인제 사 년 만에 인제.}

=1 # 이 이새르 왓:꼬 여:, 사녀들 재인장모 텍꼬 일따가.{이 이사를 와서 여기, 사 년을 장인 장모 데리고 있다가.}

=1 # 내가 가서 우리 아들 바블 해주근나캐스.{내가 가서 우리 아들 밥을 해 주겠느냐고 했어.}

=1 # 저 사암:네 사오로, 사두눌 떠린 절 띠올라꼬.{저 사람들 사위를, 사돈을 떨어 저 때려고.}

=1 # 그렇게 인자 우리 사두~이 인자.{그러니까 인제 우리 사돈이 인제.}

=1 # 내가 와서 바블 해준다쿠크는 자기는 문익글다 시퍼서 언자, 거 여페 또 지블 샅서.{내가 와서 밥을 해 준다고 하면 자기는 못 있겠다 싶어서 인제,그 옆에 또 집을 샀어.}

=1 # 시블 사가저오.{집을 사서.}

=1 # 양녁서레 민년동고 물:글따.{양력설에, 몇 년도인지 모르겠다.}

=1 # 양녁서레 언자 우리 큰딸하고 내하고 언자 아들 지베 갈써.{양력설에 인제 우리 큰딸하고 나하고 인제 아들 집에 갔어.}

=1 # 우리 드리강께 지물 요리 싸날:때.{우리 들어가니까 짐을 요리 싸 놓았데.}

=1 # 그래서 인자 딸로 도로:쿠고 저 손자로 하나 키운다카고 도로쿠고.{그래서 인제 딸을 달라고 하고, 저 손자를 하나 키운다고 하고 달라고 하고.}

=1 # 그래 우리 아:느 안 줄라쿠고.{그래 우리 아이는 안 주려고 하고.}

=1 # 나도 안줄라쿠고.{나도 안 주려고 하고.}

=1 # 내가 여: 데꾸 이싱깁게 사돈 걱정 마이소:{내가 여기에 데리고 있을 거니까, 사돈 걱정 마십시오.}

=1 # 이래가: 인는데.{이려고 있는데.}

=1 # 그랜:자 그: 언자 사:년 동아네.{그래 인제 그 인제 사 년 동안에.}

=1 # 우리 아:가 이 재인 장모르 텍꼬 이시멘서.{우리 아이가 이 장인 장모를 데리고 있으면서.}

=1 # 재인 장모는 사:우가 조아서 이리 그스글 하안데.{장인 장모는 사위가 좋아서 이리 거스름을 하는데.}

=1 # 우리 아:가 좀 얌난합니더.{우리 애가 좀 얌전합니다.}

=1 # 쫌 털터라~이 이리 아나타요.{쫌 털털하니 이래 안 해요.}

=1 # 우리 망내~이 털털하~이 이래도.{우리 막내는 털털하니 이래도.}

=1 # 그러도 참 지베 오머.{그래도 참 집에 오면.}

=1 # 향:상 정년 목꼬 나서 지:썩 그이 해사에.{향상 저녁 먹고 나서 자기 썩 그 회사에.}

=1 # 볼릴 다 보고 오면.{볼일 다 보고 오면.}

=1 # 저녕 목꼬 기지배 두리 딱 영감할매~이 딱 텍꼬 자고.{저녁 먹고 계집애 둘이 딱 영감 할머니 딱 데리고 자고.}

=1 # 이거느 오문 밥 한 수까라 주면 목꼬, 지 방에 딱 **. {이것은 오면 밥 한 숟가락 주면 먹고, 자기 방에 딱 (들어가).}

=1 # 사녀들 그라:장:께.{사년을 그리자니까.}

=1 # 저: 이 사례미 쏘기 시끄럴 때는 사례미 여뻐 일시모 좀 낚:따 아~임니까?{저, 이 사람이 속이 시끄러울 때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좀 낚잖습니까?}

=1 # 그 계지웨라도 가, 아빠한테 가거라.{그 계집애라도 가, 아빠한테 가거라.}

=1 # 이건 내 상각이라.{이건 내 생각이야.}

=1 # 이리 데야 데능긴:데.{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1 # 도저~이 고마 참 딸래미도 고마.{도저히 그냥 참 딸도 그냥.}

=1 # 딱 그마 드리갈짜 딱 보고 나올짜 딱 보고 그기라.{딱 그냥 들어갈 적에 딱 보고 나올 적에 딱 보고 그거야.}

=1 # 그녀모 이 혼차서 모: 올:매나 고미느 헨지엽.{그놈 이 혼자서 뭐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1 # 고마 사례유 마 얼구리 그마 자:꾸 타르게 지능기라.{그냥 사람 뭐 얼굴이 그냥 자꾸 다르게 지는 거야.}

=1 # 인자 고 아네 인자 그는 사고 당할 때 언자.{인제 그 안에 인제 그런 사고 당할 때 인제.}

=1 # 참 쏘기 말도 모낸찌.{참 속이 말도 못 했지.}

=1 # 그런 차에.{그러던 차에.}

=1 # 인잔 내가 가서 언자 양 녀서:레 우리 큰딸하고 가가저고 언자.{인제 내가 가서 인제 양력설에 우리 큰딸하고 가서 인제.}

=1 # 내 물 내 내 강:께네 지물 요: 사는데 자기네들 자기 집 사논데로 가고.{내 물 내 내가 가니까, 짐을 이리 싸는데, 자기네들 자기 집 사 놓은 데로 가고.}

=1 # 이리 헨:데.{이렇게 했는데.}

=1 # 그 해:사에 텍꺼인는 간호사가 언자 두리 인능기라.{그 회사에 데리고 있는 간호사가 인제 둘이 있는 거야.}

=1 # 그래서 한 메칠 이승게 내가 몸체가 나데 언자, 우리 따른:자 내가 데브다노콘:저 여여 내리오고.{그래서 한 며칠 있으니까 내가 몸살이 나데 인제, 우리 딸은 인제 내가 데려다 놓고 인제 여기 내려오고.}

=1 # 내: 아:들로 밥을 해주:.{내가 아이들에게 밥을 해 줘.}}

=1 # 우리 아들, 언자 자근아들 야온 일런 딱 인설쑈.{우리 아들, 인제 작은아들 나하고 일년을 딱 있었소.}

=1 # 일러늘.{일년을.}

=1 # 고 아넨:자 내가 함:문스 가며는.{그 안에 인제 내가 한 번씩 가며는.}

=1 # 우리 아들 또 조:아하는 사라미 이서서.{우리 아들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

=1 # 그 노동청 일따쿠는 큰 애이가.{그 노동청에 있다고 하는 큰아이가.}

=1 # 건췌데.{권 씨인데}

=1 # 저: 대구 건췌데 사례미 너:무 조아.{저 대구 권씨인데, 사람이 너무 좋아.}

=1 # 근:디 이 사람마 오몬 쭈개는 게이베 요걸 씨기서.{그러는데 이 사람만 오면 조그만 계집애 이걸 시켜서.}

=1 # 마라 오노 가라캐라, 가라캐라, 요리 씨이고.{뭐하러 오니 가라고 해라, 가라고 해라, 이렇게 시키고.}

=1 # 우:짚지 머 그 기지배르 그마 닥 밍따쿠능기라.{어쩐지 그 계집애를 그냥 딱 밍다고

하는 거야.}

=1 # 그래 내가 종:종 올라가도.{그래 내가 종종 올라가도}

=1 # 그 기지베마 오모 고마.{그 계집애만 오면 그냥.}

=1 # 고마 안새~이 안 조코.{그냥 안색이 안 좋고.}

=1 # 마 그리 그스하능기라, 그릉게 언자 우리 아가 그점저점.{뭐 그리 거스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제 우리 애가 그리저리.}

=1 # 마 쏘기 고마 더 안 조웅기라.{뭐 속이 그냥 더 안 좋은 거야.}

=1 # 그래서 내 거:서 언자 한 맨딸 이싱께네로.{그래서 내가 거기서 인제 한 몇 달 있으니까.}

=1 # 아이고, 야야: 내가 팔다리가 아파 죽꼐파.{아이고 애야, 내가 팔다리가 아파 죽겠다.}

=1 # 어디 내 거 찌 내 야글 좀 사물란다 쿡께네.{어디 내 그 저 내 약을 좀 사먹으려한다고 하니까.}

=1 # 어:미 금: 좀 이시소, 내가 사람 하나 보내께, 약 사가 보내께 쿠대.{어머니 그럼 좀 있으세요, 내가 사람 하나 보낼게, 약 사서 보낼게라고 하데.}

=1 # 그래 언냐 아직 목꼬 한 여:남시 텅께네로.{그래 인제 아침 먹고 한 열 시쯤 되니까.}

=1 # 그 아가씨가 왁새, 와아저고, "한머니!"{그 아가씨가 왔어, 와 가지고, "할머니!"}

=1 # 아이, 저 정냥인데, 정냥 오나?{아이, 저 정 양인데, 정 양 오니?}

=1 # 네.{네.}

=1 # 그래, 목치가 마~이 나씨요?{그래 몸살이 많이 났어요?}

=1 # 그래, 내가 좀 팔다리가 아프다.{그래 내가 좀 팔다리가 아프다.}

=1 # 우:더니 내가 이래가 이싱께네 풀다리가 아프다 상게.{우두커니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팔다리가 아프다 쌓으니까.}

=1 # 그래 언자 야글 가져 오고, 내 주사 한 대 나주고.{그래 인제 약을 가져 오고, 내 주사 한 대 놓아 주고.}

=1 # 쭈 갈때: 내가 언자 "정냥아!"{? 갈 때 내가 인제 "정 양아!"}

=1 # 예, 산능기라.{예, 쌓는 거야.}

=1 # 나는 그걸 메느리하고 시폰데.{나는 그 아이를 며느리 삼고 싶은데.}

=1 # (웃음) 우리 아:는 또 굳:또 마다쿠네.{(웃음) 우리 아이는 또 그것도 마다하네.}

=1 # 지 험사 텍꼬인는 큰애이가.{자기 회사 데리고 있는 큰애이가.}

=1 # 사례미 너:무 조아, 툄툄:하~이 고마.{사람이 너무 좋아, 툄툄하니 그냥.}

=1 # 그래 나는 자꾸 언자 그마 "정냥! 구마 마 우리 메느리하자, 메느리하자." 이래 쿡께. {그래 나는 자꾸 인제 그냥 "정 양! 그냥 뭐 우리 며느리 하자, 며느리 하자." 이렇게 하니까.}

=1 # "어머~이, 아문또 마:여." ***.{ "어머니, 아무것도 (말하지) 마세요." ***.}

=1 # 지는 그렇게 한 찌게 마으미 썰려가 인는데.{자기는 그러니까 한 쪽에 마음이 쏠려 있는데.}

=1 # 그래각꼬 이래 사:다가.{그래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1 # 정냥한테 내가 무릉께:.{정 양한테 내가 물으니까.}

=1 # "아요! 우리 정아 아바~이가 와: 저래 열구리 저런노?" 쿡께.{ "아요! 우리 정아 아버지 왜 저렇게 얼굴이 저렇니?" 하니까.}

=1 # "할머~이, 모름니꺼?"{"할머니, 모름니까?"}

=1 # 내가 모르는데.{내가 모르는데.}

=1 # 시방예: 노부장님미여.{시방요 노부장님이요.}

=1 # 가니 너:무 안 조오각꼬:.{간이 너무 안 좋아서.}

=1 # 베칠마네 피를 만:날 검사르 한다쿠네여.{며칠 만에 피를 만날 검사를 한다고 하네요.}

=1 # 거 벼~우네선:자 벼운 참 저 저어게 해사가 저어게 그 노송가구라.{그 병원에서 인제 병원 참 저 저기 회사가 저기 그 '노송가구'야.}

=1 # 노송가~이 거:르 드러가저거 인는데 인자.{‘노송가구’ 거기에 들어 가서 있는데 인제.}

=1 # 부장 자리 안자가:꼬.{부장 자리 앉아서.}

=1 # 한 뎨년 인따가.{한 몇 년 있다가.}

=1 # 부장자리 안자가저고 언자.{부장자리에 앉아서 인제.}

=1 # 고마 이글 지거 어마 어퍼서 고마.{그냥 이것 저것 얹어서 그냥.}

=1 # 지 맘:도 안: 조은 차에다가 고마 이 그마 참 가니 좀 안 조안뎨 무내~이라, 너:무 안 조아.{자기 마음도 안 좋은 차에 그냥 이 간이 그냥 좀 안 좋았던 모양이라, 너무 안 좋아.}

=1 # 그래서 내가 가마: 새:양계, 올타:.{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옳다.}

=1 # 내가 어성초 저거 송거농:결:.{내가 어성초 저것 심어 놓은 것을.}

=1 # 오래 삼년챙가 사년챙가 나는데.{올해 삼 년째인가 사 년째인가 나는데.}

=1 # 저걸 내 캐서 미:야 대언따.{저걸 내가 캐서 먹여야 되겠다.}

=1 # 그래 고마 지베 내가 전할 행서.{그래 그만 집에 내가 전화를 했어.}

=1 # 어성초 거 캐 올려 도라.{어성초 그것 캐서 올려 주라.}

=1 # 영가만테.{영감한테.}

@ 예.{예.}

=1 # 그:느언짜 이는 푸대다: 캐 올리 주모.{그것은 인제 이런 푸대에다 캐서 올려 주면.}

=1 # 내가 참 항:상 여 박스 딱: 여:노코.{내가 참 항상 여기 박스에 딱 넣어 놓고.}

=1 # 딱: 더퍼 노코 고고르 흑클 안 씨꺼야 데거덩.{딱 덮어 놓고 그것 흙을 안 씻어야 되거든.}

=1 # 흑 씨꺼 빠름: 말라 뵤다 말입니다.{흙을 씻어 버리면 말라 버린다 말입니다.}

=1 # 하모, 그래 그 흑 쏘근:저 추진 흘께다 항:상 요리 더빠노꼬.{아무럼, 그래서 그 흙 속은 인제 추진 흙에다 항상 이렇게 덮어 놓고.}

=1 # 딱: 요리 내가 한 주무씨.{딱 요렇게 내가 한 주먹씩.}

=1 # 여가라악:꼬 칼로 쯡쯡쯡 씨리각:꼬.{***** 칼로 '쯡쯡쯡' 썰어서.}

=1 # 요걸 미씨에 가능기라.{요걸 믹서기에 가는 거야.}

=1 # 물로 좀 부우각:꼬{물을 좀 부어서.}

=1 # 물 한 컵 정도, 두 컵 정도 부예테네.{물 한 컵 정도 두 컵 정도 부어야 되네.}

=1 # 요리 한 주주멍 달:로쿠모.{요리 한주먹 ****고 하면.}

=1 # 삭사사 씨꺼가 깨끄씨 씨꺼까꼬 씨리각:꼬.{썹썹썹 씻어서 깨끗이 씻어서 썰어서.}

=1 # 미씨게 여:가 저넙쓰 물 두컵 북꼬 딱 가라악:꼬.{믹서기에 넣어서 저놈, 물 두 컵 붓고 딱 갈아서.}

=1 # 아즈게 갈 때 한 컵 딱 마시고.{아침에 갈 때 한 컵 딱 마시고.}

=1 # 언자 또 오메는, 저넹엔:자 또 저너~어 또, 잘 때 데서 오메는.{인제 또 오며는, 저녁에 인제 또, 저녁 또 잘 때 돼서 오며는.}

=1 # 또 한 컵 내가 따 가라놓:거 또 미잉기라, 요*.{또 한 컵 내가 딱 갈아 놓은 걸 먹이는 거야, 요걸.}

=1 # 인 저시므여, 딱 가라날:따가 물로 닥 가라노모, 저시모.{이렇게 저으면요, 딱 갈아 놓았다가 물로 딱 갈아 놓으면, 저으면요.}

=1 # 포::한 무리.{뽀얀 물이.}

=1 # 무레 찌끄리가 포::하~이 여리 그 머시라쿠노?{물에 찌꺼기가 뽀야니 이렇게, 그 무엇이라고 하니?}

=1 # 그이 여 수가라 떠 잉기라, 요레 학: 저스모. {그게 여기 숟가락에 떠 있는거야, 요렇게 학 저으면}

=1 # 그이 비린내가 엄:청 납니다.{그게 비린내가 엄청 납니다.}

=1 # 저걸 난주~우 떼가꼬 함: 살찌기 만타보이소.{저걸 나중에 떼어서 살짝 말아 보십시오.}

=1 # 확: 비인난, 약 개비린내 그렇기 난다.{확 비린내 난다, 딱 개 비린내 그런 것이 난다.}

=1 # 그래 그걸: 그래그룬:자 저 인능걸 자 다 캐:미:고.{그래 그것을 그러구러 인제 저기 있는 것을 인제 다 캐어 먹이고.}

=1 # 저 또스 진주 또 우리 세채 아:드를 또, 거: 이실때{저, 또 진주 우리 셋째 아들을 또, 거기 있을 때.}

=1 # 진주 시장에 나가거덩 그거 좀 사보내라.{진주 시장에 나가거든 그것 좀 사 보내라.}

=1 # 그러구루 언자 사서 묵꼬 언자:.{그러구러 인제 사서 먹고 인제.}

=1 # 지베거 다 캐무꼬 이랑:기:.{집의 것 다 캐어 먹고 이런 게.}

=1 # 한 칠팔 지내오 치파럴딸 내가.{한 칠팔 지내고 칠팔월에 내가.}

=1 # 양녁서르 가시닝께 추석 지내고 초가실에.{양력설에 갔으니까 추석 지나고 초가을에.}

=1 # 가시레 정냥~이 함: 또 날로 또.{가을에 정 양이 한 번 또 나를 또.}

=1 # 종종 언자 날로 언자 주사 하무스 노오로 오능기라.{종종 인제 나에게 인제 주사 한 번씩 놓으러 오는 거야.}

=1 # 그래 언자 정냥 우편네 쿠모.{그래 이제 정 양 어떻니라고 하면.}

=1 # 그루구룬:자 초가실이다.{그러구러 인제 초가을이다.}

=1 # 또 가시렌:자 이 내가 언자 일런 다: 데 가갈땐:자. {또 가을에 인제 이 내가 인제 일년 다 되어 갈 때에 인제.}

=1 # 구시위레 전녕이 또 함: 완꼴래다가 우편네?{구시월에 정 양이 또 한 번 왔기에 어떻니?}

=1 # 우리 정아아빠가 꼭 그런나 함께.{우리 정아 아빠가 꼭 그렇니 하니까}

=1 # 만::날 오모 날로 씨파드마 삭꼬, 그 아가씨가 막: 날로 아등꼬 이러 산는데.{만날 오면 나를 쓰다듬어 쌓고, 그 아가씨가 막 나를 보듬고 이래 쌓는데.}

=1 # 통 매더나 시븐데 메드린 지가 꼭 안 할라쿠고.{통 맺어 놓아(?) 싶은데, 며느리는 자기가 꼭 안 하려고 하고.}

=1 # 그래 우편 흥께네.{그래 어떻니 하니까.}

=1 # 할머~이 야글 잡싸산트마너 야글 잡사서 그렇가.{할머니, 약을 잡쉬 쌓더니 약을 잡쉬서 그런지.}

=1 # 언자 개안심니다, 할머~이 맘 노이소:, 이러쿠데.{인제 괜찮습니다, 할머니 마음 놓으

세요, 이리데.}

=1 # 내 쏘게, 올타 인자 댁:꾸나.{내 속에, 옳다 이제 됐구나.}

=1 # 야, 언자 댁:꾸나.{야, 인제 됐구나.}

=1 # 아, 갈분.{아, 녹말가루.}

=1 # 물 두 쿠푸:서 요레 한 주머 해 딱 가라로미여, 싹 가라각꼬.{물 두 컵 부어서 요렇게 한 주먹 해서 딱 갈아 놓으면요, 싹 갈아서.}

=1 # 딱 두 컵 딱 갈라 노오메는.{딱 두 컵 딱 갈라 놓으려는.}

=1 # 미테 올 저녁~어 올 켜에는 내가.{밑에 오늘 저녁에 올 적에는 내가.}

=1 # 새벽게 내 딱 갈거등.{새벽에 내가 딱 갈거든.}

=1 # 두 컵 다 해노가 아즈으 가짜아 한 컵 미이고.{두 컵 다 해서 아침에 갈 적에 한 컵 먹이고.}

=1 # 저녁~어 와서 딱 밀라꼬 딱 보모.{저녁에 와서 딱 먹이려고 딱 보면.}

=1 # 여 커블 여: 숙까라 전시모.{여기 컵을 여기 숟가락으로 저으면.}

=1 # 갈부니 포::하~이 한 술칼:서 뜨입니다.{녹말가루가 뽀야니 한 숟가락씩 뜨입니다.}

=1 # 딱 가라안저가꼬.{딱 갈아 앉아서.}

=1 # 그래도 그걸 참 기척 엄시 이미가 해주능기라서 묵꼬.{그래도 그걸 참 기척 없이 이미가 해 주는 것이라서 먹고.}

=1 # 잉가, 한 한 여:남달 아매 무이 내가 미인능가베.{그러니깐 한 한 여남은 달 아마 먹이 내가 먹었는가 보네.}

=1 # 언자 사서 좀 미이고 우리 거 다 캐:묵꼬나서 사서 좀 미이고 이랜:데.{인제 사서 좀 먹이고 우리 것 다 캐어 먹고 나서 사서 좀 먹이고 이랬는데.}

=1 # 그루구루 인자 참 게안타 쿠때네.{그리저리 인제 참 괜찮다고 할 때에.}

=1 # 이 마:미 노이디여.{이 마음이 놓이네요.}

=1 # 그루구루 인자 참 고마 우리 아: 마다쿠는 사람도{그러구러 인제 참 그냥 우리 아이 마다하는 사람도.}

=1 # 고마 가:빠리고.{그냥 가 버리고.}

=1 # 고마 떠러저:빠리고.{그냥 떨어져 버리고.}

=1 # 일: 청아 장게르 디리야 데긴데.{일 청해 장가를 들여야 될 텐데.}

=1 # 돈니 슬따레, 아이 크니리라.{동지 선달에 아이 큰일이야.}

=1 # 그래어나 우짜든조 술려들 보고즈모 오거등예.{그래 인제 어찌든지 손녀들 보고 싶으면 오거든요.}

=1 # 오모, 사돈 중신하이소.{오면 사돈 중매하십시오.}

=1 # 중신해:.{중매해.}

=1 # 우리 정아 에미 테구로.{우리 정아 엄마 되게.}

=1 # 오데 조:온 삼: 정애 에미거튼 사람, 중슨해조라 쿠모.{어디 좋은 사람 정아 엄마 같은 사람, 중매해 도라라고 하면.}

=1 # 아이, 마:아로 중신해요?{아이 뭐하러 중매해요?}

=1 # 아, 기지베 두리 인:데, 둘 보고 사제.{아, 계집애 둘이 있는데 둘이 보고 살지.}

=1 # 장 마리 이:리 나오능기라.{늘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1 # 그렇게 내가 또 또 개쌌함: 딱 드능기라.{그러니까 내가 또 또 껌쌌함이 딱 드는 거야.}

=1 # 올라.{올다.}
 =1 # 콜렁께네로 그.{그러니까 그.}
 =1 # 건냥 그 드룽걸 그르케 미버 핵꾸나.{권 양 들어온 것을 그렇게 미워했구나.}
 =1 # 사래미 다 그르티여.{사람이 다 그렇데요.}
 =1 # 그루구루 참.{그러구러 참.}
 =1 # 아이 고마 거 어성초 조고 딱 내가 가라 미~이고 나서는.{아이 그냥 그 어성초 저것 딱 내가 알아 먹이고 나서는.}
 =1 # 한 궁게 궁 한 아매 한 식개월정도 미이시끼다.{한 그러니까 한 아마 십개 월 정도 먹었을 거다.}
 =1 # 내가 **{내가 **}.
 =1 # 그래 조타쿠이 때미네 그때 내가 맘 나안스요.{그래 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마음 놓았어요.}
 =1 # 그래구루 인자 참.{그러구러 인제 참.}
 =1 # 음넉 선따레.{음력 선달에.}
 =1 # 게로니 딱 데능기라.{결혼이 딱 되는 거야.}
 =1 # 지금 사는 사람하고.{지금 사는 사람하고.}
 =1 # 게로니 딱 데:.{결혼이 딱 돼.}
 =1 # 그라~이 참 대모게 게론 씨기 노코.{그러니 참 대목에 결혼시켜 놓고.}
 =1 # 내가 인자 지브 내르완뻔찌.{내가 인제 집으로 내려와 버렸지.}
 =1 # (웃음) 그래 딸 둘 이시며, 아들 하나 노꼬다:이가?{그래 딸 둘 있으면, 아들 하나 놓지 않고?}
 =1 # 또 딸로 ***(웃음).{또 딸을 ***(웃음).}

제2편 어휘

2.1. 농경

2.1.1. 경작

20101	벼	베'라(베)
20101	벼	나'라기라(나'락)
20102	이삭	모개'미
20102	이삭	모감'지
20102	이삭	이사기'라'(이삭')
20102	이삭	나락이삭'
20103	범씨	썩나'락
20104	못자리	모자'리
20105	모판	모'판
20106	쟁기	장'기(+ 벼)
20106	쟁기	쟁'기(+ 머)
20107	보습	보:습'
20108	벧	베를'
20108-0-1	-이	베르'치(베룻'+ 이)
20109	극쟁이	홀치'기
20110	씨레	씨어'리
20111	번지	*
20112	모내기	모심'기
20113	흙덩어리	흙따'~이
20114	고무래	당그'레
20114-1	고무래(곡식 용도)	당그'레라(당그'레+ 라)
20114-2	고무래(재 용도)	불땅그'레(+ 머)
20114-2	고무래(재 용도)	재땅그'레라(재땅그'레+ 라)(+ 벼)
20114-3	고무래(흙 용도)	*
20114-4	고무래(미는 데 사용)	당그'레'하교(당그'레+ 하교)
20114-5	고무래(당기는 데 사용)	당그'레'는(당그'레+ 는)
20115	쇠스랑	소시'랑
20116	곡괭이	목'깨'~이
20117	괭이	깨'~이'
20118	삽	수굴'포(+ 구,+ 머)
20118	삽	사'비'라(삽'+ 이라)(+ 신,+ 벼)
20119	호미	호'미(+ 신,+ 벼)
20119	호미	호매'~이(+ 구,+ 머)
20120	농기구	농구이장'
20121	김	지'심
20122	김매다	지'심매러 가'자(지'심매다)

20123	애벌 매다	초'불바틀 맨'다'(초'불 매다)
20123	애벌 매다	초'불노늘 맨'다'(초'불 매다)
20123-1	두벌 매다	두불론'매'로 가'자(두불' 매다)
20123-1	두벌 매다	두불바'틀매로 가'자(두불' 매다)
20123-2	마지막(세벌) 김매기	맘'논'매로 가'자
20123-2	마지막(세벌) 김매기	세불론'매'로 가'자
20124	논두둑	노:너덕'(논+ 어덕')
20125	밭둑	바뚜'기라(바뚱'+ 이라)
20126	밭두둑	두'더기(두'덕+ 이)
20126	밭두둑	반두'덕
20127	밭고랑	골:
20127	밭고랑	바'꼴
20128	밭이랑	*
20128-1	(밭이랑을) 타다/갈다/째다/파다	두'두근 진는'다'
20128-1	(밭이랑을) 타다/갈다/째다/파다	고랑을 파'라'
20128-1	(밭이랑을) 타다/갈다/째다/파다	골로 타'라'
20128-2	이랑밟기	바꼬'랑' 불'보러 가'자
20129	보리	보리'
20129-1	가을보리	가을보'리'
20129-2	봄보리	봄보'리
20130	보리쌀	보리'쌀
20131	가을갈이	
20132	깜부기	깜베'기(+ 버)
20132	깜부기	깜비'기(+ 머)
20133	두엄	창거'르'미'지(창거'름'+ 이지)
20134	거름	거르미'라'(거름'+ 이라)

2.1.2. 타작

20201	추수하다	비수하'다(?)
20202	벧단	나락'판 뭉'꼰따(나락'판+ 뭉'꼰따)
20202-1	벧단(한 줌 정도)	*
20202-2	벧단(타작할 정도)	깁'판
20202-3	벧단(한 아름 정도)	무'단'
20203	가리(積)	무디'기(+ 버)
20203	가리(積)	느'리 (+ 나무)
20204	가리다(積)	가'린다
20205	벧가리	나'랑 무디'기
20206	날가리	무디'기(?)
20207	타작	타:자'글'(타:작'+ 을)
20208	벼훑이	찍'깨
20208-1	그네	썰호'깨(+ 머)
20208-1	그네	홀'깨(+ 버)
20209	개상	*

20209-1	자리개	*
20209-2	자리개질	공'산'타재'기'라(공'산'타작'+ 이라)
20210	도리개	도로'개
20210-1	도리갯장부	도르'개'집'
20210-2	도리갯열	도르'개'열'
20210-3	도리개꼭지	도로'개'꼭때'기(+ 버)
20210-3	도리개꼭지	꼭'지(+ 버)
20210-3	도리개꼭지	도로'개'비네'+ 머)
20211	벗짚	집'
20211-0-1	-을	지'폴'
20211-0-2	-에	지'폐서
20212	새 꽤기	해:기'
20212	새 꽤기	집 해:기'
20213	쪽정이	쪽'덩'이(+ 머)
20213	쪽정이	쪽'띠'~이(+ 버)
20214	티	티'끄'리(티'끄'리+ zero)
20214	티	티'끌'(티'끌'+ zero)
20215	까'끄'라기	시'엄'+ 붙어있을 때)
20215	까'끄'라기	까'끄'래'기(+ 떨어진 것)
20215	까'끄'라기	까'시'래'기(+ 떨어진 것)
20216	풍구	풍'노'
20217	원두막	원'두'막
20218	허수아비	허'새'비
20219	흥년	승'녀'니(승'년'+ 이)
20220	머슴	머'스'미'라'(머'슴'+ 이라)
20221	놉	쌈'꾼'+ 버)
20221	놉	노'블'(놉'+ 을)(+ 머)
20221	놉	일'꾼'+ 버)
20221-0-1	-을	쌈'꾸'늘 대':야(+ 버)
20221-0-1	-을	노'블' 대':야(+ 버,+ 머)
20221-0-1	-을	일'꾸'늘' 대':지(+ 버)
20221-1	(놉을) 사다/얻다/부리다	
20222	폼앗이	푸'마'시
20223	폼샷	폼'쌈'클(폼'쌈'+ 을)(+ 버)
20223	폼샷	일'꾼'쌈'클(쌈'+ 을)(+ 머)
20223-0-1	-으로	폼'쌈'클(폼'쌈'+ 을)(+ 버)

2.1.3. 방아찝기

20301	방아	방'아'
20302	디딜방아	디'들'방'아'
20303	방앗공이	방'애:고'+ 머)
20303	방앗공이	방'하'꼬'+ 버)
20304	방아확	호'박'
20305	물레방아	물'레'방'아(+ 버)
20305	물레방아	물'레'방'아, 물'빵'아(+ 머)
20306	연자방아	돌'빵'아'
20307	절구	
20308	절구통	나무'도'구'통(+ 나무)

20308	절구통	돌:도구'통(+ 돌)
20309	절굿공이	도곤'때('一'자)
20309	절굿공이	떡'꼬('ㄷ'자)
20309	절굿공이	땡'매('ㄷ'자)
20310	절구질	도구방'아 쟁는'다
20311	겨	당'기(+ 보리,벼만)
20312	보릿겨	보리땡'기(+ 쉼 것)
20312	보릿겨	개떡당'기(+ 먹을 수 있음)
20313	왕겨	왕'기(+ 구)(+ 머)
20313	왕겨	나락땡'기(+ 신)(+ 버)
20314	등겨	미미'끼
20315	검불	거부지'기
20316	겹질	겹'찌를(겹'찢+ 을)(+ 버)
20316	겹질	겹띠'기로(겹띠'기+ 로)(+ 머)

2.1.4. 곡물

20401	곡식	곡'서기라(곡'석+ 이라)
20402	참쌀	참쌀'
20403	맷쌀	맷'쌀
20404	쌀보리	쌀보'리
20405	조	서숙'
20406	차조	찰서'숙'
20407	메조	메서'숙'
20408	좁쌀	서숙'쌀
20409	작다	잔잔:하'다
20410	조이삭	서숙모감'지
20410	조이삭	서숙이삭'
20411	수수	쭈시'
20411-1	붉은색 수수	쭈시'
20411-2	장목수수	늘'쭈'시
20411-3	찰수수	찰쭈'시
20411-4	메수수	메쭈'시
20412	수수깡	쭈시'쪽'
20413	옥수수	강내'~이
20413-1	찰옥수수	찰강내'~이
20413-2	메옥수수	메강내'~이
20414	귀리	기보'리
20415	메밀	메물'
20416	콩	콩
20417	콩깍지	콩꺾띠'~이
20418	메주	메'주
20419	매달다	당그'러 땡'다
20420	떡우다	띠'운다
20421	곰팡이	부'~이(+ 머)
20421	곰팡이	곰패'~이(+ 머)
20421	곰팡이	곰파'~이(+ 머)

20422	강낭콩	울'콩'
20423	콩기름	콩기'름(+ 버)
20423	콩기름	콩지'름(+ 머)
20424	깨	깨
20424-1	참깨	창'깨'
20424-2	들깨	들'깨
20425	고소하다	꼬시'다

2.1.5. 채소

20501	채소	채소'
20502	나물	나물'
20502-1	“나물(밭 재료)”	*
20502-2	:“나물(밭 반찬)”	*
20502-3	“나물(들 재료)”	*
20502-4	“나물(들 반찬)”	*
20502-5	“나물(산 재료)”	산나'물
20502-6	“나물(산 반찬)”	산나'물
20503	푸성귀	*
20504	다듬다	가'린다
20505	반찬	반'찬
20506	무	무시'
20507	썰다	썰'리라
20508	무청	쭈'때'
20509	시래기	씨래'기
20510	무말랭이	악다'지(+ 버)
20510	무말랭이	와따'지(+ 머)
20511	장다리무	짱다'리
20512	배추	배차'(+ 소)
20512	배추	배추'(+ 다)
20513	고깡이	배추'쭈'
20514	오이	오'이(+ 신)
20514	오이	무'리'(+ 구)
20514	오이	무'웬'(+ 구)
20515	오이지	장아'치
20516	오이소박이	오'이조림
20517	가지(茄子)	까'지'
20518	호박	호:박'
20518	호박	누룽티'~이(+ 늙은호박)
20518	호박	에디'~이(+ 어린호박)
20519	고구마	고구'매
20520	감자	감자'
20520-1	잘다	
20521	우엉	우'룽'
20522	파	패
20523	고추	꼬'치'
20524	시금치	씨'금치

20525	미나리	미나'리
20526	부추	소'풀
20527	상추	상'추
20528	마늘	마'늘
20529	생강	생강'
20530	냉이	나시래'~이(+ 버)
20530	냉이	나사'이(+ 머)
20531	달래	달롱'개
20532	도라지	도래'(+ 신)
20532	도라지	돌가'지(+ 구)
20533	더덕	더'덕

2.2. 음식

2.2.1. 주식과 부식

20601	쌀밥	쌀'바'비고(쌀'밥'+ 이고)
20601	쌀밥	백'바비라(백'밥+ 이라)
20602	찬밥	씨금'밥
20602	찬밥	시'금밥
20602	찬밥	참'밥'(+ 신)
20602-1	더운밥	따신':밥
20603	조밥	서숙'밥
20604	누룽지	누룽'밥
20605	눌은밥	누룽바'비'라'(누룽'밥+ 이라)
20606	송냥	송'녕
20607	뜨물	뜨물'
20607	뜨물	쌀뜨'물
20608	김(蒸氣)	지미'(짐+ 이')(+ 버)
20608	김(蒸氣)	짐(+ 머)
20608	김(蒸氣)	지'미'(짐+ 이')(+ 머)
20609	갱죽(羹粥)	김치국'빠'비'라(김치국'빤+ 이라)
20609	갱죽(羹粥)	씨래'기국'빤
20610	싱겁다	싱거바'서
20611	국수	국'시
20612	칼국수	칼국'시
20612-1	기계국수/틀국수	국'시
20613	건더기	건다':이
20613-1	국물	궁'물
20614	고명	
20615	꾸미	*
20616	미역	미'역
20617	김(海苔)	짐
20618	수제비	수지'비
20619	끼니	때'꺼'리

20620	미음	미음'(+ 쌀이 부드럽게 부워질 정도로 씻어서 끓이는 것)
20620	미음	힌'죽'(+ 쌀을 한두 번 씻어서 끓이는 것)
20620-1	(미음을) 끓이다/쭈다/삶다	끼'린다
20621	엿기름	질'검'
20622	식혜(食醴)	단'술'
20623	식혜(食?)	*
20624	달다(甘)	달'고
20624	달다(甘)	달'다
20625	가루	쌀'까'리'
20625	가루	밀'까'리'
20625	가루	가'리'
20625-0-1	-에	가'리에다'가
20625-0-2	-을	가'리'로
20625-0-3	-도	가'리'도
20626	밀가루	밀'까'리'
20627	밀기울	밀'찌'울
20628	미숫가루	미'서'가'리(+ 머)
20628	미숫가루	미'수'까'리(+ 버)

2.2.2. 반찬과 별식

20701	간장	간'장'
20702	된장	딘'장'
20703	고춧가루	꼬'친'까'리
20704	고추장	꼬'치'장
20705	소금	소'고'므'로(소'곰'+ 으'로)
20706	김치	짐'치
20707	김장	짐'장'
20708	깍두기	깍'떼'이'짐'치(+ 머)
20708	깍두기	깍'떼'기'짐'치(+ 머)
20709	나박김치	나'박'짐'치(+ 무'청과 무를 잘게 썰어서 담그는 김치)
20710	담그다	담'느'다
20710-0-1	-고	당'꼬'
20710-0-2	-어라	다'마'라
20711	양념	양'념'
20712	버무리다	버'물'라 각'꼬
20712	버무리다	조'오'능'기'라(조'오-+ -능'기'라)
20713	버섯	버'서'피(버'섯+ 이)(+ 머)
20713-0-1	-이	버'서'치 피'인'네(+ 버)
20713-0-1	-이	버'서'비 피'인'네(+ 머)
20714	콩나물(재료)	콩:'지'름
20714-1	콩나물(반찬)	콩:'나'물
20714-2	숙주(나물)	질:'그'미'라'(질:'금'+ 이'라)
20715	두부	뜨'부'(+ 신)
20715	두부	조'푸'(+ 구)

20716	비지	비'지
20716-1	비지떡	비'지떡
20717	달갈	달갈'
20718	가래떡	떡까'래
20719	시루떡	시'리떡
20720	송편	송'펜
20720	송편	송'펜떡
20721	빚다	맨든'다
20722	흰떡	비증'떡
20723	고물	고'물
20724	팔죽	폰죽'
20725	새알심	새알'
20726	백설기	백시리'떡
20727	튀밥	쌀 티'안나?(+ 명사는 없음)
20728	술	술
20729	막걸리	택빠'기(+ 집에서 담는 것)
20729	막걸리	막걸'리(+ 받아 오는 것)
20730	소주	소'주
20731	부침개	적'{+ 구}
20731	부침개	찌지'미(+ 신)

2.2.3. 부엌과 그릇

20801	부뚜막	부뜨'막
20802	가마솥	가매소'치'라(가매솥'+ 이라)
20802-0-1	-을	가매소틀' 씩'거라
20802-0-2	-에	가매소'테
20803	아궁이	부슥'
20803-0-1	-이	부서'키
20804	그을음	수낌'정
20805	불쏘시개	부살'개
20806	연기	영'기
20806-1	내(煙氣)	내'다
20807	그을리다	끄슬리'지
20807	그을리다	끄슬리'일따
20808	부지깻이	부작땡'이(+ 머)
20808	부지깻이	부작때'기(+ 머)
20809	부삽	불'손'
20810	냅다	맵'따
20811	냄비	냄비'
20812	그릇	그'룩
20812-0-1	-을	박끄'르글
20813	뚜껑	따까'리(+ 머)
20813	뚜껑	뚜'꿍(+ 머)
20813	뚜껑	뚜끼'~이(+ 머)
20813	뚜껑	뚜깅'이(+ 머)
20813	뚜껑	띠'끼이(+ 머)

20814	주발 뚜껑	개띠비'~이
20815	사발 뚜껑	사발뚜'꿇
20816	술뚜껑	소두'방
20817	밥주걱	밥쭈'개
20817	밥주걱	주개'
20818	순가락	속까'락(+ 머)
20818	순가락	수까'락(+ 버)
20819	젓가락	지까'락
20820	종지	종'지
20820	종지	장'쫑':지
20821	보시기	보시'기
20822	뚝배기	오가'리(+ 머)
20823	접시	접시'기
20824	조리	조:리'(+ 버)
20824	조리	조:레'(+ 머)
20825	이남박	쌀바가'치
20826	바가지	박빠가'치
20827	행주	행지'포
20828	행구다	행'구지
20829	설거지	설거'지
20830	개숫물	꾸중'물
20831	찌꺼기	찌끄리'~이
20832	화로	하리'
20833	화롯불	하리'뿌리라(하리뿔'+ 이라)
20834	부젓가락	불지까'락
20834-0-1	-이	불지까'라기 엄따
20834-1	불순가락	불'순'+ 머)
20835	다리쇠	하리궁거'레
20836	석쇠	모'테
20837	도시락	도시'락
20838	바구니	바구'리
20839	뒤주	두지', 쌀뚜'지
20840	찬합	차:납'
20841	강판	채칼'
20842	개다리소반	개상'판

2.3. 가옥

2.3.1. 방과 가구

20901	안방	큼방'
20902	벽	베룩'땡
20903	다락	다락'땡
20904	벽장	벙'짱'+ 머)
20904	벽장	장'방'+ 머)

20905	감추다	싱'키'나아라
20906	흙	송'이'(송+ 이)(+ 머)
20906	흙	흐미'(흙+ 이)(+ 버)
20907	돌쩌귀	돌쪽'
20907-1	암짜	암'돌':쪽(+ 머)
20907-1	암짜	암'돌':쪽(+ 버)
20907-2	수짜	쑥'돌':쪽(+ 머)
20907-2	수짜	쑥'돌':쪽(+ 버)
20908	미단이	밀'창'(+ 버)
20908	미단이	밀'창'문(+ 머)
20908	미단이	세살'문(+ 공장에서 살을 나무로 만듦)
20908	미단이	죽'창'문(+ 집에서 살을 대나무로 만듦)
20908	미단이	시살':문(=세살'물)
20909	여단이	
20910	덧문	*
20911	열다	열고'
20912	문고리	몽꼬'리
20913	자물쇠	재물'통
20914	간히다	가칠':따
20915	열쇠	썰'때'
20916	잠그다	장'가라
20916	잠그다	장구'고
20917	구멍	구녕'
20917-1	취구멍	지구'녕
20918	찢다	찌'전'따
20919	구들	구들'
20920	흙받기	흑'관
20921	흙손	흑'칼(+ 한 사람이 할 때)
20921	흙손	흑찌'깨(+ 두사람이 함께 할 때. 대나무를 반으로 쪼갠 뒤 그 한쪽을 뽀족하게 한 것으로)
20922	흙칼	흑'칼
20922-1	흙칼(나무로 만든 것)	나무흑'칼
20922-2	흙칼(쇠로 만든 것)	흑'칼
20923	바르다	보른'다
20924	장판	장'판
20925	종이	조'~오
20926	도배	데비'(+ 버)
20926	도배	디비'(+ 머)
20927	구석	구석'(+ 버, + 머)
20927	구석	구숙'(+ 버)
20928	굽도리	굽'두'리(+ 버)
20928	굽도리	굽'떠'리(+ 머)
20929	깨끗하다	깨끗하'다(+ 버)
20930	문지방	문턱'
20930-0-1	-에	문터'게
20931	틈	트'미'
20931	틈	문새:(문+ 새')
20932	가장자리	가아'새
20933	가운데	가운'데'
20934	시렁	실'경

20935	살강	살'강
20936	선반	선'반
20937	서랍	빠'다'지
20938	경대	강:대'(+ 무의식적)
20938	경대	깡:대'(+ 의식적)
20939	거울	밍:경'(+ 구)
20939	거울	거'울(+ 신)
20940	걸다	거'런따
20941	호룽	불쫓'지

2.3.2. 건물

21001	지붕	지붕'에
21001-0-1	-에	개아'(+ 버)
21002	기와	재:(+ 버)
21002	기와	개아'집
21003	기와집	대룽개화'
21004	수키와	쟁개화'
21005	암키와	대들'뽀
21006	대들보	췌'까'래
21007	서까래	춘'췌(+ 버)
21008	추녀	춘'췌(+ 머)
21008	추녀	*
21009	처마	오막사'리
21010	오두막	초'집'
21011	초가집	나'래(+ 머)
21012	이영	나래'짱(+ 이영을 엮은 한 통)(+ 머)
21012	이영	나라짜'~아(+ 버)
21012-0-1	-에서	용모'름
21013	용마름	췌'끌'
21014	기스락	씨'끌'물(+ 버)
21015	낙숫물	췌'끌'물(+ 버)
21015	낙숫물	췌'끌'물(+ 버)
21015-1	기스락물	새드'리
21016	사닥다리	당머'리('ㅡ'자 부분)
21017	용마루	당머리모때'기('ㅅ'자 부분)
21017	용마루	*
21018	토방	축'담'
21019	댕돌	심방'똥
21019-1	섬돌	칭(+ 구)(+ 버)
21020	마루	마리'(+ 신)(+ 머)
21020	마루	칭'에
21020-0-1	-에	*
21021	뒹마루	지'동'
21022	기둥	주'친'똥
21023	주춧돌	주'치'
21023	주춧돌	

21023-0-1 -을
21024 굴뚝

주'친'똥로
굴뚝'

2.3.3. 마당

21101 뜰
21102 마당
21103 넓다
21103 넓다
21103-0-1 -어서
21103-0-1 -어서
21104 넓히다
21105 곳간
21106 외양간
21107 마구간
21108 광
21109 헛간
21110 쓰레기
21111 장독대
21111 장독대
21112 장독 뚜껑
21113 변소
21113-1 똥장군
21114 울타리
21114 울타리
21115 담
21115-0-1 -에
21115-0-2 -도
21115-0-2 -도
21116 사립문
21116 사립문
21116 사립문
21117 뒤꼍
21117-0-1 -에
21118 바깥
21118-0-1 -에
21119 모퉁이
21120 모서리
21120 모서리

하단'
마당'
넓'따(+ 머)
너르'다(+ 버)
널'버서(+ 버)
널'리서(+ 버)
널카':야
곡'깐'
소'마구
*
고방'
허깐'
쓰레'기
장또깐'
장꼬'방'
장뚝띠끼'~이
통시'
오줌짱군'(+ 버)
우타'리(+ 머)
울타'리(+ 버)
담부'랑
담부랑'에
담'도'(+ 우세)
담부랑'도(+ 열세)
사립'문'(+ 버)
사러':문(+ 머)
사립'문(+ 머)
디아'네(디안+ 예)'
디아'네'서

바가'테
모'티':~이
모서'리(+ 덜 일반적)(+ 머)
모때'기(+ 일반적)(+ 버)

2.3.4. 마을과 가게

21201 마을
21202 윗마을
21202 윗마을

마을'
우'똥네
우'에마을

21203	이웃	이'우쥼
21203-0-1	-이	이우지(+ ?조)
21203-0-2	-에	이'우세
21203-0-2	-에	이'우찌베
21204	마을가다	모실간'다
21205	우물	새미'
21206	두레박	타르'박
21207	샘(泉)	찬'새'미
21208	가(邊)	가아'새
21208-0-1	-을	새미까'로
21208-0-1	-을	가':로
21208-0-2	-에	가아'새
21209	물지게	물찌'게
21210	가게	점:뽕'(+ 구)
21210	가게	가:게'(+ 신)
21211	싸다	싸'다'(+ 신)
21211	싸다	헐'타'(+ 구)
21212	비싸다	비'싸더라
21213	홍정	싱'가늘 한다
21213	홍정	홍정'(+ 논밭 등 큰 거래에만 쓰는 말)
21214	중매인(거간꾼)	소개'자
21215	잔돈	나:똥'(+ 구)
21215	잔돈	잔'돈(+ 신)
21216	에누리	까'까 주'라
21217	거스름돈	나:똥'
21218	거스르다	까'까서 바'달따(?)
21219	꾸다(借)	체옌'따
21219	꾸다(借)	빌'릴따
21219-0-1	-어야	빌'리야 텐다
21219-0-1	-어야	체에'야 텐다
21220	구두쇠	깍재'~이(+ ?조)
21221	말기다	매'끼 날'따
21222	나머지	나무치'기
21223	덤	*
21224	몫	모가'치'
21224-0-1	-을	모가치'로 챙'긴따
21225	빚	비'지 마~이 절따
21225-0-1	-을	비'들
21225-0-2	-에	비'테
21226	이자(利子)	이:자'
21227	심부름	심':바'람
21228	두름	두'름(+ 머)
21228	두름	두'리'미(+ 버)
21228-1	축	축
21228-2	꽤	때
21228-3	접	접
21228-4	쌈	쌈
21228-5	두름	두'리'미(+ 버)
21228-5	두름	두'름(+ 머)
21228-6	단/몫(작은 몫음)	다'불

21228-7	단/뭇(서너 개 묶음)	다'불
21228-8	뭇	한' 토세(뭇+ 예)
21228-9	모습	모'습(+ 다리에 한정 됨)
21229	컬레	커'리
21230	마지기	마'지'기
21230-1	한 마지기의 넓이	200평
21231	꾸러미	꺼'리'미
21232	그루	나'무
21233	포기	피'기
21234	저울	정'울
21235	자루(包袋)	푸대'(+ 구)
21235	자루(包袋)	자리'(+ 신)
21235-0-1	-을	푸대 각'꼬 오니'라
21235-0-1	-을	자리 각'꼬 오니'라
21235-0-1	-을	푸대'로 각'꼬 오니'라
21235-0-1	-을	자리'로 각'꼬 오니'라
21235-0-2	-에	자리'에
21235-0-2	-에	푸대'에
21236	하나	하나'
21236-1	한-개	항'개
21236-2	한-되	한'테:
21236-3	한-말	함'말
21237	둘	둘:
21237-1	두-개	두:개'
21237-2	두-되	두'테:
21237-3	두-말	두'말'
21238	셋	센:
21238-1	세-개	세:개'
21238-2	세-되	서'테:
21238-3	세-말	세:말'
21239	넷	네:
21239-1	네-개	네:개'
21239-2	네-되	너'테:
21239-3	네-말	네:말'
21240	다섯	다'선
21240-1	다섯-개	다'석'개
21240-2	다섯-되	다'선#테
21240-2	다섯-되	다'선'테
21240-3	다섯-말	다'섬'말
21241	여섯	여'선
21241	여섯	여'서
21241-1	여섯-개	여'석'개
21241-2	여섯-되	여'선#테
21241-2	여섯-되	여'선'테
21241-3	여섯-말	여'섬'말
21242	일곱	일'곱
21242	일곱	일'고
21242-1	일곱-개	일'곡'개
21242-2	일곱-되	일'곱#테
21242-2	일곱-되	일'곱'테

21242-3	일곱-말	일'곱말
21243	여덟	여'덜
21243-1	여덟-개	여'덜개
21243-2	여덟-되	여'덜#데
21243-2	여덟-되	여'덜떼
21243-3	여덟-말	여'덜말
21244	아홉	아'홉
21244-1	아홉-개	아'홉개
21244-1	아홉-개	아'호개
21244-2	아홉-되	아'홉떼
21244-2	아홉-되	아'헉떼
21244-3	아홉-말	아'홉말
21244-3	아홉-말	아'헉말
21245	열	열
21245-1	열-개	열'개'
21245-2	열-되	열'떼'
21245-3	열-말	열'말'
21246	스물	시'물'
21246-1	스무-개	시'무'개
21246-2	스무-되	시'무'데
21246-3	스무-말	시'무'말
21247	서른	서'른
21247-1	서른-개	서'릉개
21247-2	서른-되	서'른데
21247-3	서른-말	서'른말
21248	마흔	마'흔
21248-1	마흔-개	마'웅개
21248-2	마흔-되	마'온데
21248-3	마흔-말	마'온말
21249	쉰	신:
21249-1	쉰-개	싱'개'
21249-2	쉰-되	오십'데
21249-2	쉰-되	신:데'
21249-3	쉰-말	신:말'
21250	예순	육'십'
21250-1	예순-개	육'식'개
21250-2	예순-되	육'십#데
21250-3	예순-말	육'십#말
21250-3	예순-말	육'십'말
21251	일흔	칠'십'
21251-1	일흔-개	칠'식'개
21251-2	일흔-되	칠'십#데
21251-3	일흔-말	칠'십#말
21251-3	일흔-말	칠'십'말
21252	여든	팔'십'
21252-1	여든-개	팔'식'개
21252-2	여든-되	팔'십#데
21252-3	여든-말	팔'십'말
21253	아흔	구'십'
21253-1	아흔-개	구'식'개

21253-2	아흔-되	구'십'#데
21253-3	아흔-말	구'십'말
21254	백	백
21254-1	백-개	백'개'
21254-2	백-되	백'#데'
21254-3	백-말	백'말'
21255	이백	이:백'
21256	한둘	한둘'
21256-1	한두-개	한두'개
21256-2	한두-되	한두'데'
21256-3	한두-말	한두'말'
21257	두셋	둘세':
21257-1	두세-개	두세'개'
21257-2	두세-되	두세'데'
21257-3	두세-말	두세'말'
21258	두서넛	두서넛'
21258-1	두서너-개	두서너'개
21258-2	두서너-되	두서너'데'
21258-3	두서너-말	두서너'말'
21259	서넛	서넛'
21259-1	서너-개	서너'개
21259-2	서너-되	서너'데'
21259-3	서너-말	서너'말'
21260	네댓	너덜'
21260	네댓	너덜'
21260-1	네댓-개	너덜':개
21260-1	네댓-개	너덜':개
21260-2	네댓-되	너덜':떼
21260-3	네댓-말	너덜':말
21261	대여섯	대여'섯
21261-1	대여섯-개	대:여'섯'개
21261-2	대여섯-되	대:여'섯'데'
21261-2	대여섯-되	대:여'섯'말'
21261-3	대여섯-말	대:여'섯'말'
21261-3	대여섯-말	대:여'섯'말'
21262	예닐곱	여닐'곱
21262-1	예닐곱-개	연일'고개
21262-2	예닐곱-되	여닐'곱'떼
21262-3	예닐곱-말	여닐'곱'말'
21263	일여덟	일고여'덜(+?조)
21263-1	일여덟-개	일곱'녀덜'개(+?조)
21263-2	일여덟-되	일곱'녀덜'떼(+?조)
21263-3	일여덟-말	일곱'녀덜'말(+?조)
21264	여덟아홉	*
21264-1	여덟아홉-개	*
21264-2	여덟아홉-되	*
21264-3	여덟아홉-말	*
21265	여남은	여남':
21265-1	여남은-개	여나'무'개
21265-2	여남은-되	여나'무'데'

2.4. 의복

2.4.1. 복식과 장식

21301	치마	치매'
21302	길이	지'리
21303	저고리	저고'리
21304	색동저고리	색'똥'주'고'리
21305	두렁이	*
21306	무늬	문'채'(+ 구)
21306	무늬	무'노'(+ 신)
21307	고쟁이	꼬'장'주~우'
21308	바지	바'지
21309	두루마기	두루매'~이
21310	의복	이'복
21311	구겨지다	꾸'개'진'다
21312	옷고름	옥'꼬'름
21313	단추	단'추'
21314	동정	동'정
21315	겉	거'트로
21315-0-1	-에	거'테
21315-0-2	-을	거'틀
21316	홀옷	호'돋
21317	겹옷	저'보'시지(접'옷'+ 이지)
21318	잠방이	땅'쭈'~우
21319	누더기	현:두'디'기
21320	거지	걸'배'~이
21320	거지	걸'뱅'이
21321	구걸	동'냥'
21322	조끼	제'끼
21323	내의	내'복'
21324	껴입다	짜'임'는다
21325	소매	소'매'
21326	주머니	주'무'치
21326	주머니	쭈'치
21327	호주머니	개'쭈'치
21327	호주머니	개'비'
21327	호주머니	갸:치'
21328	허리띠	호르'끈
21329	댕기	댕'기
21330	도포	도:복'
21331	샷갓	샷'까'시네(샷'깃'+ 이네)

21331-0-1	-에	삭'까세
21332	고깔	꼬'깔'
21333	사모	사:모'
21334	유건	유건'
21335	대님	단'짐(+ 버)
21335	대님	갑땡'이(+ 머)
21335	대님	단'님(+ 머)
21336	감발	*
21337	짚신	집신'(+ 고운 것)
21337	짚신	털미'기(+ 약식 짚신)
21338	미투리	미':트'리
21338	미투리	메'트'리
21338-1	(짚신을) 삼다/만들다/트다/결다	삼:는'다'
21339	나막신	나막'신
21340	설피	*

2.4.2. 바느질과 세탁

21401	명주	밍지'베
21401-1	명주실	밍지'실
21402	목화	미영':
21402	목화	미영'
21402-1	목화다래	미영다'래'
21403	무명	미'영':베
21403-1	무명실	미'영':실
21404	씨아	췌에'기
21405	자새	연짜'사
21406	물레	물레'
21407	베	베'짚'다
21408	길쌈	질'쌈'한다
21409	골무	골'미'
21410	반진고리	반적꼬'룩
21411	가위	가시'개
21411-0-1	-을	가시'개로
21411-0-2	-에	가시개'예
21412	마르다(裁)	몽글'고
21412-0-1	-고	몽글'고
21412-0-2	-어라	몽글러'라
21413	형겉	형':거'블
21413-0-1	-을	형':거'블
21413-0-2	-에	형':거'베
21414	바늘	바'늘
21415	꿰다	낀'다'
21415-0-1	-고	끼'고'
21415-0-2	-어라	끼'이라
21416	바느질	바느질'한다
21417	재봉틀	자'봉'틀

21418	끈	끄내'끼
21418	끈	끈
21419	노끈	실쩍끄내'끼(+ 머)
21419	노끈	실찌기끄내'끼(+ 버)
21420	참바	참'바
21421	매듭	매'듭
21421-1	(매듭을) 땃다/짓다/엮다/묶다	지'이라
21422	보자기	빼재'기
21423	이불	이'불
21424	숨	쏘'캐'
21425	포근하다	폭삭하'다
21426	홀이불	혼니'불
21427	겹이불	점'니'불
21427-1	숨이불	한'니'불
21428	누비이불	니'비 이불
21429	베개	베'개':
21430	베갯잇	베개호창'
21430-0-1	-에	베개호창'에
21431	목침	몽'치'미
21432	퇴침	대'치'미
21433	방석	자부'동
21433	방석	안질빵'석
21434	답요	답'노'
21435	빨래하다	서답썩는'다
21436	빨랫방망이	물빵매'~이
21437	빨래터	빨래'터
21438	빨랫줄	서답'줄
21439	다리미	다리'비
21439-1	다림질	다림'질
21440	인두	윤':디'
21441	다듬잇방망이	다드미빵매'~이
21442	다듬잇돌	따듬'돌
21442	다듬잇돌	따듬'딸
21443	다듬이질	따듬'질
21443	다듬이질	따드미'질

2.5. 민속

2.5.1. 세시 풍속

21501	설날	설'랄'
21502	설	설
21503	선달 그믐날	선달 그'믐'날
21504	묵은세배	*
21505	올해	올'해, 오'래
21505-0-1	-는	오'래는

21505-1	작년	장'년'
21505-2	재작년	재'장'년
21505-3	내년	후년'
21505-4	후년	저'후'년
21505-5	내후년	*
21506	작은설	오'래
21506	작은설	올'해
21506	작은설	자근설랄'
21506	작은설	자근설':랄
21507	웃	수'치라(웃+ 이라)
21507	웃	유'치라(웃+ 이라)
21507-0-1	-을	유'틀
21507-0-1	-을	수'틀
21507-0-2	-에	유'테
21507-0-2	-에	수'테
21507-1	웃놀이	순노'리
21507-1	웃놀이	윤노'리
21508	웃가락	육까락찌(+ 버)
21508	웃가락	유까락'찌(+ 머)
21508-1	도	띠'(+ 머)
21508-1	도	떼'(+ 버)
21508-2	개	개
21508-3	걸	걸
21508-4	웃	수'치다
21508-5	모	모
21509	단동	*
21509-1	외동무니	한동'
21509-2	두동무니	두동'
21509-3	석동무니	석똥'
21509-4	넉동무니	넉똥'
21509-5	막동	*
21509-6	단동무니	*
21510	보름	보'름날
21510	보름	보'름
21510-1	삭망	초하로보'름(+ 일반적)
21510-1	삭망	상'망'(+ 상주)
21511	추석	추'송날
21511	추석	추'숙
21512	망월	달'짐'노리
21513	쥐불놀이	*
21514	자치기	자'치'기
21514-1	작은막대	자근자'때'
21514-2	긴막대	자'때'
21515	수수께끼	수'재'지끼(+ 버)
21515	수수께끼	수'리'지끼(+ 머)
21516	호미씻이	상사노'리
21517	팽과리	깡맹'이(+ 머)
21517	팽과리	깡매'~이(+ 버)
21517	팽과리	머'구'(+ 머)
21518	장구	장'구

21519	결두리	새'아참
21520	무당	무당'
21520-1	박수	하래'~이(+ 버)
21520-1	박수	하래래'이(+ 머)
21521	고수래	게시'래'
21521-1	고수래!	게시'래!
21522	점쟁이	점재'~이
21523	상여(喪輿)	생이'(+ 머)
21523	상여(喪輿)	새~이'(+ 버)
21524	굴건	창태고'칸(+ 머)
21524	굴건	창태고'안(+ 버)
21525	제사	지사'
21526	제기	목'끼'
21526	제기	제기'
21527	귀신	몽'달'기신
21528	도깨비	허꺼'시

2.5.2. 농경용품

21601	고삐	꼬'뺑'이
21602	굴레	굴'레
21603	명에	명'에(+ 머)
21603	명에	몽'에(+ 버)
21604	길마	실때바'리
21605	부리망	세'명'(+ 버)
21605	부리망	세'망'(+ 머)
21606	구유	구'시
21607	작두	작'뚜
21608	꼴	꼴
21609	여물	여물'
21610	쇠죽	세'죽
21611	쇠죽바가지	자루바가'치(+ 머)
21611	쇠죽바가지	자래바가'치(+ 버)
21612	수레	구루'마
21613	끌다	끄'꼬'간다
21613-0-1	-고	끄'꼬'간다
21614	바퀴	발'통'
21615	새끼(繩)	새'끼'
21615-1	새끼(짐승의)	새'끼
21616	망태기	망'태
21617	떡둥구미	두꾸마'리
21618	거적	끄작때'~이
21619	가마니	가'마~이
21619-1	가마니틀	가'마~이틀
21620	돛자리	맹석짜'리
21621	자리틀	자'리틀
21621-1	(자리틀) 짜다/치다/만들다/결다	짚'다'

21622	왕골	골
21623	삼태기	집'소'구리
21623-1	짚 삼태기	집'소'구리
21623-2	싸리 삼태기	채소구'리
21624	명석	덕석'(+ 네모)
21624	명석	꼬드레방'석(+ 원)
21625	어레미	얼기'미
21625-1	고운채	채'(+ 머)
21625-1	고운채	치'(+ 버)
		접'체'(+ 제일 촘촘, 묵하는 데 씀), 반접'체
21625-2	굵은채	'(+ 중간, 술 거르는 데 씀), 호'체(←홀체)(+ 구멍이 상대적으로 제일 큼, 그 밖의 가루를 다루는 데 씀)
21626	대장장이	대:장'
21627	대장간	성냥'간
21628	풀무	풍노'
21628	풀무	불매'
21629	모루	모리'때
21630	모루채	망'치(+ 작은 것)
21630	모루채	메:(+ 큰 것)
21631	갈퀴	까꾸'리
21632	집게	찍'깨
21633	장도리	장돌'
21633-1	노루발	노리'발
21634	툽	툽
21634-0-1	-에	토'베
21635	도끼	도치'
21636	자루(柄)	자리'
21636-0-1	-을	자리'를
21636-0-2	-에	자리'에
21637	갈고리	*
21638	췌기	보'죽
21639	송곳	송:구'
21639-0-1	-에	송:구'세
21639-0-1	-에	송:구'예
21640	뽕죽하다	쫓뽕하'다
21641	숯돌	숯뜰'
21641-0-1	-에	숯또'레
21642	맷돌	매'뜰'
21642-1	수쇠	민쥬'세
21642-2	암쇠	운쥬'세
21643	지게	지'게
21644	발채	바지'게'
21645	지게 작대기	바지게 작때'기
21646	막대기	막때'기
21647	몽둥이	몽다'~이

2.5.3. 생활용품

21701	빗자루	비짜'리
21702	광주리	채강지'리
21703	소쿠리	소구'리
21704	함지	함타'~이(+ 구)
21704	함지	함'지(+ 신)
21705	풀비	풀비짜'리
21705-1	귀알	*
21706	독	독
21706-0-1	-에	도가지'예
21707	물독	물'뚝
21708	항아리	추마'리
21708	항아리	항아'리
21709	단지	단'지'
21710	물동이	물'사구
21710	물동이	물뚱'우
21711	따리	따바'리
21712	옹기	옹구'
21713	표주박	기:종그래'~이
21713	표주박	종그래'~이
21714	키(箕)	채'~이'
21715	떡살	떡'쑈
21716	다식판	떡'틀'
21717	시루	시리'
21717-0-1	-을	시리'로
21717-0-2	-에	시리'예
21718	시룻밑	※ 구체적인 '짚' 등을 칸다고 함.
21718-0-1	-에	시리미'데
21719	시룻번	시리'본
21720	부싷돌	부'시':뚝
21720-0-1	-을	부'시':뚝로
21721	부시	부'썰'
21722	부싷깃	※ 구체적인 이름인 '수리'치'나 '쑥' 등으로 불렀다고 함.
21723	담배	담배'
21724	담뱃대	담받'때
21725	담배설대	담배설'때
21726	담배통	담배꼭때'이
21727	물부리	물쫄'리
21728	담배쌈지	담배쌈'지
21729	부채	부'채
21730	토시	토시'
21731	벼루	베'루
21732	가락지	가락'찌
21733	비녀	비네'
21734	참빗	참'빈
21734-0-1	-을	참'비틀
21734-0-2	-에	참'비테
21735	얼레빗	얼기'빈
21736	세숫대야	세순때':

21737 비누
 21738 도투마리
 21739 활대
 21740 잉앗대
 21741 부티
 21742 도롱이

비'누
 도투마'리
 칠기신'
 잉'애편
 부'티'
 우:장'

2.6. 인체

2.6.1. 얼굴과 머리

21801 이마
 21802 이마빠기
 21803 눈자위
 21804 검은자위
 21804 검은자위
 21805 흰자위
 21806 눈꺼풀
 21806 눈꺼풀
 21807 거적눈
 21808 눈썹
 21808-0-1 -이
 21809 속눈썹
 21809-0-1 -이
 21810 눈두덩
 21811 안경
 21811 안경
 21812 안경집
 21812 안경집
 21813 돋보기
 21814 주름살
 21814 주름살
 21814-0-1 -이
 21814-0-1 -이
 21815 앳되다
 21816 수염
 21817 구레나룻
 21817 구레나룻
 21817-0-1 -을
 21818 코
 21818-0-1 -이
 21819 콧수염
 21819 콧수염
 21820 코딱지

이'망
 이망빠'기
 능까:시'
 꺼'문창
 까망창'
 흰'창'
 능꾸'불(+ 머)
 능꺼'불(+ 버)
 꺼중'눈
 눈썹'
 눈썹'비
 아래눈'썹'
 아래눈'썹'비'
 누너'덕
 앵:경'(+ 머)
 앵:경'(+ 버)
 앵경':집'(+ 머)
 앵경':집'(+ 버)
 도빠'기
 덕석'살(+ 머)
 주'리미(주'림+ 이)(+ 버)
 주'르미(+ 버)
 덕석사'리(+ 머)
 앳띠' 보인다
 시여'미(시염'+ 이)
 굴'레씨염(+ 머)
 굴'레씨염(+ 머)
 굴'레씨여름(+ 머)
 코
 코'가
 코씨'염(+ 머)
 코씨'염(+ 버)
 코따까'리

21821	콧구멍	코꾸'녕
21821-0-1	-을	코꾸녕'을
21821-0-2	-에	코꾸녀'~어서
21822	콧물	물'코'
21822	콧물	말강'코
21822	콧물	콘'물'
21823	입술	입소'리(+ 버)
21823	입술	입쭈'리(+ 머)
21823-0-1	-에	입쏘'리'예(+ 머)
21823-0-1	-에	입쏘'리'예(+ 버)
21824	다물다	다문'다
21824	다물다	부'친다
21825	어금니	아'금니
21826	덧니	엄':니
21827	휘파람	히':깨'(+ 버)
21827	휘파람	히'깨(+ 머)
21828	침	추'미'
21829	삼키다	생'킨다
21830	가래(痰)	가':래'(+ 버)
21830	가래(痰)	가'래'(+ 머)
21831	빨다	만는'다
21831	빨다	바'타라
21832	혀	췌
21833	헛바늘	췌빠'늘
21834	긋볼	기'빠'비(기 뺨+ 이)
21835	귀고리	기고'리
21835-1	귀걸이	기마'개
21836	귀지	기'뺨'
21837	귀이개	기:혜기'개(+ 버)
21837	귀이개	기:히지'개(+ 머)
21838	소리	소'리
21839	얌듣다	얌뜯'는다
21840	귀칭	기'창'
21841	귀밑	기'미'친테
21841	귀밑	기'밑
21841-0-1	-을	기'미'테
21842	관자놀이	간'지 빼
21843	기미	개지'름'
21844	주근깨	까'뭉끼
21845	턱	턱
21845	턱	아래'턱
21846	턱수염	아래씨'염'
21847	뺨	뺨
21847-1	볼	볼
21848	가름하다	잘쪽하'~이 생'길따
21849	보조개	보지'개'
21850	머리카락	털:카'락
21851	비듬	지기'미
21852	기계충	기'계'뚝(+ 버)
21852	기계충	세버'짐(+ 머)

21853	정수리	장':배'기
21854	대머리	대머'리
21855	고수머리	오씨래'~이(+ 비어에 가까움)
21855	고수머리	꼭셀머'리
21856	가르마	가르매'줄'(+ 줄을 강조)
21856	가르마	가르'매
21856-1	가르마 타다/가르다/하다	탄'다'
21857	가마	가'매
21857-1	가마(鼎)	가매':술
21857-2	가마(轎)	가:매'
21857-3	가마(질그릇)	웅구전'
21857-4	가마(가마니)	가'마~이
21858	뒤통수	디꼭'지
21859	뒷덜미	*
21860	목	목
21860	목	모가'지(+ 비어)
21861	먹살	멕쌀'(+ 버)
21861	먹살	멕사'리(+ 머)

2.6.2. 상체

21901	어깨	어'깨
21901	어깨	어깨쭙'찌(+ 비어에 가까움)
21902	밀치다	밀친'다'
21903	겨드랑	저트'랑'민(저트'랑'+ 밀)
21904	등	등
21904	등	등거'리
21905	가슴	가'슴
21906	걸리다	걸린':다
21907	갈비뼈	갈'비뼈
21908	허파	허'패'
21909	쓸개	썰'개'
21910	콩팥	콩'폰
21910-0-1	-에	콩'포테
21910-0-2	-을	콩'포틀
21911	팔	펼(+ 머)
21911	팔	폴(+ 버)
21911	팔	폴뚝(+ 버)
21912	팔꿈치	폴'꿈치(+ 버)
21912	팔꿈치	펼'꿈치(+ 머)
21913	팔짱끼다	펼'찌물 찰'따'(+ 머)
21913	팔짱끼다	폴찜찜다(+ 버)
21914	손톱	손툇'(+ 버)
21914	손톱	손툇'(+ 머)
21915	오른손	오'운'쭙손'
21916	왼손	엔':쭙손'
21917	다르다	틀'리기

21917	다르다	다르'기
21917-0-1	-아서	틀'리서
21917-0-1	-아서	달'라서
21917-1	틀리다	틀'립따
21918	왼손잡이	엔'쪽재'비(+ 머)
21918	왼손잡이	엔'쪽재'비(+ 버)
21919	엄지손가락	엄'지
21919	엄지손가락	엄지송까'락(+ 버)
21920	집게손가락	둘째송까'락
21921	가운뎃손가락	가운데송까'락
21922	약손가락	약송까'락
21923	새끼손가락	앵기송까'락(+ 머)
21924	생인손	생송까'락
21925	사마귀	사:마'구'
21926	손아귀	아'구심
21927	손목	폴:목'(+ 버)
21927	손목	손목(+ 머)
21928	뺨	뺨(+ 머)
21928	뺨	뺨(+ 버)
21929	허리	허'리
21930	지팡이	작때'기
21931	옆구리	여꾸'리
21932	간지럽다	간지럽'따
21933	간지럽	간지럽'
21934	잔허리	*
21935	근육	지'살'(+ 버)
21936	배꼽	배꾸'녕
21937	목물	등'물

2.6.3. 하체

22001	복사뼈	복췁'씨
22002	발가락	바까'락(+ 버)
22002	발가락	발까'락(+ 머)
22003	발바닥	바빠'닥(+ 버)
22003	발바닥	발빠'닥(+ 머)
22004	발톱	발톱'(+ 머)
22004	발톱	발톱'(+ 버)
22005	냄새	내'앰새
22006	고린내	꼬랑'내(+ 머)
22006	고린내	바' 꼬'랭내(발+ 꼬랭'내)(+ 버)
22007	굳은살	구'든사리(굳'은살+ 이)
22008	정강이	쟁'개~이
22009	종아리	종아'리
22010	장딴지	장딴'지'
22011	회초리	매'차'리
22012	무릎	물'팍

22012-0-1	-을	물'파글
22012-0-2	-에	물'파게
22013	오금	오곰재'~이(+ 머)
22013	오금	오'굼(+ 버)
22014	엉덩이	엉:디'~이, 궁디'~이
22015	궁둥이	엉:디'~이, 궁디'~이
22016	볼기	볼'기'
22017	멍	멍
22018	멍울	몽오'리
22019	가랑이	가래'~이
22020	사이	새':
22021	살	사타'리
22021-0-1	-이	사타리'가
22021-0-2	-을	사타리'로
22022	사타구니	사타'리
22023	가래뿔	가르토'시
22023-0-1	-을	가르토'시를 몬'칠따
22024	허벅다리	허'북다리
22024	허벅다리	허'북치
22025	넓적다리	허'북다리
22025	넓적다리	허'북치
22026	가부좌(跏趺坐)	물'파글 개고 안'잡따(+ 버)
22026	가부좌(跏趺坐)	양바늘 개고 안'잡따(+ 머)
22026-1	가부좌(跏趺坐) 치다/앉다/트다 /꼬다/하다	물'파글 개고 안'잡따(+ 머), 양바늘 개고 안'잡따(+ 머)

2.6.4. 질병과 생리

22101	감기	강기'(+ 다)
22101	감기	고'빨'(+ 소)
22102	기침	지'침
22103	재채기	재'침(+ 버)
22103	재채기	재'치기(+ 머)
22104	사레	사:레'
22104-1	(사레) 들리다/만나다/걸리다	들린'따
22105	딸꾹질	꺼떡'찢(+ 머)
22105	딸꾹질	까딱'찢(+ 버)
22106	트림	트'르'미
22107	곰보	곰(:)보'
22107	곰보	얼'빼기(+ 머), 억'빼기(+ 머)
22107	곰보	빳'조'(+ 버)
22108	천연두	손'님(+ 머)
22108	천연두	소'님(+ 버)
22109	여드름	이'드름
22110	학질	초'학'
22110-1	하루거리	*
22110-2	이틀거리	이틀'기

22110-3	매일 앓는 학질	초'학'
22111	홍역	홍'진
22112	불거리	불'치'기
22113	땀띠	땀'띠
22114	두드러기	두'디'리'기
22115	버짐	버'짐(+ 의식적), 버'점(+ 무의식적)
22115-1	마른버짐	모'른'버'짐
22115-2	진버짐	진'버'짐
22115-3	도장 버짐	세'버'짐(+ 버)(+ 조?)
22116	문둥이	문:'디'~이'
22116-1	문둥병	문'디'~이'병(+ 버)
22116-1	문둥병	풍'뽕(+ 머)
22117	부스럼	부'시'럼'
22117-1	종기	대'중'(+ 너무 헐어서 뼈에까지 스며든 종기)
22117-1	종기	쫙'지'
22118	고름	고'름'
22119	곰기다	갱'긴'다
22120	난쟁이	쫼'배'~이(+ 버)
22120	난쟁이	난'재'이(+ 머)
22121	사팔뜨기	근'내'산(+ 두 눈 모두가 엉뚱한 데로 가는 눈)
22121	사팔뜨기	고'리'눈(+ 두 눈동자가 안쪽으로 불린 눈)
22121	사팔뜨기	사:'파'리(+ 한 쪽 눈은 바로 보이고 한 쪽 눈은 엉뚱한 데로)
22122	언청이	※미조사
22123	소경	봉:'사'
22123-1	당달봉사	당'달'봉'사
22124	애꾸	*
22125	눈곱	눈'꾸'바'리(+ 할아버지)
22125	눈곱	누'꿈'재'~이(+ 할머니)
22126	다래끼	다'래'끼
22126-1	다래끼(눈 위쪽)	떠'리
22126-2	다래끼(눈 아래쪽)	다'리'끼
22127	절름발이	전'둥'다'리'
22127	절름발이	쩔'뚝'바'리'
22128	굽사등이	굽'새
22129	귀머거리	기'머'거'리(+ 할아버지)
22129	귀머거리	먹'끼'(+ 할머니)
22130	말더듬이	더'드'미(+ 할머니)
22130	말더듬이	더'디'미(+ 할아버지)
22131	병어리	버'부'리
22132	잠꾸러기	장'꾸'러'기(+ 할아버지)
22132	잠꾸러기	잠'치'~이(+ 할머니)
22133	줄리다	게'림'다(+ 할머니)
22133	줄리다	줄'린':다
22134	하품	하'품
22134	하품	하'뺨
22135	졸음	자'부'럼
22135-0-1	-을	자'부'르'를
22135-0-2	-에	자'부'르'메
22136	잠꼬대	장'꼬'대

2.7. 육아

22201	입뎃	입'떠'시라
22201-0-1	-을	입'떠'슬
22202	갓난아이	간난애'기(+ 머)
22202	갓난아이	간난애'기(+ 머)
22203	어린아이	어르나':
22204	경기(驚氣)하다	정'끼난다
22204	경기(驚氣)하다	정'끼
22205	눅히다	니'핀다
22206	계집아이	여시가':(+ 버)
22206	계집아이	가시나':(+ 머)
22207	예쁘다	예뿌'다(+ 버)
22207	예쁘다	이뿌'다(버)
22208	사내아이	머스마':
22209	아우 타다	아시 탄'다
22209	아우 타다	아시'로 탄'다'
22209-1	아우보다	아시본'다(+ 태어날 아기의 형이나 누나 되 는 아이가 자꾸 자기 사타리 쪽을 쳐다보는 일, '아기'(뱃속의 동생)가 보인다고 함)
22210	야위다	애'비다
22211	쌍둥이	쌍디'~이
22212	오줌	오줌'
22213	똥	똥
22214	기저귀	기주'개(+ 신)
22214	기저귀	똥뚜디'기(+ 구)
22214	기저귀	오줌두디'기(+ 구)
22215	뉘다(排便)	니이' 준다
22216	방귀	방구'
22216-1	뀌다	킨'다
22217	구린내	꾸'룽내
22218	구리다	도'카'다
22218	구리다	소'아카다
22219	포대기	포대'기(+ 신)
22219	포대기	두디'기(+ 구)
22220	기지개	기주개'(+ 버)
22220	기지개	지지리'(+ 머)
22220-1	기지개를 켜다/하다/쓰다/펴다	기주개'로 켜'다(+ 버)
22220-1	기지개를 켜다/하다/쓰다/펴다	지지리'로 친'다(+ 머)
22221	거짓말	거'지'말
22222	남부끄럽다	넘'부'끄럽따
22223	겉쟁이	겉'쟁'이
22224	불쌍하다	불'쌍'타
22225	죄암죄암	자암'자암'
22225	죄암죄암	잠재'미

22225	죄암죄암	잠':잠':
22226	곤지곤지	진진하'자
22226	곤지곤지	진':진':
22227	따로따로	섬'바'섬'바'
22228	도리도리	도래'도래'
22229	짜짜꿍	짜'악장'구 짜'악장'구
22230	부라부라	불매':불'매':불'매'
22231	걸음마	거름:바' 거름:바'
22231	걸음마	거름바'로 잘한다
22232	아장아장	아장'아장'
22233	넘어지다	자빠질'따
22233	넘어지다	어퍼질'따
22233	넘어지다	너'머질'따'
22234	곤두박질	꼰지바'꾸'로 헐:따
22234	곤두박질	꼬찌바'꾸
22235	안기다	앵긴'다
22236	바람개비	※ 미조사
22237	호드기	헤띠'기
22238	숨바꼭질	송끼노'리
22239	소꿉놀이	반주께'미
22240	사금파리	비당카'리
22241	연	연
22241-1	방패연	*
22241-2	가오리연	주개'연
22242	걸리다	걸릴'따
22243	고누	꼰
22244	땅뽕기	땅'따'무끼
22245	팽이	팽'이'(+ 신, 머)
22245	팽이	공':개'(+ 구, 머)
22245	팽이	뽕'고'~이(+ 버)
22246	딱지치기	떼'기'치기
22247	구슬	다마치'기
22247	구슬	다'마
22248	그네	군데'
22248-1	그네를 뛰다/타다/구르다	군데똥'다
22249	밑신개	군데발'판'
22250	굴렁쇠	동글테'미
22251	굴리다	굼부린'다
22251-0-1	-고	굼부리'고
22251-0-1	-고	댕'긴다
22251-0-2	-어야	굼부리'야' 텐'다
22252	자전거	채'장거
22253	목말	몽노'리
22254	말타기	말로'리
22255	달음박질	다름박'질로 친다
22255	달음박질	다름박'찢
22256	썰매	쓰께'다(+ 일어)
22256	썰매	썰매'
22256-1	얼음을(썰매를) 지치다/타다	쓰께'다로 탄'다'
22256-2	송곳	송굳'

22256-2	송곳	송구'슬'
22257	엄살	허덜감'
22257-1	(엄살) 부리다/피우다/떨다/하다	허덜가':물 지'인다
22258	부아	배아'

2.8. 친족

22301	아버지	아부'지
22301	아버지	아버'지
22301-1	아버지(호칭)	아부'지
22301-1	아버지(호칭)	아버'지
22302	어머니	어'머'~이
22302-1	어머니(호칭)	어'머'~이
22303	할아버지	하'라'부지
22303-1	할아버지(호칭)	하'라'버지
22304	할머니	할'무'~이
22304-1	할머니(호칭)	할'무'~이
22305	남편	남'페니다(+ 젊었을 때)
22305	남편	영:감'(+ 나이 들었을 때)
22305-1	남편(호칭)	아무개 자나부'지(+ 자식 없을 때)
22305-1	남편(호칭)	아무개 아부'지(+ 자식 생겼을 때)
22305-1	남편(호칭)	저가부지(+ 나이 들었을 때)
22306	아내	안사'람(?) (+ 젊)
22306	아내	할망'구(+ 나이들)
22306	아내	할마~이(+ 나이들)
22306-1	아내(호칭)	아이 이름(+ 젊)
22306-1	아내(호칭)	주'구메(+ 나이 들)
22307	형	행'님(+ 젊)
22307	형	헤'~이(+ 아이)
22307	형	행님(+ 나이들1)
22307	형	백'씨'다(+ 나이들2)
22307	형	중헤'~이다(+ 나이들2)
22307-1	형(호칭)	행'아, 헤'~이 밤무'우로 와(+ 아이)
22307-1	형(호칭)	행'님(+ 젊)
22307-1	형(호칭)	큰행'님(+ 나이들)
22307-1	형(호칭)	자근행'님(+ 나이들)
22308	아우	동상'(+ 아이)
22308	아우	동상'(+ 젊)
22308	아우	동상'(+ 나이들)
22308-1	아우(호칭)	이름(+ 아이)
22308-1	아우(호칭)	동상'(+ 젊)
22308-1	아우(호칭)	아무개 아'빠'(+ 젊)
22308-1	아우(호칭)	동생'(+ 나이들)
22309	누나	누우야'다(+ 아이)
22309	누나	눈:니미'다(+ 젊)
22309	누나	눈:니미'다(+ 나이들)

22309-1	누나(호칭)	누우'야(+ 아이)
22309-1	누나(호칭)	눈':님(+ 젊)
22309-1	누나(호칭)	눈:니'믄(+ 나이듦)
22310	누이	여'동'상(+ 아이)
22310	누이	여'동'상(+ 젊)
22310	누이	여'동'상(+ 나이듦)
22310-1	누이(호칭)	이름(+ 아이)
22310-1	누이(호칭)	신랑 성+ 실아(+ 젊)
22310-1	누이(호칭)	김'시라(+ 젊)
22310-1	누이(호칭)	김서방'네(+ 젊)
22310-1	누이(호칭)	김서방네'야(+ 나이듦)
22311	자식	자'석'드리다
22312	만아들	장남' (+ 중)
22312	만아들	크나'들'(+ 다)
22312	만아들	마다'들'(+ 소)
22313	만딸	큰'딸'(+ 다)
22313	만딸	마'딸(+ 중)
22313	만딸	장녀'(+ 소)
22314	막내	땅내'
22315	오빠	오'빠'(+ 신)
22315	오빠	오'라'바~이(+ 젊)
22315	오빠	오'래'비(+ 젊)
22315	오빠	오'라'바~이(+ 나이 듦)
22315-1	오빠(호칭)	오'라'바(+ 아이)
22315-1	오빠(호칭)	오'라'바~이(+ 젊)
22315-1	오빠(호칭)	오라바'시(+ 나이 듦)
22316	언니	세'~이다(+ 아이)
22316	언니	세'~이다(+ 젊)
22316	언니	세'~이다(+ 나이 듦1)
22316	언니	백'씨'다(+ 나이 듦2)
22316	언니	중씨'다'(+ 나이 듦2)
22316-1	언니(호칭)	성'아(+ 아이)
22316-1	언니(호칭)	성'아(+ 젊)
22316-1	언니(호칭)	큰'세'~이(+ 나이 듦)
22316-1	언니(호칭)	자근세'~이(+ 나이 듦)
22316-1	언니(호칭)	성'아(+ 나이 듦)
22317	아비	아':(+ 손자 없을 때)
22317	아비	애'비(+ 손자 있을 때)
22317-1	아비(호칭)	아들 이름(+ 주위의 사람 유무에 관계 없이)
22317-1	아비(호칭)	손자/녀 이름
22317-1	아비(호칭)	애'비야(+ 손자/녀가 있을 때에만)
22317-1	아비(호칭)	야':야
22318	어미	메'느리
22318	어미	아무개 예'미'(+ 손자/녀가 있을 때)
22318	어미	예'미'
22318-1	어미(호칭)	야':야
22319	손자	손'자
22320	손녀	술'려
22321	사위	사'우
22321-1	사위(호칭)	김서'방

22322	외손자	에손':자
22323	외손녀	에술'려
22324	꾸짖다	꾸지러'를 한다
22324	꾸짖다	머'루쿤다
22324-0-1	-고	머'루쿠고 일따
22324-1	나무라다	나무'래 준다
22325	총각	총각'
22326	처녀	처니'
22327	혼인	게'론'한다
22327-1	혼인식	게'론'식
22328	혼인 잔치	게'론'잔'치' 한다
22329	장가가다	장:개간'다'
22329-1	시집가다	시'직'간다
22330	혼숫감	혼수'감
22331	함	하:믈' 지고
22332	겹사돈	겹'사'돈
22333	새색시	새'데'기(+ 다)
22333	새색시	새'각'씨(+ 소)
22333-1	새색시(호칭)	새'데'기
22334	시아버지	씨'아'바~이(+ 버)
22334	시아버지	아'버님(+ 머)
22334-1	시아버지(호칭)	아'버님(+ 머)
22334-1	시아버지(호칭)	아'분님(+ 버)
22335	시아머니	씨'오'마~이(+ 함부로 할 때)
22335	시아머니	어'머'~이(+ 점잖게)
22335-1	시아머니(호칭)	어'머'~이
22336	비위	비우'
22337	아주머니	아저반'님
22337	아주머니	씨'숙'
22337	아주머니	큰'서'방님(+ 양반집)
22337-1	아주머니(호칭)	아저반'님
22338	서방님	서방'님(+ 양반집)
22338	서방님	아무개 삼촌'+ 형(형수)의 아이 있을 때)
22338	서방님	자근서방'님
22338	서방님	대'림
22338	서방님	시'동생
22338-1	서방님(호칭)	아무개 삼'촌
22339	도련님	씨'동생
22339	도련님	대'림(+ 일반적)
22339-1	도련님(호칭)	대'림
22340	형님	행'님
22340-1	형님(호칭)	행'님
22341	시누이	큰'시'매(+ 누나)
22341	시누이	큰'씨'누(+ 누나)
22341	시누이	쿵'고'무(+ 누나)
22341	시누이	자근씨'누'+(여동생)
22341	시누이	성씨+ 시'리'(여동생)
22341-1	시누이(호칭)	행'님(+ 누나)
22341-1	시누이(호칭)	성씨+ 서방'네
22341-1	시누이(호칭)	성씨+ 시'리'

22341-2	아가씨	자근애'씨
22341-3	아가씨(호칭)	잔:애'씨야
22342	올케	자근'올'키(+ 다)
22342	올케	자근'올'치(+ 소)
22342-1	올케(호칭)	자근'올'키야
22343	매형	매형'+ 소)('자행'보다 좀 더 높임의 의미 있음)
22343	매형	자행'+ 다)
22343-1	매형(호칭)	자행'
22344	매제	기:매'
22344-1	매제(호칭)	성+ 서방'
22345	큰아버지	크'나'부지
22345	큰아버지	백'뿌'
22345	큰아버지	백'뿐'님
22345-1	큰아버지(호칭)	크'나'부지
22345-2	(아버지의 둘째 형)	자근크'나'부지
22345-2	(아버지의 둘째 형)	중부'
22345-2	(아버지의 둘째 형)	크'나'부지
22345-3	(아버지의 셋째 형)	세채크'나'부지
22345-3	(아버지의 셋째 형)	크'나'부지
22346	큰어머니	크너무'~이
22346	큰어머니	뱅'모'님(+ 존칭)
22346	큰어머니	뱅'모'+ 존칭)
22346	큰어머니	크'너'매
22346-1	큰어머니(호칭)	크'너'매
22346-1	큰어머니(호칭)	크너머'~이(+ 다소 존칭)
22346-1	큰어머니(호칭)	뱅'모'님
22346-2	(아버지의 둘째 형의 아내)	크'너'매
22346-2	(아버지의 둘째 형의 아내)	중모'님(+ 존칭)
22346-2	(아버지의 둘째 형의 아내)	중모'+ 존칭)
22346-2	(아버지의 둘째 형의 아내)	택호+ 크'너'매
22346-3	(아버지의 셋째 형의 아내)	택호+ 크'너'매
22346-3	(아버지의 셋째 형의 아내)	중모'
22347	큰집	큰'집'
22347	큰집	큰지베'
22348	작은아버지	삼'촌
22348	작은아버지	자나부'지
22348	작은아버지	숙뿌'님(+ 존칭)
22348-1	작은아버지(호칭)	자그나부'지(+ 다)
22348-1	작은아버지(호칭)	삼'촌(+ 소)
22349	작은어머니	자:너'매(+ 평칭)
22349	작은어머니	승'모'님(+ 존칭)
22349	작은어머니	승'모'+ 존칭)
22349-1	작은어머니(호칭)	자:너머'~이
22350	삼촌	아'재
22350-1	삼촌(호칭)	아'재
22351	아저씨	오촌아'재(+ 다)
22351	아저씨	당'숙(+ 소)
22351-1	아저씨(호칭)	아'재
22352	아주머니	당고'무

22352-1	아주머니(호칭)	고'무
22353	조카	조'카'(+ 형제)
22353	조카	생'질'(+ 남매, 다)
22353	조카	조'카'(+ 남매, 소)
22354	조카딸	조카따'리'다(조'카'딸+ 이다)(+ 형제)
22354	조카딸	생'질'려(+ 남매, 다)
22355	고모	고'무
22355-1	고모(호칭)	고'무
22355-1	고모(호칭)	고'무님
22356	고모부	고'무아재
22356	고모부	고'무부
22356-1	고모부(호칭)	고'무아재
22357	고종	고'종사촌
22357	고종	고'중사촌
22357	고종	고'중
22358	이모	이'무
22358-1	이모(호칭)	이'무님
22358-1	이모(호칭)	이'무
22359	이모부	이'무부(+ 소)
22359	이모부	이'무아재(+ 다)
22359-1	이모부(호칭)	이'무아재
22360	이종	이'종사촌
22360	이종	이'중
22361	외삼촌	에삼'춘'
22361-1	외삼촌(호칭)	에삼'춘'
22362	외숙모	에송'무'
22362-1	외숙모(호칭)	에송'무'
22362-1	외숙모(호칭)	에송'문'님
22363	외종	에사'춘'
22364	외할아버지	에하'라'부지
22364-1	외할아버지(호칭)	하'라'부지
22365	외할머니	에할'무'~이
22365-1	외할머니(호칭)	에할'무'~이
22366	장인	재인'녕감'
22366	장인	빙:자어른'(+ 존칭)
22366-1	장인(호칭)	빙:자어른'
22367	장모	빙:무'님'(+ 존칭)
22367	장모	장:모'님'
22367	장모	빙:모'님'(+ 존칭)
22367-1	장모(호칭)	빙:모'님'(+ 존칭)
22367-1	장모(호칭)	장모'님'(+ 존칭)
22368	처남	처남'
22368-1	처남(호칭)	처남'
22368-1	처남(호칭)	행'님
22369	처남댁	처남댁'(+ 머)
22369	처남댁	처나마'댁(+ 버)
22369-1	처남댁(호칭)	처남'댁(+ 머)
22369-1	처남댁(호칭)	처나마'댁(+ 버)
22370	홀아비	호부래'비
22371	홀어미	가:보'(+ 버)

22371	홀어미	가:부'(+ 머)
22371	홀어미	가:부'(+ 버)
22372	계모	제:모'(+ 버)
22372	계모	계:모'(+ 머)
22372-1	계부	이:부'
22373	아저씨	아'재
22373-1	아저씨(호칭)	택호+ 어른'
22374	아주머니	아'지매
22374-1	아주머니(호칭)	택호+ 아'지매
22375	사나이	한'창'때(+ ?조)
22376	영감	저아부'지
22376	영감	저가부'지
22376-1	할망구	할'마'~이
22377	나이	할망땅'구
22377	나이	나'는'
22377-0-1	-를	나'로'
22378	환갑	항:갑'
22378-1	환갑 잔치	항:갑잔'치'로 한다
22379	사투리	사토리'(+ 버)
22379	사투리	사투리'(+ 머)

2.9. 동물

2.9.1. 물에 사는 동물

22401	물고기	물'꼬'기
22402	민물고기	민'물'꼬기
22403	피라미	피'리
22404	지느러미	날가'지(+ 버,+ 머)
22404	지느러미	날'개'(+ 머)
22405	아가미	알개'미
22406	창자	창'사'
22407	송사리	*
22408	헤엄	히엄'(+ 버)
22408	헤엄	헤엄'(+ 머)
22409	메기	메에'기(+ 머)
22409	메기	미에'기(+ 버)
22410	자라	자래'
22411	거북	거'부기
22412	미꾸라지	미'꾸라'지(+ 신)
22412	미꾸라지	미꾸래'~이(+ 구)
22413	개구리	개'구리
22414	올챙이	올'챙'이(+ 머)
22414	올챙이	올'채'~이(+ 버)

22415	두꺼비	뚜꺼'비
22416	거머리	거':무'리
22417	다슬기	소래고동'
22418	우렁이	농'꼬'동
22419	고둥	고둥'
22420	달팽이	달'패'~이(+ 머)
22420	달팽이	달'파'~이(+ 버)
22421	새우	새'비
22421-1	새우(민물 대)	말짚기'미(+ 큰 것, 구부리지 못 함)
22421-2	새우(민물 소)	새'비
22421-3	새우(바다 대)	왕새'비
22421-4	새우(바다 소)	새'비
22422	새우젓	새'비젓
22422-0-1	-이	새'비저지 째따
22423	가재	까재'
22424	갈치	깔'치(+ 머)
22424	갈치	칼'치(+ 버)
22425	고등어	고'등애
22426	가오리	가'오리
22427	가자미	가재'미(+ 작은 것)
22428	멸치	메르'치
22429	명태	멩'태
22429-1	동태	동태'
22429-2	황태	북'태'
22429-3	노가리	*
22429-4	북어	부'거'(+ ?조)
22429-5	생태	쌍뿔'태
22430	조기	조'구
22431	도미	돔
22432	뱀장어	배암자'구(+ 버)
22432	뱀장어	배앰재'~이(+ 머)
22433	낙시	낙'시'
22434	미끼	이'깎
22435	낙싯대	낙'시'때
22436	열레	연짜'사(+ 연 날릴 때만 사용)
22437	조개	조개'비
22438	소라	개'꼬'동

2.9.2. 곤충과 벌레

22501	벌레	벌거'지
22502	날벌레	날뽕거'지
22503	파리	퍼'리(+ 머)
22503	파리	포'리(+ 버)
22503-1	쉬파리	똥'포'리(+ 버)
22503-1	쉬파리	똥'퍼'리(+ 머)
22503-1	쉬파리	시:퍼'리(+ 머)

22503-1	쉬파리	시포'리'(+ 버)
22504	쉬슬다	시를 씨'럴따
22504	쉬슬다	시씨'럴따
22505	가시	기더'리'
22506	진딧물	비리'
22506-1	(진딧물이) 끼다/얹다/생기다	생'긴다
22506-1	(진딧물이) 끼다/얹다/생기다	생'기따
22507	잠자리	수'베'이곰도'리(+ 왕잠자리)(+ 머)
22507	잠자리	짤래'비(+ 대소에 관계없는 보편적인 명칭, 다)(+ 버)
22507	잠자리	수'베'이철비(+ 왕잠자리)(+ 머)
22507	잠자리	물바~아철비'(+ 왕잠자리)(+ 버, 소)
22507	잠자리	곰도'리(+ 대소에 관계없는 보편적인 명칭)(+ 머)
22507	잠자리	물바~아짤래'비(+ 왕잠자리)(+ 버, 다)
22507	잠자리	철비'(+ 버, 소)
22508	방아깨비	연:치'
22508-1	암컷	연치'
22508-2	수컷	쑹'년'치
22508-2	수컷	딸따'리
22509	메뚜기	메띠'기
22510	여치	쌩쌩'기(+ 버)
22510	여치	쌩쌩'기(+ 머)
22511	사마귀	버마재'비(+ 버)
22511	사마귀	사:마'구(+ 머)
22512	벌	벌
22512-1	(벌을) 치다/기르다/키우다	키'운다
22513	땅벌	땡'뻔'
22514	나비	나'부
22515	하루살이	하리사'리
22516	풍뎅이	핑개'~이(+ 버)
22516	풍뎅이	핑배'~이(+ 머)
22517	모기	모'구'(+ 버)
22518	장구벌레	물뽕거'지
22519	매미	매':미'
22520	개똥벌레	개똥벌거'지
22521	반딧불	개똥벌거'지불'(+ ?조)
22522	거미	거'무
22523	굼벵이	굼비'~이
22523	굼벵이	게~'우(+ 버)
22524	구더기	기더'리'
22525	노래기	노'니기(+ 머)
22525	노래기	노'네기(+ 버)
22526	그리마	심:바'리(+ 머)
22526	그리마	짐:바'리(+ 버)
22527	지네	지'네
22528	개미	깨':미(+ 머)
22528	개미	개':미(+ 버)
22529	바구미	바:거'리'
22530	진드기	가분:나'리(+ 머)

22530	진드기	가분:다'리(+ 버)
22531	벼룩	베'룩
22532	이	이'
22532-1	서캐	썰'까'레
22532-2	빈대	빈대'
22533	송충이	송치'~이(+ 버)
22533	송충이	송칭'이(+ 머)
22534	귀뚜라미	끼뜨라'미(+ 머)
22534	귀뚜라미	끼뜨래'미(+ 버)
22535	누에	누'이(+ 버)
22535	누에	니':(+ 머)
22536	고치	꼬'치
22537	번데기	뻘디'기(+ 버)
22537	번데기	뻘디'기(+ 머)
22538	지렁이	거시'~이'
22539	회충(蛔蟲)	촌추'~이'(+ 머)
22539	회충(蛔蟲)	혜충'(+ 버)
22540	소금쟁이	소곰쟁'이(+ 머)
22540	소금쟁이	소곰재'~이(+ 버)
22541	방개	뺑':까'지(+ 머)
22541	방개	뺑':까'제(+ 버)

2.9.3. 가축

22601	가축	가'축
22602	암소	암'세'(+ 머)
22602	암소	암'소'(+ 버)
22603	송아지	송아'치
22604	송아지 부르는 소리	위어'여
22605	황소	황'소'(+ 버)
22605	황소	항'췌'(+ 머)
22606	길들이다	질'디'털라꼬
22606-1	소 모는 소리(앞으로 가라)	이라'!
22606-2	소 모는 소리(그 자리에 서라)	위우'!
22606-3	소 모는 소리(오른쪽으로 돌려)	이리'!
22606-4	소 모는 소리(왼쪽으로 돌려)	자라'
22606-5	소 모는 소리(뒤로 물러나라)	물러'!
22607	쇠고기	세고'기'(+ 머)
22607	쇠고기	소고'기'(+ 버)
22608	고기(肉)	고'기(+ 버)
22608	고기(肉)	게'기(+ 머)
22609	둘치	불'기
22610	꼬리	꼬래'~이(+ 버)
22610	꼬리	꼬랑:탱'이(+ 머)
22611	망아지	망새'~이
22612	당나귀	당나'구
22613	갈기	갈:기'

22614	돼지	대'애지
22614-1	멧돼지	산때':지
22615	주둥이	코쭈디'~이
22615	주둥이	쭈디'~이
22616	돼지 머리	대:지 다가'리
22617	돼지우리	대:지 마'구
22617-1	오래오래	똥똥'
22618	개(犬)	개
22618-1	수개	쑥'개'
22618-2	암개	앙'개'
22619	강아지	강새'~이
22620	염소	염새'~이
22621	고양이	개~이'
22621-1	수고양이	쑥'개'~이
22621-2	암고양이	앙'개'~이
22622	토끼	토까'~이
22623	거위(鵞)	게'우(+ 버)
22623	거위(鵞)	게'~오(+ 머)
22624	암탉	암'딱'
22625	병아리	삐가'리(+ 버)
22625	병아리	삐개'~이(+ 머)
22626	모으다	모'운다
22627	수탉	장딱'
22627-0-1	-이	장따'키
22628	벼슬(鷄冠)	달구베'실(+ 머)
22628	벼슬(鷄冠)	베'실(+ 버)
22628	벼슬(鷄冠)	닥베'실(+ 버)
22629	부리	조디'~이
22630	모이	모'시
22630-0-1	-을	모'시로
22630-1	모이다	모인'다
22631	닭털	닥털'(+ 버)
22631	닭털	닥터르'기(+ 머)
22632	닭똥	달구'똥
22633	어리	달구'통
22634	닭장	달구'통
22635	둥우리	닥억까'리(+ 머)
22635	둥우리	닥억까'레(+ 버)
22636	날개	날'개'
22637	깃	닥털'
22637	깃	달터리'기
22637-0-1	-을	닥털'로

2.9.4. 들짐승 날짐승

22701	호랑이	호래'~이
22702	살쾡이	씨'키네(썩+ 이네)

22703	여우	여시'(+ 머)
22703	여우	여어'시(+ 버)
22704	원숭이	원시'~이'
22705	사슴	사'섬
22706	노루	노리'(+ 머)
22706	노루	노루'(+ 버)
22706-0-1	-이	노리'가(+ 머)
22706-0-2	-를	노리'를(+ 버)
22706-0-2	-를	노리'로(+ 머)
22707	고슴도치	고슴:도'치(+ 머)
22707	고슴도치	고신:도'치(+ 버)
22708	두더지	디'지기(+ 머)
22708	두더지	디'디기(+ 버)
22709	족제비	족찌'비
22710	뱀	배:미'(+ 머)
22710	뱀	배'암'(+ 버)
22711	도마뱀	도'매배:미
22712	구렁이	구리'이
22712	구렁이	구리'~이
22712	구렁이	구리'
22713	살모사	독새'
22714	생쥐	새앙'지
22715	박쥐	박'찌'
22716	거꾸로	꺼'꾸로
22717	다람쥐	다람'지
22718	새(鳥)	날짚'승
22718	새(鳥)	새
22719	꿩지	꼬래'~이
22719	꿩지	꿩'지
22720	솔개	솔개'~이
22721	독수리	독수'리
22722	제비(燕)	제:비'
22723	두루미	항:새
22723	두루미	두'리'미
22724	소쩍새	소' 짹새
22725	꿩	꿩
22726	장끼	장꿩'
22727	까투리	앙'꿩'
22727	까투리	가토'리
22727-1	꺼병이	꿩새'끼
22728	종달새	종달'새
22729	빼꾸기	불'꿩새
22730	기러기	기'러기
22731	뜸부기	뜸'복새
22732	올빼미	오'빼미
22733	까치	칸':치'
22734	딱따구리	도치'새
22735	덧	찌깨'틀
22735-0-1	-을	찌깨'틀'로
22736	올가미	홀룽가'지(+ 버)

22736 올라미 홀랑가'지(+ 머)

2.10. 식물

2.10.1. 꽃과 풀

22801	진달래꽃	창'꼬'치라(창'꽃'+ 이라)
22802	철쭉꽃	개꼴'
22803	민들레	진달랭'이(+ 머)
22803	민들레	진달'래(+ 버)
22804	맨드라미	맨들래'미
22805	봉선화	봉숭'아
22806	파리	땡깥'
22807	해바라기	해바라'기
22808	꽃봉오리	꼰몽오'리
22809	시들다	씨드러진'다
22809	시들다	씨'들다
22810	질경이	빼빼재'~이(+ 머)
22810	질경이	빼빼쟁'이(+ 머)
22810	질경이	빼뿌쟁'이(+ 머)
22810-1	질경이(식물이름)	빼빼쟁'이(+ 머), 빼뿌쟁'이(+ 머)
22810-2	질경이(식용이름)	빼빼쟁'이(+ 머), 빼뿌쟁'이(+ 머)
22811	빨기	빼빼'
22812	비름	참비'름
22813	쇠비름	세비'름
22814	쭈마귀	가시개썩내'~이
22815	고들빼기	고들빼':(+ 머)
22815	고들빼기	고들빼'기(+ 버)
22815-1	고들빼기(식물이름)	고들빼'~이(+ 머)
22815-2	고들빼기(식용이름)	고들빼~이짐'치(+ 머)
22816	고사리	기사'리(+ 머)
22816	고사리	귀사'리(+ 버)
22817	고비	쭈끼'미
22818	도깨비바늘	도둥넌까'시
22819	도꼬마리	꼭뚜마'리
22820	억새	왕새'
22820	억새	쌔
22821	갈대	갈'때'
22822	이끼	이끼'
22823	아주까리	아주까'리
22824	담쟁이	단'재'~이
22825	수세미	쭈세'미(+ 머)
22825	수세미	쭈시'미(+ 버)
22826	덩굴	넝'쿨
22827	덤불	덤'불

22827-1	가시덤불	까시덤'불
22828	잔디	짚대'기

2.10.2. 나무

22901	소나무	솔라'무
22902	솔방울	솔뽕'구(+ 머)
22902	솔방울	솔뽕'울(+ 버)
22903	관솔	간'솔'
22904	솔가리	갈'비
22905	그리모으다	검:는'다'
22906	뽕나무	뽕나'무
22907	오디	오들'개
22908	도토리	쭉소리 굴'밤
22909	떡갈나무	떠'갈라무
22910	상수리	굴'밤
22911	옻	온
22911-0-1	-으로	오'트로
22912	버드나무	수'영'버들라무
22913	느티나무	기'몽나무
22913	느티나무	느티나'무
22914	그림자	그름'자
22914-1	그늘	그늘'
22915	숲	수'피'
22915-0-1	-을	수'폴'
22915-0-2	-에	수'페'
22916	시원하다	씨언'타
22917	썰레	썰레'
22918	칙	칙
22918-0-1	-에	치'케'
22919	가지(枝)	가'지'
22920	끝	꼬트머'리
22920-0-1	-이	꼬'치'
22920-0-2	-을	꼬'틀
22920-0-3	-에	꼬'테
22921	삭정이	삭'다리
22921	삭정이	쭉'때'
22921-1	삭정이를 따다/꺾다/하다	깎는'다(+ 버)
22921-1	삭정이를 따다/꺾다/하다	깎는'다(+ 머)
22922	나무	나무'
22922-0-1	-을	나무'로
22922-0-2	-에	나무'에
22923	나무하다	나무한'다
22924	그루터기	나무꺾티'기
22924-1	그루터기(베어내고 남은 부분)	서숙꺾티'기
22924-1	그루터기(베어내고 남은 부분)	나락꺾티'기
22924-1	그루터기(베어내고 남은 부분)	수시꺾티'기

22925	등걸	등'치
22926	장작	장'작
22927	꽤다	꽤'다'
22928	부스러기	도치'뺨
22929	숯	숯
22929-0-1	-이	수'치
22929-0-2	-을	수'틀
22929-0-3	-에	수'테
22930	불잉걸	숯'뺨
22931	쌉	쌉
22932	잎	이파'리
22932-0-1	-을	이'폴'(+ 버)
22932-0-1	-을	이파'리'를(+ 머)
22932-1	잎사귀	이파'리
22933	가랑잎	가랑'닙
22934	뿌리	뿌렁'이

2.10.3. 과일과 열매

23001	능금	능금'
23002	돌배	돌'배'
23003	복숭아	복순'(+ 머)
23003	복숭아	복숭'아(+ 버)
23004	곶감	곶'깸'
23005	홍시	홍'시
23006	고욤	기'염'
23007	살구	살'구
23008	앵두	앵두'
23009	자두	자두'
23010	오얏	*
23010-0-1	-을	*
23011	석류	성'누'
23012	모과	모개'
23013	과일	과일'
23014	꼭지	꼭때'기
23015	밤	밤
23015-1	밤송이	밤싱'이
23015-2	팻밤	푸'뺨'
23015-3	알밤	토'리
23015-3	알밤	알'뺨'
23015-4	쌍둥밤	쪽'밤
23016	보늬	버'니(+ 머)
23016	보늬	버'~이(+ 머)
23017	호두	추'자
23018	가래(楸子)	*
23019	개암	깨금'
23020	머루	모래'

23021	다래	다'래'
23022	청미래덩굴	맹'감'
23023	으름	어'름
23024	참외	차'메'
23025	딸기	딸'기'
23025	딸기	딸
23025-1	“딸기(밭 재배)”	딸'기'
23025-2	“딸기(밭 야생)”	*
23025-3	“딸기(들 재배)”	*
23025-4	“딸기(들 야생)”	배':미 딸
23025-5	“딸기(산 재배)”	*
23025-6	“딸기(산 야생)”	땅'찢'레
23025-6	“딸기(산 야생)”	산'딸'
23026	뽕딸기	배':미'딸
23027	마름(菱)	몰'밤

2.11. 자연

2.11.1. 산과 들

23101	산꼭대기	산꼭때'기
23102	기슭	*
23102-0-1	-에	*
23103	골짜기	꼴'짜'
23104	메아리	*
23105	고함	가'암(+ 머)
23105	고함	카'암(+ 버)
23105-1	(고함) 치다/지르다/하다	질'런'따
23106	묘	메
23107	뿔자리	뿔'짜'리'
23107-1	광중	구'디'기
23108	구덩이	구'디'기
23109	비탈	뽕'따리'라(뽕'딸+ 이'라)
23110	가파르다	가'푸'다
23111	언덕	영'더'게
23112	낭떠러지	*
23113	들(野)	드'레'(들+ 에)(+ 논, 밭이 있는 곳)
23113-0-1	-에	드'레'
23114	벌	들'파'니'(+ ‘들'판’은 쓸모 있는 땅, ‘벌'판’은 넓으나 쓸모없는 땅)
23115	갈림길	상'그림'찢
23116	헤어지다	갈'라'전'따'
23116	헤어지다	헤'여'전'따'
23117	바위	바'구
23117-0-1	-을	바'구'로

23117-0-2	-에	바'구에
23118	돌(石)	돌
23118-0-1	-을	돌로'
23118-0-2	-에	도래'
23119	자갈	재'갈
23120	모래	모'래
23120-0-1	-를	모'래로
23121	진흙	진'흙'
23121-1	찰흙	찌'득'
23121-1	찰흙	지:득'

2.11.2. 강과 바다

23201	물	무'를'
23202	거품	버'껌
23203	개운하다	깨운'타
23204	도랑	깨굴'창
23204-1	봇도랑	보또'랑
23205	둑	두'글
23206	잠기다	댕긴'다
23207	개울	또랑'
23208	내(川)	내까'
23209	미역 감다	목'깜'는다
23210	발가숭이	알'몸'
23211	목욕하다	모'욕'한다
23212	수채	수'채'
23213	개굴창	깨굴'창'
23214	시궁창	해'채
23215	웅덩이	웅'덩
23216	수렁	시비'
23217	늪	느'피'
23217-0-1	-에	느'페'
23218	배(船)	배
23219	나루터	선창'
23220	돛	*
23220-0-1	-에	*
23221	돛대	*
23222	돛배	*
23223	돛 줄	*
23224	돛 줄	*
23225	거루	놉'빼'
23226	상앗대	장'때
23227	개(펄)	개'빨'
23228	물	*
23228-0-1	-으로	*
23229	밀물	물조'시
23230	썰물	물조'시

23231	가라앉다	가라안은'다
23232	그물	그'물'
23233	해녀	해녀'

2.11.3. 시후

23301	새벽	새'복'
23302	새벽밥	새'복'밥'(+ 버)
23302	새벽밥	새'복'밥'(+ 머)
23303	아침	아'침'(+ 신)
23303	아침	아'적'(+ 구)
23304	아침밥	아'적'밥'
23305	점심	정:심'(+ 머)
23305	점심	전:심'(+ 버)
23306	저녁	저'녁'
23306	저녁	정'때':
23307	설'끗'하다	*
23308	노을	복'새'
23308-0-1	-을	복'새'로'
23309	불그레하다	불'그리:하'다
23310	해거름	해'거'름'판
23310	해거름	해'거'름
23311	땅거미	어'덤'빠'리' 진다
23312	봄	보'미'
23313	여름	여'름
23314	더위	더'부'(+ 소)
23314	더위	더'우'(+ 다)
23315	추위	추'부'
23316	가을	가'실'
23316	가을	가'을'
23316-0-1	-에	가으'레
23316-0-1	-에	가시'레
23317	겨울	게'울
23317	겨울	세'안'
23317-0-1	-에	게'우'레
23318	얼음	어'림
23319	오늘	오'늘
23320	내일	내'일
23321	모레	모'레'
23322	글'피	모'레'고'페
23323	그'글'피	저'모'레
23324	어제	어'지
23324	어제	어'제
23325	그저'께	아'래'
23326	그'그'저'께	저'아'래
23327	훗날	훈'날'
23328	하'룻'날	초'하'린'날

23328	하룻날	초하'리
23329	이튿날	초이'튼날
23329	이튿날	초이'틀
23330	사흘날	초사'안날
23330	사흘날	초사'알
23331	나흘날	초나'안날
23331	나흘날	초나'알
23332	닷셋날	초다'샌날
23332	닷셋날	초단'쌔
23333	엿셋날	초여'샌날
23333	엿셋날	초여'쌔
23334	이렛날	초이'린날
23334	이렛날	초이'리
23335	여드렛날	초여드'렌'날
23335	여드렛날	초여드'레
23336	아흐렛날	초아흐'렌'날
23336	아흐렛날	초아흐'레
23337	열흘날	초여'흘랄
23337	열흘날	초여'흘
23338	하루	하리'
23339	이틀	이'틀
23340	사흘	사'알
23341	나흘	나'알
23342	닷새	닷'새
23342	닷새	닷'쌔
23343	엿새	열쌔
23344	이레	이'리
23345	여드레	여드'레
23346	아흐레	아흐'레
23347	열흘	여'를
23348	한나절	한나'잘
23348-1	반나절	*
23349	그믐	그'믐'날
23349-1	그믐께	그'믐'끼
23350	지금	지'금'
23351	아직	안'중
23352	이제	인'자'
23353	이미	이'미
23354	요즈음	요새'
23355	금방	금:방'

2.11.4. 날씨와 방향

23401	별	베'테
23401-0-1	-이	베'치
23401-0-2	-을	베'틀
23402	따스하다	따시'다

23403	아지랑이	아지래'~이
23404	응달	음'달
23405	양달	양'달
23406	비(雨)	비'가'
23407	가랑비	이슬'비(+ 버)
23407	가랑비	가랑'비(+ 머)
23408	이슬비	*
23409	안개	양:개'
23410	눈개	*
23411	무지개	무'지'개
23412	소나기	쏘낙'비(+ 버)
23412	소나기	쏘내'기(+ 머)
23413	갑자기	갑짜'기
23414	홍수	수'파'
23415	번개	병'개'
23416	천둥	노승'
23417	벼락	베'락'
23418	무섭다	무'섭따
23419	함박눈	함'방'눈
23420	싸락눈	싸랑'눈
23421	발자국	발때'죽
23422	진눈깨비	진'태'
23423	우박	우박'
23424	고드름	고'드'름
23425	햇무리	해'문'
23426	달무리	달'문'
23427	둥글다	둥'굴다
23428	은하수	으나'수
23428	은하수	은하'수
23429	금성	새'벨'
23430	가뭄	가'무'미
23431	마르다	몰'란따
23431-0-1	-어서	몰'라서
23432	위	우:
23432	위	우'예
23433	아래	아'래
23434	왼쪽	엔:쪽'
23435	오른쪽	오'온'쪽
23436	결	저'테
23436-0-1	-에	저'테
23437	회오리바람	헤오리바'람
23438	북풍	북'풍'
23439	남풍	마'풍'
23440	동풍	동'풍'
23441	서풍	서'풍'

- =2 째'지(+ 기름과 간장을 같이 닦린 데에 무채와 조금의 물을 넣어 삶은 것)
- =2 숙찌'다(+ 젊은 사람이 실제보다 나이가 들어 보인다) cf. '엿되다'
- =2 탱'가'리(+ 머) cf. '메기'와 닮은 것
- =2 영:매'구'리깨구'리(+ 모내기 논에서 나는 큰 것. '응애' 하고 운다고 함.)

=2 강:어'(+ 아주 큰 것) cf. '가자미'
=2 도'다리(+ 중간 것) cf. '가자미'
=2 누'네 영까'시가 드림따(사마귀에서 나오는 줄이 눈에 들어갔을 때 쓰는
말) cf. '사마귀'

제3편 음운

3.1. 음운 목록

3.1.1. 단모음

31001-0-1	테(輪)-이/가	테'가
31001-0-2	테(輪)-보다	테카'마'
31002-0-1	태(胎)-이/가	태'가
31002-0-2	태(胎)-보다	태카마'
31003-0-1	떼(群)-이/가	떼'가
31003-0-2	떼(群)-보다	떼카마'
31004-0-1	때(時)-이/가	때'가
31004-0-2	때(時)-보다	때'카'마
31005-0-1	틀(機)-이/가	트'리'
31005-0-2	틀(機)-보다	틀'카'마
31006-0-1	털(毛)-이/가	트'리
31006-0-2	털(毛)-보다	틀'카'마
31007-0-1	글(文)-이/가	글'꼡'부
31007-0-1	글(文)-이/가	글'공부
31007-0-2	글(文)-보다	글'카'마
31008-0-1	걸(옷)-이/가	그':리
31008-0-2	걸(옷)-보다	글'카'마
31009-0-1	기(旗)-이/가	기'가
31009-0-2	기(旗)-보다	기카'마
31010-0-1	귀(耳)-이/가	기'가'
31010-0-2	귀(耳)-보다	기'카'마
31011-0-1	시(生時)-이/가	시'가
31011-0-2	시(生時)-보다	시카'마
31012-0-1	쉬(蠅卵)-이/가	시'포'리
31012-0-2	쉬(蠅卵)-보다	*
31013-0-1	쇠(鐵)-이/가	썰'가'
31013-0-2	쇠(鐵)-보다	썰'카'마
31014-0-1	외:국(外國)-이/가	에구'기'(+ 머)
31014-0-2	외:국(外國)-보다	외국카'마 (+ 버)
31015-0-1	왜국(倭國)-이/가	애'구기
31015-0-2	왜국(倭國)-보다	애'국카마
31016	쉬:다(休)	시:고'(+ 머), 시자':(+ 버)
31017	쇠:다(설을~)	시':인나?
31018	배(布)	배'짬'니더
31019	배(船)	배'가'
31020	배(腹)	배'가'
31021	(떡)메	메'가'
31022	매(鞭)	매'가
31023	메:다(擔)	멘다'

31024	매:다(繫)	맨'다
31025	떼:다(分離)	뎌'다'
31026	때:다(炊)	때'앤다
31027	베:다(切斷)	뵈'다'
31028	배:다(孕胎)	배'앤파
31029	세:다(算)	센:다'
31030	새:다(漏泄)	샌':다'
31031	뒤(後)	디:
31032	되(升)	데베'기
31033	게:(蟹)	게'
31034	개:(犬)	개가'

3.1.2. 이중모음

31035-0-1	여럿(多)-이/가	여'러시
31035-0-2	여럿(多)-보다	여'러시카'마'
31035-0-3	여럿(多)-을/를	여'러시 받':따
31036-0-1	물결(波)-이/가	물라'미로
31036-0-2	물결(波)-보다	*
31036-0-3	물결(波)-을/를	물라'미르
31037-0-1	예:의(禮儀)-이/가	예'이가
31037-0-2	예:의(禮儀)-보다	예'이'카'마
31037-0-3	예:의(禮儀)-을/를	*
31038-0-1	계:획(計劃)-이/가	게'헤'기
31038-0-2	계:획(計劃)-보다	*
31038-0-3	계:획(計劃)-을/를	게'헤'글
31039-0-1	규칙(規則)-이/가	*
31039-0-2	규칙(規則)-보다	*
31039-0-3	규칙(規則)-을/를	*
31040-0-1	휴일(休日)-이/가	후'이레는
31040-0-2	휴일(休日)-보다	후'일카'마'
31040-0-3	휴일(休日)-을/를	*
31041-0-1	교통(交通)-이/가	고'통이
31041-0-2	교통(交通)-보다	고'통카'마'
31041-0-3	교통(交通)-을/를	*
31042-0-1	효:자(孝子)-이/가	소'자'
31042-0-2	효:자(孝子)-보다	소'자카'마
31042-0-3	효:자(孝子)-을/를	*
31043-0-1	웬일(何事)-이/가	우'짤일'고?
31043-0-2	웬일(何事)-보다	*
31043-0-3	웬일(何事)-을/를	*
31044-0-1	궤:(軹)(櫃)-이/가	게'짜'기'
31044-0-2	궤:(軹)(櫃)-보다	게'짜카'마
31044-0-3	궤:(軹)(櫃)-을/를	게'짜'글'
31045-0-1	왜란(倭亂)-이/가	애'라니
31045-0-2	왜란(倭亂)-보다	애'랑카'마
31045-0-3	왜란(倭亂)-을/를	애'라늘

31046-0-1	헛대(鷄架)-이/가	근대'가
31046-0-2	헛대(鷄架)-보다	근대카'마
31046-0-3	헛대(鷄架)-을/를	근대'를
31047-0-1	원망(怨望)-이/가	언:망'이
31047-0-2	원망(怨望)-보다	언:망카'마
31047-0-3	원망(怨望)-을/를	언:망'을
31048-0-1	권:투(拳鬪)-이/가	건:'투'가
31048-0-2	권:투(拳鬪)-보다	건:투'카'마
31048-0-3	권:투(拳鬪)-을/를	건:투'를
31049-0-1	의논(議論)-이/가	이:노'니
31049-0-2	의논(議論)-보다	이농카'마'
31049-0-3	의논(議論)-을/를	이:노'를'
31050-0-1	무늬(紋)-이/가	문채'가
31050-0-1	무늬(紋)-이/가	무노'가
31050-0-2	무늬(紋)-보다	문채카'마
31050-0-2	무늬(紋)-보다	무노카'마'
31050-0-3	무늬(紋)-을/를	문채'를
31050-0-3	무늬(紋)-을/를	무노'를
31051-0-1	왕(王)-이/가	왕'이
31051-0-2	왕(王)-보다	왕카'마
31051-0-3	왕(王)-을/를	왕'을
31052-0-1	과자(菓子)-이/가	까'자가
31052-0-2	과자(菓子)-보다	까'자카마
31052-0-3	과자(菓子)-을/를	까'자로

3.1.3. 장모음·성조

31053-0-1	일(一)-이/가	이'리'
31053-0-2	일(一)-보다	일'카'마
31054-0-1	일:(事)-이/가	이리'
31054-0-2	일:(事)-보다	일:카'마
31055-0-1	매(鞭)-이/가	매'가'
31055-0-2	매(鞭)-보다	매'카'마
31056-0-1	매:(鷺)-이/가	매:가'
31056-0-2	매:(鷺)-보다	매:카'마
31057-0-1	밤(夜)-이/가	바'미'
31057-0-2	밤(夜)-보다	방'카'마
31058-0-1	밤:(栗)-이/가	바미'
31058-0-2	밤:(栗)-보다	밤:카'마
31059-0-1	눈(眼)-이/가	누'니'
31059-0-2	눈(眼)-보다	농'카'마
31060-0-1	눈:(雪)-이/가	누니'
31060-0-2	눈:(雪)-보다	농'카'마
31061-0-1	말(馬)-이/가	마'리
31061-0-2	말(馬)-보다	말카'마
31062-0-1	말(斗)-이/가	마'리'
31062-0-2	말(斗)-보다	말'카'마

31063-0-1	말:(言)-이/가	마리'
31063-0-2	말:(言)-보다	말카'마
31064-0-1	손(客)-이/가	소'니
31064-0-2	손(客)-보다	송:카'마
31065-0-1	손(手)-이/가	소'니'
31065-0-2	손(手)-보다	송'카'마
31066-0-1	손:(孫)-이/가	소니'
31066-0-2	손:(孫)-보다	송:카'마
31067-0-1	배(梨)-이/가	배'가
31067-0-2	배(梨)-보다	배카'마
31068-0-1	배:(倍)-이/가	배:가'
31068-0-2	배:(倍)-보다	배카'마
31069-0-1	벌(罰)-이/가	버'리'
31069-0-2	벌(罰)-보다	벌'카'마
31070-0-1	벌:(蜂)-이/가	버리'
31070-0-2	벌:(蜂)-보다	벌'카'마
31071-0-1	솔(松)-이/가	소'리'
31071-0-2	솔(松)-보다	솔'카'마
31072-0-1	솔:(刷)-이/가	소:리'
31072-0-2	솔:(刷)-보다	솔:카'마
31073-0-1	줄(鉉)-이/가	주'리'
31073-0-2	줄(鉉)-보다	줄'카'마
31074-0-1	줄:(연장)-이/가	주'리'
31074-0-2	줄:(연장)-보다	줄'카'마
31075-0-1	돌(石)-이/가	도리'
31075-0-2	돌(石)-보다	돌카'마
31076-0-1	담(牆)-이/가	다'미'
31076-0-2	담(牆)-보다	당'카'마
31077-0-1	담:(膽)-이/가	다미'
31077-0-2	담:(膽)-보다	당카'마'
31078-0-1	들(野)-이/가	드리'
31078-0-2	들(野)-보다	들카'마'
31079-0-1	달-(懸)-고	달'고'
31080-0-1	달-(甘)-고	달'고
31081-0-1	달:-(熱)-고	달고'
31082-0-1	갈-(換)-고	갈:고'
31083-0-1	갈-(磨)-고	갈'고'
31084-0-1	갈:-(耕)-고	갈'고'
31085-0-1	걷-(收)-고	걱'꼬
31086-0-1	걷:-(步)-고	걱꼬'
31087-0-1	적-(書)-고	적'꼬
31088-0-1	적:-(小)-고	작꼬'

3.2. 음운 과정

3.2.1. 활용

32001-0-1	막-(防)[ㄱ]-지	막찌'
32001-0-2	막-(防)[ㄱ]-고	막'꼬
32001-0-3	막-(防)[ㄱ]-더라	막떠'라
32001-0-4	막-(防)[ㄱ]-으니까	마'궁께
32001-0-5	막-(防)[ㄱ]-아/어(왔/었다)	마'갑따
32002-0-1	흐르-(流)[ㅡ]-지	흐르'지
32002-0-2	흐르-(流)[ㅡ]-고	흐르'고
32002-0-3	흐르-(流)[ㅡ]-더라	흐르더'라
32002-0-4	흐르-(流)[ㅡ]-으니까	흐룽'께
32002-0-5	흐르-(流)[ㅡ]-아/어(왔/었다)	홀'런따
32003-0-1	오-(來)[ㅗ]-지	오'지'
32003-0-2	오-(來)[ㅗ]-고	오'고
32003-0-3	오-(來)[ㅗ]-더라	오'더'라
32003-0-4	오-(來)[ㅗ]-으니까	웅'께(네)
32003-0-5	오-(來)[ㅗ]-아/어(왔/었다)	왈'따'
32004-0-1	듣-(聞)[ㄷ변]-지	듣찌'
32004-0-2	듣-(聞)[ㄷ변]-고	득'꼬
32004-0-3	듣-(聞)[ㄷ변]-더라	드'런떠라
32004-0-4	듣-(聞)[ㄷ변]-으니까	드룽'께'
32004-0-5	듣-(聞)[ㄷ변]-아/어(왔/었다)	드'런따
32005-0-1	많:- (多)[ㅗ]-지	만치'
32005-0-2	많:- (多)[ㅗ]-고	망코'
32005-0-3	많:- (多)[ㅗ]-더라	만터'라'
32005-0-4	많:- (多)[ㅗ]-으니까	마능'께'
32005-0-5	많:- (多)[ㅗ]-아/어(왔/었다)	마날'따
32005-0-5	많:- (多)[ㅗ]-아/어(왔/었다)	마넨'따
32006-0-1	말-(任)[ㅌ]-지	말찌'
32006-0-2	말-(任)[ㅌ]-고	막'꼬
32006-0-3	말-(任)[ㅌ]-더라	말떠'라
32006-0-4	말-(任)[ㅌ]-으니까	마'통께
32006-0-5	말-(任)[ㅌ]-아/어(왔/었다)	마'탈따
32007-0-1	알:- (知)[ㄹ]-지	알:지'
32007-0-2	알:- (知)[ㄹ]-고	알:고'
32007-0-3	알:- (知)[ㄹ]-더라	알:더'라'
32007-0-4	알:- (知)[ㄹ]-으니까	양:께'네'
32007-0-5	알:- (知)[ㄹ]-아/어(왔/었다)	아'랄따
32008-0-1	감:- (閉眼)[ㅁ]-지	감'찌'
32008-0-2	감:- (閉眼)[ㅁ]-고	강'꼬'
32008-0-3	감:- (閉眼)[ㅁ]-더라	감'떠'라
32008-0-4	감:- (閉眼)[ㅁ]-으니까	까'뭉'께
32008-0-5	감:- (閉眼)[ㅁ]-아/어(왔/었다)	까'맡'따
32009-0-1	벗-(脫)[ㅅ]-지	벗찌'
32009-0-2	벗-(脫)[ㅅ]-고	벽'꼬
32009-0-3	벗-(脫)[ㅅ]-더라	벗떠'라
32009-0-4	벗-(脫)[ㅅ]-으니까	버'승'께
32009-0-5	벗-(脫)[ㅅ]-아/어(왔/었다)	버'션따
32010-0-1	울-(可)[ㅍ]-지	울'치'
32010-0-2	울-(可)[ㅍ]-고	울'코'
32010-0-3	울-(可)[ㅍ]-더라	울'터'라

32010-0-4	옴-(可)[ㄹㅎ]-으니까	오'릉'께
32010-0-5	옴-(可)[ㄹㅎ]-아/어(왔/었다)	오'랜'따
32011-0-1	입-(着衣)[ㅍ]-지	입'찌'
32011-0-2	입-(着衣)[ㅍ]-고	익'꼬
32011-0-3	입-(着衣)[ㅍ]-더라	입'떠'라
32011-0-4	입-(着衣)[ㅍ]-으니까	이'뽕'께
32011-0-5	입-(着衣)[ㅍ]-아/어(왔/었다)	이'뵤'따
32012-0-1	바꾸-(換)[ㄷ]-지	바'꾸'지
32012-0-2	바꾸-(換)[ㄷ]-고	바'꾸'고
32012-0-3	바꾸-(換)[ㄷ]-더라	바'꼴'떠'라
32012-0-4	바꾸-(換)[ㄷ]-으니까	바'꿇'께'
32012-0-5	바꾸-(換)[ㄷ]-아/어(왔/었다)	바'깼'따
32013-0-1	덮-(覆)[ㅍ]-지	덥'찌'
32013-0-2	덮-(覆)[ㅍ]-고	덕'꼬
32013-0-3	덮-(覆)[ㅍ]-더라	덥'떠'라
32013-0-4	덮-(覆)[ㅍ]-으니까	더'퐁'께
32013-0-5	덮-(覆)[ㅍ]-아/어(왔/었다)	더'뵤'따
32014-0-1	묻:- (問)[ㄷ변]-지	물'찌'
32014-0-2	묻:- (問)[ㄷ변]-고	묵'꼬'
32014-0-3	묻:- (問)[ㄷ변]-더라	물'떠'라
32014-0-4	묻:- (問)[ㄷ변]-으니까	무'릉'께
32014-0-5	묻:- (問)[ㄷ변]-아/어(왔/었다)	무'뤼'따
32015-0-1	낫:- (癒)[ㅅ변]-지	날'찌'
32015-0-2	낫:- (癒)[ㅅ변]-고	낙'꼬'
32015-0-3	낫:- (癒)[ㅅ변]-더라	날'떠'라
32015-0-4	낫:- (癒)[ㅅ변]-으니까	나'승'께
32015-0-5	낫:- (癒)[ㅅ변]-아/어(왔/었다)	나'샐'따
32016-0-1	닫-(閉)[ㄷ]-지	닫'찌'
32016-0-2	닫-(閉)[ㄷ]-고	닥'꼬
32016-0-3	닫-(閉)[ㄷ]-더라	닫'떠'라
32016-0-4	닫-(閉)[ㄷ]-으니까	다'등'께
32016-0-5	닫-(閉)[ㄷ]-아/어(왔/었다)	다'달'따
32017-0-1	쫓-(追)[ㅈ]-지	쫓'치'
32017-0-2	쫓-(追)[ㅈ]-고	쫓'꼬
32017-0-3	쫓-(追)[ㅈ]-더라	쫓'떠'라
32017-0-4	쫓-(追)[ㅈ]-으니까	쫓'칭'께
32017-0-5	쫓-(追)[ㅈ]-아/어(왔/었다)	쫓'찬'따
32018-0-1	베:- (枕)[ㅂ]-지	베'지'
32018-0-2	베:- (枕)[ㅂ]-고	베'고'
32018-0-3	베:- (枕)[ㅂ]-더라	베'더'라
32018-0-4	베:- (枕)[ㅂ]-으니까	벵'께'네'
32018-0-5	베:- (枕)[ㅂ]-아/어(왔/었다)	벵':따
32019-0-1	깨:- (破)[ㅂ]-지	깨'지'(+ 머)
32019-0-1	깨:- (破)[ㅂ]-지	깨'지'(+ 버)
32019-0-2	깨:- (破)[ㅂ]-고	깨'고
32019-0-3	깨:- (破)[ㅂ]-더라	깨'더'라
32019-0-4	깨:- (破)[ㅂ]-으니까	깡'께
32019-0-5	깨:- (破)[ㅂ]-아/어(왔/었다)	깡':따
32020-0-1	펴-(伸)[ㅍ]-지	페'지'
32020-0-2	펴-(伸)[ㅍ]-고	페'고

32020-0-3	펴-(伸)[ㄱ]-더라	페더'라
32020-0-4	펴-(伸)[ㄱ]-으니까	헝'께네
32020-0-5	펴-(伸)[ㄱ]-아/어(왔/었다)	헝':따
32021-0-1	밝-(明)[?] -지	복'찌
32021-0-2	밝-(明)[?] -고	복'꼬
32021-0-3	밝-(明)[?] -더라	복'떠'라
32021-0-4	밝-(明)[?] -으니까	볼'궁께
32021-0-5	밝-(明)[?] -아/어(왔/었다)	볼'잔따
32022-0-1	삶:- (烹)[?] -지	쌈'찌'
32022-0-2	삶:- (烹)[?] -고	쌈'꼬'
32022-0-3	삶:- (烹)[?] -더라	쌈':떠'라
32022-0-4	삶:- (烹)[?] -으니까	쌀'뭉께
32022-0-5	삶:- (烹)[?] -아/어(왔/었다)	쌀'만따
32023-0-1	윙-(吟)[ㄹ]-지	*
32023-0-2	윙-(吟)[ㄹ]-고	*
32023-0-3	윙-(吟)[ㄹ]-더라	*
32023-0-4	윙-(吟)[ㄹ]-으니까	*
32023-0-5	윙-(吟)[ㄹ]-아/어(왔/었다)	*
32024-0-1	밟:- (踏)[?] -지	븍:찌'
32024-0-2	밟:- (踏)[?] -고	븍'꼬'
32024-0-3	밟:- (踏)[?] -더라	븍':떠'라
32024-0-4	밟:- (踏)[?] -으니까	볼'뭉께
32024-0-5	밟:- (踏)[?] -아/어(왔/었다)	볼'받따
32025-0-1	하-(爲)[ㅏ 변]-지	하지'
32025-0-2	하-(爲)[ㅏ 변]-고	하'고
32025-0-3	하-(爲)[ㅏ 변]-더라	하'더'라
32025-0-4	하-(爲)[ㅏ 변]-으니까	항'께
32025-0-5	하-(爲)[ㅏ 변]-아/어(왔/었다)	헝':따
32026-0-1	맺-(結)[ㅈ]-지	맷'찌'
32026-0-2	맺-(結)[ㅈ]-고	맷'꼬
32026-0-3	맺-(結)[ㅈ]-더라	맷'떠'라
32026-0-4	맺-(結)[ㅈ]-으니까	매'증께
32026-0-5	맺-(結)[ㅈ]-아/어(왔/었다)	매'잔따
32027-0-1	없:- (無)[?] -지	엄'찌'
32027-0-2	없:- (無)[?] -고	엄'꼬'
32027-0-3	없:- (無)[?] -더라	엄'떠'라
32027-0-4	없:- (無)[?] -으니까	엄'싱'께
32027-0-5	없:- (無)[?] -아/어(왔/었다)	엄'선'따'
32028-0-1	앉-(坐)[ㅈ]-지	안'찌'
32028-0-2	앉-(坐)[ㅈ]-고	양'꼬
32028-0-3	앉-(坐)[ㅈ]-더라	안'떠'라
32028-0-4	앉-(坐)[ㅈ]-으니까	안'장'께'
32028-0-5	앉-(坐)[ㅈ]-아/어(왔/었다)	안'잔따
32029-0-1	비비-(刮)[ㅍ]-지	비'비지
32029-0-2	비비-(刮)[ㅍ]-고	비'비고
32029-0-3	비비-(刮)[ㅍ]-더라	비'비더라
32029-0-4	비비-(刮)[ㅍ]-으니까	비'빙'께
32029-0-5	비비-(刮)[ㅍ]-아/어(왔/었다)	비'빔따
32030-0-1	끄-(消)[ㅡ]-지	끄'지'
32030-0-2	끄-(消)[ㅡ]-고	끄'고'

32030-0-3	끄-(消)[一]-더라	끄'더'라
32030-0-4	끄-(消)[一]-으니까	꿈'께'
32030-0-5	끄-(消)[一]-아/어(왔/었다)	꼴':따'
32031-0-1	겪-(折)[ㄱ]-지	겪'찌
32031-0-2	겪-(折)[ㄱ]-고	겪'고
32031-0-3	겪-(折)[ㄱ]-더라	겪'떠'라
32031-0-4	겪-(折)[ㄱ]-으니까	꺼'꿈'께
32031-0-5	겪-(折)[ㄱ]-아/어(왔/었다)	꺼'꼴'따
32032-0-1	신:-(履)[ㄴ]-지	신:찌'
32032-0-2	신:-(履)[ㄴ]-고	싱:꼬'
32032-0-3	신:-(履)[ㄴ]-더라	신:':떠'라
32032-0-4	신:-(履)[ㄴ]-으니까	시'능'께
32032-0-5	신:-(履)[ㄴ]-아/어(왔/었다)	시'넌'따
32033-0-1	보-(視)[ㅇ]-지	보'지'
32033-0-2	보-(視)[ㅇ]-고	보'고
32033-0-3	보-(視)[ㅇ]-더라	보'더'라
32033-0-4	보-(視)[ㅇ]-으니까	봉':께'네
32033-0-5	보-(視)[ㅇ]-아/어(왔/었다)	받':따'
32034-0-1	추-(舞)[ㅈ]-지	치'지'
32034-0-2	추-(舞)[ㅈ]-고	치'고'
32034-0-3	추-(舞)[ㅈ]-더라	치'더'라
32034-0-4	추-(舞)[ㅈ]-으니까	칭'께'
32034-0-5	추-(舞)[ㅈ]-아/어(왔/었다)	천'따'
32035-0-1	피우-(吸煙)[ㅈ]-지	푼'찌'
32035-0-2	피우-(吸煙)[ㅈ]-고	푼'꼬'
32035-0-3	피우-(吸煙)[ㅈ]-더라	푼'떠'라
32035-0-4	피우-(吸煙)[ㅈ]-으니까	푸'웅'께네
32035-0-5	피우-(吸煙)[ㅈ]-아/어(왔/었다)	푸'온'따
32036-0-1	서-(立)[ㅅ]-지	서'지'
32036-0-2	서-(立)[ㅅ]-고	서'고
32036-0-3	서-(立)[ㅅ]-더라	서'더'라
32036-0-4	서-(立)[ㅅ]-으니까	성'께'네
32036-0-5	서-(立)[ㅅ]-아/어(왔/었다)	선'따'
32037-0-1	기-(匍腹)[ㅣ]-지	기'지'
32037-0-2	기-(匍腹)[ㅣ]-고	기'고'
32037-0-3	기-(匍腹)[ㅣ]-더라	기'더'라
32037-0-4	기-(匍腹)[ㅣ]-으니까	깁'께'네
32037-0-5	기-(匍腹)[ㅣ]-아/어(왔/었다)	깁':따'
32038-0-1	이-(戴)[ㅣ]-지	이'지'
32038-0-2	이-(戴)[ㅣ]-고	이'고
32038-0-3	이-(戴)[ㅣ]-더라	이'더'라
32038-0-4	이-(戴)[ㅣ]-으니까	잉'께'네
32038-0-5	이-(戴)[ㅣ]-아/어(왔/었다)	열'따'
32039-0-1	아니-(否)[ㅣ]-지	아이'지
32039-0-2	아니-(否)[ㅣ]-고	아이'고
32039-0-3	아니-(否)[ㅣ]-더라	아이'더'라
32039-0-4	아니-(否)[ㅣ]-으니까	아'잉'께'
32039-0-5	아니-(否)[ㅣ]-아/어(왔/었다)	*
32040-0-1	되-(升)[ㅂ]-지	테'지'
32040-0-2	되-(升)[ㅂ]-고	테'고'

32040-0-3	되-(升)[되]-더라	데'더'라
32040-0-4	되-(升)[되]-으니까	텅'께'네
32040-0-5	되-(升)[되]-아/어(왔/었다)	텐'파'
32041-0-1	있-(有)[있]-지	인'찌
32041-0-2	있-(有)[있]-고	익'꼬
32041-0-3	있-(有)[있]-더라	인'떠'라
32041-0-4	있-(有)[있]-으니까	이'승'께
32041-0-5	있-(有)[있]-아/어(왔/었다)	이'섰'파
32042-0-1	놓-(放)[놓]-지	노'치'
32042-0-2	놓-(放)[놓]-고	노'코
32042-0-3	놓-(放)[놓]-더라	노'터'라
32042-0-4	놓-(放)[놓]-으니까	노'웅'께'네
32042-0-5	놓-(放)[놓]-아/어(왔/었다)	나'알'파
32043-0-1	훑-(扱)[훑]-지	홀'치'
32043-0-2	훑-(扱)[훑]-고	홀'꼬
32043-0-3	훑-(扱)[훑]-더라	홀'터'라
32043-0-4	훑-(扱)[훑]-으니까	홀'튼'께
32043-0-5	훑-(扱)[훑]-아/어(왔/었다)	홀'틴'파
32044-0-1	곶:-[麗][곶변]-지	곶'찌'
32044-0-2	곶:-[麗][곶변]-고	곶'꼬'
32044-0-3	곶:-[麗][곶변]-더라	곶'떠'라
32044-0-4	곶:-[麗][곶변]-으니까	고'봉'께
32044-0-5	곶:-[麗][곶변]-아/어(왔/었다)	고'받'파'
32045-0-1	쥐:-[握][쥐]-지	지'지'
32045-0-2	쥐:-[握][쥐]-고	지'고'
32045-0-3	쥐:-[握][쥐]-더라	지'더'라
32045-0-4	쥐:-[握][쥐]-으니까	징'께'네
32045-0-5	쥐:-[握][쥐]-아/어(왔/었다)	지'인'파
32046-0-1	가-(去)[가]-지	가'지'
32046-0-2	가-(去)[가]-고	가'고
32046-0-3	가-(去)[가]-더라	가'더'라
32046-0-4	가-(去)[가]-으니까	강'께'네
32046-0-5	가-(去)[가]-아/어(왔/었다)	감'파'
32047-0-1	'먹-(食)-지 -고 -더라'	묵'꼬
32047-0-2	'먹-(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굳'파
32048-0-1	'뜯-(摘)-지 -고 -더라'	뜯'꼬'
32048-0-2	'뜯-(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뜨'덜'파
32049-0-1	'갈-(如)-지 -고 -더라'	각'꼬'
32049-0-2	'갈-(如)-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텐'파
32050-0-1	'얕-(淺)-지 -고 -더라'	야'푸'고
32050-0-2	'얕-(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야'판'파
32051-0-1	'흩-(散)-지 -고 -더라'	흩'꼬
32051-0-2	'흩-(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흐'칠'파
32052-0-1	'날:-[飛]-지 -고 -더라'	날'고
32052-0-2	'날:-[飛]-아/어도 -아/어서 -나'랐'파	

	-왔/었다'			
32053-0-1	'울:-(泣)-지 -고 -더라'	울고'		
32053-0-2	'울:-(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렷따		
32054-0-1	'일:-(洵)-지 -고 -더라'	*		
32054-0-2	'일:-(洵)-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055-0-1	'얼:-(凍)-지 -고 -더라'	얼고'		
32055-0-2	'얼:-(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렷따		
32056-0-1	'넘:-(越)-지 -고 -더라'	넙꼬'		
32056-0-2	'넘:-(越)-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몯따		
32057-0-1	'숨:-(隱)-지 -고 -더라'	숨'꼬'		
32057-0-2	'숨:-(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수'몯따		
32058-0-1	'쉽:-(易)-지 -고 -더라'	숙꼬'		
32058-0-2	'쉽:-(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수'몯'따'		
32059-0-1	'눅:-(臥)-지 -고 -더라'	눅'꼬'		
32059-0-2	'눅:-(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웁따		
32060-0-1	'깁:-(縫)-지 -고 -더라'	직꼬'		
32060-0-2	'깁:-(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몯따		
32061-0-1	'몯:-(櫓)-지 -고 -더라'	몯'꼬'		
32061-0-2	'몯:-(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몯따		
32062-0-1	'높:-(高)-지 -고 -더라'	노'푸'고		
32062-0-2	'높:-(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노'판따		
32063-0-1	'짓:-(作)-지 -고 -더라'	직꼬'		
32063-0-2	'짓:-(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읻따		
32064-0-1	'붓:-(腫)-지 -고 -더라'	복꼬'		
32064-0-2	'붓:-(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섯따		
32065-0-1	'웃:-(笑)-지 -고 -더라'	익꼬'		
32065-0-2	'웃:-(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섯따		
32066-0-1	'짓:-(吠)-지 -고 -더라'	직꼬'		
32066-0-2	'짓:-(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지'섯따		
32067-0-1	'꽂:-(插)-지 -고 -더라'	꼭꼬'		
32067-0-2	'꽂:-(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꼬'잔따		
32067-0-2	'꽂:-(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꼬'받다		
32068-0-1	'낱:-(産)-지 -고 -더라'	나'코(+ 버)		
32068-0-1	'낱:-(産)-지 -고 -더라'	노'코(+ 머)		

32068-0-2 '낱-(産)-아/어도 -아/어서 - 나'알따
 왔/었다'
 32069-0-1 '땅:-(?)-지 -고 -더라' 따'코
 32069-0-2 '땅:-(?)-아/어도 -아/어서 - 따'알따
 왔/었다'
 32070-0-1 '끓-(切)-지 -고 -더라' 끓'코
 32070-0-2 '끓-(切)-아/어도 -아/어서 - 끓'넛따
 왔/었다'
 32071-0-1 '괜찮-(無妨)-지 -고 -더라' 개항'코
 32071-0-2 '괜찮-(無妨)-아/어도 -아/어 개하'넛따
 서 -왔/었다'
 32072-0-1 '읽-(讀)-지 -고 -더라' 이르'고
 32072-0-2 '읽-(讀)-아/어도 -아/어서 - 일'겻따
 왔/었다'
 32072-0-2 '읽-(讀)-아/어도 -아/어서 - 일'렷따
 왔/었다'
 32073-0-1 '뿜:-(瀝)-지 -고 -더라' 툅'꼬'
 32073-0-2 '뿜:-(瀝)-아/어도 -아/어서 툅'뵤'따
 -왔/었다'
 32074-0-1 '웁:-(遷)-지 -고 -더라' 오르'고
 32074-0-2 '웁:-(遷)-아/어도 -아/어서 올'랴따
 -왔/었다'
 32075-0-1 '뚫:-(貫)-지 -고 -더라' 뜯'꼬'
 32075-0-2 '뚫:-(貫)-아/어도 -아/어서 뜯'뵤'따
 -왔/었다'
 32076-0-1 '끓:-(?) -지 -고 -더라' 끓'고'
 32076-0-2 '끓:-(?) -아/어도 -아/어서 - 꾸'렷따
 왔/었다'
 32077-0-1 '닭:-(? 연필 심이)-지 -고 달'코
 -더라'
 32077-0-2 '닭:-(? 연필 심이)-아/어도 - 다'랴따
 아/어서 -왔/었다'
 32078-0-1 '닭:-(煎 솥에서 장이)-지 - 달'코
 고 -더라'
 32078-0-2 '닭:-(煎 솥에서 장이)-아/어 다'랴따
 도 -아/어서 -왔/었다'
 32079-0-1 '짜-(鹽)-지 -고 -더라' 짹'꼬'
 32079-0-2 '짜-(鹽)-아/어도 -아/어서 - 짜'뵤'따
 왔/었다'
 32080-0-1 '말-(捲)-지 -고 -더라' 몰'고
 32080-0-2 '말-(捲)-아/어도 -아/어서 - 모'랴따
 왔/었다'
 32081-0-1 '쓰-(書)-지 -고 -더라' 씨'고'
 32081-0-2 '쓰-(書)-아/어도 -아/어서 - 쓸'따
 왔/었다'
 32082-0-1 '오르-(登)-지 -고 -더라' 오르'고
 32082-0-2 '오르-(登)-아/어도 -아/어서 올'랴따
 -왔/었다'
 32083-0-1 '바쁘-(忙)-지 -고 -더라' 바뻘'고
 32083-0-2 '바쁘-(忙)-아/어도 -아/어서 바'뻘'따

-왔/었다'
 32084-0-1 '고프-(餓)-지 -고 -더라' 고푸'고
 32084-0-2 '고프-(餓)-아/어도 -아/어서 고평'따
 -왔/었다'
 32085-0-1 '쏘-(射)-지 -고 -더라' 썩'고'
 32085-0-2 '쏘-(射)-아/어도 -아/어서 -썩'따'
 왔/었다'
 32086-0-1 '꾸-(夢)-지 -고 -더라' 꼭'꼬'
 32086-0-2 '꾸-(夢)-아/어도 -아/어서 -꾸'운'따
 왔/었다'
 32087-0-1 '머무르-(留)-지 -고 -더라' 머물'고
 32087-0-2 '머무르-(留)-아/어도 -아/어 머무란'따
 서 -왔/었다'
 32088-0-1 '다듬-(整)-지 -고 -더라' 따'등꼬
 32088-0-2 '다듬-(整)-아/어도 -아/어서 따'드만따
 -왔/었다'
 32089-0-1 '견디-(忍)-지 -고 -더라' 전'디고
 32089-0-2 '견디-(忍)-아/어도 -아/어서 전'딤따
 -왔/었다'
 32090-0-1 '말리-(裁)-지 -고 -더라' *
 32090-0-2 '말리-(裁)-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32091-0-1 '끼-(烟鎖 안개가)-지 -고 찌이'고
 -더라'
 32091-0-2 '끼-(烟鎖 안개가)-아/어도 - 찌일'따
 아/어서 -왔/었다'
 32092-0-1 '마시-(飲)-지 -고 -더라' 마'시고
 32092-0-2 '마시-(飲)-아/어도 -아/어서 마'실따
 -왔/었다'
 32093-0-1 '세:-(強)-지 -고 -더라' 켜'고'
 32093-0-2 '세:-(強)-아/어도 -아/어서 켜'엘따
 -왔/었다'
 32094-0-1 '포개-(重疊)-지 -고 -더라' 포'개'고
 32094-0-2 '포개-(重疊)-아/어도 -아/어 포'괌'따
 서 -왔/었다'
 32095-0-1 '두드리-(敲)-지 -고 -더라' 뚜'디리고
 32095-0-2 '두드리-(敲)-아/어도 -아/어 뚜'디렐따
 서 -왔/었다'
 32096-0-1 '켜-(點燈)-지 -고 -더라' 썩'고'
 32096-0-2 '켜-(點燈)-아/어도 -아/어서 썩'따'
 -왔/었다'
 32097-0-1 '썩:-(바람을)-지 -고 -더라' 썩'우고
 32097-0-2 '썩:-(바람을)-아/어도 -아/어 썩'운따
 서 -왔/었다'
 32098-0-1 '쇠-(老)-지 -고 -더라' 세'고'
 32098-0-2 '쇠-(老)-아/어도 -아/어서 -세'엘따
 왔/었다'
 32099-0-1 '쉬:-(?) -지 -고 -더라' 시'고'
 32099-0-2 '쉬:-(?) -아/어도 -아/어서 -시'일따
 왔/었다'

32100-0-1	'회-(白)-지 -고 -더라'	히'고'
32100-0-2	'회-(白)-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히'인'따
32101-0-1	'볶-(炒)-지 -고 -더라'	복'꼬
32101-0-1	'볶-(炒)-지 -고 -더라'	보'꾸고
32101-0-2	'볶-(炒)-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보'깁따
32102-0-1	'안:-(抱)-지 -고 -더라'	양'꼬'
32102-0-2	'안:-(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맡따
32103-0-1	'묻-(埋)-지 -고 -더라'	묵'꼬
32103-0-2	'묻-(埋)-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무'덜따
32104-0-1	'불:-(吹)-지 -고 -더라'	불'고'
32104-0-2	'불:-(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덜따
32105-0-1	'빨-(洗濯)-지 -고 -더라'	빨'고'
32105-0-2	'빨-(洗濯)-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빠'랄'따
32106-0-1	'죽-(死)-지 -고 -더라'	죽'꼬
32106-0-2	'죽-(死)-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주'걸따
32106-0-2	'죽-(死)-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주'굳따
32107-0-1	'걸:-(步)-지 -고 -더라'	걱'꼬'
32107-0-2	'걸:-(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덜따
32108-0-1	'가물-(旱)-지 -고 -더라'	가'물'고
32108-0-2	'가물-(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무'랄따
32109-0-1	'졸:-(睡)-지 -고 -더라'	자'불'고
32109-0-2	'졸:-(睡)-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부'랄'따
32110-0-1	'쓸-(掃)-지 -고 -더라'	썰'고'
32110-0-2	'쓸-(掃)-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씨'덜'따
32111-0-1	'감:-(捲)-지 -고 -더라'	깡'꼬'
32111-0-2	'감:-(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맡'따
32112-0-1	'더듬-(摸)-지 -고 -더라'	더'듬'꼬
32112-0-2	'더듬-(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더'드'맡따
32113-0-1	'굽:-(炙)-지 -고 -더라'	꼭'꼬'
32113-0-2	'굽:-(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꾸'별따
32114-0-1	'무겁-(重)-지 -고 -더라'	무'국'꼬
32114-0-2	'무겁-(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구'받'따
32115-0-1	'잇:-(連)-지 -고 -더라'	이'수'고
32115-0-2	'잇:-(連)-아/어도 -아/어서	이'사'알따

	-왔/었다'		
32116-0-1	'빗-(梳)-지 -고 -더라'	빅'꼬	
32116-0-2	'빗-(梳)-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비'섰따	
32117-0-1	'까맣-(黑)-지 -고 -더라'	까막'꼬	
32117-0-2	'까맣-(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뻤'따	
32118-0-1	'넣-(入)-지 -고 -더라'	여'코	
32118-0-2	'넣-(入)-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여'얻따	
32119-0-1	'고:-(煮)-지 -고 -더라'	꼬'우고	
32119-0-2	'고:-(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꼬'알따	
32120-0-1	'엎-(載)-지 -고 -더라'	엣'꼬	
32120-0-2	'엎-(載)-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엣'전따	
32121-0-1	'귀찮-(?) -지 -고 -더라'	기창'코'	
32121-0-2	'귀찮-(?)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차'넨따	
32122-0-1	'바르-(剔 생선 뼈를)-지 - 고 -더라'	볼구'고	
32122-0-2	'바르-(剔 생선 뼈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볼'갑따	
32123-0-1	'맑-(淸)-지 -고 -더라'	목'꼬	
32123-0-2	'맑-(淸)-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몰'갑따	
32124-0-1	'굵:-(膿)-지 -고 -더라'	갱'기고	
32124-0-2	'굵:-(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갱'길따	
32125-0-1	'굵:-(太)-지 -고 -더라'	국'꼬'	
32125-0-2	'굵:-(太)-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굴'겉'따'	
32126-0-1	'얇:-(薄)-지 -고 -더라'	약'꼬	
32126-0-2	'얇:-(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얇'받따	
32127-0-1	'쫘-(?) -지 -고 -더라'	썰'코	
32127-0-2	'쫘-(?) -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썰'런따	
32128-0-1	'잃-(失)-지 -고 -더라'	일'코	
32128-0-2	'잃-(失)-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이'런따	
32129-0-1	'훅-(?) -지 -고 -더라'	훅'코	
32129-0-2	'훅-(?) -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훅'탄따	
32130-0-1	'짧-(短)-지 -고 -더라'	짹'꼬	
32130-0-2	'짧-(短)-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짹'받따	
32131-0-1	'놀라-(驚)-지 -고 -더라'	놀래'고	
32131-0-2	'놀라-(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놀'랜'따	

32132-0-1 '자-(宿)-지 -고 -더라' 자'고
 32132-0-2 '자-(宿)-아/어도 -아/어서 -잖'따'
 왔/었다'
 32133-0-1 '못:하-(不爲)-지 -고 -더라' 모나'고'
 32133-0-2 '못:하-(不爲)-아/어도 -아/어 모넨'따
 서 -왔/었다'
 32134-0-1 '모르-(不知)-지 -고 -더라' 모르'고
 32134-0-2 '모르-(不知)-아/어도 -아/어 몰랄'따
 서 -왔/었다'
 32135-0-1 '아프-(痛)-지 -고 -더라' 아프'고
 32135-0-2 '아프-(痛)-아/어도 -아/어서 아'판따
 -왔/었다'
 32136-0-1 '크-(大)-지 -고 -더라' 크'고'
 32136-0-2 '크-(大)-아/어도 -아/어서 -컬'따'
 왔/었다'
 32137-0-1 '꼬-(索 새끼를)-지 -고 -까'고'
 더라'
 32137-0-2 '꼬-(索 새끼를)-아/어도 -아 -깐'따'
 /어서 -왔/었다'
 32138-0-1 '쭈-(造粥)-지 -고 -더라' 끼'리고
 32138-0-2 '쭈-(造粥)-아/어도 -아/어서 끼'릴따
 -왔/었다'
 32139-0-1 '맞추-(組合)-지 -고 -더라' 맡'추고
 32139-0-2 '맞추-(組合)-아/어도 -아/어 마찰'따
 서 -왔/었다'
 32140-0-1 '테우-(?)-지 -고 -더라' 따수'고
 32140-0-2 '테우-(?)-아/어도 -아/어서 따살'따
 -왔/었다'
 32141-0-1 '이:-(盖 지붕을)-지 -고 -이:고'
 더라'
 32141-0-2 '이:-(盖 지붕을)-아/어도 -이'인따
 아/어서 -왔/었다'
 32142-0-1 '갈기-(打)-지 -고 -더라' 갈'기'고
 32142-0-2 '갈기-(打)-아/어도 -아/어서 갈'길따
 -왔/었다'
 32143-0-1 '기다리-(待)-지 -고 -더라' 지다리'고
 32143-0-2 '기다리-(待)-아/어도 -아/어 지다릴'따
 서 -왔/었다'
 32144-0-1 '세:-(算)-지 -고 -더라' 세고'
 32144-0-2 '세:-(算)-아/어도 -아/어서 세'옴따
 -왔/었다'
 32145-0-1 '빼-(拔)-지 -고 -더라' 빼'고'
 32145-0-2 '빼-(拔)-아/어도 -아/어서 -빼'옴'따
 왔/었다'
 32146-0-1 '켜-(툼을)-지 -고 -더라' 케'고
 32146-0-2 '켜-(툼을)-아/어도 -아/어서 케'옴따
 -왔/었다'
 32147-0-1 '되:-(硬)-지 -고 -더라' 데고'
 32147-0-2 '되:-(硬)-아/어도 -아/어서 데'옴따
 -왔/었다'

32148-0-1 '쉬:-(休)-지 -고 -더라' 시'고'
 32148-0-2 '쉬:-(休)-아/어도 -아/어서 시'읏따
 -왔/엿다'
 32149-0-1 '할퀴-(擻)-지 -고 -더라' 헤비'고
 32149-0-2 '할퀴-(擻)-아/어도 -아/어서 헤'빔따
 -왔/엿다'
 32150-0-1 '눈:-(?)-지 -고 -더라' 눅'꼬'
 32150-0-2 '눈:-(?)-아/어도 -아/어서 - 누'룬따
 왔/엿다'
 32151-0-1 '깨달-(覺)-지 -고 -더라' 깨달'코
 32151-0-2 '깨달-(覺)-아/어도 -아/어서 깨'다'랏따
 -왔/엿다'
 32152-0-1 '마렵-(오줌이)-지 -고 -더 누룩'꼬
 라'
 32152-0-2 '마렵-(오줌이)-아/어도 -아/ 누'루받따
 어서 -왔/엿다'
 32153-0-1 '부끄럽-(恥)-지 -고 -더라' 부꾸룩'꼬
 32153-0-2 '부끄럽-(恥)-아/어도 -아/어 부꾸러받'따
 서 -왔/엿다'
 32154-0-1 '가깝-(近)-지 -고 -더라' 개적'꼬
 32154-0-2 '가깝-(近)-아/어도 -아/어서 개저받'따
 -왔/엿다'
 32155-0-1 '깊-(深)-지 -고 -더라' 지푸'고
 32155-0-2 '깊-(深)-아/어도 -아/어서 - 지'뵤따
 왔/엿다'
 32156-0-1 '긋:-(劃)-지 -고 -더라' 끍'꼬'
 32156-0-2 '긋:-(劃)-아/어도 -아/어서 끍'읏따
 -왔/엿다'
 32157-0-1 '씻-(洗)-지 -고 -더라' 씹'꼬
 32157-0-2 '씻-(洗)-아/어도 -아/어서 - 씹'꼇따
 왔/엿다'
 32158-0-1 '쫓-(搗)-지 -고 -더라' 쪼'코
 32158-0-2 '쫓-(搗)-아/어도 -아/어서 - 쪼인따
 왔/엿다'
 32159-0-1 '잡-(擻)-지 -고 -더라' 꺍'꼬
 32159-0-2 '잡-(擻)-아/어도 -아/어서 - 꺍'겼따
 왔/엿다'
 3216-0-1 '끓-(?)-지 -고 -더라'
 3216-0-2 '끓-(?)-아/어도 -아/어서 -
 왔/엿다'
 32160-0-1 '끓:-(飢)-지 -고 -더라' 궁:꼬'
 32160-0-2 '끓:-(飢)-아/어도 -아/어서 궁'뵤따
 -왔/엿다'
 32161-0-1 '닮:-(似)-지 -고 -더라' 당:꼬'
 32161-0-2 '닮:-(似)-아/어도 -아/어서 달'뵤따
 -왔/엿다'
 32162-0-1 '싫-(厭)-지 -고 -더라' 실'코'
 32162-0-2 '싫-(厭)-아/어도 -아/어서 - 시'릴'따
 왔/엿다'
 32164-0-1 '붓:-(注)-지 -고 -더라' 북'꼬

32164-0-2 '붓:-(注)-아/어도 -아/어서 부'운따
 -왔/었다'
 32165-0-1 '타-(乘)-지 -고 -더라' 타'고'
 32165-0-2 '타-(乘)-아/어도 -아/어서 - 탄'따
 왔/었다'
 32166-0-1 '마르-(乾)-지 -고 -더라' 마르'고
 32166-0-2 '마르-(乾)-아/어도 -아/어서 말'랴따
 -왔/었다'
 32167-0-1 '쓰-(苦)-지 -고 -더라' 씹'꼬'
 32167-0-2 '쓰-(苦)-아/어도 -아/어서 - 씹'뵈'따
 왔/었다'
 32168-0-1 '슬프-(哀)-지 -고 -더라' 슬푸'고
 32168-0-2 '슬프-(哀)-아/어도 -아/어서 슬'핀따
 -왔/었다'
 32169-0-1 '기쁘-(喜)-지 -고 -더라' 기뻐'고
 32169-0-2 '기쁘-(喜)-아/어도 -아/어서 기'뻔따
 -왔/었다'
 32170-0-1 '쏘-(? 벌이)-지 -고 -더라' 쏘'고'
 32170-0-2 '쏘-(? 벌이)-아/어도 -아/어 쏘'따'
 서 -왔/었다'
 32171-0-1 '주-(興)-지 -고 -더라' 주'고
 32171-0-2 '주-(興)-아/어도 -아/어서 - 조운'따
 왔/었다'
 32172-0-1 '키우-(飼育)-지 -고 -더라' 키'우고
 32172-0-2 '키우-(飼育)-아/어도 -아/어 키'완따
 서 -왔/었다'
 32173-0-1 '가두-(囚)-지 -고 -더라' 가두'고
 32173-0-1 '가두-(囚)-지 -고 -더라' 가둑'꼬
 32173-0-2 '가두-(囚)-아/어도 -아/어서 가달'따
 -왔/었다'
 32174-0-1 '부수-(碎)-지 -고 -더라' 뽀수'고
 32174-0-2 '부수-(碎)-아/어도 -아/어서 뽀산'따
 -왔/었다'
 32175-0-1 '나누-(分)-지 -고 -더라' 나누'고
 32175-0-2 '나누-(分)-아/어도 -아/어서 나날'따
 -왔/었다'
 32176-0-1 '속이-(欺)-지 -고 -더라' 췌'기고
 32176-0-2 '속이-(欺)-아/어도 -아/어서 췌'길따
 -왔/었다'
 32177-0-1 '끼-(插)-지 -고 -더라' 찌'고'
 32177-0-2 '끼-(插)-아/어도 -아/어서 - 찢'따'
 왔/었다'
 32178-0-1 '튀-(跳)-지 -고 -더라' 티'고
 32178-0-2 '튀-(跳)-아/어도 -아/어서 - 티'인'따
 왔/었다'
 32178-0-2 '튀-(跳)-아/어도 -아/어서 - 틸'따
 왔/었다'
 32179-0-1 '괴:-(滄)-지 -고 -더라' 게괴':고
 32179-0-2 '괴:-(滄)-아/어도 -아/어서 게핀'따
 -왔/었다'

32180-0-1	'여위-(?)-지 -고 -더라'	예'비고
32180-0-2	'여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예'빔따
32181-0-1	'맵-(辛)-지 -고 -더라'	맥'꼬
32181-0-2	'맵-(辛)-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매'받따
32182-0-1	'끼:-(?)-지 -고 -더라'	끼'고'
32182-0-2	'끼:-(?)-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끼'인따
32183-0-1	'고치-(改)-지 -고 -더라'	곤'치고
32183-0-2	'고치-(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곤'칠따
32184-0-1	'싯:-(載)-지 -고 -더라'	실'꼬'
32184-0-2	'싯:-(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ړ따
32185-0-1	'얻:-(得)-지 -고 -더라'	억'꼬'
32185-0-2	'얻:-(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덜'따'
32186-0-1	'뽕-(粉碎)-지 -고 -더라'	뽕수'고
32186-0-1	'뽕-(粉碎)-지 -고 -더라'	뽕숙'꼬
32186-0-2	'뽕-(粉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뽕산'따
32187-0-1	'파랑-(碧)-지 -고 -더라'	파락'코'
32187-0-2	'파랑-(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파랏'따
32188-0-1	'다르-(異)-지 -고 -더라'	다르'고
32188-0-2	'다르-(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랄따
32189-0-1	'푸-(汲)-지 -고 -더라'	퍼'고'
32189-0-2	'푸-(汲)-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핀'따'
32190-0-1	'누-(尿)-지 -고 -더라'	누'고
32190-0-2	'누-(尿)-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노'흔'따
32191-0-1	'더:ړ-(汚)-지 -고 -더라'	더력'꼬'
32191-0-2	'더:ړ-(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더러발'따'
32192-0-1	'거두-(收)-지 -고 -더라'	거두'고
32192-0-2	'거두-(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단'따
32193-0-1	'끓-(沸)-지 -고 -더라'	끓'코
32193-0-2	'끓-(沸)-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끄'ړ따
32194-0-1	'이기-(勝)-지 -고 -더라'	이'기고
32194-0-2	'이기-(勝)-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길따
32195-0-1	'부시-(照)-지 -고 -더라'	보시'고
32195-0-2	'부시-(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보시'일따
32196-0-1	'자빠지-(後倒)-지 -고 -더라'	자빠지'고

32196-0-1	'자빠지-(後倒)-지 -고 -더라'	자'빠지고
32196-0-2	'자빠지-(後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빠'절'따
32196-0-2	'자빠지-(後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빠'절'따
32197-0-1	'일으키-(使起)-지 -고 -더라'	일'바시'고
32197-0-2	'일으키-(使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일'바'싯'따
32198-0-1	'당기-(引)-지 -고 -더라'	땡'기'고
32198-0-2	'당기-(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땡'길'따
32199-0-1	'버리-(捨)-지 -고 -더라'	버'리'고
32199-0-2	'버리-(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버'릴'따
32200-0-1	'훔치-(盜)-지 -고 -더라'	훔'치'고
32200-0-2	'훔치-(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훔'칠'따
32201-0-1	'지-(負)-지 -고 -더라'	지'고
32201-0-2	'지-(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절'따'
32202-0-1	'외:-(暗誦)-지 -고 -더라'	에'우'고
32202-0-2	'외:-(暗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에'완'따
32203-0-1	'사귀-(交際)-지 -고 -더라'	새'기'고
32203-0-2	'사귀-(交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새'길'따
32204-0-1	'썩-(腐)-지 -고 -더라'	썩'꼬
32204-0-2	'썩-(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썩'길'따
32205-0-1	'질-(泥)-지 -고 -더라'	질'고
32205-0-2	'질-(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릴'따
32206-0-1	'까불-(箕)-지 -고 -더라'	까'불'고
32206-0-2	'까불-(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부'랴'따
32207-0-1	'드물-(稀)-지 -고 -더라'	드'물'고
32207-0-2	'드물-(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드'무'랴'따
32208-0-1	'줄:-(縮)-지 -고 -더라'	줄:고'
32208-0-2	'줄:-(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릴'따
32209-0-1	'심:-(植)-지 -고 -더라'	송'구'고
32209-0-2	'심:-(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송'길'따
32210-0-1	'쓰다듬-(撫)-지 -고 -더라'	씨'당'꼬
32210-0-2	'쓰다듬-(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다'만'따
32211-0-1	'사:납-(猛)-지 -고 -더라'	쌍'으'락'꼬

32211-0-2 '사:납-(猛)-아/어도 -아/어서 쌍'으라받따
 -았/었다'
 32212-0-1 '가볍-(輕)-지 -고 -더라' 개격'꼬
 32212-0-2 '가볍-(輕)-아/어도 -아/어서 개거받'따
 -았/었다'
 32213-0-1 '젓:-(?)-지 -고 -더라' 적'꼬'
 32213-0-2 '젓:-(?)-아/어도 -아/어서 -저'섰따
 -았/었다'
 32214-0-1 '두껍-(厚)-지 -고 -더라' 뚜껍'꼬
 32214-0-2 '두껍-(厚)-아/어도 -아/어서 뚜꺼받'따
 -았/었다'
 32215-0-1 '무르-(軟)-지 -고 -더라' 무르'고
 32215-0-2 '무르-(軟)-아/어도 -아/어서 물'릴따
 -았/었다'
 32216-0-1 '분지르-(折)-지 -고 -더라' 뿌질'고
 32216-0-2 '분지르-(折)-아/어도 -아/어 뿌지릴'따
 서 -았/었다'
 32217-0-1 '배우-(學)-지 -고 -더라' 배우'고
 32217-0-2 '배우-(學)-아/어도 -아/어서 배'윰따
 -았/었다'
 32218-0-1 '다리-(?)-지 -고 -더라' 다'리고
 32218-0-2 '다리-(?)-아/어도 -아/어서 다'릴따
 -았/었다'
 32219-0-1 '후비-(? 귀를)-지 -고 -더 히'지고
 라'
 32219-0-2 '후비-(? 귀를)-아/어도 -아/ 히'질따
 어서 -았/었다'
 32220-0-1 '아리-(痛)-지 -고 -더라' 아리'고
 32220-0-2 '아리-(痛)-아/어도 -아/어서 아리'일따
 -았/었다'
 32221-0-1 '그리-(畫)-지 -고 -더라' 기'리고
 32221-0-2 '그리-(畫)-아/어도 -아/어서 기'릴'따
 -았/었다'
 32222-0-1 '저리-(癱)-지 -고 -더라' 저'리고
 32222-0-2 '저리-(癱)-아/어도 -아/어서 저'릴따
 -았/었다'
 32223-0-1 '불리-(增)-지 -고 -더라' 늘쿠'고
 32223-0-2 '불리-(增)-아/어도 -아/어서 늘'킨따
 -았/었다'
 32224-0-1 '뜨시-(溫)-지 -고 -더라' 뜨시'고
 32224-0-2 '뜨시-(溫)-아/어도 -아/어서 뜨시'일따
 -았/었다'
 32225-0-1 '끓이-(使沸)-지 -고 -더라' 끼'리고
 32225-0-2 '끓이-(使沸)-아/어도 -아/어 끼'릴따
 서 -았/었다'
 32226-0-1 '누비-(縫)-지 -고 -더라' 니'비고
 32226-0-2 '누비-(縫)-아/어도 -아/어서 니'빔따
 -았/었다'
 32227-0-1 '구기-(皺)-지 -고 -더라' 꾸게'고
 32227-0-2 '구기-(皺)-아/어도 -아/어서 꾸겐'따

	-왔/었다'		
32228-0-1	'비:-(空)-지 -고 -더라'	비'고'	
32228-0-2	'비:-(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읷따	
32229-0-1	'식히-(使冷)-지 -고 -더라'	식'꾸'고	
32229-0-2	'식히-(使冷)-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식'칸':따	
32230-0-1	'매-(除草)-지 -고 -더라'	매':고'	
32230-0-2	'매-(除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맷':따'	
32231-0-1	'매:-(結)-지 -고 -더라'	매'고	
32231-0-2	'매:-(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매'읷따	
32232-0-1	'뛰-(走)-지 -고 -더라'	띠'고	
32232-0-2	'뛰-(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띠'읷따	
32233-0-1	'담:-(盛)-지 -고 -더라'	당'꼬'	
32233-0-2	'담:-(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34-0-1	'가렵-(?) -지 -고 -더라'	근지'력'꼬	
32234-0-2	'가렵-(?)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근지'러'받'따	
32235-0-1	'때리-(打)-지 -고 -더라'	때'리'고	
32235-0-2	'때리-(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때'릴'따	
32236-0-1	'어둡-(暗)-지 -고 -더라'	어'덕'꼬	
32236-0-2	'어둡-(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더'받'따	
32237-0-1	'잡-(執)-지 -고 -더라'	작'꼬	
32237-0-2	'잡-(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받'따	
32238-0-1	'차-(蹴)-지 -고 -더라'	차'고'	
32238-0-2	'차-(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찬'따'	
32239-0-1	'모자라-(不足)-지 -고 -더 라'	모지'래'고	
32239-0-2	'모자라-(不足)-아/어도 -아/ 어서 -왔/었다'	모지'랴'따	
32240-0-1	'부르-(呼)-지 -고 -더라'	부르'고	
32240-0-2	'부르-(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릴'따	
32241-0-1	'따르-(注)-지 -고 -더라'	따루'고	
32241-0-2	'따르-(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랴'따	
32242-0-1	'쫓:-(啄)-지 -고 -더라'	쫓'꼬	
32242-0-2	'쫓:-(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쫓'살'따	
32243-0-1	'두-(置)-지 -고 -더라'	두'고	
32243-0-2	'두-(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도'욜'따	

32244-0-1	'시키-(使)-지 -고 -더라'	씨'기'고
32244-0-2	'시키-(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킨'따
32244-0-2	'시키-(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긴'따
32245-0-1	'지리-(漏 오줌을)-지 -고 -더라'	짤'기'고
32245-0-2	'지리-(漏 오줌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짤'긴'따
32246-0-1	'던지-(投)-지 -고 -더라'	뎌'지'고
32246-0-2	'던지-(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뎌'진'따
32247-0-1	'모이-(集)-지 -고 -더라'	모이'고
32247-0-2	'모이-(集)-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인'따
32248-0-1	'만지-(?)-지 -고 -더라'	몬'치'고
32248-0-2	'만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몬'친'따
32249-0-1	'찌:-(?) -지 -고 -더라'	찌'우'고
32249-0-2	'찌:-(?)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왁'따
32250-0-1	'비틀-(捻)-지 -고 -더라'	틀'고'
32250-0-2	'비틀-(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트'릴'따
32251-0-1	'돕:-(?)-지 -고 -더라'	독'꼬'
32251-0-2	'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도'왁'따
32252-0-1	'씹-(咀)-지 -고 -더라'	씩'꼬'
32252-0-2	'씹-(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씩'별'따
32253-0-1	'미끄럽-(滑)-지 -고 -더라'	미끄'릭'꼬
32253-0-2	'미끄럽-(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끄'러'받'따
32254-0-1	'닿-(接)-지 -고 -더라'	대이'고
32254-0-2	'닿-(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대인'따
32255-0-1	'누르-(壓)-지 -고 -더라'	눌리'고'
32255-0-2	'누르-(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눌릴'따'
32256-0-1	'주무르-(?) -지 -고 -더라'	주무리'고
32256-0-2	'주무르-(?)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물'릴'따
32257-0-1	'메우-(填)-지 -고 -더라'	메'우'고
32257-0-2	'메우-(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메'웁'따
32258-0-1	'꼬시-(香味)-지 -고 -더라'	꼬시'고
32258-0-2	'꼬시-(香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꼬시'일'따
32259-0-1	'내리-(降)-지 -고 -더라'	내'리'고
32259-0-2	'내리-(降)-아/어도 -아/어서	내'릴'따

	-왔/었다'		
32260-0-1	'구르-(轉)-지 -고 -더라'	굼부리'고	
32260-0-2	'구르-(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굼불런'따	
32261-0-1	'만들-(作)-지 -고 -더라'	맹글'고	
32261-0-2	'만들-(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맹그란'따	
32262-0-1	'늡-(老)-지 -고 -더라'	늡'꼬	
32262-0-2	'늡-(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늡'걸따	
32263-0-1	'알-(痛)-지 -고 -더라'	알'코	
32263-0-2	'알-(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알'란따	
32264-0-1	'따르-(隨)-지 -고 -더라'	따'리고	
32264-0-2	'따르-(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린따	
32265-0-1	'사-(買)-지 -고 -더라'	사'고	
32265-0-2	'사-(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살'따'	
32266-0-1	'치우-(除)-지 -고 -더라'	치'우고	
32266-0-2	'치우-(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치'왈따	
32267-0-1	'부러지-(被折)-지 -고 -더 라'	뿌러지'고	
32267-0-2	'부러지-(被折)-아/어도 -아/ 어서 -왔/었다'	뿌러절'따	
32268-0-1	'다치-(傷)-지 -고 -더라'	다'치고	
32268-0-2	'다치-(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칠따	
32269-0-1	'느리-(緩)-지 -고 -더라'	느'리고	
32269-0-2	'느리-(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느'린따	
32270-0-1	'무치-(和 나물을)-지 -고 - 더라'	무'치고	
32270-0-2	'무치-(和 나물을)-아/어도 - 아/어서 -왔/었다'	무'칠따	
32271-0-1	'죄:-(締)-지 -고 -더라'	조'우고	
32271-0-2	'죄:-(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조'왈따	
32272-0-1	'팔-(賣)-지 -고 -더라'	팔'고'	
32272-0-2	'팔-(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파'란'따	
32273-0-1	'뽑-(選)-지 -고 -더라'	뽑'꼬'	
32273-0-2	'뽑-(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뽑'받'따	
32274-0-1	'뒤지-(索)-지 -고 -더라'	디지'고	
32274-0-2	'뒤지-(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디지'일따	
32275-0-1	'마치-(終)-지 -고 -더라'	마'치고	
32275-0-2	'마치-(終)-아/어도 -아/어서	마'칠따	

-왔/었다'
 32276-0-1 '절이-(鹽)-지 -고 -더라' 제'리고
 32276-0-2 '절이-(鹽)-아/어도 -아/어서 제'릴따
 -왔/었다'
 32277-0-1 '휘-(曲)-지 -고 -더라' 후이'고
 32277-0-2 '휘-(曲)-아/어도 -아/어서 - 후인'따
 왔/었다'
 32278-0-1 '줍:-(拾)-지 -고 -더라' 죽꼬'
 32278-0-2 '줍:-(拾)-아/어도 -아/어서 주'운따
 -왔/었다'
 32279-0-1 '빼앗-(奪)-지 -고 -더라' 빼끌'고
 32279-0-2 '빼앗-(奪)-아/어도 -아/어서 빼끄'란'따
 -왔/었다'
 32280-0-1 '기울-(傾)-지 -고 -더라' 지'울고
 32280-0-2 '기울-(傾)-아/어도 -아/어서 지울'릴'따
 -왔/었다'
 32281-0-1 '아깝-(惜)-지 -고 -더라' 아깝'꼬
 32281-0-2 '아깝-(惜)-아/어도 -아/어서 아까'받'따
 -왔/었다'
 32282-0-1 '반갑-(歡)-지 -고 -더라' 방'각'꼬
 32282-0-2 '반갑-(歡)-아/어도 -아/어서 방'가'받따
 -왔/었다'
 32283-0-1 '찌-(蒸)-지 -고 -더라' 찌'고
 32283-0-2 '찌-(蒸)-아/어도 -아/어서 - 찌'만'따'
 왔/었다'
 32284-0-1 '노랑-(黃)-지 -고 -더라' 노라'코
 32284-0-2 '노랑-(黃)-아/어도 -아/어서 노랜'따
 -왔/었다'
 32285-0-1 '푸르-(靑)-지 -고 -더라' 푸'리고
 32285-0-2 '푸르-(靑)-아/어도 -아/어서 푸'릴따
 -왔/었다'
 32286-0-1 '서두르-(忙)-지 -고 -더라' 서둘'고
 32286-0-2 '서두르-(忙)-아/어도 -아/어 서두'릴'따
 서 -왔/었다'
 32287-0-1 '서투르-(不熟)-지 -고 -더 서'틀'고
 라'
 32287-0-2 '서투르-(不熟)-아/어도 -아/ 서투'릴'따
 어서 -왔/었다'
 32288-0-1 '게으르-(怠)-지 -고 -더라' 깨'엘'박'꼬
 32288-0-1 '게으르-(怠)-지 -고 -더라' 깨'엘'코
 32288-0-2 '게으르-(怠)-아/어도 -아/어 깨'애'랜'따
 서 -왔/었다'
 32288-0-2 '게으르-(怠)-아/어도 -아/어 깰'바'살'따
 서 -왔/었다'
 32289-0-1 '따뜻하-(溫)-지 -고 -더라' 따'뜻'하'고
 32289-0-2 '따뜻하-(溫)-아/어도 -아/어 따'뜻'헐'따
 서 -왔/었다'
 32290-0-1 '춥-(寒)-지 -고 -더라' 춥'꼬
 32290-0-2 '춥-(寒)-아/어도 -아/어서 - 추'번'따
 왔/었다'

32291-0-1	'뜨겁-(極熱)-지 -고 -더라'	끄적'꼬
32291-0-2	'뜨겁-(極熱)-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뜨거받'따
32292-0-1	'미지근하-(微溫)-지 -고 - 더라'	미지근하'고
32292-0-2	'미지근하-(微溫)-아/어도 -아/ /어서 -왔/었다'	미지근헐'따
32293-0-1	'차갑-(寒)-지 -고 -더라'	착'꼬'
32293-0-2	'차갑-(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차'받'따
32294-0-1	'부럽-(羨)-지 -고 -더라'	북'꼬
32294-0-2	'부럽-(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별'따
32295-0-1	'알뜰-(憎)-지 -고 -더라'	알뜰'꼬
32295-0-2	'알뜰-(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알미별'따
32296-0-1	'비슷하-(類似)-지 -고 -더 라'	비슷하'고
32296-0-2	'비슷하-(類似)-아/어도 -아/ 어서 -왔/었다'	비슷헐'따
32297-0-1	'새롭-(新)-지 -고 -더라'	새'롭'꼬
32297-0-2	'새롭-(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새'러'별'따
32298-0-1	'서:럽-(悲痛)-지 -고 -더라'	서럽'꼬'
32298-0-2	'서:럽-(悲痛)-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서러'받'따
32299-0-1	'까다롭-(難)-지 -고 -더라'	깨'까'더럽'꼬'
32299-0-2	'까다롭-(難)-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깨'까'더'러'별'따
32300-0-1	'외롭-(孤)-지 -고 -더라'	에'럽'꼬
32300-0-2	'외롭-(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에'러'받'따
32301-0-1	'아쉽-(不滿)-지 -고 -더라'	아쉽'꼬
32301-0-2	'아쉽-(不滿)-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아시별'따
32302-0-1	'단단하-(固)-지 -고 -더라'	단단하'고
32302-0-2	'단단하-(固)-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단단헐'따
32303-0-1	'늦-(晚)-지 -고 -더라'	늑'꼬
32303-0-2	'늦-(晚)-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느'전'따
32304-0-1	'남:-(餘)-지 -고 -더라'	남'꼬'
32304-0-2	'남:-(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맡'따
32305-0-1	'남기-(使餘)-지 -고 -더라'	남구'고
32305-0-2	'남기-(使餘)-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남간'따
32306-0-1	'넘어뜨리-(使倒)-지 -고 - 더라'	바빨티'리고
32306-0-2	'넘어뜨리-(使倒)-아/어도 -아 자빨티'릴'따	

	/어서 -았/었다'		
32307-0-1	'쭈그러뜨리-(使凹)-지 -고 -더라'	쭈갈티리'고	
32307-0-2	'쭈그러뜨리-(使凹)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쭈갈티릴'따	
32308-0-1	'견주-(比)-지 -고 -더라'	전주'고	
32308-0-2	'견주-(比)-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전잔'따	
32309-0-1	'외우-(誦)-지 -고 -더라'	에'우고	
32309-0-2	'외우-(誦)-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에'완따	
32310-0-1	'문지르-(摩)-지 -고 -더라'	문때'고	
32310-0-2	'문지르-(摩)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문땡'따	
32311-0-1	'가리키-(指)-지 -고 -더라'	가리치'고	
32311-0-1	'가리키-(指)-지 -고 -더라'	갈키'고	
32311-0-2	'가리키-(指)-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가리칠'따	
32311-0-2	'가리키-(指)-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갈킨'따	
32312-0-1	'가르치-(敎)-지 -고 -더라'	가리치'고	
32312-0-1	'가르치-(敎)-지 -고 -더라'	갈키'고	
32312-0-2	'가르치-(敎)-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가리칠'따	
32312-0-2	'가르치-(敎)-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갈킨'따	
32313-0-1	'겨누-(照準)-지 -고 -더라'	꼬'내고	
32313-0-2	'겨누-(照準)-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꼬넨'따	
32314-0-1	'겨루-(競)-지 -고 -더라'	전주'고	
32314-0-2	'겨루-(競)-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전잔'따	
32315-0-1	'달래-(慰撫)-지 -고 -더라'	달개'고	
32315-0-2	'달래-(慰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달깁'따	
32316-0-1	'본받-(效)-지 -고 -더라'	뽐보'고	
32316-0-2	'본받-(效)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뽐받'따	
32317-0-1	'어지르-(散)-지 -고 -더라'	어'지'리고	
32317-0-2	'어지르-(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어'지'릴'따	
32318-0-1	'달리-(走)-지 -고 -더라'	달'리고	
32318-0-2	'달리-(走)-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달'릴'따	
32319-0-1	'우기-(拗)-지 -고 -더라'	췌'우고	
32319-0-2	'우기-(拗)-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췌'윰'따	
32320-0-1	'중얼거리-(獨言)-지 -고 -더라'	구싱기'리고	
32320-0-2	'중얼거리-(獨言)-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구싱기'릴'따	

	/어서 -왔/었다'	
32321-0-1	'지껄이-(騷)-지 -고 -더라'	찌꺼리'고
32321-0-2	'지껄이-(騷)-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찌꺼릴'따
32322-0-1	'다니-(行)-지 -고 -더라'	댕'기도
32322-0-2	'다니-(行)-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댕'길따
32323-0-1	'떨어뜨리-(使落)-지 -고 - 더라'	널쭈'고
32323-0-2	'떨어뜨리-(使落)-아/어도 -아 /어서 -왔/었다'	널쭈'따
32324-0-1	'깨-(覺)-지 -고 -더라'	깨'고'
32324-0-2	'깨-(覺)-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깨'얌'따
32325-0-1	'시-(酸)-지 -고 -더라'	시'고
32325-0-2	'시-(酸)-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시'일따
32326-0-1	'슛-(湧)-지 -고 -더라'	슛'꼬
32326-0-2	'슛-(湧)-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소'살따
32327-0-1	'좋:-(好)-지 -고 -더라'	족코'
32327-0-2	'좋:-(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조왈'따'
32328-0-1	'빨강-(赤)-지 -고 -더라'	빨각'코
32328-0-2	'빨강-(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빨깁'따
32329-0-1	'끌:-(曳)-지 -고 -더라'	끌'꼬'
32329-0-2	'끌:-(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일따
32330-0-1	'얇:-(薄)-지 -고 -더라'	넙'꼬
32330-0-2	'얇:-(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넙'번따
32331-0-1	'하얇-(白)-지 -고 -더라'	하야'코'
32331-0-2	'하얇-(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하헐'따

3.2.2. 곡용

32332-0-1	국(羹)-이/가	구'기
32332-0-2	국(羹)-을/를	구'글
32332-0-3	국(羹)-에(서)	구'게
32332-0-4	국(羹)-으로	구'그로
32332-0-5	국(羹)-도	국'또
32333-0-1	논(沓)-이/가	노'니'
32333-0-2	논(沓)-을/를	노'늘'
32333-0-3	논(沓)-에(서)	노'네서
32333-0-4	논(沓)-으로	노'느'로

32333-0-5	논(沓)-도	논'도'
32334-0-1	쌀(米)-이/가	싸'리'
32334-0-2	쌀(米)-을/를	쌀'로'
32334-0-3	쌀(米)-에(서)	싸'레
32334-0-4	쌀(米)-으로	쌀'로'
32334-0-5	쌀(米)-도	쌀'도'
32335-0-1	봄(春)-이/가	보'미'
32335-0-2	봄(春)-을/를	보'믈'
32335-0-3	봄(春)-에(서)	보'메
32335-0-4	봄(春)-으로	보'므'로
32335-0-5	봄(春)-도	봄'도'
32336-0-1	집(家)-이/가	지'비
32336-0-2	집(家)-을/를	지'블
32336-0-3	집(家)-에(서)	지'베
32336-0-4	집(家)-으로	지'브로
32336-0-5	집(家)-도	집'또
32337-0-1	옷(衣)-이/가	오'시'
32337-0-2	옷(衣)-을/를	오'슬'
32337-0-3	옷(衣)-에(서)	오'세서
32337-0-4	옷(衣)-으로	오'스'로
32337-0-5	옷(衣)-도	온'또'
32338-0-1	방(房)-이/가	방'이
32338-0-2	방(房)-을/를	방'을
32338-0-3	방(房)-에(서)	방'에서
32338-0-4	방(房)-으로	방'으로
32338-0-5	방(房)-도	방'도
32339-0-1	낮(晝)-이/가	나제'가
32339-0-2	낮(晝)-을/를	나제'로
32339-0-3	낮(晝)-에(서)	나제'
32339-0-4	낮(晝)-으로	나제'로
32339-0-5	낮(晝)-도	나제'도
32340-0-1	낯(顔)-이/가	나'치
32340-0-2	낯(顔)-을/를	나'틀
32340-0-3	낯(顔)-에(서)	나'테
32340-0-4	낯(顔)-으로	나'트로
32340-0-5	낯(顔)-도	낯'또
32341-0-1	부엌(廚)-이/가	부서'키
32341-0-2	부엌(廚)-을/를	부서'클
32341-0-3	부엌(廚)-에(서)	부서케'서
32341-0-4	부엌(廚)-으로	부서크'로
32341-0-5	부엌(廚)-도	부석'또
32342-0-1	밭(田)-이/가	마'치
32342-0-2	밭(田)-을/를	마'틀
32342-0-3	밭(田)-에(서)	마'테서
32342-0-4	밭(田)-으로	마'트로
32342-0-5	밭(田)-도	밭'또
32343-0-1	앞(前)-이/가	아'피
32343-0-2	앞(前)-을/를	아'플
32343-0-3	앞(前)-에(서)	아'페서
32343-0-4	앞(前)-으로	아'프로

32343-0-5	앞(前)-도	압'또
32344-0-1	넋(魂)-이/가	넋'씨
32344-0-2	넋(魂)-을/를	넋'쓸
32344-0-3	넋(魂)-에(서)	넋'썰
32344-0-4	넋(魂)-으로	*
32344-0-5	넋(魂)-도	넋'또
32345-0-1	흙(土)-이/가	흐'키
32345-0-2	흙(土)-을/를	흐'클
32345-0-3	흙(土)-에(서)	흐'케
32345-0-4	흙(土)-으로	흐'크로
32345-0-5	흙(土)-도	흑'또
32346-0-1	여덟(八)-이/가	여'더리
32346-0-2	여덟(八)-을/를	여'덜로
32346-0-3	여덟(八)-에(서)	여'더'레서
32346-0-4	여덟(八)-으로	여'덜로
32346-0-5	여덟(八)-도	여'덜또
32347-0-1	돌(遇歲)-이/가	돌'시'가
32347-0-2	돌(遇歲)-을/를	돌'시'로
32347-0-3	돌(遇歲)-에(서)	돌'시'에
32347-0-4	돌(遇歲)-으로	돌'시'로
32347-0-5	돌(遇歲)-도	돌'시'도
32348-0-1	값(價)-이/가	갑'씨'
32348-0-2	값(價)-을/를	갑'쓸'
32348-0-3	값(價)-에(서)	갑'썰'
32348-0-4	값(價)-으로	갑'쓰'로
32348-0-5	값(價)-도	갑'또'
32349-0-1	속:(內)-이/가	쏘':기
32349-0-2	속:(內)-을/를	쏘':글
32349-0-3	속:(內)-에(서)	쏘':게는
32349-0-4	속:(內)-으로	쏘':그로
32349-0-5	속:(內)-도	썩':또
32350-0-1	돈:(錢)-이/가	도니'
32350-0-2	돈:(錢)-을/를	도늘'
32350-0-3	돈:(錢)-에(서)	도네'서
32350-0-4	돈:(錢)-으로	도:느'로
32350-0-5	돈:(錢)-도	돈도'
32351-0-1	발(足)-이/가	바'리'
32351-0-2	발(足)-을/를	발'로'
32351-0-3	발(足)-에(서)	바'레
32351-0-4	발(足)-으로	발'로'
32351-0-5	발(足)-도	발'도'
32352-0-1	짐(荷物)-이/가	지'미'
32352-0-2	짐(荷物)-을/를	지'믈'
32352-0-3	짐(荷物)-에(서)	지'메
32352-0-4	짐(荷物)-으로	지'므'로
32352-0-5	짐(荷物)-도	짐'도'
32353-0-1	입(口)-이/가	이'비'
32353-0-2	입(口)-을/를	이'블'
32353-0-3	입(口)-에(서)	이'뻬'서
32353-0-4	입(口)-으로	이'브'로

32353-0-5	입(口)-도	입'또'
32354-0-1	낫(鎌)-이/가	나'치'
32354-0-2	낫(鎌)-을/를	나'틀'
32354-0-3	낫(鎌)-에(서)	나'테
32354-0-4	낫(鎌)-으로	나'트'로
32354-0-5	낫(鎌)-도	낫'또'
32355-0-1	강(江)-이/가	강'이'
32355-0-2	강(江)-을/를	강'을'
32355-0-3	강(江)-에(서)	강'에'
32355-0-4	강(江)-으로	강'으'로
32355-0-5	강(江)-도	강'도'
32356-0-1	젖(乳)-이/가	저'시'
32356-0-2	젖(乳)-을/를	저'슬'
32356-0-3	젖(乳)-에(서)	저'세'서
32356-0-4	젖(乳)-으로	저'스'로
32356-0-5	젖(乳)-도	젖'또'
32357-0-1	꽃(花)-이/가	꼬'치
32357-0-2	꽃(花)-을/를	꼬'틀'
32357-0-3	꽃(花)-에(서)	꼬'테'서
32357-0-4	꽃(花)-으로	꼬'트'로
32357-0-5	꽃(花)-도	꽃'또'
32358-0-1	팥(赤豆)-이/가	포'치'
32358-0-2	팥(赤豆)-을/를	포'틀'
32358-0-3	팥(赤豆)-에(서)	포'테
32358-0-4	팥(赤豆)-으로	포'트'로
32358-0-5	팥(赤豆)-도	팥'또'
32359-0-1	옆(側)-이/가	여'피
32359-0-2	옆(側)-을/를	여'플
32359-0-3	옆(側)-에(서)	여'페
32359-0-4	옆(側)-으로	여'프로
32359-0-5	옆(側)-도	옆'또'
32360-0-1	삯(賃金)-이/가	싸'기
32360-0-2	삯(賃金)-을/를	싸'글
32360-0-3	삯(賃金)-에(서)	싸'게
32360-0-4	삯(賃金)-으로	싸'그로
32360-0-5	삯(賃金)-도	싸'또'
32361-0-1	닭(鷄)-이/가	다'키
32361-0-2	닭(鷄)-을/를	다'클
32361-0-3	닭(鷄)-에(서)	다'케
32361-0-4	닭(鷄)-으로	다'크'로
32361-0-5	닭(鷄)-도	닭'또'
32362-0-1	밖(外)-이/가	마'가'치
32362-0-2	밖(外)-을/를	마'가'틀
32362-0-3	밖(外)-에(서)	마'가'테
32362-0-4	밖(外)-으로	마'가'트'로
32362-0-5	밖(外)-도	마'가'또'

제4편 문법

4.1. 대명사

4.1.1. 인칭대명사

40101	나	나
40101-0-1	내-가	내'가'
40101-0-2	내	내' 물'건
40101-0-3	나-를	날로'
40101-0-4	나-에게	날로', 내한'테
40101-0-5	나-와	내하'고
40101-0-6	나-는	나'는
40101-0-7	나-도	나'도
40102	저/제-가	제가'
40102-0-1	저-가	제가'
40102-0-2	저-의	제물'건'
40102-0-3	저-을/를	젤:로'
40102-0-4	저-에게	제한'테
40102-0-5	저-와/과	제하'고
40102-0-6	저-는	저'는
40102-0-7	저-도	저'도
40103	우리	우리'
40104	저희	저'들
40105	너	니:
40105-0-1	-가	니가'
40105-0-2	-의	니 물'젠'
40105-0-3	-을/를	닐로'
40105-0-4	-에게	닐로', 니한'테
40105-0-5	-와/과	니하'고
40105-0-6	-는	니'는
40105-0-7	-도	니'도
40106	자네	자네'
40107	당신	당신'
40108	너희	너거 아부'지
40109	개	가'가
40109	개	가':가
40109-1	애	야':가
40109-2	재	자':가
40110	자기	지'
40111	당신	자'기'

4.1.2. 의문대명사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누가' 완'노?, 니가' 완'노?, 니'고'?, 누'고'?
40112-0-1	누-가	누가' 깐'노?(+ 버), 니가' 깐'노?(+ 머)
40112-0-2	누구-의	니'도'니고
40112-0-3	누구-를	닐로'
40112-0-4	누구-에게	닐로', 니'한'테'
40112-0-5	누구-와	니랑', 누구'랑, 누'구'하고, 니'하'고
40113	무엇-이냐/입니까	머시'고?(+ 머), 머꼬'?(+ 머), 머'어꼬?(+ 버)
40113-0-1	무엇-이	머이'(+ 머), 머얻'(+ 버)
40113-0-2	무슨	머슨'
40113-0-3	무엇-을	머
40113-0-4	무엇-과	머하'고'

4.1.3 그 밖의 의문사

40114	어디	오데'
40115	언제	운제'
40116	어느	우똔', 어느'
40117	왜	와
40118	얼마나	얼매'나', 얼마'나'
40119	어떻게	우찌', 어떠'케', 우떠'케'

4.1.4.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40120	이것	이'거'는, 요'고'는
40121	그것	그거'는
40122	저것	저'거'는
40123	여기	여'어로, 여'게로
40124	거기	그'어로, 그'게로
40125	저기	저'어로, 저'게로
40126	이리	이'리'
40127	그리	그'리'
40128	저리	저'리'

4.2. 조사

4.2.1. 격조사

40201	-이/가	갑'씨'
-------	------	------

40202	-이/가	코'가'
40203	-을/를	기'를'
40204	-을/를	물'로'
40205	-에게/게	사'람'한테
40206	-보고/더러	널로'보'고
40207	-보고/더러	널로보'고
40208	-에	지'브로
40208	-에	지'베
40209	-에	다'으메
40210	-에서	큰'지'베서
40211	-에서	서우레'서'
40212	-에서	여'게서
40213	-으로	참쌀'로
40214	-으로	지'프'로
40215	-으로	새'끼'로
40216	-으로	오데'로'
40217	-와/과	수박하'고 차'메를
40218	-와/과	내'랑
40219.	-보다	새'~이카마
40220	-처럼	대:지 매'~이로
40221	-만큼	니마'침'
40222	-만큼	무울 마'침
40223	-아/야	봉'나'마
40224	-아/야	봉'나'미
40225	-아/야	영'수야
40226	-아/야	누운'님
40226-1	-예	누'님네{누'님+ 예}
40227	-아/야	할'배'(+ 구)
40227-1	-요	*
40228	-이랑	수라'고 고'기하고(+ 버)
40228	-이랑	수'리랑 고'기랑(+ 머)
40229	-커녕	마너리라커'니(+ 버)
40229	-커녕	마너리라커'~이(+ 머)

4.2.2. 보조사

40230	-은/는	수'른, 담배'는'
40231	-만	딸'마'
40232	-도	키'도', 얼굴'도'
40233	-마다	날'마'당
40234	-부터	오'~올부터
40235	-까지	내'엘꺼'정
40236	-조차	물'조'창
40236-1	-할라	*
40237	-이야/야	마리'사
40238	-을랑	*
40239	-이라도	부자라'도'

40240	-밖에	너'빠'끼는
40241	-가지고	싸'가':

4.2.3. 문장 뒤 조사

40242	오'라-고 한다	오'라'쿤다
40243	알'았어-요	아'라'씨예
40244	했'지-요?	해'씨예?

4.3. 종결어미

4.3.1. 명령법

40301	-아라	양'꺼'라
40301	-아라	안'저'라
40302	-게	양'께
40303	-으오	안'즈이'소'
40303	-으오	안'지시'오
40304	-으'십시오	안'지시'오
40304	-으'십시오	안'즈이'소'
40305	-세요	안'즈이'소'

4.3.2. 청유법

40306	-자	가'자
40307	-세	가'세
40308	-으오	가'입'시더
40309	-십시다	가'시'지요
40309	-십시다	가'입'시더
40310	-세요	가'시'지요
40310	-세요	가'입'시더

4.3.3. 의문법

40311	-니	오'나'
40312	-나	오'나'
40312	-나	오'능'가

40313	-오	옴'니'꺼
40314	-습니까	옴'니'꺼
40315	-나요	옴'니'꺼
40316	-니	가'노
40317	-나	가'능'고
40318	-시오	가심니'까
40318	-시오	가심니'꺼
40319	-십니까	가심니'까
40319	-십니까	가심니'꺼
40320	-세요	가심니'까
40320	-세요	가심니'꺼

4.3.4. 서술법

40321	-는다	뭉는'다
40322	-네	뭉'네
40323	-오	목심니'다
40323	-오	목슴니'더
40324	-습니다	목심니'다
40324	-습니다	목슴니'더
40325	-네요	목심니'다
40325	-네요	목슴니'더
40326	-다	작따'
40327	-네	장네'
40328	-소	작슴니'다'
40328	-소	작슴니'더
40329	-으십니다	작심니'다'
40329	-으십니다	작슴니'더
40330	-으세요	작심니'다'
40330	-으세요	작심니'더

4.3.5. 반말

40331	-아	아'파
40332	-지	갈끼'제

4.3.6. -이다

40333	-이다	생'아'리다(생'알'+ 이다)
40334	-이니	생아리가(생'알'+ 이가)
40334	-이니	생'알'가
40335	-이네	생'아'리네

40336	-인가	생'아'링가
40337	-이오	생'아'릅니더
40337	-이오	생'아'릅니더
40338	-이오	생'아'릅니까
40338	-이오	생'아'리요
40338	-이오	생'아'릅니꺼
40338	-이오	생'아'리요
40339	-입니다.	생'신'입니다
40339	-입니다.	생'신'임니더
40340	-입니다	생'신'임니까
40340	-입니다	생'신'임니꺼
40341	-이시지요	생'신'입니다
40341	-이시지요	생'신'임니더
40342	-이시지요	생'신'임니까
40342	-이시지요	생'신'임니꺼
40343	-이냐?	머꼬'
40344	-인가?	머싱'가
40345	-이오?	머시'요
40346	-입니다?	머심니'까
40347	-인가요?	머심니'꺼?
40347	-인가요?	머심니'꺼
40348	-이야?	머어'꼬(+ 버)
40348	-이야?	머이'고{+ 머}
40348	-이야?	머꼬'(+ 머)
40348	-이야?	머시'고(+ 머)
40349	-이어요?	머시'요
40349	-이어요?	머이'요

4.3.7. 그 밖의 종결어미

40350	-습니다	만썰'니더
40351	-습디다	만썰'디더
40352	-는구나/구나	몽'네
40352	-는구나/구나	몽능구'나
40353	-는구먼/구먼	*
40354	-일세	오래마'닐'쎄(오래만+ 일쎄)
40355	-으마	가'프께
40356	-음세	가'프께
40357	-을라	다'칠라

4.4. 연결어미

40401	-고/-고서	묵'꼬
40402	-으면서	봄'섬
40403	-어/-어서	추'버'서
40404	-으니 /-으니까	따싱'께'
40405	-관데	이리길'레'
40406	-다가	오'다'가
40407	-거든	만'내'거등
40408	-더라도	묵'떠'래'도
40409	-으려고	무'울'라'꼬
40410	-도록	서'숙'모'감'지
40410	-도록	서'숙'이'삭'
40410	-도록	빠'지'두'루, 죽'뚜'룩
40411	-을수록	쭈'시'
40411	-을수록	노'폴'수'룩, 노'폴'수'루
40412	-듯이	쭈'시'쭈'
40412	-듯이	씨'디'끼
40413	-지	강'내'~이
40413	-지	보'제, 보'지

4.5. 주체 존대

40501	-셔	오'이'라, 오'니'라, 오'소'
40502	-셨소	해'썸'니'꺼

4.6. 시제

40601	웃는다	인:는'다'
40602	기어간다	기:간'다'
40603	크다	크'다'
40604	생일이다	생'아'리다
40605	오고 있다	오'고'인'따
40606	먹었니?/잡수셨습니까?	무'운'나, 잡'사'심'니'꺼
40607	왔었다	완'따':간'따'
40608	먹더라	묵'떠'라
40609	먹더냐	묵'떠'나
40610	만나는 친구	만'내'는, 만'내'느
40611	만난 친구	만'넌
40612	만났던 친구	만'넌, 만'내'편
40613	만날 친구	만'넌

40614	큰 아이	키'큰'
40615	크던 아이	보'던' ※ '보다'로써 질문
40616	켰던 아이	받'':뎌' ※ '보다'로써 질문
40617	마시지 않겠다	※ 미조사
40618	비가 오겠다	※ 미조사

4.7. 부정

40701	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안'중 안무'웁'따, 안'중 안무'겜'따, 안'중 안무'굳'따, 안'중 목'찌' 안해'따
40702	안 좋다/좋지 않다	안조'타', 조치는 안하'다, 조치 안'타
40703	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깨끗 안 하다	앙깨끗'따, 깨끗'치는 안하'다
40704	장가 안 갔다/장가가지 않았다	앙간'따, *, *
40705	만나 보지 않았다/안 만나 보았다/만나 안 보았다	안만'넌'따, 만나지 안해'따(+ 드뭇)
40706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목'찌도 아나'고
40706-1	먹도 않고	목따 아나'고
40707	못 마신다/마시지 못한다	몬마'신'다
40708	맞잖소?/안 맞소?	안마'소?, 마'찌요?

4.8. 사동과 피동

4.8.1. 사동

40801	살리다	살'린따
40802	늘리다	늘'린(:)따
40803	말리다1	말랴'따
40804	말리다2	말'길따, 말'린'따
40805	열리다	어'란'따
40806	녹이다	노'칸'따
40807	신기다	싱'킨따
40808	보이다	비'인'따
40809	알리다	알'린따
40810	입히다	이'핀따
40811	얹히다	안'칠따
40812	벗기다	베'깁따

40813	웃기다	이'끼따
40814	씩히다	서'쑤'따
40815	숨기다	싱'깁따
40816	끓기다	깁'깁따
40817	깨우다	깨'뻔'따
40818	돈우다	도'깁'따

4.8.2. 피동

40819	잡히다	재'뵈'따
40820	깎이다	깨'깁'따
40821	끼이다	치'인'따
40822	떼이다	떼'인'따
40823	채이다	채'인'따
40824	단히다	대'깁'따
40825	들리다	드'깁'다
40826	업히다	에'뵈'따
40827	바뀌다	배'깁'따
40828	씹히다	시'뵈'다
40829	엎히다	매'깁'따, 언'친'따
40830	찍히다	쪼'깁'따
40831	눌리다	눌'린'따, 치'인'따
40832	실리다	실'린'따
40833	끓기다	끈'친'따
40834	끓히다	글'깁'따

4.9. 보조용언

40901	싶다	마'꼬 저'뵈'기
40902	싶다	이'깁'는데
40903	보다	보'이'소
40904	버리다	무우 뻔'네
40905	대다	우러 산'는'다
40906	-나/는가 보다	올'랑'갑'따'
40907	-나/는가 보다	자'능'갑'따
40908	-나/는가 보다	추'뵈'갑'따

4.10. 부사

41001	실컷	실:퀸'
41002	많이	마이'
41003	너무	너무'
41004	조금	쫘매'마
41005	자주	자'주
41006	빨리	빨'리
41007	얼른	얼른'
41008	기어코	기어'니
41009	가끔	가끔'
41010	먼저	먼침'
41011	나중에	난:중'에
41012	가득	가뜩', 항거'서, 항거'석
41013	몽땅	몽'땅' 다
41014	모조리	모조'리, 점':부, 싹:, 말키', 몽땅'
41015	혼자	혼'채
41016	항상	늘:, 언제든'지', 항':상', 만날'
41017	똑똑히	똑또'끼
41018	겨우	보도':시, 제우', 긍그'~이'
41019	늘	늘:
41020	저절로	지질'로
41021	자꾸	자:꾸'
41022	설마	서'마'드라, 설'마'드라
41023	하마터면	까딱그'르'모(+ 머), 까뻥그'르'모(+ 버), 쫘꾸 다'라'모(+ 버), 쫘꾸드'라'모(+ 머)
41024	함께	항꾸'네
41025	걸핏하면	꼬'뜩'꼬르모
41026	공연히	무여':니', 개:니'
41027	그냥	그'냥, 빙결'로'
41028	매우	테:기'
41029	곧장	*
41030	벌써	벌써'로
41031	가장	제엘'
41032	가만히	가마'니'
41033	미리	미'리
41034	이따금	가끔'

4.11. 관용적 표현

4.11.1. 관용구

41101	여보	저가부'지(+ 아내가 남편에게), 아요'(+ 아기
-------	----	-----------------------------

		있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 머), 주'구'매 (+ 아기 있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 머)
41102	여보세요	아'이 보'소'
41103	들어가요	드러가'이'소
41104	수고하세요	욕 바'아'쑈(+ 머), 잘 계시'이'소(+ 머), 잘 이시'소(+ 머)
41105	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의 인 사말	참 방'갑'따, 오래마'이'다
41106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 른에게 하는 인사말	아적 자이심'니'꺼
41107	오랜만에 찾아 뵈 어른에게 큰 절을 올리면서 하는 말	어르신 오래마'임'니다
41108	여기 있습니다	여'게 이쭈니다, 돈 바'드'이소
41109	예	예
41110	아니	으~으':
41111	아무렇지도 않다	개'안'타(+ 머), 갠:찬'타(+ 머), 아무치도 안 한'다
41112	내버려 뒀	나 또':라, 내비도':라
41113	'개나 소나 개나 소나 차를 몰 고 다닌다'	대'나'개나'

4.11.2. 속담

41114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미빠진 도'게' 물'북'끼다
41115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바'늘 도도'기 소' 도'둑 텨'다
41116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나랴	안 때는 굴뚝게 영'기 나'나'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추진 위원회

- ◆ 위 원 장 이 기 갑 (목 포 대 학 교)
- ◆ 위 원 강 영 봉 (제 주 대 학 교)
- ◆ 위 원 김 무 식 (경 성 대 학 교)
- ◆ 위 원 김 봉 국 (부산교육대학교)
- ◆ 위 원 김 정 대 (경 남 대 학 교)
- ◆ 위 원 박 경 래 (세 명 대 학 교)
- ◆ 위 원 소 강 춘 (전 주 대 학 교)
- ◆ 위 원 한 영 목 (충 남 대 학 교)
- ◆ 자문위원 최 명 옥 (서 울 대 학 교)
- ◆ 자문위원 홍 윤 표 (연 세 대 학 교)

